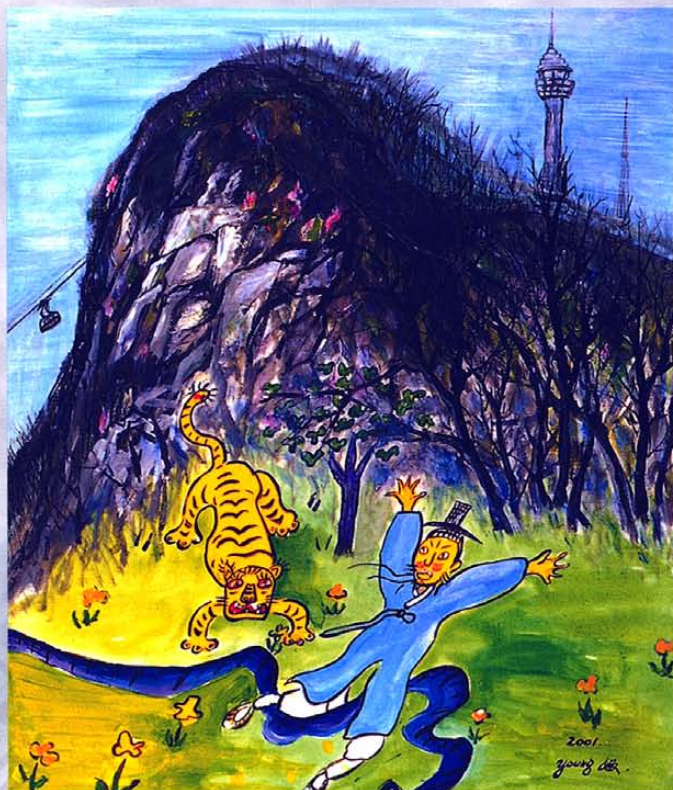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 제6집

중구의 구전설화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 제6집

중구의 구전설화

표지글씨 : 白江 李泰熙

표지그림 : 서 영 숙



우리는 옛 부터 전해오는 유, 무형의 자료들을 찾아 후세에 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2년여 동안 연세 많으신 어르신네를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희미하신 기억들을 들추어 내시도록 노력하는 한편 입에서 입으로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담겨진 내용들이 다소 과장된 듯 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하여 아리송한 내용들, 선현들의 해학과 익살스러움 때문에 웃지 않고는 책장을 넘길 수 없는 대목들, 으시시한 이야기들, 어데선가 한 번쯤 들어 본듯한 이야기거리 등으로 엮은 한 권의 책이므로 보는 이의 공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역사속으로 사라져 잊혀지기 쉬운 내용들을 비교적 소상히 전해주시는 어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던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원고를 쓰고 고문헌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고증을 해주신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김선풍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후세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동일 중구 청장님과 김영한 중구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01. 1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원장 김 영 남



축 사

우리 중구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과거의 민담, 야사, 설화 등을 토박이 주민, 경로당 등을 탐방, 녹취작업을 통해 자료를 수집 정리해 향토사 자료 6집으로 발행했습니다. 2년여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전래구전을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신 토박이 주민과 경노당의 어르신들은 살아 있는 중구의 역사이자 중구의 옛모습을 현재로 끌어내 주신 산 증인들이십니다.

구전문학(口傳文學)은 말로 된 문학으로 우리가 통상 접하는 글로 된 문학인 기록문학(記錄文學)과 구별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들던 전설, 민요, 수수께끼 등이 구전문학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구전문학의 내용은 우리 일상의 모습과 정서를 담고 있으며 단순하며 보편적이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즉 글을 알지 못해도 즐길 수 있는 민중적인 문학이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민족적인 문학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민족문학이 사장돼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0년 10월 중구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회에서 구전문학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구전문학을 기록으로 남기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 첨단시대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민족정신이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다음 세대에도 좋은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동안 책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2001. 1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축 사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중구에서 내려오는 각종 설화 및 전설 등 문학의 소재가 될 사항들을 2개년에 걸쳐서 수집하고 발굴하여 향토사료집으로 펴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문화원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1세기 물질문명의 발달로 단절되기 쉬운 구전들을 고령의 분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수집, 발굴하여 책으로 남기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굴한 것 외에도 그런 소재가 있으면 더욱 찾아내고 보완해서 중구문화원이 우리 중구 향토연구의 산실로서 향토사료 발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구전설화》가 우리 중구민의 긍지와 자신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집 발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신 김영남 중구문화원장님과 중앙대 민속학과 김선흥 교수님, 향토사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중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1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위원장

설화는 민족성을 담은 그릇이다. 그리하여 연구하는 이들은 늘 설화 문학을 중요시하여 각 민족마다 자국의 구전설화를 채록하고 그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설화지도까지 작성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화소(話素)와 유형(類型)의 분석을 통해 민족의 뿌리를 찾아 나가기도 하였다.

본 《중구의 구전설화》집은 크게 보아 한국설화의 한 가지에 불외하지만, 중구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 특소(Oykotype)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싶다. 지역문화 특소는 그 지역에서만 찾을 수 있는 타 지역과 다른 변별적 문화언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의식이 족해야 문화를 운운한다. 이제 먹을 것 입을 것이 충족한 사회가 되었으니 우리 중구만의 것—중구의 언어문화—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중구 남대문시장은 이미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조(豫兆)는 이미 연암 박지원의 작품《허생전》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연암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외친 학자이다. 그는 남산의 샌님이 깨어야 이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다는 점을 소설을 통해 일찍부터 역설하고 있다.

《청구야담》에 있는 〈독역(讀易)과 치산(治産)〉 이야기도 문학의 갈래만 다를 뿐《허생전》과 궤(軌)를 같이 하는 야담이라 할 수 있다.

허생을 통해 중상주의(重商主義)사상을 엿볼 수 있으나 남산골 양반답게 돈만 아는 속물근성에 빠진 인물은 아니었다. 돈이 없어 가난했기에 아내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10년 독서의 계획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치부를 했으나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다. 돈 때문에 인간성을 유린당하기 보다 그는 돈을 벌어서 그와는 반대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오히려 돈을 유린하고 있는 이상주의자로 부각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남산골 양반들의 자존심이요, 중구민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우리 속담에 “남산골 샌님“, “남산골 딸깍발이”란 말이 있다. 옛날 서울 남산골에는 영락하고 관직도 없는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빈궁할지언정 자존심이 강한 민초들이었다. 또한 부정부패나 불의를 용서치 않고 항시 이상주의에 젖어 살아가는 인물들이고 보니 <정수동 설화> 같은 이인 설화 발생도 실은 이로 말미암는다.

더군다나 남산에는 호국의 신화가 서려 있어 더욱 중구민의 자존심을 더욱 고양시켜 주고 있다. 인간은 자기의 말과 집단의 말을 짧거나 길게 집결(集結)시키려는 의지가 있다. 《중구 구전설화》집 속에는 이같이 응집된 사연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 중구에 사는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실로 조사자는 본 설화집이 중구문화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 여러 제보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하며, 발간을 독려하고 후원해 주신 김동일 구청장님, 김영남 중구문화원장님과 김기태 사무국장님, 그리고 출판을 맡아준 조상기 상원사 사장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2001. 12

중앙대학교 교수 김 선 풍

〈일 러 두 기〉

1. 본 자료집은 2000 ~ 2001년 사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 현장 조사·채록 구전설화와 《청구야담》 등의 각종 야담집과 민속지, 연구논문에 게재된 문헌설화를 정리·수록한 것이다.
2. I 장 개관편에는 구전문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전문학(신화·전설·민담) 개관을 넣었고, 중구 구전문학의 심층적 접근을 위해 〈중구설화의 특징〉에 대해 필자 나름의 견해를 펴려하였다.
3. 현장에서 직접 채록한 녹음은 가급적 현장론적 방법(performance-centered approach)을 취해 구연자(口演者)의 방언을 그대로 적었다.
4. 설화에서 난해한 글자는 할주(割註)를 간간이 달았다.
5. 지역개관은 현장조사 자료와 읍지나 구지, 야사집, 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6. 서울특별시 중구뿐 아니라 타구 역시 본토박이가 태만한 형편인지라 현장조사 이외에 문헌설화 수집에도 힘을 기울였다.
7. 현장론적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해도 책에 수록된 것은 문헌설화에 넣었다.
8. 구전설화는 일련번호를 넣어 동별로 분류하였고, 문헌설화는 전설과 민담으로 나누되 전설에는 지명전설, 이인·고승전설, 효자·열녀 전설로 나누어 실었다.
9. 제보자는 일일이 이름, 성별, 나이와 제보번호를 적되, 제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아무개’라고만 적은 곳도 있다.
10. 부호는 대략 다음과 같다.

문헌과 책 〈 〉

논문과 노래제목 〈 〉

생략 ...

강조 및 작은인용 ‘ ’

큰 인용 “ ”

할주 ()

목 차

발간사	3
축사	4
축사	5
서문	6
일러두기	8
 I. 개관	11
1. 구전설화개관	13
1) 전설	16
2) 민담	17
3) 신화	21
2. 중구 설화의 특징	26
3. 조사개관	38
 II. 중구의 구전설화	43
1. 소공동	45
1) 지역개관	45
2) 구전설화	46
2. 회현동	56
1) 지역개관	56
2) 구전설화	58
3. 명동	68
1) 지역개관	68
2) 구전설화	70
4. 필동	72
1) 지역개관	72
2) 구전설화	73
5. 중림동	82

1) 지역개관	82
2) 구전설화	83
6. 을지로 3·4·5가동	116
1) 지역개관	116
2) 구전설화	117
7. 광희동	120
1) 지역개관	120
2) 구전설화	121
8. 장충동	132
1) 지역개관	132
2) 구전설화	133
9. 신당동	140
1) 지역개관	140
2) 구전설화 <신당 1동>	140
<신당 2동>	150
<신당 3동>	151
<신당 6동>	161
10. 황학동	166
1) 지역개관	166
2) 구전설화	167
Ⅲ. 중구의 문헌설화	177
1. 전설	179
1) 지명전설	179
2) 이인·고승전설	231
3) 효자·열녀전설	419
2. 민담·기담	420
참고문헌	453
(자료목록)	455



I 개 관

I. 개 관

1. 구전설화(口傳說話) 개관

설화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야기’를 뜻한다. 그러나 단순히 발화(發話)를 뜻하는 ‘말’이나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은 말로 전달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이다. 곧, 허구적(虛構的)이며 서사적(敘事的)인 이야기이다. 여기에 문학으로서의 존재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신변잡담이나 말로 전하는 역사적 사실 등은 설화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설화는 민속문학(folk literature) 또는 구비문학(口碑文學)의 한 갈래이다. 민속문학은 구전문학(口傳文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말로 된 문학’ ‘말로 전하는 문학’을 의미하며 문자로 정착된 기록문학(문헌문학)과는 구별된다. ‘말로 된 문학’은 말로써 존재하고, 말로써 전승된다. 그러므로 원래대로의 보존은 어려우며 변화하면서 전승된다.

민속문학 범주에는 설화를 비롯하여 민요·무가·판소리·민속극·속담·수수께끼 등이 해당된다. 그 중 설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① 구전성(口傳性) — 설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이러한 구전성으로 인하여 전승과정에서 이야기에 첨삭(添削)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변화된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 구전이란, 서사의 내용이 구연자(口演者)로부터 청자에게로 직접 소통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설화는 구전에 적합한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문헌설화(文獻說話)의 경우 이미 문자로 정착되어 구전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는 구전되던 설화가 어느 시기에 문자로 정착되어 문헌으로 전승됨과 동시에 구전되기도 하므로 소극적

이나마 구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민중성(民衆性) — 설화는 민중 속에서 만들어져 말로 전승되므로 일정한 작자가 없다. 그것은 애초에 원작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구연자들에 의해 전승되는 동안 원작자는 잊혀지고, 또한 그 작품도 변질되어 나타나므로 민중 공동의 소산물이라 할 수 있다.

③ 산문성(散文性) — 설화는 말에 의해 전달되는 이야기이므로 산문적이다.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에는 서사시(敍事詩)·서사민요(敍事民謠)·서사무가(敍事巫歌)·민속극 대본 등이 있다. 그런데 서사시·서사민요·서사무가 등의 전달방식은 설화와 달리 율문(律文)에 의존하며, 민속극의 경우는 설화처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란 점에서 구별된다.

④ 허구성(虛構性) — 설화는 ‘이야기’를 뜻하지만 허구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역사나 사실담 그대로는 설화가 될 수 없고, 이들에 민중의 상상력이 덧붙여져 허구화되었을 때 비로소 설화는 성립한다.

⑤ 보편성(普遍性) — 설화는 인류가 문자를 갖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져 민중 속에서 유전(流轉)되어 온 점에서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다.

설화는 다른 용어로 고담(古談)·석화(昔話)·민담(民譚)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고담과 석화에는 시간적 제약이 내포되어 있고, 민담은 설화의 하위분류 가운데 하나인 민담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화의 대치어로는 부적합하다.

설화의 하위분류는 보통 신화(myth)·전설(legend)·민담(folktale)으로 3등분된다. 그런데 이 셋 사이에는 경계를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상호 전환되기도 하여 분명한 선을 긋기는 어려우나 그 대체적인 차이를 다음 몇 가지 사항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승자의 태도 — 신화의 전승자는 신화를 진실되고 신성한 것으로 인식한다. 신화의 세계는 일상적 경험을 넘어서서 존재한다고 믿어진다. 전설은 전승자가 신성하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

라고 믿는 이야기이다. 사실로서의 근거는 증거물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민담의 전승자는 민담이 신성하다거나 사실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오로지 흥미를 주기 위해서 민담은 구연된다.

② 시간과 장소 — 신화는 아득한 태초에 일어난 일이고, 특정한 신성 장소를 무대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단군신화의 태백산과 아사달은 신성 장소의 좋은 예이다. 전설은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전설이 가지는 진실성 내지는 사실성을 입증해 주는 구실을 한다. 민담에는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③ 증거물 — 신화의 증거물은 매우 포괄적이다. 천지창조신화(天地創造神話)에서는 천지가 증거물이고, 건국신화에서는 국가가 바로 증거물이다. 전설은 이와 달리 특정한 개별적 증거물을 가진다. 산이나 바위에 관한 전설은 산·바위 일반을 증거물로 삼을 수는 없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모양의 산·바위만이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전설의 증거물은 자연물과 인공물, 그리고 인물인 경우가 많다. 증거물을 상실한 전설은 전승이 중지되거나 민담으로 전환된다. 민담은 증거물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이야기 자체로 종결된다. 더러 증거물을 갖는다 해도 널리 존재할 수 있는 현상 등이고, 이야기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첨부된다.

④ 주인공 — 신화의 주인공은 신(神)이며, 그는 신이 지닌 능력을 발휘한다. 전설의 주인공은 시대·지역의 제한을 받는 구체적·역사적 인물로서 신화나 민담의 주인공보다 왜소하며, 때로는 사물이 중심이 된 전설도 있다. 민담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인간이며 난관에 봉착하여도 결국은 이를 극복한다. ‘바보’·‘효자’ 등의 일정한 유형성을 띠는 관념적 존재이다. 때로는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 등도 있다.

⑤ 전승 범위 — 신화는 민족적인 범위에서 전승되거나 씨족적·부족적 범위로 국한되기도 한다. 민족적인 범위에서 진실성과 신성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 민족의 신화가 다른 민족의 것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른 민족에게는 신화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설은 증거물의 성격

상 대체로 지역적인 범위를 갖는다. 일정한 지역의 전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지역적인 유대감을 고취시켜 사회적인 통합기능의 구실을 한다. 민담은 어느 지역이나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전승은 공동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분포는 범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⑥ 세계관 — 신화는 주인공이 신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종교적인 숭고함을 지향한다. 전설은 주인공이 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좌절하기에 운명론적 비극성에 도달한다. 민담은 주인공이 인간적인 행동을 하나 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이르러 초월자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하는데, 이로써 결말이 희극적이고 낙천적인 성향으로 드러난다.

1) 전설(傳說)

전설은 신적의 존재가 아닌, 인간 및 인간의 행위들을 주로 다루며, 초역사적인 시간이 아닌 비교적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신화와 구별된다. 널리 회자되는 전설들은 흔히 “어느 어느 시대에, 어느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더라.” 하는 구성에 의존하고 있다. 전설에는 실제로 강조화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번(C.B. Burne)이 말한 대로 전설은 흔히 ‘구전역사(oral history)’라고 부른다. 그것도 진실성과 사실성에 기법을 둔 이야기를 전설로 잡는다. 고프드(G. I. Gomme)는 “전설은 역사적 인물, 지방, 혹은 사건에 속한 것”이 그 영역임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의 새끼게이고(關敬吾)도 진실성, 특정성(인물, 장소), 단순성이 전설의 속성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진실성에 밀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와 전설은 비슷하다. 그리하여 분트(Wunt) 같은 이는 “신화도 전설이다”라는 광의적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씨족신이라든지 무조신(巫祖神), 부락신(部落神), 국조신(國朝神)에 관한 것은 전설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전설은 대



체로 인물이라든가 장소나 사건에 관한 발생 원인이 무엇 때문이며 어떤 과정에서 생겼고, 발생 장소는 어디이고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증거물까지 제시하여 신빙성을 더 높이려 한다. 전설은 이야기를 전하는 이나 이야기를 듣는 이나 그 모두가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고 말하며 서로 믿어준다. 전설은 스스로 역사화하는 수도 있으나 민중의 참여사가 그 곳에 깔려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아기 장수에 얽힌 전설에서처럼 바위에 큰 발자국이 나 있으면 어느 장수의 발자국이라고 빗대기도 하는 동시에 송강(松江) 정철(鄭澈)에 얽힌 전설에서처럼 민중과의 역사적 갈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전설은 도슨(Dorson)이 분류한 대로 인물전설(personal legend), 장소전설(place legend), 사건전설(legend of events)로 나눌 수도 있고, 크랩(A.H.Krappe)처럼 지역전설(local legend)과 이주전설(migration legend)로 나누기도 하고, 발생 목적에 따라 설명전설(explanatory legend)과 역사전설(historical legend), 신앙전설(religious legend)로 나누기도 한다.

2) 민담

민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모든 화자(話者)나 청자가 진리라고 믿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전설과 구분된다. 흥미와 재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민담의 이야기꾼은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보다는 가공의 세계를 주로 다루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전념한다.

영어로 wonder tales(fairy tales)라고 부르지만 아마도 독어 메르헨(Märchen)으로 부르는 게 더 합당한 것으로 본다. 메르헨(Märchen)은 그림(Grimm)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의 동화(Kinder und Haus Märchen)》에서 온 말이다. 이 곳의 동화라는 단어는 어린이를 대상으

로 하는 이야기란 뜻, 또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동물, 곤충 등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는 이야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대개 이야기는 선(善)·악(惡)이라는 대립(對立)과 반복의 이원론(二元論)을 이루며 진행되어 간다. 이를테면 양반 대 평민이라든가 선인 대 악인이라든가 선인 대 괴물, 전처의 딸 대 계모간의 갈등이 이야기 줄거리로 전개된다. 사건전개에 있어서 주인공은 대개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한 다든가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한다든가 하여 ‘삼 세 번’을 반복해야만 소망을 성취한다. 때로는 한 주인공의 고난과 행운이 계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민담의 대립은 선의 승리로 끝나고 선인이 부를 누리고 행복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결국 민담이 지향하는 의지는 선의 승리에 있다 하겠다. 선은 악의 대립적 관념일 뿐 아니라 진리, 진실, 정의를 대변한다.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세상에서 격리된(abseits und welt)’ 것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대개 서두부에서 ‘옛날 옛적에(once upon a time)’로 시작해서 결말부에 ‘그렇게 하여 그들(주인공)은 오래도록 행복하

게 잘 살았더라(They lived happily ever after.)’고 하는 공식성을 지니기도 한다.

스티스 톰슨(Stith Thompson)은 민담을 folktale로 번역하고 영웅들의 초자연적 적들과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고 논급하고 있는데 민담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속되어 온 제반 역사의 모습이기도 하다. 선의 승리는 결국 민중의 꿈의 실현이었고 위안이기도 했다.

민담의 유형화된 서두인 ‘옛날, 옛날 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먹



던 시절에……’는 아예 구연자가 이 이야기는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처음부터 선언하는 수사나 기법인 것이다. 대개 결말 부분에 가서는 ‘아들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요.’라고 끝난다. 또 우스개말로 ‘어저께 장터에 갔다가 그분들을 만났다고요.’라고 끝맺고 웃어버림으로써 이상의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대개 민담은 동물담, 본격담(本格譚, ordinary tale), 소화(笑話, jest and anecdote)로 나눈다. 동물담은 다시 동물유래담, 본격동물담, 동물우화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물유래담은 ‘고양이와 개의 구슬다툼(犬猫爭珠) 설화’에서처럼 개와 고양이가 왜 사이가 나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에 속한다. 본격동물담은 동물에게 인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의인화시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동물우화는 동물에게 일정한 유형을 부여하고 인간행동을 동물행동으로 바꾸어 그 속에 도덕적 교훈적 내용을 담는다.

모든 설화에는 형식과 법칙이 따른다.

설화론자들은 인류의 다른 미적(美的) 활동과 마찬가지로 설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한 분석을 행하였다. 그들은 발생, 형태, 내용에 따라 설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한 민족의 구전설화 전체를 연구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인간 생활의 한계와 기본 상황의 유사성은 모든 지역에서 구조상 거의 비슷한 설화를 만들어 냈다. 설화는 항아리, 팽이, 활과 화살처럼 인류 문화 속에서 뚜렷한 형식과 내용을 지니며, 몇몇 설화형식은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어떤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설화형식들은 매우 잘 인식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언급될 때마다 각기 명칭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 명칭들은 때로는 정확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설화를 논의해야 했던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그 용어를 사용하였고, 독자들 또한 그 용어를 사용해 주기를 기대했다.



연구자가 세계의 설화를 연구할 때 대하게 되는 개념 중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독일어 ‘메르헨(Märchen)’ 일 것이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요정담(fairy tale)’이나 ‘가정담(household tale)’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영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만족할 만한 용어가 없다. 프랑스인들은 ‘퐁트 뽀플레르(contes populaire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들이 담고 있는 뜻은 <신데렐라>·<백설공주> 따위의 설화를 말한다.

‘요정담’은 요정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하지만, 요정담에는 요정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가정담’과 ‘대중담’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류의 설화에 적용할 수 있다. 독일어 ‘메르헨’은 보다 적당하고 비교적 널리 인정받고 있는 용어이다. 이 설화는 특정한 지역이나 인물과는 상관 없이 비현실 세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며, 신이한 존재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와 같은 상상의 세계에서 주인공은 적을 무찌르고 왕위를 계승하며 공주와 결혼한다. 메르헨이 상상의 세계를 다루는 제한 때문에, ‘키메라트(chimerat : 상상)’라는 명칭이 국제적인 용어로 제안된 바 있으나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구조상 메르헨과 가까운 것으로 ‘노벨라(Novella)’가 있다. 이런 형식의 문헌설화는 ‘아라비안 나이트’와 ‘데카메론’에 나타나지만, 그러한 설화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근동(近東) 지역의 여러 민족들에 의해 구연되기도 한다. 메르헨과는 달리 노벨라에서는 사건이 특정한 시공간을 지닌 현실세계에서 전개되며, 비록 신비한 일이 등장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은 청자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뱃사공 신밋드의 모험이 그러한 ‘노벨라’를 형성한다.

‘노벨라’와 ‘메르헨’은 항상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는 때로 ‘노벨렌 메르헨(Novellenmärchen)’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두 분류 사이에는 상당한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화들은 지역에 따라 ‘노벨라’의 특징을 띠기도 하고, ‘메르헨’의 특징을 띠기도 한다.

또다른 일반적인 설화 유형에 대한 용어로서 독일어 ‘자게(Sage)’도

널리 수용되었다. 영어나 불어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지역설화’·‘이주 전설’·‘민간설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계의 목적은 실제로 발생하였던 사건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 장소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전설 — 그러한 지역성에 덧붙여진 — 을 구연하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구연될 수 있다. 자계는 그 민족이 여전히 믿고 있는 신기한 존재 — 요정, 유령, 물의 정령, 악마 따위 — 와의 만남을 구연할 수도 있다. 또한 자계는 역사적 인물 — 대개 공상적이고 불합리한 — 을 구연하기도 한다.

지역설화와 매우 밀접한 것이 ‘설명설화(explanatory tale)’이다. 다른 용어로는 ‘기원설화(etiological tale)’, ‘자연설화(natural tale)’ 등이 사용된다. 지역전설은 종종 언덕이나 절벽의 존재, 강이 왜 구부러져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여러 동물, 식물, 별, 인류, 제도의 기원과 특징을 설명하는 설화들도 있다. 이런 설명은 때로 설화의 존재 이유가 되지만, 설화의 흥미로운 결말을 위해 단순히 첨가한 것이라는 사실이 보다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실제로 메르헨이나 영웅설화 따위의 설화형식에 덧붙여진 것일 수도 있다.

3) 신화(神話)

산문설화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신화는 가장 복잡한 것이다. 이 용어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여러 가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한 논의의 역사는 흥미롭지만 결말은 짓지 못하였다. 신화는 현 질서에 앞섰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 관한 설화를 의미한다. 신은 신과 반신적(半神的) 영웅 및 삼라만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대개 우주 만물의 창조는 신성한 존재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화는 그 민족의 신앙심 및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화는

원래 영웅전설이나 기원설화였지만, 체계화되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 받았다. 영웅은 여러 신들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고, 기원설화는 신이나 반신의 모험담이 덧붙여져 기원신화가 되었다. 영웅전설과 기원설화가 일반적으로 신화보다 앞섰던 것이든, 아니면 그것들이 신화에서 분리되었든, 이들의 기본적 차이점은 분명하다.

동물들은 모든 민간설화에서 큰 역할을 한다. 동물들은 신화, 특히 문화영웅이 동물 형상의 문화영웅으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하기도 하며, 문화영웅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원시인들의 신화 속에 등장한다. 동물에 인간의 자질을 부여하는 경향은 신화가 아닌 다른 설화에서도 나타난다.

우리가 동물담이라는 간단한 용어로 나타내려는 것이 이러한 비신화적(非神話的) 설화이다. 동물담은 한 동물의 지혜나 다른 동물의 우둔함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대개 그 주요한 흥미는 속임수로 해서 야기되는 익살이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곤경에 빠지는 데 있다.

동물담이 도덕적 의도를 띠고 구연될 때 ‘우화’가 된다. 가장 잘 알려진 문헌설화집은 《이승우화》와 《판차탄트라(panchatantra)》이다. 우화는 대개 실제적인 격언과 결합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덕적 의도는 우화와 다른 동물담을 구별하는 주요 조건이다.

익살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구연되는 짧은 일화(逸話)들이 세계 전역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소화(笑話)’, ‘익살스러운 이야기’, ‘유쾌한 이야기’, ‘농담’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들은 대개 동물담이지만, 그 행위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인기있는 소화를 만드는 주된 소재는 바보 같은 사람(바보 설화)의 엉뚱한 행위, 갖가지 속임수, 음탕한 사건 등이다. 익살스러운 이야기는 적절한 것이든, 적절하지 않은 것이든 모든 종류의 소화를 특정한 사람에게 덧붙이기 때문에, 여러 소화들은 하나의 설화군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주인공이 현명한 계책 때문에 칭찬을 받는가 하면 아

주 명백한 어리석음 때문에 조소를 당하기도 하며, 그에 대한 외설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구연되기도 한다.

전설이라는 용어는 성인(聖人)의 전기라는 특수한 의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뜻으로 쓰일 경우 영어에서는 그것을 성자전설(聖者傳說)이라고 완전히 표현해야 했다. 그러한 종교설화는 대개 문헌설화집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지만, 구비전승의 흐름에 합류되어, 때로 요정담이나 메르헨과 구별되지 못할 때도 있다. 구전설화 형식들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시대마다 제안되었지만, 세계의 설화를 검증하고 논의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까지 나열하였던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들은 서로간에 놀랄 만큼 빠르게 혼합되기 때문에, 그 형식은 연구자들이 바라는 만큼 엄격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요정담은 신화나 동물담, 또는 지역전설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설화는 시대나 장소의 차이를 뛰어 넘어 고대에서 오늘날 까지, 그리고 서구 문명사회에서 미개사회에 까지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구연양식과 목적인 다양한 변모를 겪었다. 따라서 설화형식간의 혼합은 설화의 플롯이 형식보다는 더욱 고정적이며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설화의 표현 형식에 대한 폭넓은 고찰로는 덴마크의 올릭(A. Olrik)의 논문 〈설화의 서사법칙〉(1909)이 있다. 이하의 설화의 법칙을 이해하고 설화집을 읽는다면 남보다 더 큰 흥미를 느낄 것이다.



① 시작과 결말의 법칙

설화는 갑자기 시작되어 갑자기 끝나지 않는다. 설화는 가령 주인공의 약혼 혹은 결혼에서 갑자기 끝나는 일은 거의 없고, 부차적인 인물의 운명을 약간 듣거나, 적어도 주인공과 그의 아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으로 끝난다.

② 반복의 법칙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듭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똑같은 인물이나 적어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거듭 등장하여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때로는 똑같은 어구를 반복하여 강조하기도 한다. 반복의 법칙과 관련하여 설화 진행의 형식 중 누적적 형식(예, 새끼 세 발로 장가든 총각)·연쇄적 형식(예, 바보사위의 실수담)·회귀적 형식(예, 두더지 사위) 등이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다.

③ 숫자 3의 법칙

위와 같은 반복의 방법은 흔히 숫자 3과 결합되어 3번 반복되는데, 이에 의하여 사건의 강도는 점점 가해진다. 설화의 등장인물이나 행위, 사건 등이 3과 관련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다만, 인도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4와 같은 숫자가 의미를 갖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전승에는 7이나 8, 12, 40, 99, 100, 999, 3000 등의 숫자도 등장하나 이들은 모두 추상적인 숫자들일 뿐 결국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④ 이물과 고물의 법칙

사람이나 사물의 차례 중 순서상으로 우선되는 것은 제일 앞의 것이지만, 서사적 전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마지막 것이다. 주인공의 적대자나 원조자들이 3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초는 가장 어리고,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자가 오고, 최후에는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크며, 가장 강한 자가 온다. 반면, 주인공 자신은 3형제 중 가장 젊고 가장 작고, 가장 약하다. 예컨대, <3형제 설화>에서 부친으로부터 가장 많은 유산을 받는 것은 장남이지만, 최후에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은 막내이다.



그러나 이 법칙은 전적으로 서사시적인 것으로, 종교적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삼위일체의 신의 체계에서는 제1의 신이 역시 가장 유력한 경우가 보편적인 것이다.

⑤ 한 장면에 둘의 법칙

한 장면에는 두 인물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동시에 행동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뿐이다. 여기서 인물이라 함은 독자적 성격과 행위에 있어서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 설화에서 영웅이 괴물과 싸울 때, 괴물에게 납치됐던 인물은 침묵을 지키는 인물로 되었다가, 괴물이 죽은 후에야 다시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⑥ 대조의 법칙

설화의 인물은 늘 노인과 젊은이, 대와 소, 부자와 빈자, 거인과 평민, 선과 악, 현명함과 어리석음 따위가 대립되어 나타난다. 이 법칙은 교훈적 이원성(didactic dualism)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⑦ 쌍둥이 법칙

두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나타낼 경우 그 두 사람은 작고 약한 존재이다. 이 때 두 사람은 쌍둥이인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두 사람은 적대적 관계로 된다.

⑧ 단선화(單線化)

줄거리는 늘 단순하며 직선적이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줄거리가 복합되어 나타난다면 이는 고차적인 문학작품의 증거이다.

⑨ 형식화

동일한 종류의 상황은 될 수 있는 한 거의 똑같이 묘사되고 변화를 생기게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사한 언어의 반복 사용도 이런 법칙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설화를 첫부분만 듣고도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이 설화의 형식성에서 나온 것이다.

⑩ 구성의 일관성

가령, <천냥점(千兩占)설화>에서 주인공이 세 가지 예언을 받았다면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끝까지 예언의 설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죽을 운명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가 어떻게 그 운명을 벗어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2. 중구 설화의 특징

남산(南山)은 중구와 용산구에 경계하고 있는 높이 262m 정도 밖에 안 되는 산으로 인경산(引慶山) 또는 열경산(列慶山) 등의 이칭(異稱)을 가지고 있다. 경주의 남산, 해주의 남산, 강릉의 남산 등 대개 각 지역에 산재한 남산은 풍수지리학상으로 안산(案山)에 해당하는데 특히 서울의 남산은 안산 겸 주작(朱雀)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이태조가 한양에 터를 잡고 이 곳 남산의 정상에 목멱산신사(木覓山神祠)를 지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면서 산이름 까지 목멱산이라 명명했다.

조선조 중기까지 국가에서 봄·가을로 초제(醺祭)를 지냈고 큰 신을 모셨기에 국사당제(國師堂祭)라 일러 왔다. 특히 조선조 말기 민비가 국가안위를 걱정하여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격조가 높은 신당이었는지 알만하다.



그러나, 이 땅을 강점했던 일제는 1925년 그들의 신당인 신사(神社)를 짓기 위해 국사당을 헐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민족혼이 서려 있는 소나무를 거세하고 망국수(亡



國樹)인 아카시아 까지 잔뜩 심어 놓았으니 저들의 문화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국사당 당내(堂內)에는 한국의 역사를 창조한 단군으로부터 최근세사의 주인공 민비 까지 등장한다. 그뿐 아니라 왕조를 초월한 민족신 모두가 모여 있다는 점에서 이들 신격 위상은 호국신(護國神)과 국토신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 서울에는 사직단(社稷壇)이 있었다. 사(社)는 지신을 의미하고 직(稷)은 곡신을 의미한다. 이미 세조 3년에 설치되었으며, 종묘대제와 함께 왕이 친히 대사(大祀)의 예를 갖추어 몸소 친제(親祭)하였으니 그 목적은 신의 도움으로 오곡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사직단에서 임금이 무릎 꿇고 친히 제를 올렸고, 흉년이 들 때는 하늘의 뜻이 왕조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민심까지 흥흥했다.

‘군군신신민민(君君臣臣民民)’이라는 신라적 향가(鄉歌) 속의 가사대로 임금은 임금의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하고, 신하는 신하의 임무를 제대로 해야 하며, 백성은 백성의 도리를 다해 왔던 우리네 선조였던 것이다.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5월 초열흘날은 태종의 제삿날이다. 이 날이면 매년 비가 오는데 이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한다. 태종이 돌아 갈 때 세종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바야흐로 심하니 죽어도 앓이 있다면 반드시 이 날 비가 오게 하리라’ 하였다. 후에 과연 이 날이면 비가 온다.”

농사가 천하의大本(大本)이었던 우리 민중들에게 비는 바로 신의 눈물이요 오줌[거름]에 해당하였던 것이다. 대본이 무너지는 것 그 자체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년 왕들은 사직단에서 토지지신(土地之神)과 곡신(穀神)에게 풍농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필자가 경기도 가평에서 채록한 ‘줄 바위’ 전설은 다음과 같다.

이성계가 줄을 타고 강원도 금강산에서 경기도 용문산으로 해서 관악산 북한산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한국의 산 기운은 금강산에서 시작되어 서울 남산 끝자락에서 끝나는데 산 기운이 모두 남산에 가 뭉쳐 있다는 거예요. 줄은 산의 맥을 뜻하는데 이성계는 함경도에서 정감과 같이 산의 맥을 따라 내려왔는데 정감은 북악산에 자리 잡고, 이성계는 남산에 자리 잡았다고 해요. 이성계가 정감에게, “이 자리는 5대를 해 먹을 자리이고 북악산은 10대를 해 먹을 자리이니 내가 5대를 해 먹을 테니 양보해라.” 해서 정감이 양보를 해주었죠. 그리하여 이씨 왕조가 남산을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경기도 가평군 화악 2리, 김호열, 79세 담, 2000. 8. 4)

한국인은 풍수지리학적 맥락에서 왕도를 잡는다. 신라 경주, 백제 부여, 고려 송도의 기(氣)가 끝나고 나서 이어진 왕조의 기가 조선조의 기인 것이다. 기만 좋다고 왕조가 순탄 대로를 걷는 법은 없다. 그 왕조에는 그 왕조에 걸맞는 제신(諸神)이 자리하기 마련이다. 이태조 또한 고려의 왕건과 같이 산천신을 제 1신으로 잡았으니 목맥산신의 위상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인왕산 국사당에 있는 무신도는 중요민속자료 제 17호로 지정되어 있다. 무신도에 대해 이능화(李能和)는 그의 《조선무속고 朝鮮巫俗考》(1927)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4년(1404) 이조(吏曹)에게 명령하여 남산을 봉(封)하여 목맥대왕으로 삼은 뒤 향대부(卿大夫)와 사서(士庶)는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여지승람에 의하면 목맥신사는 목맥산 마루에 있어 항상 춘추로 제를 행하였다고 한다. 오주연문(五洲衍文)에 의하면 경성 목맥산 잠두봉 국사당 음사(京城 木覓山 蠶頭峯 國師堂 淫祀)라 하였고 목맥산신 정사시(亭祀時)에는 전사청(典祀廳)을 속칭 국사당이라 했다. 거기에는 고려 공민왕, 본조(本朝) 승(僧) 무학(無學), 고려 승(僧) 나옹(懶翁), 서역(西域) 승(僧) 지공상(指空像) 및 기타 제신상(諸神像)을 걸어 놓았으며, 또 맹자상(盲者像)과 소녀상(少女像)이 있는데 소녀



상은 두신(痘神)이라 하여 신전에 지분(脂粉) 등을 베풀어 지나치게 설혹(藝惑)하였고, 기도 또한 성대히 베풀어 나라에서도 금하지 못했다

(李能和, 《朝鮮巫俗考》, 1927, pp.53~54.)

이상 내용에서 살핀 대로 이태조는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뒤 남산을 목
멧대왕으로 봉하고 신성시하여 일반인들이 제사할 수 없도록 금하였으니
가히 국제적(國祭的) 성격의 제의에 해당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태종 때는 3신과 이태조, 무학대사 등을 모시고 국사당이라 하였으니
당의 유래가 550~560년 전으로 소급된다

인왕산 국사당의 신위는 다음과 같다.

〈신위의 위치〉

나옹 화상신	삼불제석 신	무학대사 신			강씨 부인신	호구아씨	최영 장군신	별상신	산신
칠성신	제 단								이성계신
									용궁신
용궁신									신장신
									곽곽선생 신
민중전신									창부씨신

↑ 〈입 구〉

무신도 가운데 12점은 조선시대 말기에 같은 인물에 의하여 제작되었
으리라고 추정되며, 모두 비단 바탕에 채색한 것인데 나머지는 후대의 것
으로 보인다. 현재 국사당 무신도는 9매가 정면 벽에, 그리고 좌우 벽면
에 각각 3매씩 모두 15매가 표면에 걸려 있다. 그림은 아태조(我太祖) 3
점을 비롯하여 아태조비라고 하는 강씨부인(姜氏婦人)·호구(戶口)아씨·
용왕대신(龍王大神)·산신(山神)·창부씨(倡夫氏)·별상·무학대사(無學

大師)·곽곽선생·단군·삼불제석(三佛帝釋)·나옹화상(懶翁和尚)·칠성신·군웅대신(軍雄大神)·민중전(閔中殿)·최영장군 각 1점 등이다.

중요한 신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아태조신 : 조선조 제 1대 왕인 이태조의 영정을 말한다. 물론 목액신사를 짓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태조 당시에는 신위가 없었고, 태종 때 무학대사와 같이 신격의 자리에 올랐다.
- ② 아태조비 : 아태조신과 더불어 '아태조내외분' 이라고 한다. 이 왕비는 후궁인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姜氏)로 보거나, 공민왕의 왕후인 원나라의 노국공주(魯國公主)로 보는 이도 있으나 각 지방에 산재한 강태공부인지신(姜太公夫人之神)이 아닌가 한다. 이유인즉, 삼국시대 이래 태조의 비를 신격화해 왔으나 후궁을 신격화시킨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 ③ 무학대사신 :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인 승 무학대사를 말한다. 왕도의 위치를 정했을 뿐 아니라 상도동에 사자암을 세워 호랑이 형국인 서울의 지세를 누르기도 하였다. 일등공신의 지위에 있었고 세인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신격화 된 것이다.
- ④ 나옹화상신 :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 국사당 무신도에 나옹화상신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고려적 인물로는 불가의 대표로 나옹화상 한 분만이 신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사찰의 독성당에는 나옹화상이 많이 모셔져 있다. 무불습합(巫佛習合) 과정에서 들어간 신으로 본다.
- ⑤ 최영장군신 : 곳에 따라 최일장군이라고도 부른다. 거의 전국적으로 모시는 신이지만 서울과 경기권에서 주로 모시는 신으로

특히 서해안 풍어제에도 주신역을 담당하고 있다.

- ⑥ 공민왕신 : 고려왕조를 계승한 왕조가 조선왕조이다. 왕조의 한을 달래기 위해 공민왕신과 최영장군신, 나옹화상신이 인격신의 위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 ⑦ 괘곽선생신 : 괘곽선생은《산해경 山海經》과《수경 水經》 등의 저자이며 또한 경학(經學)과 역서(易書) 등에 능하였다고 하는 중국 동진(東晉)의 학자 괘박(郭璞)이 점복업자들 사이에서 조상신처럼 모셔지면서 와음(訛音)되어 그렇게 불린 것으로 보인다. 무인(巫人)들은 무조(巫祖)로 여기기도 한다. 괘곽선생신과 그의 며느리가 그려져 있는 데 앞을 못 보는 당달봉사님신을 의미한다. 괘곽선생은 맹인풀이의 대상신으로 주로 안질환자들이 신봉하였으며, 점괘를 내리는 데에도 정확한 신통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동해안 무가 속에 나오는 심봉사신과 그 기능 면에서 유사하다.
- ⑧ 민중전신 : 민중전신은 후기에 민중의 사고와 의지에 의해 승격 신격화된 신으로 볼 수 있다. 원래 호구아씨라고 보는 이도 있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보면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남산에 올라가서 목멱산사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니 가히 국토신(國土神)으로 섬겨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 경도한성부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보인다.

“목멱산신사가 도성의 남산 꼭대기에 있어 소사(小祀)로 제를 지낸다.” 목멱산 산신당은 국제(國祭)를 지낸 당이기 때문에 국사당이라 명명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근신하며 부정을 가시는 행사가 그 어느 당곳보다 엄했을 것으로 보며 큰 정성을 기울였던 제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울에는 목멱산신사와 더불어 백악산신사(白岳山神祠)가 있다. 백악산은 북악산(北岳山)을 말하는데 당내에는 정녀부인이라는 여신상을

모시고 있다.

한국의 신은 음양을 갖추고 있다. 남쪽 목맥산에 국토신인 남신을 모셨고, 북쪽 백악산에는 여신은 정녀부인을 모셨으니, 이는 태백산이 남신인데 비해 태백산 옆에 있는 함박산이 여신인 것과 궤(軌)를 같이 한다.

이같은 깊은 사연으로 보면 태조 때의 주신은 백두옹(白頭翁)인 단군신이 주신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역시 뿌리를 아는 왕 답지 아니한가. 민속 신앙의 깊은 뿌리도 모르고 유학에 찌드러 있던 권필(權畢 1569~1612)은 죽음을 자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석주(石洲) 권필은 어렸을 때 북악 꼭대기에 올라 놀다가, “도대체 조그마한 산신이 무엇이기애 이 대명천지에 못사람들이 우러러 믿는단 말인가.”라 뇌이며 객기가 들었는지 신사 안의 정녀부인 신위 화상 족자를 발기발기 찢어 버리고 만다. 못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와 굶실거리는 모양이 기이하기도 하고 아니꼽기도 해서 그렇게 한 짓인데 그 날 밤 꿈에 하얀 저고리에 청색치마를 두른 나이 어린 예쁜 처녀가 나타나서 화를 잔뜩낸 채 나무라는 것이었다.

“나는 하느님의 따님으로 하느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국토란 남자신에게 시집온 정녀부인이다. 하느님께서 고려의 운세가 다 되어 이씨를 도와서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국토신으로 하여금 남산에 날아 와서 조선을 튼튼히 지키게 하고 나를 각별히 여기 백악으로 내려 보내셔서 남편과 함께 나라를 지키게 하셨다. 이제 2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어린 아이에게 모욕을 당하였으니 원수를 갚겠노라.” 하고 사라진다. 꿈결이지만 정녀부인 화상 그대로라 불안한 느낌이 평생 그의 마음 구석에 남아 자리하였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권필을 유희분(柳希奮)을 풍자한 궁류시(宮柳詩)를 썼는데, 그 시화를 입고 함경도로 귀양가게 된다. 그날 저녁 동대문 밖 여관방에서 술 한 잔하고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정녀부인이 나타나서, “이제 나의 원한을 풀게 되었노라.” 하며 등을 돌려 사라지니 석주는 그 날 밤 숨을 거두고 생을 마감하였다. (李能和, 《朝鮮巫俗考》, 1927, p.54.)



한편 남산의 신은 남신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네를 뛰어 신을 즐겁게 해주었던 것이다.

단오날 젊은 여인네들이 단오빔을 입고 한강변의 버드나무와 남산의 소나무에 그네를 매고 그네를 뛰었는데, 마치 신선이 날아오르는 것같이 시인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빔’이란 신성공간에서 입는 예복이다. 빔은 비음이라고도 하는데 ‘빌다’에서 나온 전성명사로 해석된다. 곧, 신에게 빌 때 입는 예복이 빔인 것이다.

이규보는 그네를 일러 ‘반선희(半仙戲)’라 하였다. 단오빔을 입은 여인은 이미 신성공간의 선녀요, 제의공간의 사제자의 대열에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목멱산 남신과 백악산 여신은 호국신이요, 국토신의 위상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허생전》은 조선 후기 정조 때 실학자 박지원(朴趾源)의 한문 단편 소설이다. 박영철본(朴榮喆本) 열하일기(熱河日記), 옥갑야화(玉匣夜話)에 수록되어 있으며, 어떤 필사본에는 《진덕재야화(進德齋夜話)》에 들어 있다.

두 이본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으나, 후지(後識)는 전혀 다르다. 옥갑야화(玉匣夜話)는 작자가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옥갑에 들러 여러 비장(裨將)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적은 것으로, 이 작품은 작자 자신의 말이 아니고 변승업(卞承業)의 할아버지 윤영(尹映)에게 들은 변승업의 치부유래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다.

본디 제목 없이 편의상 《허생》 또는 《허생전》이라 부르며, 〈옥갑야화〉 전체를 한편의 작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 소설을 지은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작자가 중국에 다녀온 것이 1780년(정조 4)이고 《열하일기》를 다시 기술한 것이 1793년이므로 그 사이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덕재야화》의 후지로 미루어 보아 1780년 이전의 4, 5년 사이에 쓰여졌을 가능성도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허생은 남산 아래 묵적골의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집에 살고 있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하였으나 몹시 가난하여 아내가 샴바느질을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갔다. 굶주리다 못한 아내가 푸념을 하며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은 무엇 때문에 읽으며, 장사 밑천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못하느냐고 대든다. 허생은 책을 덮고 탄식하며 문을 나선다. 한양에서 제일 부자라는 변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꾸어달라고 하자 변씨는 두 말 없이 돈을 빌려 준다. 그는 안성에 내려가 과일장사를 시작하여 폭리를 얻고, 제주도에 들어가 말총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번다. 그 뒤, 어느 사공의 안내를 받아 무인도 하나를 얻어 변산에 숨어 있는 도둑들을 설득하여 각기 소한 필, 여자 한 사람씩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무인도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다. 3년 동안 거두어들인 농산물을 흥년이든 나가사키에 팔아 백만 금을 얻게 된다. 그는 섬사람을 모아 놓고 이 섬은 땅이 작은데다 자신 또한 덕이 부족하므로 이 섬을 떠난다고 하고, 외부로 통행할 배를 불태우고 50만금은 바다에 던져버린 뒤 글 아는 사람을 가려 함께 본토로 돌아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남은 돈 십만 금을 변씨에게 갚는다. 허생은 집을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 남산 아래 오두막으로 돌아온다. 그는 변씨가 돈을 돌려주려고 하여도 받지 않으며 호구할 정도의 식량만 받고, 혹 술을 가져가면 즐겨 마시면서 변씨에게 돈을 번 까닭을 이야기한다. 변씨로부터 허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완(李浣)대장이 변씨를 데리고 허생을 찾는다. 이완이 나라에서 인재를 구하는 뜻을 이야기하자 허생은,

“내가 외룡선생을 천거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 후손에게 시집보내고 훈척 귀가의 세력을 빼앗겠느냐?”

“나랏사람들을 가려 머리를 깎아 호복을 입혀 선비들을 유학하게 하고 소인들은 강남에 장사하게 하여 그들의 허실을 정탐하고 그곳의 호걸들과 결탁하여 천하를 뒤엎고 국치를 설욕할 계책을 꾸미겠느냐?”고 묻는다.

이완은 물음에 대해서 모두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난 허생은,

“나라의 미더운 신하라는 것이 이 꼴 이냐!”고 하고 칼을 찾아 찌르려 하자 이완은 피하여 달아났다. 이튿날 이완이 다시 그를 찾아갔으나 이미 자취를 감추고 집은 비어 있었다.

《허생전》은 행동의 양과 범위가 크고 넓으며, 외국과 교역하여야 하고 나라 안에는 수레가 다녀야 한다는 작가의 실학적 경륜을 볼 수 있으며, 또 그의 다른 소설과 달리 북벌론자인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풍자한 문제작이다.

이야기 형식으로 이끌어 간 이 글은 총 2247자로 된 짧은 것이어서 구성에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작가는 생략법으로 작품을 엮어 나가면서 허생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부각시켰으며, 도거리라는 기적적인 돈벌이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건은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주인공 허생이 장사를 하였다고 하여 허생을 근대적인 경제사상을 가졌던 중상주의자(重商主義者)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허생 스스로가, ‘나는 장사꾼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자신의 장사하는 방법이 백성을 해치는 도리라고 하였으며, 번 돈을 바닷속에 넣어버리고 가난한 옛집으로 돌아오는 등 일련의 사건들은 사회사상의 변질을 정확히 관찰하면서도 작가의 의식은 보수적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만 금의 돈으로 국가경제의 허실을 시험하고 그 나름의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다 그만두고 돌아와서 이완에게 제시한 국가경륜의 내용은 인재등용, 훈척들의 추방 및 명나라 후예와의 결탁, 유학과 무역 등 이른바 시사삼난(時事三難)의 단편적인 내용을 묶어 작품의 절정을 삼음으로써 무능한 북벌론자를 통쾌하고, 북학론(北學論)을 주장한 수법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작자 스스로가 윤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 민담(民譚)을 소설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희준(李羲準)의 《계서야담(溪西野談)》에도 이 작품과 흡사한 내용의 허생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또 실존하였던 인물 허호(許鎬)의 일이 허생과 비슷하다. 그러나

《허생전》의 후지 두 편의 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윤영이라는 인물조차 애매하게 만들고, 또 허생의 성인 허(許)조차 부인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작품임을 숨겨서 당대의 사람들의 비난을 모면하려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전기소설(傳奇小說)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에 비하여 이 소설은 현실문제를 직시한 소탈한 영웅 허생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소설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작품은 일련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붕괴기 봉건사회의 사회경제 관계로 변형하면서 당시의 사회적 불합리를 폭로한 점에서 적지 않은 문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중구 인물 전설로 정수동설화(鄭壽銅說話)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 말기의 중인출신 시인 정지윤(鄭芝潤)에 관한 문헌설화는 《일사유사(逸士遺事)》에 전하며, 구전설화는 그의 활동지역이었던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수원·의정부 남양주군 등 중부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최근 여러 출판사에서 간행한 야담과 야사집을 통해서 다른 지방에도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술과 이야기, 시문과 풍류를 즐긴 그는 당대의 문인·정치가로 이름을 떨친 명사들과 교유하면서 그들의 허위와 부정을 풍자한 일화들이 많은데, 주로 양반관료들의 부정축재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많다.

구전설화는 다음과 같다.

가깝게 지내던 조두순(趙斗淳)의 잔치에 초대받은 정수동이 솥을대문을 들어서니, 사람들이 어린애가 동전 한 닢을 삼켰는데 창자에 동전이 붙으면 죽게 된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이 때 그가 나서서 사랑에 모인 대감들이 들으라는 투로,

“걱정할 것 없네. 아랫배만 술을 쓰다듬어주면 그만일세. 어느 대감은 남의 돈 몇 만 냥을 삼키고도 배만 쓸고 있으면 아무 일 없는데, 까짓 제 돈 한 닢을 삼키고야 무슨 배탈이 나겠는가!”

하고 소리를 쳤다. 대감들이 이 말에 흠칫하였으나, 이윽고 술잔이 돌고 유흥이 무르익자 조대감이 좌중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어

느 대감은 호랑이라 하고 도둑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대감이 나서더니, “양반의 호령 한마디면 호랑이도 잡고 도둑도 잡을 뿐 아니라, 양반네의 명령에 누군들 꿈쩍하겠소. 그러니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양반이요.”

하며 좌중을 둘러보자, 잠자코 있던 정수동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를 탄 양반도둑입니다. 가슴에 호랑이(옛날의 호패)를 달고 온갖 도둑질을 자행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삼천리강산을 망치니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소!”라고 하여 좌중을 숙연하게 하였다.

정수동에 관한 구전설화는 수편에 지나지 않으나 야담집과 야사집에 20여편의 유형이 전하고 있다. 정수동은 하농민인 방학중과는 달리 당대의 최고지배층과 교분을 나눌 정도로 학문이 높고 신분도 상당했지만 이들에 영합하지 않고 비판하며 관직에도 오르지 않았다. 따라서, 정수동설화는 지배층의 위정을 풍자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당대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및 풍자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조에 기적과 기행(奇行)을 남긴 이로는 정수동을 비롯하여 김립(金笠), 이토정(李土亭), 홍일동(洪一童), 우육봉(禹六峰), 방학중 등이다. 정수동을 비롯하여 《청구야담》의 〈독역(讀易)과 치산(治産)〉의 주인공 이생과 《허생전》의 허생이 유사한 인물이어서, 중구 일대가 상업의 중심지가 될 전망을 미리 예감할 수 있었다. 이들을 모두 더한다면 중구 출신 기인은 모두 세 사람이나 되는 셈이다. 곧, 한국에서 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장이 중구라는 말이 된다.

이밖에도 목덕산의 신위에 오른 이태조나 무학대사 그리고 이항복, 최만리, 이일제 등에 관한 흥미로운 구전전설도 많이 전해 오고 있다.

가사문학에 “남산지수(南山之壽)는 천년이요, 한강지수(漢江之壽)는 만년(萬年)”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남산에 송신탕이 들어서 있어 서울의 기가 막혀 있고, 남산신은 제자리

를 잃고 해매고 있는 형편이니, 이제라도 국가적 비호 아래 원형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한때 ‘남산 제자리 찾기 운동’이 벌어졌으나 ‘무형문화 유산 찾기 운동’은 없었다. 차제에 거대한 민족의 무형문화 유산을 복원할 의무를 우리 모두 져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신화학적으로 볼 때 중구는 멀리는 삼한시대부터 가까이는 조선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정신적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실로 목맥신사 속에서 우리는 부족국가시대 이후 한국신화의 총체적 모습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태조 이성계가 목맥산에 신당을 세운 사연은 여러 설화에서 나타나 있듯이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국의 조상뿌리를 외경시하고, 민족적인 신화를 잃지 않으려 하였던 그의 애국애민 사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한국적 뿌리 위에 다른 문화의 가치를 접목시키려 했던 시대가 조선조 사회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단군신은 물론이려니와 고려조의 최영장군신, 나옹화상신과 같은 신격이 봉안되었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무학대사 까지 신격의 대열에 올라갔던 것이다.

중구설화 속에 무학대사 이야기가 구전설화나 문헌설화에 많이 수록된 까닭은 바로 이같은 조선왕조 신화사(神話史)로 말미암는다 할 것이다.

3. 조사개관

중구지역은 서울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중구 지역에 거주해 오고 있는 토박이를 만나 이곳에서 오랫동안 전해오는 구전문화를 채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구지역의 3대 이상의 내려오는 제보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에 임했으나 본토박이로 구연에 능한 분이 많지 않아 경로당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비록 중구의 토박이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중구지역에 거주해 오고 있는 제보자들의 구전문학도 조사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비록 중구에 내려오는 구전설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구지역에 거주해 오고 있는 이들의 제보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본 조사에서 만난 제보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 역	제보자 명단	성 별	나 이	제 보 내 용
소공동	황민옥	남	66	1. 2. 3. 4
	아무개	남	90	5. 6. 7
회현동	김남은	남	76	1~8
	이귀복	남	76	9
	권종술	남	74	10. 11
명 동	아무개	여	80	1
필 동	백문웅	남	84	1. 2. 7. 8
	나종락	남	84	3. 4. 5. 6
중림동	오선탕	남	72	1
	이선자	여	55	2
	김무자	여	62	3
	이경애	여	62	4
	김준배	남	64	5
	윤인섭	남	65	6
	박상수	남	60	7
	임재동	남	80	8. 9. 10
	김호연	남	80	11~22
	이귀례	여	74	23. 24. 25
을지로 3·4·5가동	유춘학	남	47	1
	이정숙	여	68	2. 3

지 역	제보자 명단	성 별	나 이	제 보 내 용
광희동	김인순	여	53	1. 2. 3. 4
	하정숙	여	57	5. 6. 7
	이길환	남	76	8
장충동	류재동	남	7	51
	심종국	남	85	2
	이수영	남	70	3
	이만석	남	70	4
	김연순	여	72	5
신당동	최준기	남	78	1. 2. 3 (1동)
	아무개	여	73	4. 5 (1동)
	김경환	남	78	6. 7 (1동)
	최순희	여	83	1. 2 (2동)
	장화연	여	86	1. 2 (3동)
	김재옥	남	71	3. 4 (3동)
	공상철	여	80	1~8 (6동)
황학동	송기순	여	78	1~6
	이장손	남	86	7. 8
	임귀동	여	95	9

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중앙대 민속학과 김선풍 교수를 중심으로 한 현장조사에 경험이 많은 민속학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은 물론 구전문학을 중심으로 조사하기는 했으나 그밖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를 찾아가 설화와 함께 세시풍속과 혼례 등을 더불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중구 지역은 서울의 중심지역이기에 상업지역이 많은 관계로 가급적 비 상업지역을 주 조사지역으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조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각 동별로 구전문학의 양에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본 조사에 참여한 민속학과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3학년 : 김도희, 김부태, 김소현, 박수우, 송지영, 이덕우, 이정은, 최준혁, 황경선

4학년 : 강수진, 김미숙, 김순정, 김영신, 김윤미, 서종원, 이정미, 이종인, 장석연





Ⅱ

중구의 구전설화

II. 중구의 구전설화

1. 소공동(小公洞)

1) 지역개관

소공동은 북창동, 태평로 2가, 남대문로 2가, 3가, 4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 1가 충정로 1가, 소공동 등 11개 법정동과 봉래동 1가의 일부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할구역 명칭이다

소공동의 동명은 조선태종의 둘째딸인 경정공주의 궁이 있었으므로 속칭 작은공주골이라 하던 곳을 한자로 소공주동이라 하였고 이를 줄여서 소공동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북창동은 조선시대 관아인 선혜청의 북쪽창고가 있는 데서 붙여졌으며, 서소문동은 서울성곽 8문의 하나인 서소문에서 유래되었고 덕수궁 북서쪽에 위치한 정동은 조선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정능이 현재 정동 4번지에 있는 데서 ‘정’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의주로변 이화여고와 중앙일보사가 자리한 곳에 위치한 순화동은 광복 후에 순청동의 ‘순’자와 화천정의 ‘화’자를 따서 순화동이라 하였다. 조선초기 한성부를 5부 52방의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남부의 회현방, 호현방과 서부의 황화방, 양생방, 반석방지역에 속했으며, 일제 때 경성부에 ‘정회(町會)’를 설치할 때 남대문동2정 목정회의 관할구역으로 1946년 10월 남대문로 2가동회로 바뀌었다. 1947년 말에 조사된 현재 소공동사무소 관할 각동의 행정을 살펴보면 북창동 지역은 북창동회, 태평로 2가 지역은 태평로 2가동회, 남대문로 2가와 소공동지역은 남대문로 2가동회, 남대문로 3가, 4가 지역은 남대문로 3,4가동회, 서소문, 정동 지역은



서소문·정동동회, 순화동지역은 순화동회, 의주로 1가 지역은 의주로 1·2가동회, 충정로 1가 지역은 충정로 1·2가동회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남대문로 2가 동회는 1948년 4월 1일에는 소공동회로 바뀌어 남대문로 2가와 소공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였으며 주민감소로 1950년 10월 4일에는 남대문로 2가, 소공동회가 소공동 84번지에 설치되어 남대문로 2가, 소공동, 삼각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1955년 4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동설치조례〉에 의한 행정동제가 실시되면서 소공동은 태평로 2가, 남대문로 2가, 북창동일원과 함께 홍천동 사무소의 관할 구역으로 바뀌었다.

1970년 5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 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소공동이 설치되면서 소공동, 북창동, 태평로 2가, 남대문로 2가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1975년 10월 1일(서울특별시 조례 제981호) 관할구역 변경으로 남대문로 3·4가 동사무소가 폐지되면서 그 관할 구역은 소공동에 통합되었다. 1977년 9월 1일(서울특별시 조례 제1181호) 동장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서소문 동사무소가 폐동되면서 그 관할 구역은 소공동사무소에 통합되어 소공동, 북창동, 태평로 2가, 남대문로 2가, 3가, 4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 1가, 충정로 1가의 행정을 관할하였으며 1992년 1월 3일(중구조례 제170호)〈동경계 조정〉때 봉래동 1가 지역 일부가 소공동 사무소 관할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2) 구전설화

황민욱(남, 66,) - 1~4

1. 귀신을 중효시하는 사연

옛날에는 자녀들이 혼기가 되어 결혼을 시킬 때에는 사돈 되는 집안을

먼저 살펴보는 풍습이 있었다. 지금
이야 풍습을 보긴 봐도 당사자들만
서로 사랑하고 장래성만 있으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만
옛날에는 집안 풍습을 결코 무
시 할 순 없었지.



옛날에는 한 총각이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경우에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그렇다고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쫓아내기도 했고, 시집만 가면 남편이 일
찍 죽는 불행한 운명의 여자를 서방 잡아먹는 과부라고 말했지. 이럴 땐
시집 온 여자의 친정조상의 묘가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단다.

또 다른 경우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건강했던 며느리가 원인 모
를 병으로 일찍 죽는 경우는 시집조상의 묘가 잘못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
지. 그래서 어떤 집안을 보면 상처하는 일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 있
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란다.

그러니까. 처가집의 조상이 잘못되어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자
식들에게는 외갓집이 되므로 처가집 조상과 외갓집 조상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처가집, 외갓집 조상 중에서 후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윗대 조상보다는 처의 형제나 처조카, 그리고 장인 장모
중에서 불행하게 죽은 경우가 찾아오는 수가 대부분이니 그리 염려는 하
지 않아도 된단다.

그러나 처의 형제나 처조카 그리고 장인 장모 중에서 불행하게 죽은 경
우가 찾아 왔을 경우에는 자손들이 발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가집 조상
과 외갓집 조상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단다.



2. 점쟁이 자손 중에 점쟁이가 나오는 이유

점쟁이 자손 중에 점쟁이가 또 나오는 이유를 아니?

그건 잘못된 조상의 묘가 많으면 신(神)이 들리기 때문이란단. 조상의 묘가 잘못되면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의 세계를 관장하는 마귀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의 탈을 써서 귀신이 되며 귀신이 된 영혼은 주로 자손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거나 우환과 액운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귀신의 임무라고 할 수 있지.

귀신이 후손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후손의 몸 속으로 치고 들어가 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신들린 사람이라고 부르지. 조상님께 관심이 없는 자손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잘못된 조상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후손들을 따라다니는 귀신도 점점 늘어나게 된단다.

이리하여 많은 귀신들이 따라다니게 되면 그 집안은 우환과 액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귀신들의 세력이 강해져서 후손의 몸 속으로 치고 들어가 안주를 하려 하지. 귀신이 후손의 몸 속으로 치고 들어가려 할 때 그 후손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보통 ‘신들림 병’이라고 한단다.

그러다가 신을 받게 되면 귀신이 몸 속으로 치고 들어가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어 과거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무속인 또는 점쟁이가 된단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자기 조상의 묘가 잘못된 것도 분명히 알 터인데 자기 조상을 편히 모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자손들이 잘못된 조상을 편히 모셔 주지 않으니 그 귀신은 무속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따라다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자손들에게 해를 끼친단다. 무속인 자손 중에 무속인이 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라도 신들릴 수 있단다. 때로는 신기(神氣)가 오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산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다보면 완전히 신들리게 되어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하다가 신통력이 생겼다든지 도통하여 도사가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속인들과 같이 귀신이 몸에 들어와 신들린 것이란다.

3. 굿을 잘 해야 하는 이유

굿이 잘못되면 굿 귀신이 달라 붙는단다. 조상의 묘를 잘못 건드려도 이 나지만 굿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탈이 나서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옛날에 한 욕심 많은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하였단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무리한 욕심에서 출발하였고, 그 욕심대로 성사가 되지 않으니 목적달성을 위하여 목적이 성사되면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조건부로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하였지.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목적달성은커녕 오히려 화(禍)를 당했단다. 굿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인의 몸에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데 손이 힘이 없게 되고 벌벌 떨더니 귀신이 달라 붙어 헛소리를 하게 되고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정신이상자가 되었지.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굿이 잘못되어 그렇다면서 그것을 풀려면 굿을 한 그 무속인이 다시 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큰 욕심을 얻기 위해 굿을 하



면 귀신이 씌울 수 있단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도 굿 귀신이 달라 붙을 수가 있지.

옛날에 최씨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요사이 웬지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고 혼사도 될 듯하면서도 자꾸 깨지고, 어머니는 항상 잔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무속인을 찾아갔단다.

그 무속인 말로는 잘못된 조상의 묘 때문이라는 것이었지. 그래서 잘못된 조상을 찾아 정성드려 모셨더니, 최씨는 그 때부터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기분 좋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어쩐 일인지 다시 힘이 빠지기 시작했지.

조상님께 정성 드리는 것이 소홀하지는 않았는데, 왜 그럴까하여 무속인에게 다시 물어보니 얼마 전에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굿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부터 그 굿 귀신이 달라붙어 그런 거였단다. 그러니까, 굿도 잘못되면 굿 귀신이 달라붙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단다.

4. 달님 별님 이야기

옛날에 별순이 엄마가 딸을 돌을 데리고 살았거든. 그 이름이 별순이, 달순인데 왜 별순이, 달순이가 되었는데는 지는 모르고.

근대 옛날에는 남에 집에서 일을 해주고 거기에 인제 밥도 얻어다 먹고 죽도 얻어다 먹고 그러면서 살았거든. 근대 그 엄마가 무엇을 해주었는가 하면 배 땀다고 지금은 이런 옷이 이렇게 저 옷감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삼을 가지고서 이제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도 배틀에다 걸어 가지고 배를 짜 가지고 옷을 해 입었거든. 근대 그 배를 배어 주는 것이 있어. 배를 배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실을 쪽 늘어드려 가지고 그 풀을 해 가지고 먹여서 쪽 뽑는 거야. 여러 가닥을 그걸 배틀 위에다 놓고 짜는데 그 배를 매어주고 거기서 인제 무슨 밥이라든지 죽이라든지 음식을 만들어다가 애들한테 맥이고 그렇게 해서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은 별순이, 달순이 어머니가 동네에 가서 베를 매어주고 품을 파는데 베를 하루 종일 매주고 저녁 늦게 팔죽을 다라(바구니)에다 그 팔죽을 얻어 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는 거야. 근데 산을 넘는데 아, 근데 호랑이가 딱 나타났어. 호랑이가,

“할마이 할마이, 할머니거든 엄마가 호랑이가 볼 때는 할머니지...어? 할머니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무엇인고?”

물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아, 저 건너 동네에서 베를 매어주고 우리 집 애기들 줄라고 팔죽을 얻어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저 나 안주면 할머니 잡아먹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겁이 나서 안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팔죽을 다 주었어 호랑이를 호랑이가 그것을 다 먹었나 그것을 다 먹고 할머니가 가는데, 호랑이가 또 그 앞을 나타난 거야, 빈 항아리를 이고 가는데 아, 또 나타나서,

“할마이 할마이, 그게 뭐고?”

그러니까,

“베 매어주고 얻어 놓은 팔죽 그릇일세. 팔죽을 자네가 다 먹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웅기 그저 날 안 주면 잡아먹지 에.”

그러니까 그저 또 안 줄 수 없어 그래서 그 웅기를 주었더니 그 호랑이가 그 웅기를 삐적삐적 깨물어 먹었어.

그리고 나서 또 가는데 또 딱 나타났어 앞에,

“할머니 할머니, 그 팔 나 피어주면 안 잡아먹지.”

그 할머니한테 그 호랑이가 그러니까 또 팔을 피어 주었어. 오른팔도 피어주고 왼팔도 피어주고 오른 다리도 피어주고 왼 다리도 피어주고 이



렇게 다 띠어주었어 그레가지고 그렇게 걸어 갈 수가 없자나. 집에 애기들은 둘 있으니까 어떻게 해 엄마가. 집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굴러 가다니까 그 호랑이가 그 엄마를 다 잡아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집 가까이 왔단 말이야.

그레 호랑이가 별순이, 달순이 가까이 와 가지고 인제 애들을 잡아먹으려고 와서 문을 푹푹 두드렸어.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엄마다.”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그레, 그러니까 엄마라니까 문 열으라니까.”

그렇게 호랑이가 대답했거던, 그러니까 별순이 달순이가 방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손을 좀 문 안으로 내밀어 보세요.”

손을 문 안으로 집어넣어 보자는 얘기이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손을 넣으니까 호랑이 털이 승승 난 다리이자나. 그래서 인제 별순이, 달순이가,

‘아, 이제 큰일 났다.’

그레가지고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엄마 비슷한 목소리를 냈던 거야.

그런데 별순이, 달순이가 막 빌었어. 나중에 빌으니까 새끼줄 같은 것이 내려왔어. 그래서 별순이, 달순이가 그 새끼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어. 신이 도운 거지. 하나님ی 불쌍해서 그 하늘로 올라가서 별순이는 별이 되고 달순이는 달이 되었데.

그래서 그 애기 이름이 별순이, 달순이인데 그래서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까 별순이 달순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기도 새끼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거 아냐. 그래서 별순이, 달순이 흥내내느라고 자기도 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을 쓱 내려 주었어. 호랑이가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야. 딱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내려줄 때 썩은 새끼줄을 내렸어, 내려보냈어. 그래서 저 올라 가다가 중간 정도에 올라가다가 그냥 썩은 새끼줄이 툭 떨어져서 죽어 버렸어, 땅에 떨어져서.

그런데 호랑이가 수수밭에 그 수수밭에 떨어진 거야. 수수대에 찢려가지고 죽었는데 지금도 수수대에 보면 핏자국이 있어 수수, 수수 옥수수 말고 수수대를 보면 얼룩달룩한 불긋불긋한 그 핏자국이 있어. 그래서 그게 호랑이가 떨어져서 죽은 핏자국이라.



아무개 할아버지(남, 90) - 5.6.7

5. 구령이 신랑

어떤 영감쟁이 부부가 아해를 낳았는데 구령이였어. 그래도 부부는 집을 지켜주는 신령님이 세상에 나타난 거라 해서 정말 금이야 옥이야 정성을 다해 키웠어. 아, 근데 글썩 그 아해가 자금자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김정승댁 딸내미와 혼사를 하고 싶다고 하지 뭐야.

그 집 영감이 김정승댁 딸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첫째와 둘째딸은,
“구령이이라서 싫어요.”

라고 했지.

그런데 셋째딸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라고 했어. 이상하기도 하지. 뱀이랑 어떻게 살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김정승이 혼인을 허락하자 구령이 신랑과 결국 결혼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날 아, 결혼하는 날 말야, 신랑은 허물을 벗고 잘 생긴 선비가 됐지.

비오는 어느 날이었나, 신랑이 길을 떠나면서 각시에게 자기의 허물을 주면서,

“잘 보관하오. 만약 없애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며 단단히 일러 주었대.

문제는 이 사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못된 두 언니가 이 비밀을 알아채 버렸어. 두 언니는 몰래 그 허물을 훔쳐다 태워 버려서, 남편이 돌아 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야. 공산당 같은 인간 같으니, 사람을 헤어지게 만 들질 않나. 불쌍하게 되었지.

슬픔으로 그득한 각시는 외로움을 못 참은 거야. 젊은 각시가 독수공방 이 얼마나 힘들겠어. 구렁이 신랑과 같이 지내던 날을 못 잊다, 결국은 남편을 찾아 바위 속의 세계로 들어갔거든. 하지만 어떻게 된 게 신랑에게 이미 다른 부인이 있지 뭐여.

불쌍하게 여긴 신랑이 몇 가지 문제를 내어 통과하는 사람을 진짜 아내 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그래도 찾아간 예전 김정승택 각시는 아주 힘들게 시험에 통과해서 다른 가족과 함께 애도 낳고 행복하게 동굴에서 살았대. 허허...

6. 사냥꾼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기 장수

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디 아이가 용사라. 머시마(사내아이)인데, 언젠 가도 모르겠어. 그래 아이를 나면 뭘 해. 아이가 봉사인데, 그 날이 6월인 가, 그런데 모를 심는데, 말을 타고 한 놈이 오는데, 활을 들고 가다보니 아이가 봉사인데 모를 심는 것을 보는데, 벼 폭을 잘 가지고 심는지라. 그 를 보고 놀라니 아이가,

“이 정도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요.”



고 하니, 그러면,

“나의 말의 발자국 수를 아느냐”

고 하니 정확히 알아 맞추어서 사냥꾼이 졌지. 사냥꾼이 생각하기를,

“이 놈이 나의 부아(부화)를 돕구는구나”

하고, 이 놈을 죽일 거라고 하며, 그래 장에 가서 콩 세 되를 볶는데 하나라도 튀어 나가면 안되고 먹지도 말라 하니,

“당신은 어떻게 해도 날 해칠 것이요.”

하고 콩을 볶는데, 콩 하나가 튀어 나가서 콩이 화살을 맞추어서 떨어지고 맞추어 떨어지고 맞추어 떨어지고 하는데 그만 그 사냥꾼이 화가 나서 화살을 쏘아서, 아이는 화살에 맞아 죽었지 않아.

사냥꾼이 생각하기를 이제 죽었노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서 억새풀 세 폭시를 남기라 하고, 바위를 자르면 잘라지니까 그 속에 묻어달라고 하여 그대로 바위에 묻었다. 10년이 흘렀나. 그 사냥꾼이 하늘의 별을 보니까 그 아이가 아직 안 죽었다 이거야.

그래 그 아이가 살던 곳에 와서 아이가 어찌 되었느냐고 하면서 그 아이 어머니를 죽치는 거야. 그래 안 가르쳐 줄 게 아니야? 그래 칼로 위협을 하니께 그만 어머니는 자기가 무서워서, 아이가 죽을 때의 유언을 말해 주니 아무리 찌르려 해도 안되던 것을 풀로 자르니까, 부하를 거느리고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있더라. 그 아이가 다리가 떨어지면 밖을 나와서 천하를 지배할 건데 그만 어머니가 가르쳐 주어서 그만 성공을 못했던 거야.

이 사실을 안 그의 남편이,

“아이가 아무런 원한이 없이 죽었고, 당신도 아들 신세를 망쳤으니 꽤 씘하다.”

고 찍어 죽였대.(허허, 말이 되는감?)

7. 서울 아차산 용마봉(龍馬峰)

옛날에 저기 서울 워커힐 옆 아차산 최고 봉우리가 용마봉이여. 옛날에 거기서 용마가 나왔다고 해. 이조시대 그 이전 이야기지 아마. 여기 한강 광나루는 원래 백제 고구려 경계였다고 하는구만?

백제성이 있을 때인가? 옛날에는 장사가 났다고 하면 다 잡아 죽이던 시절인데, 장사가 났다니까 여기 어디서 난 사람이겠지.

여기 산밑에 살던 어른이 한 번은 아이를 나서 보니까설랑은 사내아인데, 인제 첫국밥을 해서 먹여 놓고 잠깐 나갔다가 오니까, 아이가, 갓난애가 온 데 간 데가 없더라 말이야. ‘아이가 어디 갔을까 참 이상하다’ 하고 어머니가 혼자 두런두런 하고 방을 둘러보니까는 방안 선반에 어린애가 올라가서, 무슨 수로 올라갔는지 올라가서 놀고 있더라 말이지. 참, 이상하지. 보니까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더라.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애가 날아서 선반에 올라갔으니 이거 어쩐다지요?”

그러니 남편이랑 하는 소리가,

“이 애는 우리 집이 망할 징조요, 역적이 나면 죽을 것이니...”

그리고 부부가 의논을 한 끝에 죽이자고 결판을 보고, 그 어린것을 벗삼이라나 멧돌로다가 찍어눌러서 죽였다는 거야.

이렇게 부모가 장사를 찍어 죽이고 나니 아, 용마봉에서 용마가 나와 갖고 날라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네. 애석한 일이지.

2. 회현동(會賢洞)

1) 지역개관

회현동은 회현동 1·2·3가, 남창동등 남대문로 5가, 봉래동 1·2가 등 7개의 법동과 남대문로 3·4가, 순화동 일부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동 장관할구역 명칭이다. 회현동의 동명은 이 일대에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

여 살았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으며, 회현, 회동으로 약칭되기도 하였다. 남창동은 조선 선조대에 설치된 선혜청의 창고가 있던 남쪽이라 해서 동명이 유래되었다.

조선초기 한성부를 5부 52방의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회현동은 남부의 호현방, 명례방지역, 남창동은 서부양생방지역에 속했으며, 일제 때 '정회'를 설치할 때 육정 1정목동부정회, 서부정회가 설치되었고 광복 후 1946년 10월 회현동 1가 동부동회, 서부동회로 바뀌어 회현동 1·2·3가 지역 행정을 담당했다. 1947년 말에 조사된 현재 회현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의 각 동의 행정을 살펴보면 회현동 1가 지역은 회현동 1가 동부동회와 서부동회, 회현동 2·3가 지역은 회현동 2·3가동회, 남창동지역은 남대문로 3·4가동회에서 행정을 담당했다.

이어서 1955년 4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동설치조례〉에 의한 행정동제 실시에 따라 회현 1가 제1동과 회현 1가 제2동이 설치되었고, 1970년 5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변경 조례〉에 의해 회현동 1가 지역을 관할하는 회현 1가 동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주민수효의 감소로 1975년 10월 1일(서울특별시 조례 제981호)〈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남산동사무소의 관할 일부지역 회현동 2가, 회현동 3가가 편입되어 회현동사무소가 되었다.

1980년 7월 1일(서울특별시 조례 제1413호)에 의해 소공동사무소 관할 구역의 일부가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2년 1월 3일(중구조례 170호)〈동경계조정〉으로 남대문로 3·4가동 일부지역이 회현동사무소 관할구역에 편입되었다.

1998년 9월 14일 정부조직개편으로 구 남대문로 5가동과 통·폐합되어 남대문로 5가, 봉래동 1·2가, 순화동 일부가 편입되어 현재 회현동사무소는 회현동 1가 16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 구전설화



김남은(남, 76세,) - 1~8

1. 동삼(動蓼) 이야기

어릴 때부터 있던 얘기이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이 금방 없어졌는데 그것이 동삼이다.

움직이는 삼이라고 해서 동삼인데, 둔갑하고 돌아다니니 산삼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노인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나타나니 매우 큰 것이다.

채라꾼(採藥)이 삼 얘기를 듣고 제주도에서 왔다. 그 사람이 인삼을 사다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있는 큰 바위틈에 심어 놓았다. 그런데 그 뒤로 가니까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2. 도깨비불

우리 마을 농토(농경지) 저쪽에 산이 있었는데, 밤에는 무서워서 잘 다니지 못했다. 그곳에서 이따금 도깨비불이 나왔다. 다른 사람은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안 보였다.

그래서 이상해 하나까 장심(심장)이 센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고 했다. 도깨비불은 여름에 많이 나온다. 비가 오려고 하면 저기압이 누르니까 도깨비가 나는데, 빠다귀 같은 것이 반사되니까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것인 것 같다. 그 곳에는 묘지가 많아서 뼈가 많다.

3. 관대봉과 치마바위 / 도선국사 이야기

우리 마을에 남자 관을 쓴 것 같은 관대봉이 있었다. 관대봉은 꼭 사람 같이 생겼다(사람이 관을 쓴 모양). 그 맞은 편에는 치마바위(女峯)라고 했다. 예전에 도선국사가 중국으로 잡혀갈 때 그 바위가 검으면 내가 죽은 것으로 알고, 희면 살았다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몇 백년이 되어도 하얗다.

4. 청감록 '밥박골이 뜨면 개화된다'

'밥박골 같으면은 세상 개화가 된다' 라는 말이 있다. 밥, 도시락이 뜨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다. 관대봉과 치마바위 사이에 강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서 농경지를 만들었다.

그것이 밥박골인데, 일제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된 것이 개화된 것이다.

5. 효자와 호랑이

예전에 양반이 있었다. 원래 양반은 다른 집 잔치 같은 곳에 가서 얻어 먹고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얻어 먹이려고 잔치에 가서 음식을 싸오고 했다. 잔치에 갔다가 저녁에 먼 길을 오게 됐다. 그런데 호랑이가 앞을 가로 막았다. 그 양반이

“나를 잡아먹겠냐.”

고 하니 호랑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타라는 것이냐 하였더니 타라고 하였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 타니 비호처럼 달려 집 앞에 내려줬다.

아버지께 음식을 드리고, 자는데, 호랑이가 꿈에 나타나 함정에 걸려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가보니 동네 사람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잡



으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호랑이니 비키라고 하고는 호랑이를 구해서 나왔다.

그런 뒤에 효자 발표가 났다. 내 조부 때 사람인데, 구룡리라는 곳에 지금 효자비를 세워 놓았다.

6. 실수한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사람을 데려와 보니 동명이인이라 잘못 데려온 것이었다. 저승 왕이 혼내고 제대로 잡아오라고 하여서 저승사자가 다시 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못 데려오게 되었다고 하니 그냥 놔 두고, 잘못 온 사람을 이승에 보내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승에 가야할 사람이 삼일이 넘어 몸이 썩어서 못 가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저승에서 살았다.

7. 뱀 부적으로 뱀을 퇴치하다

시골에서 살 때 이야기이다.

어느날 저녁 때 큰 뱀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 때 우리 집사람이 부엌에 있었는데, 부엌에서 놀라서 나왔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큰 뱀이 보꼭(천장)에 걸쳤다고 하는 것이었다. 가서 보니 겁이 났다. 그 뱀이 그 너머 뱀으로 늘



어갔는데, 저녁에 깜깜해서 어찌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내가 뱀 쫓는 입춘축이란 것이 있는데, '속거천리(速去千里)'라고 써서 그 뱀이 간 자리-닭장에 붙여 놓았다. 그리고 나서 잠시 있다가 가보니까 없어졌다.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부적을 붙여서 도망간 것은 아니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간 것 같다.

8. 북바위 이야기

우리 친정집 얘기이다.

옛날 왜정 때 초분리 북바위 상여집에 살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집(상여집)에 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곳은 원래 상여집이고 상여집은 귀신이 많다고 다들 안 간다.”
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귀신이 어디있냐’고 하면서 갔다. 그 때 할아버지가 9살이고, 할머니가 12살이었을 때이다.

집에서 자는데, 다리 밑에서 소리가 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귀신이 있다더니, 네가 귀신이나?”

하고 다락문을 보니까 어떤 것이 확 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무섭다고 도망을 가는데, 인연이 맞아서인지 그냥 살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돌이 있는데, 방을 치우다 웬지 그것은 치우고 싶지 않아서 놓아 뒀더니 큰 바위가 됐다. 바위가 점점 커지면서 동네에서 우리집을 ‘상여집 북바위집’이라고 했다.

우리 집이 산 밑인데, 봄만 되면 바위에서 뱀이 혀를 내놓고 널름 거렸다. 그것이 뱀업이다. 부자 되는 사람은 뱀업도 있고 구렁이업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뱀업이었다. 바위 속에 뱀이 들어 앉았다가 봄만 되면 혀를 널름거리고 있었다. 아침에 나왔다가 오후에 해가 넘어가면 뱀이 싹 없어졌다.

그 후에 왜정 때 일본 사람들이 멋대로 뚝방을 쌓느라고 남포(대포)를 썼다. 그 소리에 놀라 뱀이 죽어서 집으로 퍼졌다. 그 뒤로 집이 좀 안 좋아졌다.

고모네에도 큰 광에 구렁이가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흰 죽을 쑤서 아침, 저녁으로 한 대접씩 갖다 놓았는데, 저녁에 가보면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고모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안 좋으려고 하니까, 구렁이가 슬슬 나오더니 담을 넘어 없어졌다.



이귀복(남, 76) - 9

9. 저승 갔다 온 이야기

옛날에는 우리 농사꾼들은 농토 한 마지기 얻어 붙이기가 힘들었거든. 없는 사람이 있는 지주한테 양식도 구해다 먹어야 했고, 이제 이러니까는 몇 마지기 얻었지. 논 몇 마지기 얻어 부쳐 심은 다음에 내 논은 심은 지가 얼마 안되니까 노랑바래기에 그런데도 말라 비틀어져 물을 못 대니까, 그 위에 논은 물이 치렁치렁하니까 없는 논두렁을 몇 군데 뚫어 났어. 아래 논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물이 바삭 마르고 밑에 논으로다 치렁치렁 하거든. 논두렁 끌어온 놈도 끌어 놓고 나서도 널 아침에 죽었구나 죽일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아들을 불러갖고,

“우뚱허니 좋겠냐?”

“아버지, 어떻게 했길래 그러세요.”

“널 아침엔 샌님이 독돌 같이 달려와서 날 죽일려고 할 테니 어떡하면 좋겠냐? 논이 노랑바래기가 됐어. 물이나 실컷 대볼려구 하는데 무슨 방도를 취야 해 하지 않겠냐.”

“무슨 좋은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방에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테니 넌 말이지 저기서 대성통곡을 해라. 그러면 설마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아들놈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문에다 대고서 대성통곡을 하거든,

“간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눈에 가보니까 눈이 다 바싹 말라있거든. 그리고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다가 주인은 다시 눈에 한 번 가봐야겠다고 하고서 또 그 눈을 갔지. 눈을 보고 다시 기가 막혀 다시 그 소작인 집으로 갔는데, 방안에서 웃음소리가 진동을 하더라. 방안에서 킁킁거리면서 웃고 희희낙락 야단이거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울고 있던 그 아들놈이 웃고 있는 것이지.

“아니 이거 이상하다.”

하고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하니까 그 집 아들놈이 나오더니,

“아, 주인어른 오셨군요.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죽었다고 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하고 물으니까. 죽었던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 뜨고서,

“저승에 갔더니 너는 농사나 열심히 지라고 다시 돌려 보내줘서 내려오니 제가 살아났더라고요.”

“아, 그럼 저승에 갔다 왔다는 말인가?”

“갔다 왔죠.”

“그럼 동네 분들 다 만나 봤나?”

“가보니 주인어른 아버지, 노 샌님은 생전이나 저승에 가거나 혼학을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물 터 놓은 그 애비는 뭘 하고 있던가?”

“지 아버지야 뭐 평소에 살아 계실 때처럼 낭구(나무) 장사하고, 저승 가셔도 여전히 짚신을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노마님은?”

“노마님은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우나, 우리 아버님한테 와서 짚신을 삼기도 하고 짚신총을 비벼대고 아양을 떨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인은 괜히 물어봤나 싶어서,

“너 어디 가서 당초 저승 이야기는 하지 마라.”



고 했다.

“아이고, 주인님이 그러는데 어디 가서 절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고 한 이삼 일이 지나니까 소작농은 요령이 생기드래요. 그리고 마을에는 그가 저승을 갔다 왔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저승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드래.

그러다 어느날 마을길에서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자네 어디 가는가?”

“저승 얘기하러 갑니다.”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나서,

“저승 얘기는 자네에게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러나. 뭐 필요한 것 있는가. 맞아, 자네 농사짓는데 소가 필요하겠네 그러. 그럼 내가 소를 주겠네.”

그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길에서 마주치드래.

“자네 어디 가는가?”

“아, 옆집 개똥이 아버지가 저승 갔다온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자네 또 나한테 서운한 것 있는가. 내 재산을 다 줄 테니 제발 저승 갔다 온 이야기만은 하지 말아주게나.”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는 부자가 됐다. 특하면 한다고 하면 주인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기 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일만은 막았던 것이다.





권종술(남, 74) - 10, 11

10. 새댁 방귀가 무슨 죄람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셋이 살았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신부가 실수를 해 가지고 방귀소리를 내면서 방귀를 끼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신부가 첫날밤에 악취를 뿌렸다고 그만 구박 당해 집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첫날밤을 보내고서 신부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들이 조금 자라서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배우는데,

“하늘천 따지 깡밥 누룽 밥.”

이라고 읽었어.

그러니까 먼저 온 애들이 놀리는 거야.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너는 왜 아빠가 없느냐?”

그 아들은 집에 와서,

“엄마, 난 아버지가 없어요? 난 아버지가 있었으니 낳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머니가 이래저래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세상에 사람 치고 천지 만물 가운데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드기나 방귀를 안 끼지. 그럼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러 갔어. 가는데,

“어머니, 나 오이씨하고 수박씨를 조금만 주세요.”

해서 어머니가 싸 주었다.

그 때는 시골이라 차도 없고 해서 걸아 다니면서 동네방네 외치고 돌아

다니는 방법뿐이 없었다. 해가 뜰 때부터 저녁까지 아들은,

“오이씨 사세요. 수박씨 사세요. 밤에 심으면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 사세요.”

그렇게 외쳤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한 노인이,

“초롭아. 이리 들어오너라.”

그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니 부자집이었다. 노비도 많고 몸종들도 많았다. 그리고 있는데 노인은 그들을 시켜 음식상을 차려오게 했다. 아들은 맛있게 먹었다.

그 노인은 큰 인물이 될 녀석이구나 하고서는,

“너 어디서 왔느냐?”

“등골 30리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영감은,

“나도 거기서 왔는데.”

그리고 보니 그 영감이 그 아버지였던 것이다.

“근데 넌 여기 왜 왔니?”

“우리 엄마한테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가 실수로 소리를 내지 않았어야 하는데 첫날밤에 방귀를 끼어서 구박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하인을 시켜서 세수 대야에 물을 떠오라 하고서는 자기 손하고 아들 손을 세수 대야에 넣고서는 칼로 탁 잘라버렸다. 그러자 그 손가락은 다시 뭉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너는 과연 나의 자식이다.”

고 말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가지고 다시 어머니, 아버지 셋이서 잘 살았다.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말이다.

11. 도깨비 집을 발견해 부자된 김길식과 이창식

옛날에 한 마을에 김길식, 이창식이라는 꼬마가 한 마을에 살았어. 하루는 이 두 녀석은 의논을 해서 우리 가출하자고 결정을 했던 거야. 그래서 밤에 몰래 호롱불을 가지고 가출을 하는데 한참 걷다보니까 불이 켜진 집을 발견했다. 그 집에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어서 들어오시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조금 있다 음식상을 차려 주셨다. 두 녀석은 맛있게 배불리 먹었어. 그렇게 잘 먹고 나서 창식이 가 길식이

더러,

“너 이 밥 먹지 마라.”

“왜 먹지마 배고픈데.”

“하나는 안 먹고 하나는 다 먹었어.”

“그 밥에 똥을 좀 쳐 놔. 이상스러운 걸 넣나봐.”



그러고서는 둘은 잠이 들어버렸다. 한참 자고 있는데

길식이 눈을 떠보니 밖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할머니가 그 둘을 죽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길식은 도망을 칠려고 하는데 도망칠 문이 없었다. 그리고 미리 할머니가 문을 밖에서 다 잠가 놓았다. 또 창식을 깨어서 같이 도망을 가야 하는데 깨어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길식은,

‘나라도 도망을 치자.’

하고서는 도망을 갈려고 하는데 이만한 창문이 있어. 그걸 간신히 뜯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는 칼을 다 갈아 가지고 그 방에 들어오는 거야. 그 할머니는 도깨비였어. 한참 있다보니 여러 도깨비가 나오더니 아무리 찾아도 길식이가 없거든 그런데 한 도깨비가,

“저기 나무 위에 사람이 있다.”

하자. 대장 도깨비가,

“저것은 까치집이지, 사람이냐.”

와서 보니까 길식이거든,

그래서 도깨비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데 길식이는 발로 차서 도깨비를 땅에 떨어뜨렸다. 또 다른 도깨비가 올라오면 발로 차서 또 떨어뜨리고 계속 그러했다.

그러자 조금 있다 한 도깨비가 톱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베거든. 그런데 나무가 한 번에 넘어가지 않고 슬슬 넘어가더니 그 옆에 있는 담 축대에 가서 걸친 거였다. 다행히 그러고서 나무에서 내려와 막 뛰었다. 그렇게 막 뛰고 있으니까 첫 닭이 울었다. 그렇게 날이 밝아서 보니 동네가 있거든 베틀 소리가 났다. 그래서 얼른 마을의 이장님 댁에 가서 이러 저러해서 이리한데 저 좀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 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금, 은, 보화가 가득했다.

그렇게 해서 그 녀석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다.

3. 명동(明洞)

1) 지역개관

명동은 장교, 무교, 다, 태평로 1가, 을지로 1·2가, 남대문로 1·2가 일부, 삼각, 수하, 수표동, 명동 1·2가, 충무로 1·2가, 저동 1가, 남산동 1·2·3가, 예장동 일부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 구역명칭이다.

명동의 동명 유래는 조선초 한성부의 행정구역설정당시 남부 명례방의 ‘明’자를 딴 것으로 원래 ‘명례방’ 또는 ‘명례방골’이라고 하다가 줄여서 명동이라고 하였다.

저동의 동명은 모시를 취급하는 상점인 저포전이 있었기 때문에 동명이 유래되었고 남산동은 남산 북쪽 기슭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남산

골이라고 불리던 동명에서 유래된것으로 현재까지 통칭되고 있는 서울의 동명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하여 부르는 것 중의 하나이다.

조선초기 한성부 남부 명례방·훈도방 지역에 속했으며 일제 때 ‘정회’를 설치할 때 명치정1정목, 2정목정회가 설치되었고 광복 후 1946년 10월 명동 1·2가 동회로 바뀌어 명동 1·2가와 충무로 1·2가 일부지역의 행정을 담당했다. 1947년말에 조사된 현재 명동사무소관내의 각 동을 살펴보면 저동 1가는 저동 1가 동회, 남산동 1·2·3가지역은 남산동회가 설치되어 행정을 담당했다.

그 후 1955년 4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동 설치조례〉에 의한 행정동제 실시로 명동 1가는 명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되었고 주민감소로 인해 1970년 5월 18일(서울특별시조례제613호)〈동장정원및 명칭과 관할구역변경조례〉에 의하여 명동 1가, 명동 2가, 충무로 1가, 충무로 2가와 함께 남산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1975년 10월 1일(서울특별시 조례 제981호)〈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변경〉으로 동의 통폐합이 실시되면서 명동사무소의 관할 아래 있던 명동 1가를 비롯하여 명동 2가, 충무로 1가, 충무로 2가와 함께 남산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던 남산동 1·2·3가와 초동관할의 저동 1가가 명동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통합되었다.

이어서 1985년 9월 1일(서울특별시 조례 제2015호)〈동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에 의하여 예장동 일부지역도 명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통합되었고, 1998년 9월 14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장교, 무교, 다, 태평로 1가, 을지로 1·2가, 남대문로 1·2가 일부, 삼각, 수하, 수표동을 통합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명동사무소는 남산동 2가 9-6에 위치하고 있다.

2) 구전설화



아무개 할머니(일명 대장할머니:여, 80) - 1

1. 청직한 선비

옛날에, 어 6·25 전에 요기 남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와룡묘라고 있는데 알아? 와룡묘라고 지금 거기 절 같은 거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절 절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와룡장군 묘라구. 거기 지금 있어. 그거 몰르지? 거기를 한번 가봐 그럼. 어떻게 해서 가보느냐 하면, 요기서 요렇게 올라가서 어, 요기서 요렇게 올라가면 동보성(현 중국집 이름) 알지? 중국집. 동보성 알지? 동보성 있는 데서 길을 건너 가지구 고리 올라가면, 사람들더러 물어보면은 와룡묘라고 있는데, 그전에 거기 그 노할아버지가 기셨어, 6·25 때. 6·25 전 얘기야, 해방되구. 근데 인제 그 노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그 할아버지가 아는 게 굉장히 많으셨어. 그랬는데 지금두 거기를 가면은 아직까지 그게 있을 거야. 이게 한빛은행이면은, 한빛은행이, 인제 여기 이게 3호 터널 길이구. 여기 3호 터널이구. 여기 인제 요기에 이게 한빛은행 아냐, 한빛은행. 요렇게 저쪽으로(저기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 여 은행을 끼고 넘어가는 길이 있다구. 그러면은 이쪽으로(이리로) 가면은 또 요렇게 길이 있구. 그런데 지금도 요기 인제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말씀들은 거야. 집이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는 이게 남산골이라고 그랬을 거야, 그렇지? 여기가 남산골이라고 그랬겠지. 그랬는데, 그때 인제 어떤 선비가, 어떤 선비들이 이렇게 인제 선



비가 한 사람은 부자구 한 사람은 가난한 선빈데, 그 부자 선비가 여기에 다 집을 사는 게 있었대, 자기집. 근데 인제 가난한 선비가 집두 없구 가난허니깐 이 집을 사는 거를 그 친구를 좇어.

“이 집에서 살어라, 이게 내 집이지만서도.”

근께(그러니까) 인제 가난한 선비가 와서, 이사를 와서 사는데, 와서 보니깐 집이 요렇게 인제 방이 있구 마루가 있구, 여기 이 짝 방은 이렇게 가꼬목(각목)으로 인제 요렇게 해서 철거를 해놔뜨래. 그러니깐 이것까지 다 안 쓰고, 여기는 선비가 방에서 공부를 허고, 옛날에는 이 마당에서 바느질을 했대네, 옛날에는. 바느질을 허는데, 인제 옛날에 바느질을 허면 요렇게 불을 퍼놓고 인두를 쫓아 놓고 인제 바느질을, 우리 세대 때두 그랬으니까, 그렇게 바느질을.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분들의 그 이름까지 다 아셨는데, 난 그것까진 기억을 못해요. 그래 가꾸서는(그래 가지고) 할머니는 인제, 할머니가 아니구 그 부인이 여기서 바느질을 허는데 그냥, 벨안간(별안간)에 여기서 우지끈 딱딱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깐 여기 이 밑으로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털이 이렇게 있는 게 나오더래.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훌륭한 여자였었나봐. 훌륭한 여자기 때민에(때문에), 그거를 막 자기가 경솔하게 소리를 질르면은 자기 남편이 인제 공부를 못허구 나올 테니까, 인두루 갖다가 그 발을 이렇게 지졌대. 그러니까 인두를 갖다가 이렇게 데니깐 발이 들어가구. 인제 그런 일이 있어두 그 날 지내구, 그 며칠 있다가 인제 이 방문 고리가 빠졌대요. 방문 이짝 방문 고리가 빠져서, 선비네 집이 무슨 그런 기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인제 자기 부인더러,

“이거를 뭘로 이렇게 고치느냐?”

했더니, 인두를 갖다 좇어 남편한테. 인두를 갖다 주니깐 그냥 남편이 짹 짹 놀래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니까 금이 붙은 거야, 그 인두에. 인두에 금이 붙어서,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만 이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이저를 뜯고 거기를 보게 되는 거 아냐. 그래 뜯고서 거기를 열고 보니까, 그 방안에 방고래 밑에 그 저 판모냥(판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것이 금궤야. 그래서 그게 금궤니까 금이 그렇게 많으면은 도섭(도술)을 부린데요. 그래서 인제 그 금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정직허구 저기한 사람이니까. 자기 친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허면서, 이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구, 데리고 와서 저기 그러니까,

“그건 니가 임자다. 이것이 내 집이지만 나는 그걸 몰랐구 니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니가 임자니까 그건 니꺼다.”

그래 가지구 인제 그 집이 부자가 됐데. 부자가 돼 갓구 그 집에서 아들을 셋을 낳았데요. 아들을 셋을 나갓구 아들 셋이 다 정승이 되구, 아버지도 판서가 되구, 삼정승 판서집이 바로 고 자리래요.

4. 필동(筆洞)

1) 지역개관

필동은 필동 1·2·3가, 남학동, 주자동, 예장동, 충무로 3가 등 법정동 7개동과 장충동 2가와 충무로 4가 일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관할구역 명칭이다. 필동의 명칭은 조선시대 한성부 5부 중의 하나인 남부의 부사무소가 이 곳에 있었으므로 부동이라 하였는데 이와 발음이 같은 붓(筆)이라는 음을 빌려와 붓골이라 하였다. 그후 부의 음과 필의 훈이 서로 같기 때문에 붓골을 필동으로 표기하였다.

현재의 필동 일대는 조선초기 한성부 남부 성명방, 낙선방, 훈도방 지

역에 속했으며, 일제 때 ‘정회’를 설치할 때 대화정 1정목회, 대화정 2·3정 목회 가 설치되었고 광복 후 1946년 10월 필동 1가 동회와 필동 2·3가 동회로 바뀌어 필동 1·2·3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후 1955년 4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동설치조례〉에 의한 행정동제실시로 필동 1가는 남학동, 주자동, 애장동, 충무로 3가 지역과 함께 남산골의 이름을 따 신설된 남곡동사무소의 관할이 되고 필동 2가는 필동 3가와 함께 동산골의 이름에서 따온 동원동의 관할이 되었다.

1970년 5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필동 1가는 남학동, 주자동, 애장동, 충무로 3가와 더불어 충무로 3가동사무소 관할지역이 되고 필동 2가와 3가지역은 필동 2·3 가동사무소로 바뀌었다. 그후 주민수효의 감소로 1975년 10월 1일(서울특별시 조례 제981호)〈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이 있을때 필동 1가는 필동 2가, 필동 3가와 함께 필동사무소의 관할이 되어 오늘에 이르며, 그후 1992년 1월 3일(중구조례 제170호)〈동경계조정〉 때 충무로 4가 지역 일부가 필동사무소 관할에 편입되었다.

2) 구전설화



백문웅(남, 84) - 1, 2

나종락(남, 84) - 3~6

백문웅(남, 84) - 7, 8

1. 형제간의 우애

옛날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보았다. 처음엔 형이 먼저 보아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는데 자꾸 동생을 죽이고 혼자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건네 받는 동생도 마찬가지로 형과 같이 형을 죽이고 혼자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땅에 버렸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스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스님 눈에는 그 금덩어리가 뱀으로 보여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치고 지나갔다. 이러한 상황에 소리가 나서 형제가 가 봤더니 금덩어리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반씩 나누어 가져서 행복하게 살았다.

2. 말조심

옛날에 감사가 온다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쓸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쓸고 있는데 감사가 와서,

“왜 길을 쓰냐?”

고 물어 보았다. 그 사람의 대답이,

“감사가 뭔가가 와서 이렇게 길을 쓸고 있다.”

고 말하였다.

그래서 감사가 그 사람의 대답에 화가 나서 혼을 내 주겠다고 버르고 그 사람을 쫓아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찾아온 사람이 감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내에게,
“제사상처럼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대접하라.”

고 하였다.

그리고 난 후 주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가니깐 감사가,

“왜 이리 음식을 많이 장만하였냐?”

고 물어보았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진가 뭔가 하는 사람이 죽은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감사가 용서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입이 험악해서 벌을 주었다.

3. 놀아난 김진사 며느리를 참수한 박문수

박문수가 열 여덟 살 먹어 가지고 과거 보러 지금 말 타고 상투 쪽지고 갓 쓰고 그리고 오는데 그 앞에 신부가 가마 타고 가면서 자꾸 그 박문수를 쳐다보며 그러거던.

그러니까, 박문수가 아무래도 좀 머리 비상한 사람은 다르거든. 경기도 용인을 지나고 떠나 정작 버드나무 밑에서,

“자, 여기서 버드나무 밑에서 좀 쉬어서 가자.”

그랬다.

그래 좀 신부가 그래서 무슨 가마를 타고 가다가 그 박문수한테 반한 거야. 신부가 박문수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 참, 남자가 미인 남자 그러니까 정신 거기다 쏟아 놓고는,

“자, 우리 그럼 여기서 쉬었다 가자.”

고 신부가 그래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신부가 좀 곡조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먹고 밤에 김진사의 집에 하룻밤 세고 갈려고 그러니까,

“아, 어서 하룻밤 세고 가라.”

고 그래. 김진사가 하는 말이. 그래 김진사 집의 며느리가 된 거야.

그 신부가 가마 타고 오는 신부가 그래 박문수가 밤에 잠 안 자고 마루 밑에 가서 이리고 신부가 참 이상해서 마루 밑에 가 숨어서 들었던 말이야. 신발 밑에 가 들어앉아 누워서 숨어서 들었는데, 밤에 열 두 시 넘어서 난데 없는 남자가 들어오면서,

“아, 오늘 밤 큰상 받아가서 재미 잘 봤는가?”



그러면서 신부 방으로 들어 가더라. 들어가서 술상을 띄 차려 놓고 지금
먹었는 게라. 그러니 문득 신랑은 혼인이 된 거를 신부가 소창국 먹여서
죽이려고 공작을 한 거지. 그러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 그러면 그저 안쪽에서 칼을 뽑아서 안주 받으시오.”

칼을 뽑아서 죽였던 말이여. 죽여서 김진사의 연못에다 쫘쫘 묶어서 물
에 안 떠오르게 묶어놔던 말이야.

그러니 박문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소문 안내고 이튿날에 김진
사에게,

“밤 잘 잤다.”

고 절을 하고,

“전 이젠 과거를 보러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 김진사는 앉아서 눈물을 방울방울 막 흘리네.

“간밤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없어졌다.”

고 그러니 뭐 죽은 거나 한 가지지.

옛날에는 말죽거리에 와서 말을 걷어 가지고 한강 건너에 있어 거기서 만
나 가지고 동대문 해안에서 들어오는데 웬 총각이 갓 쓰고 하얀 돌맹이 입고

“여보, 선비가 저기 과거 보러와요.”

“아, 과거가 어제 지났는데 오늘 하려고 하고고.”

박문수가 물어보기를,

“과거가 무슨 팝니까?”

무슨 과로 과거를 받느냐고 물어보니,

“낙조라고 합니다.”

“낙조는 된 사람이 없어 밤 사이 또 하더라 합니다.”

그래 이제 옛날에는 성균관에 경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과거를 보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경학원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 경학원에 지금 들어가
서 과거를 보려고 박문수를 지금 과거 문제를 지금 써 놓고 낙수 하나 또
써 놓고 관가에서는 될 지 않을 지 어떻게 알고 낙수라는 걸 아냐. 이상



하거던. 그래 가지고 가지고서 제 책임을 가지고 돌아가거던.

“이 박문수 박문수 장원급제 단청단청.”

두 번 메사,

“예.”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더래.

그래 내가 박문수가 내가 옛날에는 경찰을 사령이라고 했어요.

“사령을 주시오.”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충청도 용정 가서 할 일이 있어서 조사할 게 있어서 그렇다.”

그래 인제 김진사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박문수가 장원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됐거든. 김진사 박문수를 보니까 방
울방울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 아들도 지금 살아 있으면 저렇게 됐겠구나!”

그래 오늘 저녁을 일찍이 해달라고 그래 저녁 먹고서 동네 사람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불러 놓고,

“내가 이래봐도 도둑질하고 나쁜 강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놓고선,

“저 김진사의 막내며느리를 끌어내라!”

박문수가 암행어사가 됐으니 막아 낼 할 수가 없지. 박문수가 김진사의
막내며느리 불기를 공장 열 다섯 대씩 때려라 호령하니깐 때려야지. 아파
서 견디어 내요. 다 불러내야지.

“니가 김진사의 아들 둘이 공작을 해서 죽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니
가 대라. 니가 바른 말을 안하면 니가 안하면은 죽게 되어 있다.”

아, 그러니,

“술을 잔뜩 먹여 가지고 칼을 목에 대고 죽여서 김진사 집안 연못에 죽
여 가지고 집어넣었다.”

하고 박문수가 김진사의 막내며느리하고 그 놈하고 둘을 한꺼번에 사형을 시켰다.

그래 김진사는 박문수가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구나 했더라고.

4. 무케

친구는 잘 살고 서울 오겠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야, 내가 서울 쪽으로 좀 가게 돈을 데 주겠나.”

“아, 그래”

옛날에는 엽전이라는 돈을 썼대요.

“엽전 그 얼마면 쓰겠냐?”

그래,

“한 서른 냥만 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서른 냥은 큰 돈 아닌가.

서른 냥을 받아 가지고 한양에 한 점하는 집이라. 점쟁이 집에 왔는데,

‘복채는 석 냥이요.’

그렇게 써 있더라, 그래,

“저기 들어가서 점 한 번 보겠다.”

“그래 그럼 니 맘대로 해라.”

점을 보니, 점괘는 ‘황죽(黃竹)’이라는 점괘를 해주더라고.

그래 황죽이라고만 써서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몸에다 지니고 다니라고 그랬거든.

아,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루 밤에 서울 장안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가 났거든. 그런데 어떻게 ‘황죽’이란 이 선한 사람이 뒤집어 썼어. 그래 그 지금 한 뒤에 보고하니, 이 사람 손바닥에 뭘 쓰고 자꾸 오래 보고 조리 보고 그리고 있어. 가만히 보니,

“잠깐, 저 사람을 중재해라.”

처녀가 중재를 시켰거든.

“저 사람이 손바닥에 쓴 걸 가지고 오라고. 내가 좀 보겠다.” 고
그래 보니 거기에 ‘황죽’ 이란 글자가 써 있거든. 아, 이걸 보니,

“이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황죽’ 이란 사람을 잡아 오지라.”

‘황죽’ 이란 사람이 있더라. 서울 장안에 그 사람 잡아다가 죽을 처보니
깐, 어, 이 놈이 마을 여잘 강도짓을 하고 죽인 거라. 마을 안 들었다고 집
에 가서 이 사람은 그 서울 와서 점집에 가서 점괘에 ‘황죽’ 이란 그걸 그
냥 갖다 주길레 받은 거라 그래.

그 사람도 그 한 고비 넘겼거든. 그래 그 사람이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
다가 한 음식 집에서 막 붙들어서 못 가고 독아 가고 가만히 참 이
제 어떻게 되어서 그 놈의 집에서선 사람이 말라서 죽어 나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가마에 태어 가지고 갈려고 그러는데 그 정유집
딸이 금을 많이 주었던 말이야.

“여보, 당신 죽을 사람이지만 이 금이나 가지고 가라.”

아, 가마 타고 갈 동안 말이야. 노인들이,

“좀 무거우니깐 쉬어서 가자.”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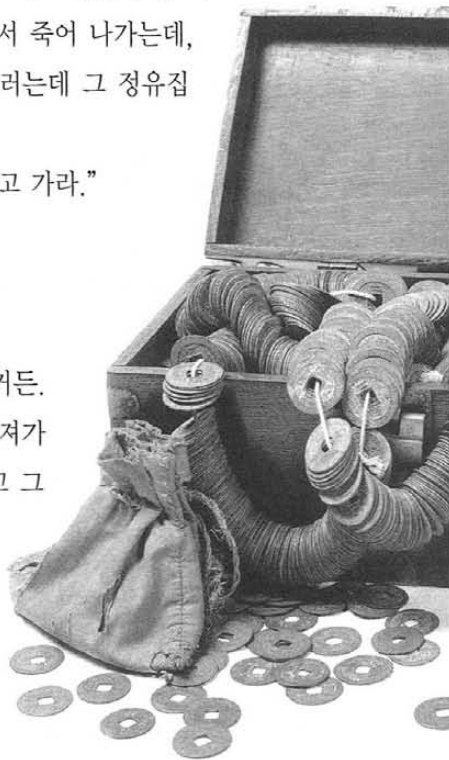
이 사람이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거든.
눈을 싸매고 노인들이 그를 가마에 태우고 가져가
니 노인들이 다 내버리고 다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래.

“아, 그러냐.”

고 그래 담배 주고 서로 말을 주고 왔다 갔
다 한단 말야.

“나는 죽는데 보물이 무슨 필요 있겠는가.
나한테 보물이 있는데 내가 주면 받겠는가?”

노인들에게 그래 주면 받지 네 사람이 그 금을 노나 가져야지. 아이고





그걸 가지면 뭐 참 돈이 많이 생기니깐 말이야. 그걸 팔면 돈을 많이 주니 생기니깐 말이야. 우리 날 대신 개를 사 가지고 개가 때 가지고 죽여 가지고 가마 넣고 가마만 때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되겠지 하고 개가 때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가마만 때 가지고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허허허...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데.

5. 서 할범은 개도 안 좇어 간다

중국하고 옛날 씬 있었던 말이야. 씬 씬. 서울에서 서로 살려고 서로 둘을 막 던지고 또 막 던지고 그러는데, 이북 함경도에서 그 밀란(민란)을 막으려고 두 사람이 왔더라고.

그건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역사라 오일문이라고 서 할범이 하고 이 사람들이 둘은 장수들이야 장수. 그래도 오일문이는 사람을 어떻게 막 패서 집어 너도 막 패서 넣는 아주 빠른 사람이고 서 할범은 힘만 썼지 동작이 뜨더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로 와 가지고 밀란을 막는데 오일문이는 하다가 다치고 뒤를 돌아보니깐 서 할범은 속고채로 뭔가 뜨더라 ‘허허’ 그냥 죽게 생겼더라고. 가서 자전계 끼고 치고 남을 치고 막 도망쳐서 살았더라. 그래서 할범이 하는 말이 있는데,

“서 할범은 개도 안 좇어 간다.”

고 그런 말이 있어.

6. 의좋은 형제

예전에 어느 집에 형제가 살았는데 사이좋게 살았는데 하루는 어디 산을

넘어 가는데 길바닥에 금뎡이(금뎡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 있더라 말이야. 그래서 그 금뎡이를 주어서 형이 가져가면서 생각해보니 동생을 주고 싶고 또,

“아, 이거 니가 한 번 가져가라.”

하고 나니, 동생을 주니깐 동생이 가지고 가다보니 또 형을 주고 싶거든.

‘아,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집어서 내판가지(내팽게)치고 둘이 갔는데 그때 마침 중이 지나가는 거야. 중한테 이야기를 했어.

“저기 가면 금뎡이가 있으니깐 스님이 가져가서 잘 쓰십시오.”

그리고 가는데 조금 있다보는데 중이 가져가는 척 하더니 중이 그냥 그 중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그 금뎡이를 때렸단 말이야. 중은,

“그래 뭘 봤느냐?”

땀으로 봤는데 자기 지팡이로 두들겨 패니깐 두 동강이 났단 말이야. 그리고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더라 스님이.

그래서 그 형제가 하나씩 가지고 잘 살았다고 해요.

7. 무학대사 이야기①

무학대사가 하루는 하두 심심해서 저 왕십리 쪽으로 나갔단 말이야. 나가니 저 밭에 노인이 밭을 가는데,

“이 놈의 소 새끼가 미련하긴 무학이 보다 더 미련한 소새끼.”

라고 그래.

무학이 저기 저 무학이보고 욕을 하거든

그러니 그 노인이 밭을 갈다 가도 뭐,

내 쉬는 시간에 가서,

“선생님 제가 무학이올시다.”

가서 절을 하고 그래.

“그 경복궁 터가 파금 형국인데

파금 나한테 짓 굶어야 그 견디지 목재





수가 집을 저 놓으면 딸거지는 다 나자빠지지 견디냐? 어, 경복궁 지을 때 단 물래부터 먼저 짓고 지어라!”

“문래란건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이란 말이야. 목재를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오래 가도 안 자빠진다.”

고 목수도 가만히 있어보니 집을 짓다가 거꾸로 짓다보니 이상하거든.

이상하다 싶어 그래 뭐, 무학대사가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 고대로 하니 집이 무너지지도 않고 오래 견디더라고.

8. 무학대사 이야기②

옛날에 인왕산에 중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를 이 나라에서 지금 임금 은 성을 쌓는데 성 밖에다 쌓으면 중이 득세를 하고, 성 안에다 쌓으면 중이 득세를 못한다고. 그래서 중하고 임금하고 지금 옥신각신 시비가 된 거라.

그럼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임금께선 내일 아침 해 돋기 전에 여기 올라 오라.”

이튿날 아침에 올라가서 보니 무학대사 때문인지 서리가 무지개 모양을 선을 그어 놨더라, 서리가. 그래서 임금께서는,

“하늘의 뜻이니 내가 어찌 거절하겠느냐.”

그러더라.

그래 무학대사가 이긴 거냐.

5. 중림동(中林洞)

1) 지역개관



중림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데 의주로 2가, 만리동 1가, 만리동 2가 등 4개 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관할구역 명칭이다. 조선초 한성부를 5부 52방의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서부 반석방과 반송방에 속하였으며, 중림동이란 동명은 약전중동과 한림동의 글자를 각각 한 자씩 따온 데서 비롯되며, 옛마을로 가운데맏말, 한림골, 형제우물골을 들 수 있다.

의주로 2가는 서울-의주간 시발지역으로 북으로 가는 도성문인 서대문에서 두 번째 블럭으로 '의주로 통하는 길'이라는 뜻에서 일제 경성부시대 의주통 2정목이라 하던 것을 우리말로 고친 것인데, 옛 마을로는 개정동, 네거리, 대동, 반천동, 뱃골, 자암동, 정자동, 조갯골, 초래우물골, 풀못골, 한칸동 등을 들 수 있다.

만리동은 광복 후 처음 만들어진 이름으로 만리현의 이름을 따서 동명이 되었다기도 하고, 또한 일설에는 세종 때 한글창제를 반대한 최만리가 살던 곳이라 하여 유래되었다고 하며, 옛마을로는 가운데맏말과 동산말, 벌말, 아랫말, 장자우물골, 박우물골, 상태동 등이 있었다.

1947년말에 조사된 현재 중림동사무소 관내의 각 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주로 2가는 의주로 1·2가동회, 만리동 1가는 만리동 1가동회, 만리동 2가는 만리동 2가서부동회와 남부동회가 각각 설치되어 행정을 담당했다.

1955년 4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동설치조례〉에 의해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서대문구 중림동으로 설치되었다가 1975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7816호)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구 동의 관할구역 재편성으로 중구로 편입되었고 중림동과 의주로 2가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1980년 7월 1일(서울특별시 조례 제1413호) 만리동이 폐동되면서 만리동 1가와 만리동 2가도 중림동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구전설화

오선탁(남, 72) - 1

- 이선자(여, 55) - 2
 김무자(여, 62) - 3
 이정애(여, 62) - 4
 김준배(남, 64) - 5
 윤인섭(남, 65) - 6
 박상수(남, 60) - 7
 임재동(남, 80) - 8, 9, 10
 김호연(남, 80) - 11~22

1. 첩동새가 밤에 슬피 우는 사연

옛날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들 아홉에 딸 둘을 두구 죽어서 후댕네(후대네)를 얻었어. 이 후댕네는 전댕네가 난 아들딸을 미워해서 당장 죽여 없애려구 했지.

어느 날 아홉 오래비는 누이를 시집보내는 데 쓸 예장닭을 사러 먼 곳에 가서 집에 없었는데, 홀어머니는 이 사이에 쥐를 잡아서 껌데기를 베껴서 큰딸 자는 데 가서 큰딸 속옷 안에 몰래 넣구,

“빨리 일어나라. نوم(남)은 벌써 일어나서 일하구 있던데 넌 와 잠만 자구 있네?”

라고 야단을 쳤지 않겠어.

큰딸은 놀래서 일어났는데 뭐가 속옷 가랭이서 툭 떨어지는 거야. 홀어머니는 이 걸 주서 보더니,

“아, 이 가시나가 미친 가시나 같으니라구. 화냥질(화냥질)을 해서 아들 낳구만. 속곳가랭이 피 좀 봐!”

하며 욕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서방한테 가서,

“이런 흉측한 일이 어디 있나. 어떻게 하면 좋을꼬?”

라고 말을 건넸지.

이 처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구, 홀어머니 욕이 심하구 하느끼니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서 엉엉 울다가 쑥새를 베갯구, 뒷동산 넘어 큰 늪에 가서 치매(치마)를 뒤쳐쓰구 물에 빠져 죽었지 않겠어.

이 처녀에 작은아가 외가집에 갔다 와서 보니까, 형이 없어서,

“홀어머니와 형은 어디 갔느냐?”

고 물었지.

외가집에 갔겠지 해서 바로 외가 집에서 가보니, 외가집에 안 왔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 고름 친구집에 갔겠지 해서 작은아는 친구집에 두루가봤지만, 형은 아무데도 없었지.

작은아는 아무래도 홀어머니가 형을 죽인 거라 생각하구 엉엉 울었다가 쑥새를 베잡구 뒷동산 넘어 큰 늪에 가서 치매를 뒤쳐쓰구 물에 빠져 죽은 게야.

아홉 오래비는 누이의 예장담을 봐 가지구 각기 한 바리씩 친구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다 짐을 놓구 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누이는 오질 않는 거야. 그런데 어디에서 파랑새 두 마리가 날라 와서 맏오래비 집에 가서 앉았다가, 둘째 오래비 짐바리에 앉았다가, 또 세째 오래비 집에도 앉곤 하다가, 세째, 네째 이렇게 해서 아홉 오래비 짐바리에 차례 차례 앉으면서,

“아홉 오래비 접동 아홉 오래비 접동.”

하구 슬피 우는 거야.

오래비들은 이거 이상한 노릇이다 하구서리 홀어머니한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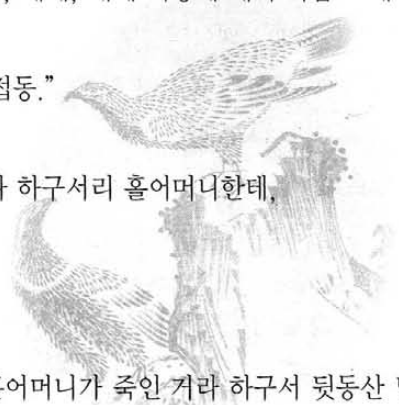
“누이 어디에 있는가?”

하구 물어보았지. 홀어머니는,

“나두 모르겠다.”

하는데, 아홉 오래비들은 아매두 홀어머니가 죽인 거라 하구서 뒷동산 넘어 큰 늪에 가 봤지.

그 늪에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마가리 안에 뉘에(누이) 시체





가 가지런히 있는 게야. 그런데 뉘의 시체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가지구 올라 가구 홀어머니는 벼락을 맞구 죽었지.

이 두 처녀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구, 홀어머니는 가마구(까마귀)가 됐다고 해. 가마구는 접동새를 미워하구 보기만 하면 어디 까지나 쫓아가서 물어 뜯구 죽이구야 말잖어.

그래서 접동새는 낮에는 나오지 못하구 가마구가 안 나오는 밤에만 나와서 우는 거야.

2. 착한 도깨비

옛날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개구쟁이구 동생은 순진했다고 해.

하루는 형은 작은아 눈에다 재를 뿌려서 쇠경이 되게 해 놓구 밥도 주지 않구 내 쫓은 거야. 작은아는 할 수 없이 돌아다니며 이 집 저 집서 밥을 얻어 먹으며 가엾가엾 살아 나간 거지.

밤이 돼서 자갔다구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도깨비집이 돼서 도깨비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 도깨비들이 모여와 가지구 저들끼리 서루 말을 하구 있었던 게야. 도깨비 한 놈이 나는,

“어떤 미옥한 형이 순진한 동생 눈에다 재를 뿌리고 쇠경을 만들구 밥도 안 주구 내쫓은 걸 봤다.”

고 말하니까, 다른 도깨비들이,

“쇠경 된 눈에는 여기서 동켄으루 가문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 잎파리를 따서 눈을 문지르면 도루 밝아진다.”

구 하는 게야. 다른 도깨비는,

“아무개 동네는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고생을 받구 있는데, 거기 있는 큰 우물을 들치면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구 있다.”

구 말하고.

작은 아는 도깨비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구 날이 밝아지자 동켄으루 가



서 버드나무 잎파리를 뜯어서 눈을 문댔더니 눈이 밝아졌지 뭐야. 그리고 나서 작은 아는 물이 마른다는 동네에 가서 큰 우물을 들쳐서 물을 나오게 했지. 동네 사람들은 기뻐서 작은아한테 돈을 많이 줬고, 그래서 작은 아는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

3. 호랑이 잡는 개

옛날에 어느 한 사람이 개새끼를 기르고 있었어. 근데 이 놈은 참기름만 먹여 길러서 개가 아주 때깔이 반지르르 하고 매끈매끈 했데. 그런데 하루는 이 개가 밤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

‘거 참, 이상하다.’

생각한 주인이 이제 밤이 되자 이 놈의 개를 이제 몰래 지켜 본 거지.

밤이 이제 어둑어둑 해지고 산에서 호랑이가 한 수 십 마리가 내려온 거야.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입을 ‘아—’ 하고 벌리니깐 아니, 이 놈의 개가 호랑이 입 속으로 아주 쑥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는 그게 기름으로 매끈하잖어? 그러니깐 그게 똥구녕으로 나오는 거야. 요렇게 여러 놈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니, 이 놈의 개는 매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주인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지. 그리고 개 허리에다 기다란 삼 노끈을 잡아 매었어. 호랑이들이 그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로 생각하고 한 놈이 집어삼키면 또 한 놈이 집어삼키고 했지. 그러니깐 이 호랑이들이 말끔하게 꺾여지지 않았겠어?

그래서 주인은 미리 느티나무에 줄을 매고, 절구공을 가지고 내려가서 꺾어진 호랑이들을 수 십 마리나 잡게 됐었어.

4. 철든 게스름뱅이



옛날에 아주 아주 게으른 게으름뱅이가 있었는데. 일은 죽어도 하기 싫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만 입고 싶어했지.

때는 봄이라 농사철은 다가오는데 일은 하기 싫고 해서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아내에게 베 두 필만 달라고 한 거야. 베를 팔아서 산골에 가서 소 한 마리 사다가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돈을 벌어

야겠다고 하니깐 아내는 베 두 필과 돈 닷 냥을 주었어.

그런데 동네 뒷산모퉁이를 돌아가려는데 전에는 없었던 새 집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그 집을 들여다보니 주인이 무엇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가 그 만드는 것을 보니 소 대가리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놈이,

“한 번 써 봅시다.”

하고 주인에게 말했지.

그러니깐 주인은 아무 말도 안하고 씩씩 주는 거야. 게다가 코뚜레와 고삐까지 달려 있어서 꼼짝할 수 없었는데 무어라고 말을 해도 그냥 소 울음소리만 나왔지.

그러자 주인은 소를 장에 내다 팔려고 장으로 끌고 가는게 아니겠어? 거간꾼들이 달려들어서 소 고삐를 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등허리를 두들기고 몇 바퀴씩 돌리면서 두드려 패고 하니 죽을 지경이었지. 나는 소가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새 주인에게 팔린 이 게으름뱅이 소는 새 주인을 따라 쟁기를 메고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밤에 잠시 쉬고는 날이 새면 또 일을 하게 되었지. 그런데 먼저 주인이 이 소를 끌고 가거든 무 시래기 같은 것은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먹으려고 기회를 보았지만 주인의 단속이 심해서 어림 없었지.

벌써 여름도 지나고 메밀밭도 다 갈았고 가을이 되었는데 이제는 시래기도 흔하고 무밭도 많았어. 이 때다 싶어, 무밭에 들어가 무를 하나 신나게 먹고 나니깐 거짓말같이 그만 소 탈이 활짝 벗어 지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얼른 소 탈을 씌워주었던 그 집으로 가 보니깐 배 두 필과 돈 닢냥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후에 이 게으름뱅이는 게으름도 안 피우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일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해.

5. 과거에 낙방할 뻔 한 시골 선비

옛날 시골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평생 소원이 과거에 급제해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주연을 베풀고 자랑하는 것이었지.

과거를 한 열 번쯤 봤는데 다 낙방인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재산도 파산이 되고 다시 과거를 볼 처지가 안되었지. 그래서 이 선비는 그냥 시골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깐 너무 너무 허무한 거야.

한 번은 남산골 주막에서 하루를 묵는데, 주인에게 물동이에 물을 가득 넣고 그 뭐냐, 함지 하나, 빈 상 하나,

“잔 하나에 수저를 올려서 떠다 달라.”

고 청했어.

밤이 되니깐 선비는 혼자서 과거에 급제해서 친구를 모은 것처럼 주연을 베풀었어. 그 때 마침 임금이 암행을 하다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여다보니깐 웬 사람이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술잔을 들고 애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곡절이 있다 싶어 임금이 그 방으로 들어가 사연을 묻자 선비는 사연을 얘기해 주었지. 임금은,

“남대문 골에 가면 내일 모레 임시 과거를 본다는 방이 붙어있을 거라.”

고 말해 주었어.



선비가 다음 날 가보니 진짜로 방이 붙어 있는 거야. 임금은 또 과거 시험에 비둘기 구(鳩)자를 써 놓는다고 살짝 일러 주었지. 선비는 밤새 비둘기 구자만 달달달 외었어.

다음날 과장에서 구자는 생각이 나는데 비둘기 구(鳩)자는 생각이 안나, 찢찢 매고 있는데 시관들이 담배대를 두드리며 ‘빨리 말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딱딱 딱딱거리는 게 그걸 듣고 ‘포드락 구자’라고 말해 버려서 낙방을 하게 되었지.

선비가 실망을 하면서 과장을 나오는데 젊은 선비가 혈레벌떡 달려 오기에 선비는 그를 불러 비둘기 구자라고 가르쳐 주었어.

그랬더니 그 젊은 선비는,

“시골 사투리로는 포드락 구자요, 서울 사투리로는 비둘기 구자.”

라고 답해 가지고 둘 다 합격했다고 해.

6. 은혜 깊은 까치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 갑자기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서 나무 위를 쳐다보니 까치 세 마리가 구렁이한테 막 잡아먹히려는 하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선비가 화살을 쏘아서 구렁이 등을 맞췄더니 이 구렁이는 아래에 떨어져서 연못에 퐁당 빠진 거야.

이렇게 해서 까치를 구해주고 선비는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까치를 구해준 마을에서 묵게 되었어. 마을 사람들이 선비를 대접하려고 못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커다란 고기 한 마리를 잡아 왔지. 마을사람들은 고기를 토막내서 맛있게 국을 끓여 선비가 높은 양반이라고 큰 토막을 먹게 했지.

선비가 수저를 들고 국을 먹으려는 순간 어디서 느닷 없이 까치 떼들이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도는 거야. 놀란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까치 한 마리가 그 고기를 먹더니 죽고 말았어.



알고 봤더니 그 고기 속에는 부러진 화살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구렁이가 바로 복수를 할려고 한 거였지.

까치는 영물이라 은혜를 갚는 동물이고 뱀은 언제든지 한 번은 원수를 갚는 동물이니깐.

7. 세상에서 가장 짝 구두쇠 곱쟁이 부부

옛날 어느 곳에 곱쟁이 영감이 살았어. 그 부인도 영감과 마찬가지로 곱쟁이였지.

하루는 반찬 장사가,

“생선 사시소, 생선 사시소.”

하며 지나갔어.

곱쟁이 영감 부인은 생선장수를 불러 세워서는 생선장수가 지게를 내려 놓으니깐, 부인은 생선을 살 것처럼 이 놈도 골라보고 저 놈도 골라보고 하면서 손에다 생선 비늘을 잔뜩 문혔지. 그리고는 값을 물어 보더니,

“비싸서 못 사겠다.”

고 한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국을 끓이는데 비늘 문은 손을 전부 씻어서 끓이는 거야.

곱쟁이 영감이 그 국을 먹어 보더니,

“국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이 이상하다.”

고 그랬지. 곱쟁이 부인은 웃으면서,

“국 맛이 좋게 된 것은 생선장수한테서 생선을 사는 척하면서 손에 비늘을 잔뜩 문혀 와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얘기를 다 듣더니 곱쟁이 영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여편네가 너무 헤퍼서 못 쓰겠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우물에다 손을 씻으라.”

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온 동네가 다 잘 먹을 것이라.”

고 하는 게 아니겠어?

이 놈의 영감이 어떤 영감이고 하니, 부채를 부칠 때도 부채가 떨어진다고 달아매고서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고 해.

8. 만리동의 지명 유래①

저, 이조 때 말이야. 아조를 이조라 그런 거야. 이조 때 최만리가 살아서 만리동이라 그런 거야.

최만리가 판서, 정승이라던가 말하면, 지금 말하면 국무회의 할 적에 옹고 그른 걸 판단해 가지구, 자기 고집대로 틀린 거라면 임금이라도 용납을 안하던 양반이 살았어, 여기에. 최 고집이라고. 그 분이 여기 살아가지구서 만리동이라 그랬구, 여 만리동, 공덕동 여기가 만리재인데 공덕 넘어가는 데 까지.

9. 초학 낫는 방법

그 전에 우리는 이제 하루거리 있지? 초학이라고 있어.

초학 걸리면 막 춥고 그러잖아. 여름에 초학 걸리면 막 떨고 그래. 하루 걸러서 만큼 아파서 막 한축이라 그런다고.

그럴 적에는 인제 강감찬이하고 정도전이 장군이여. 무관 출신이여.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 아니여. 그래 강감찬이는 벼락을 치는 걸 손으로 뿌리쳤다는 양반이고, 정도전이는 이조 때 일등공신이여. 무관인데, 저 이성계. 이태조하고 인제 동물로 있던 사람이여.

똑같은 장군으로써 인제, 고려 멸망시 등 돌린 사람 아니여. 이성계가 그래 가지구서 이제 이 정도전이가 누구한테 맞아 죽었나 하면 방원한테 죽었어. 일등 공신인데.

그래 그 이후로 그 양반파가 사한복이라 그러는데, 호가 사한복인데 그 인제 초학 걸리면 그 글을 써 가지구서 등에 붙이면 초학이 떨어져.

‘중남산하에 유강감찬정도전하야 결항치사하야 한월이 조공전이라’ 하고 등에다 써 붙이면 인제 초학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10. 삼신할머니의 뜻

남과 여자면 둘이지? 거기 또 하나 생기면 셋 아니여. 그 세 몸 아니여. 그래 삼신이지. 쓰기는 삼신할머니라고, 석 삼 자, 귀신 신 자 쓰잖아.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

삼신할머니가 어디 있냐면, 옛날에는 저 한옥에 집을 지으면 설경이라고 있지? 그래 작은 나무 두 개를 놓구서, 거기다 뭐 얹잖아. 그런거 못 봤지?

거기 구석지에 가서 쌀을 매달아 놔, 쌀을. 쌀을 넣어 가지구서 신곡해 가지구서 쌀을 넣어 가지구서 매달아 놓구, 그 밑에다가 삼신할머니라고 비는 걸 봤다구.

우리 자랄 적에는, 구석지에다가 그러구 인제 무슨 탈 있으면 물 떠다 놓고 빌고. 그런 건 어려서 봤지.

11. 효부 이야기

소금장사가 있었어. 옛날 소금장사들은, 지금은 차도 있고 막 이래니까 짐을 싣고 다니고 이러지만, 이전에는 전부 지게로 싣고 다니고 그랬다고.

근데 소금 한 가마니 근수가 얼마나 나가는고 하니, 60킬로 70킬로 나가거든. 그래 고개를 넘는 다고, 고개를 넘어간다고, 그래 인제 여기가 소금 창고에 가서 소금 받아 가지고 이 장 보고 또 이 장 보고 이라거든. 그래 소금장사가 있었다고.

근데 그 소금장사가 인제 소금을 받아 가지고 한 고개를 이리 딱 넘어



오는데 여기는 집도 없고 그냥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그냥 외
톨이 집이야. 그냥. 근데 보니까 여자 혼자 이리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분이 인제 왜 혼자 사는가 그런 건 묻지도 않고,

“여 좀 하룻밤 좀 자고 갈 수 없냐?”

인제 그리하니까. 날은 저물어가고 하니까.

“하룻밤 자고 갑시다.”

이러니까,

“그리하라.”

고 그래서 인제 하룻밤 자게 됐는데 뭐 밥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없어.
풀 뜯어다가 죽 쑤 가지고 죽 쑤 먹고 하고 그래. 그래 가지고 이 여자가
인자 손수 인자 자기 아버지만 밥을 해주고 쌀 찌끄래기 좀 남은 거 가지
고 밥을 인자 그 사람을 뚱여 줬어, 배고프다고.

그래 자면서 자고 있는데, 여자가 이 옷을 싹 벗고, 위에 저고리 입고,
치마 입고 뭐 싹 들어와 가지고 뭐 말도 안하고 남자한테 가서 그만 팔을
베고 눕는 기라. 그래,

“아, 처음 보면서 우째 외간남자한테 그래 싸냐?”

“그래 내 몸은 오늘 당신 맘대로 하라.”

하면서 맡겨 버렸어.

그래 인자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일 다 보고 무슨 사연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 남편 죽은 지 벌써 일 년 가까이 됐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죽었
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
까 당신이 좀 거들어 가지고 저거 좀 이장 좀 해 줄 수 없냐.”

그러면서 인자 의논을 했어. 그러니까 그 소금장사가 그 옛날에는 지금에
는 막 고급으로 막 이래 가마에도 넣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런게 없거든.
그래 막 이 가마니에 둘둘 싸 가지고 장사를 지내줬어. 지내주니까 인자,

“내 몸은 당신이 뵈었으니까 저 보이는 파도에 걸어가서 기다리고 있으
면 곧 따라 가겠다.”

고 말이야.

집 정리하고 곧 따라가겠다고. 그러하면서 그 여자가 따라 갔겠어. 우쥌겠어?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응, 안 따라 갔어.

옛날에는 남의 남자한테 이 몸 한 번 뺏기면 그냥 자기가 죽는 기라. 그래 가지구 인자 어떻게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막 연기가 올라 오거든. 그래 보니까 그 집을 불을 질러 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가라고 이래 막. 불 타 죽은 기라.

이제 이장해 드리려고 지 몸을.

12. 욕심 부리다가 비석이 된 소금장수

남한에서도 호랑이 한 마리가 농가로 들었어. 그래 아니, 머 사람을 해칠라고 들어온 것도 아이고 짐승을 잡아 먹을라고 들어온 것도 아이고 그래 가지구 들어 왔드래.

그래, 농군이 농사를 짓다가 점심을 먹을 라고 집안에 떡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그 호랑이가 송아지만 해. 큰 호랑이야. 그래 가지구 그 농군 앞에 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고 막 그래 하드래. 이 사람은 호랑이기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자꾸 숨어싼께,

“아, 나 좀 살려달라.”

고 그라니까, 이 호랑이가 입에 무엇이 걸려가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짓지는 못하고 자꾸 손만 이래 하드래.

그래 인제 이상해서 한 발쯤 두 발쯤 가면서 이 자꾸 인제 그래 하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살려 달라 하잖아. 그 호랑이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입을 딱 이래 벌리고 있는데 이상하드래.

“그래 마 나 잡아 묵으라.”

하면서 손을 갖다 마 호랑이 목에다가 디뎠어.

디뎠는데, 딱 보니까 옛날에 그 여자들은 은비녀 같은 거, 금가락지 같은 걸 하지만 이 농촌에 이 농군의 부인들은 은가락지 그거를 했거든. 근데 그 여자를 잡아 묶고 비녀가 목구렁에 걸렸어. 그래 이제 그걸 빼 돌라고 그 농군한테 가서. 그래 가지고 빼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굴글러 다니고 막 뭐 고개를 꾸지꾸 막 가드래.

그래 이튿날 밤에 꿈에 그 호랑이가 나타났어. 내일. 지금 같으면 시간을 정하지만,

“내일 몇 시까지 저 산중으로 올라오면 내가 뭐 하나 아리켜 주마.”

구 하면서 그러구 가드래.

아침에 농군이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상하다. 호랑이가 우째서 올라 오라카나.’

싫어서 참 지계를 지고 인자 나무를 할 준비를 해 가지고 산에를 뚝 올라가니까 아, 그 옛날에 삼 같은 거. 동삼 같은 거 있잖아. 지금은 굉장히 비싸거든. 그래 가지고 호랑이가 와서,

“저 큰 것은 뽑지 말고 잔 것만 뽑아서 팔아서 먹고 살아라.”

이제 시늉을 해 주는 기라.

그래 이제 농군이 가서 그 잔뿌리만 캐다가 시장 가서 팔아 가지고 갑자기 뭐 부자가 됐거든. 부자가 됐는데, 그 인자 시장에 가서 놓고 하니까 인자 여자가 따를 거 아니야. 혼자 살고 이라니까 인자. 그래 가지고 부인을 하나 뚝 얻었는데 그 부인도 보고,

“저 큰 뿌리는 뽑지 말고, 잔뿌리만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씻쳐 가지고 시장에 가 파시오.”

이래 가지고 시켰거든.

이 여자가 욕심이 많아 가지고 그 큰 뿌리를 뽑았어. 큰 뿌리를 뽑았는데 아, 그 농군이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구 자기 인자 삼을 캘려고 뚝 와 보니까 거기 큰 뿌리가 없어지고 무



슨 비석이 하나 딱 하니 서 있드래. 그 여자가 그 비석이 되어버린 거여.

그래 가지구 그 비석을 또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비석을 갖다 캐다 물어 줄려고 그 비석을 갖다 흔들다가 남자까지 돌이 되어버렸어. 그래 가지구 그 망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 어, 욕심부리다가.

13. 만리동의 지명 유래②

벼슬을 한 사람이 있었어. 어. 만리라고 하는 벼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자 임금한테 충성하고 이래 싸는데 갑자기 이 죽을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남의,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뇌물 먹었다 그러지.

그래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 산, 내 산인데 내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어 두라.”

그래 가지고 이게 만리동이 됐어.

14. 호환을 면하게 해준 꼬마둥이

우리만 할 때 젊은 분이 한 30대가 상처한 분이 있어요. 상처했던 말이야. 월부 상처. 그러니까 마누라가 일찍이 죽었다 그 말씀이지요. 한 30세에.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옛날에는 주막이라는 것이 이 잔등을 넘어 가야 술을 먹고 다녀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술을 먹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이 주막집이 잔등 넘어가야 외롭게 있거든요. 그래 거기서 술을 먹고 다녀요. 거기 젊은 양반이 하두 기분이 안 나니까.

근데 하루는 술을 먹고 오다가 잔등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뗏이 한밤중 탁탁 때리고, 때리고 하더라요, 뺨을.

눈을 떠보니까 크나 큰 놈의 호랑이가 꼬랑지예다가 물을 묻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때린다 그 말씀이요, 살릴라구. 인자 깰라고, 그 잠 잔 놈을. 그래 눈을 딱 떠서 보니까 호랑이가 엷고 막 달아난다 그 말이요.



근디 그 정신에도 힘은 장산데, 눈을 떠보니
까 막 비호같이 달리거든요.

아, 근디 크나 큰 놈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다 내려 놓으니까 굴이 있드래요.
굴 앞에서 새끼들이 한 너댓 마리 나온단 말
이요, 한 몇 마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그 업
고 온 놈을 탁 엮어 놓고 등을 이렇게 손으로
확 긁어 버린대요, 발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올 거 아닙니
까. 아,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 놈 빨아 먹으니까 인제 찌릿기도 하고 아프
기도 하고 그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산봉우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여자 울음소리가 기가 막히게 슬프게 나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호랭이가 가만히 앉았다가 그 소리를 듣더니 그리 비호같이
달린다 그 말이요. 그 놈을 잡을라고. 인자 또,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정
신에도 옛날부터 속담이 있어요.

‘호랭이한테 물려 가도 정신만 똑똑하면 산다.’

응, 호랭이한테 물려 가도 그것이 아주 별명이거든요.

아, 호랑이가 니미럴 도망을 가는데 새끼라는 것은 이만큼 썩 밖에 안
하거든요. 막 잡아서 막 때려서 걸어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막 된다 그 말
이요, 자기 혼자. 인자. 호랭이가 없으니까. 아, 한참 뛰어가니까 이 피가
줄줄 썰 거 아닙니까. 등을 긁어 논 놈이. 피가 흐르니까 다 봐인다 이 말
이여, 달밤인데, 시월달밤인데.

그러니까 핏줄기를 따라서 자기가 도로 빠꾸를 해서 왔어, 이렇게. 빠
꾸를 해서 와서 보니깐 크나큰 솔 나무가 있거든요. 그리 올라갔어요. 올
라가서 옛날에는 헛피가 이런 가죽 헛피가 아니고 베로 만든 헛피예요.
호랭이한테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가면 자기 몸을 묶어야 한답니다. 안 묶



으면 호랭이가 후둑 뛰른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손을 이렇게 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께 안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헉뎌 가지고 몸을 묶는다 이 말이요.

딱 묶고 있으께, 이 범이 새끼가 죽어 브렸으니 얼마나 기가 나가겠습니까. 와서 보니께.

아, 그러니께 벼락같이 막 달려가거든요. 달려가더니 피가 없으니 도로 빠꾸해서 온다 그 말이요. 빠꾸해서 오다가 크나큰 솔나무 밑에가 달밤이라 그림자가 비치니께 거기 탁 서거든요. 그리고 쳐다본다 그 말이요.

호랭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호랭이 땀이라 해서 한 번 뛰어서 못 닿으면 그만이에요. 절대 못 닿는 거여요. 호랭이는 백 번을 뛰어도 한 번 뛰어 갖고 못 닿으면 절대 닿지를 못해요. 그러니께 ‘호랭이 땀’이라는 건 차근 차근 무엇보다 줄어들면 호랭이 땀이라 그러는 거여요. 뛰어서 못 닿으께, 한 번 뛰어서 못 닿으면 절대 못 닿는 거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호랭이 땀이라 그러는 것인데, 나무에 올라가면 호랭이라는 것은, 지금은 보면 많이 올라가는데 옛날 한국 호랭이는 나무를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자 파분대. 나무를 이렇게 발로 파붙면 나무가 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건드려야 한다 그 말이요. 이렇게 들고, 그래야 이게 용이 나서, 뛰어봤자 한 번 못 닿으면 그만이니까. 아, 근데 이렇게 보더니 후딱 뚫다 그 말이요.

호랭이가 뛰더니 자기 발등이 툭 떨어지더니 가만 있다 그 말이요. 아, 아침에 날이 새도록 가만 있다 그 말이요. 막 나무를 때려보고 솔방울을 따서 던져보고 해도 가만 있거든요.

아, 근디 옛날에는 범이 많고 그러니께 먼 산 나무꾼들이라고 나무하러 가는 사람들이 죽 이렇게 줄을 지어서 몇 명이 모집해서 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북 치고, 이런 북 있어요. 손잡이 있어서 이렇게 탁탁 두르려. 그것이 먼 산 나무꾼들인데, 옛날에, 높은 소나무에서 보니께 먼 산 나무꾼들이 그 북을 치고 올라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높은 데서 악을 쓰니까 그리 올 것 아닙니까. 오 데만은 범이 딱 이려고 있으니 누가 달라 들어요? 획 둘러싸기만 했지 누가 범한테 해고지 하지 않는다 그 말ियो.

근디 자그마한 어린아이 하나가 뭐라 하나면은 그것보다 꼬마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제 여기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 말이어. 나무를 하다가 술나무를 가지를 탁 쳐버리고 끝을 이렇게 깎았다 그 말ियो. 그러니까 호랭이가 후둑 뛰어가서 떨어지면서 똥구녁을 거길 치어버렸다 그 말ियो, 그 나무에. 그러니까 팔씩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똥구녁을 나무가 이렇게 찢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꼬마가,

저 호랭이가 똥구녁이 찢어졌으니까 죽었다.”

그 말ियो.

가만히 가서 때려보니까 그 때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있는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 때는 모른다 그 말ियो.

그래 나무를 잘 타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같이 부축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인자 옛날에는 호랭이를 잡으면 벌금을 문답니다. 호랭이를 잡으면. 그래서 벌금 조금 물어주고 그 호랭이를 잡아 가지고 회식, 그 돈을 가지고 인제 회식을 다 대접했어요. 그러구 또 자기가 그걸 낫았어요, 아픈 데를. 호랭이가 굶어본 데를. 그래서 인제 또 못 잊어서 술을 먹으러 땡겨요. 또 술 먹고 오다가 그 잔등에서, 또 잠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잠이 들어서 봉께 꿈에 저희 죽었던 마누라가 꿈에 뵈인다 그 말ियो. 뭐이라 하고 하니,

“아, 지난 번에는 암놈이어서 새끼들을 먹일라고 데려 갔지만 지금은 수놈이 왔다 말이어. 온다 말이어. 수놈이 오면 여기서 막 먹어 뽏다 그 말이어. 그러니까 빨리 인나서 가라.”

그러거든, 깜짝 놀라서 깨니까 꿈이라 그 말이어. 그 잔등에 누웠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절대 그 사람이 술을 먹으러 안 다녔답니다. 저희 마누라가 살려 줬어요.

15. 구렁이 마누라를 얻은 천석꾼 아들

옛날에 천석꾼 부자라 하면 부자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석꾼 부자니, 천석꾼 부자지. 지금은 이렇게 그냥 갑부라고만 해버리지마는 옛날에는 천석꾼, 백석꾼 이렇게 부자가 다 있어요.

이제 천석꾼 부잔데, 천석꾼이라 하면 큰 부자거든요. 천석꾼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맨 날 기생집에서 먹고 똥땅거리고 놀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천석이 아니라 만석이라 해도 맨 날 그렇게 기생집 가서 먹고 똥땅거리고 놀아볼면 그게 बे기겠어요? 다 없애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 부모 죽은 뒤에, 그 놈을, 살림을, 집만 남았는데. 그 천석 있을 때는 기생집에 가면,

“요리 얹으세요, 저리 얹으세요.”

하고 막 방석을 갖다 놓고 깔고 막 하던 양반들이 천석을 다 까먹고 나니 까는 곳등만 픽픽하고 누가 와도 인사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놈이 화가 나서 드러누워 버렸어요, 방에. 홧병에 방에 드러누웠으니 한 여름에, 때는 여름인데 어떤 젊은 여자가 어여쁜 여자가 와서,

“서방님, 병을 나아드릴 테니 절 따라 갑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보시오. 나는 이미 천 석을 다 망해 먹고 병이 났는데 내가 살면 뭘 하겠소”

말이야.

“난 죽을랑께 당신이나 가시오.”

했다 그 말이야.

“아, 근데, 청춘 같은 양반이 죽으면 되겠냐?”

고,

“저만 따라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 밖에 가서 보니까 망아지를 데리구 다녀. 망아지를 딱 태워 가지고 옛날에는 피라 한 것이 애기 업고 다니는 것이 띠거든요. 그 띠로 그 남자를 딱 묶거든요. 말에다가. 그래 갖고 끌고 가는데, 깊은 산으로 가드래요. 깊은 산 위에 가서 보니까 크나큰 오막집 하나가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더니 5분도 못 되어서 밥을 딱 해 온다 그 말ियो. 그 여자가. 밥을 아무리 빨리 짓는다 해도 30분은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5분도 못 되어서 밥을 딱 지어 와서,

“아이고 서방님, 시장하신데 빨리 식사하시요.”

라고 막 그런단 말ियो.

그 밥을 먹고 어영간 산 것이 몇 달 살았는데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살았는데, 병은 다 낫아 버렸다 그 말ियो. 건강한 몸이 되었다 그 말ियो. 그런데, 하루는 뭐라고 하니, 그 여자 말이 뭐라고 하니,

“서방님, 고향 생각이 아니나요?”

한단 말ियो. 과거 고향에서 왔으니까 고향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고향 생각이 아니나요?”

하거든. 고향 생각은 간절하지만,

“내가 길도 모르고 어쭈구 가겠냐?”

그 말이어. 그랬더니,

“저 나귀를 타고 가시오.”

그 말이어.

“그러면 고향엘 갈 것ियो.”

그 말이어.

그래서 지 마누라와 작별을 하고 망아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동네를 왔어요. 과거에 자기가 천 석을 놓고 살던 크나 큰 기와집인데 망해 먹고 나니까 한쪽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모두 풀도 나고, 집이. 그 놈을 싹 쓸어버리고 기가 막히게 지어놨거든요. 지어서 사람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기 마누라 같은 사람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야단이거든요. 들어가



니까 지그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니 지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고 하니,

“우리 아들은 한 십 년 전에 죽었다.”

그 말이어.

“십 년 전에 죽었는데 오늘 저녁에가 우리 자식놈 제사요.”

하거든요. 지그 아들놈 제사라고. 그러니까 그 때 나가버리고 행방불명되
니까 죽은 줄 알았나 봐요. 그래 오늘 저녁에가 제사다. 그러니까,

“나 안 죽고 살아 왔습니다.”

그 말이어. 그러니까,

“니가 똥을 타고 왔냐?”

그래요.

“나귀 타고 왔습니다.”

하고, 나귀를 보니께 지그 어머니가 옳지 옳지 저 나귀가 달달이 돈을 실
어다 주더란 말이어. 이렇게 돈을 실고 왔다 말이어, 나귀가. 옛날에는 나
귀가 똥인지 알아요? 망아지 꺾그만 것이 나귀어요. 거기다 돈을 실고 왔
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놈 가지고 니가 다 천 석을 망해 먹은 재산을 다 이뤘다.”

말이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자기 마누라한테도 인사하고 말이어. 그
러니께. 지그 마누라가 작별 할 때 뭐라고 하고 하니,

“어머니 아버지 얼굴만 뵈고 오시오.”

했단 말이어.

“저기서 묵지 말고 그냥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인제 지그 어머니 말이 뭐라고 하고 하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아, 어머니하고 마누라하고만 보고 오라.”

하더라고 말이여.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은인이라 그 말이여.

“니가 살림 엮은 살림도 전부 이뤄주고, 니 병도 낫어주고 했으니 얼마나 은인이냐?”

말이여.

“그러니까 속히 빨리 가라.”

그 말이여.

그리고 지 마누라가 지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고 하니,

“절대 죽어도 그 여자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이여.

그리고 막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겠다고, 지그 어머니도 작별하고 자기도 가고 하니께 한참 가니께 죽었던 지그 아버지가 꼬떡꼬떡 온다 그 말이여. 죽었는디. 지그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없는디, 지팡이를 짚고 꼬떡꼬떡 온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아버지 아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께,

“오냐. 아버지다.”

그 말이여.

“너 아무개 여자한테 가냐?”

그런께 그런다 그 말이여.

“너만 죽으면 다행인데 우리 가족이 멸종한다.”

말이여.

“그러니 내 말을 정 못 믿겠거든 가면서 나귀를 문 밖에 매놓고 가만히 가서 봐라. 말이여. 그러면 알 것인께 말이여. 그런데 그 여자가 천상 밥을 해오면 밥 첫 숟가락에 먹다가 여자 얼굴에 뱉어버리라 그 말이여. 그러면 너는 살고 우리 가족은 산다 말이여.”

그래,

“아, 그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가서 나귀를 문 밖에다 떡 매놓고 발자국 소리 하나 안내고 가만가만 가서 보니까 이렇게 큰 놈의 구렁이가 천장에다 꼬랑지를 매고 구약구를 탄다 그 말이며. 이렇게. 홀릉 홀릉 이렇게.

‘아따, 내 아버지 말이 옳구나.’

하고 얼른 나와서 흐음 하고 말을 딱 타고 들어가니까 벌써 여자가 되어서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아, 서방님 지금 오시냐.”

고 한다 말이며. 아, 그래서,

“시장하실 테니 밥을 빨리 해 와서 빨리 잡수시오.”

한다 말이며. 지그 어머니 말을 믿자면,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너는 죽어도 그 여자 밑에 가서 죽어라.”

했으니.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지그 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하니,

“너만 죽고 우리만 죽으면 다행인데 우리 가족이 멸종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어찌 하겠어요. 밥을 깨물다가 이렇게 여자를 쳐다보고 뺨을라 하면 여자가 벌써 시커멓게 죽어버린다 그 말이며. 어찌해야 겠습니까? 지그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해요, 지그 어머니 말을 들어야 해요? 응?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지그 어머니가 십리 길을 따라 오면서 그 여자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땀으로 한참 깨물다가 뺨을라다 말고, 뺨을라다 말고 한계 여자가 여자가 죽겠고,

‘에이, 내가 죽지.’

하고 꿀떡 삼켰다 그 말이요. 첫 손가락에 독약이 들어 있다 했는데,

‘아, 첫 손가락을 삼키면 죽는다.’

했는데 안 죽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딱 상 치우고 난 다음에는,

“서방님 안심하고 식사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요. 아,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서방님이 보다시피 알다시피 나는 사람이 아니요.”

말이야.



“신선에서 옛날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려왔는데 인자 서방님 병을 낫아 주고 좋은 일을 했기 땀으로 내가 천당을 도로 올라가요.”

그 말이야. 근데 옛날부터 속담이 있어요.

‘크나 큰 구렁이 같은 걸 보면 춤을 안 뺄는 겁니다.’

춤을 뺄으면 영원히 못 올라가요. 사람들이 춤을 뺄어버렸으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영원히 못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서방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춤을 안 뺄었기 땀으로 내가 내일 오시면 용이 되어 가요.”

그 말이야. 그러드래.

그래서 고맙다 하고 그 이튿날 밥을 먹고 있으께 조금 있으께, 한 오시쯤 되니까 올라가는데 꼬랑지를 헤쳐 지으면서 구름 타고 올라 가드래요. 그래서 인자 보고, 지그 집을 오는 도중인데, 중간쯤 으께 앞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드래요. 떨어져서 본께 크나 큰 놈의 거북이가 툭 떨어지더래요.

예, 그러니까 지그 아버지가 거북이를 가지고 그 구렁이를 못 올라가게 휘방을 칠라다가 실패하고 죽은 거여, 그 놈한테.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천석을 보존해 오고 잘 살았답니다. 지그 어머니 말을 들었기 땀시로.

16. 밤길을 걸을 때 담배를 피우는 이유

귀신이라는 것이 담배를 피우면 앞으로 온답니다. 이렇게. 휘 하고 담배 연기를 뺄으면 멀리 가버린데요. 그래서 밤길을 걸어갈 때는 담배를 피는 것이 옛날 노인들이 이렇게,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무섭지 않습니까.

밤에 가다가. 그러면 높은 데로 숨어야 하고 땀이 축 나면서 무서운 기가 들면 깊은 데로 숨어야 한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강도나 뭐 사람이 오기 땀시로 파스운 기가 나오니까 무섭고 그 다음에 휘 바람이 불고 무서운 기가 들 때는 무슨 짐승이예요. 호랑이나 늑대 같은 거. 그것들은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가기 땀으로 높은 데로 숨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



니까 옛날부터 다 예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상관이 없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17. 새알 귀신 쫓는 법

예, 새알이거든요. 이렇게 행사하면 커튼, 천막 치는 거 말어요. 그것보다 새알이라 하거든요, 새알. 전라도 말로는 새알이라 그러는데, 그 귀신을 만나면 가다가 감감해버려요. 안봐요. 앞이 안봐요.

그럴 때는 옷을 이렇게 짝 찢거나 뒷을 쪽 잡아다 찢으면 앞에 있던 귀신이,

“아이고 내 새알 찢어진다.”

하고 얼른 가버린대요. 그럼 흰해져 버려요.

나도 그런 귀신 한 번 만나 봤습니다. 아, 밤에. 내가 노름을 좋아했어요. 노름을 좋아해서 이렇게 재를 넘어서 산재를 넘어가서 노름을 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노름하다 앵기면 큰일나니까 이렇게 애들은 주막에 가서 하는데 아,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는데 길이 안개가 쪽 보이더라구요.

그러더니 길이 안 보여요. 못 가겠어요. 감감해서. 성냥을 켜면 꺼져 불고 꺼져 불고 하니, 성냥 한 갑을 다 켜어요. 안 켜져요. 그냥 꺼져버려요.

아, 그래서 내 샤쓰 난닝구(속옷)를 쪽 찢어버리니까 기냥 아주 흰해 뽐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가지 말란 것이구나 하고 도로 빠꾸해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18. 호적 적 자의 뜻은 '21일 대밭으로 소녀라'

옛날에 장가 못간 총각이 시집 못간 처녀에게 호적 적 자만 써주고 단 말이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대죽 밑의 21 그니까 대밭에 21일 오니



라. 그 처녀가 해석을 못하고 못 갔지 뭐.

19. 동상례의 날승 자 풀이

옛날에 장가 가면 그 동안이라 해 가지고 사람을 두들겨 먹고 도가니에 다 가두어 버려요. 막 묶어 놓고 두들고 그니께, 맞는 사람이 날승 자 하나만 덜렁 써주거든요. 그게 뭐냐 말이며. 그니께 날승 자 하나만 써 주니께. 때리는 사람이 뭐냐고 물어 봤단 말이며. 그랬더니 날승 자도 모르냐면서, “야, 이 자식아 날승 자도 모르냐?”

“소우 자, 소 한 마리 먹으라고 줘도 못 먹는다는 뜻 아니냐. 소 한 마리 줄 테니 때리지 말고 가서 놀라.”

고 한 말이며. 예, 이런 말입니다.

20. 전라도 구림의 지명 유래

전라북도 영암에 구림이란 곳이 있어요. 그 구림 밑에 토랑 물이 있었어요. 저 산등 밑에 20살 묵은 처녀가 세탁을 빨래를 하러 갔어요. 빨래를 하러 냇가로 간 거요.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니께 오이가 떠내려 왔답니다. 개울에서.

지금은 이 오이나 그런게 많지만 옛날에는 귀했거든요. 아, 이렇게 떠내려 오니께 처녀가 막 다 묵어버렸어요. 그 놈들을 다 묵어 불고 난께 배가 불어온단 말이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띠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둘러 가지고 막 숨겨서 애기를 낳았어요. 낳아서 대밭에 버려 버렸어요. 그니께 비둘기가 와서 그 애기를 감싸드립니다.

그래서 비둘기구 자 수풀림 자 해서 그 구림이란 동네가 생겼어요.

동네 이름을 다 그냥 지은 게 아니랑께. 다 이유가 있어서 지은 기라.



21. 중국의 인도깨비 이야기

옛날의 인도깨비는 돈을 많이 갖다 준대요. 도깨비가 돈을 갖다 주면 돈을 사야 한대요. 돈을 그대로 놔두면 가져가 버리니까 돈을 사면 못 가져 가잖아요. 땅을 어떻게 가져가요. 그렇게 하면 이 놈의 도깨비들이 막 뛰고 지랄을 한대요.

22. 명당 자리 이야기

그 명당 자리라는 것이 다 복이 있어야 가는 거요. 지그 아버지가 지의관이요. 지의관이란 것이 뭐냐면 풍수 산수 보는 것이 지의관이거든요. 지그 아버지가 지의관, 지그 아들, 형제들도 다 지의관이여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그 아버지 자리 하나를 못 잡아 뵈어요. 죽을 때 들어갈 길을 못 잡아뵈단 말이에요. 지그 아버지가 죽어 버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아무 데나 갖다 묻어 버렸어요.

묻어 놓고 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딜 갔다 오는 길에 강가에서 잉어가 세 마리가 나와서 후투를 뛰거든요. 그 먼저 같으면 그 잉어를 잡아서 갖고 오겠는데 그 놈을 강에다 그냥 띄어 뿔어요. 도로 살려 뿔어요.

아, 그래 갖고 그 동생이 그 날 밤 꿈을 꾸게 지그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모라고 하니,

“또랑 가에 버드나무가 있느니라. 그 버드나무를 베고 나를 그곳에다 묻어다오.”

했단 말이여. 아, 그래 가지고 그 동생이,

“형님. 저 묘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니께 형이,

“어디다 잡았느냐?”

물었단 말이여. 아, 동생이 말하길,

“아 저 밑 토랑 가에 버드나무를 베고 거기다 묘를 씌시다.”

그러니까 형이,

“안 된다.”

했단 말이여. 그래서 동생이 물어 봤더니 형이 말하기를,

“거기는 용을 셋을 살려야만 효력이 있지, 용 셋을 못 살리면 해를 입을 뿐이다.”

하더래요. 그걸 듣고 동생이,

“내가 어제 시장에 갔다 오다가 잉어 세 마리를 살렸단 말이요. 용을 살린 거와 같잖소.”

동생 말을 듣고 형이 무릎을 탁 치고 가자고 서둘러서 갔단 말이요. 버드나무를 베고 땅을 파니까 석각으로 딱 되어 있드래요. 각이 딱 되어 있드래요.

그래서 거기다 묘를 썼단 말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명당 자리예요. 옛날에 박정희씨도 명당 자리 쓰고 대통령이 됐대요.



이귀례(여, 74) - 23. 24. 25

23. 수수대가 빨간 이슈

전에 전에, 흠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고해 주셔. 아들 둘을 데리고 산데, 너무 가난해서 남의 베를 짜주러 다녀. 그 베를 하루내 짜주면 자기 밥 얻어 먹고, 애기들 주려고 밥을 얻어 갖고 오고, 하루 품삯은 인자, 보리쌀 한 되. 품삯을 받아. 그럼 베를 짜주고, 밥을 얻어 갖고



밤에 온디, 애기들 둘이 있는데, 둘이서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호랑이가 와 가지고는,

“아가 아가, 나 손 하나 내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리고 문구멍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해.

그러면 인자 애기들이 무서워서 안 내주고 있으면,

“아가 아가, 너 다리 하나 내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리고 하고 있는데, 지기 어머니가 저기서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그런 게, 등불을 들고 와. 등불을 들고 산을 넘어서 이렇게 와.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온게는, 호랑이가 지기 어머니를 딱 잡아서 먹어 버리고는, 지기 어머니야 옷을 딱 입고 와서는,

“아가, 엄마 왔다.”

함서,

“아가 아가, 밥 얻어 갖고 왔다.”

그리고 문구멍으로 밥을 이려고 비취준께, 지기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어 줬어. 그런데, 그냥 그 호랑이가 그 애기 둘도 잡으러 다녔데.

하나는 그렇게 잡아 가 버렸는데, 하나는 뒷문으로 내뺄서 감나무로 올라가 버렸어. 감나무 우에로 조르라니 올라가 버린께, 하나가 없은께, 호랑이가 이렇게 쳐다 보니까 그림자가 그림자가 감나무에서 보이거든.

“아가 아가, 어떻게 올라갔지?”

하니까.

“뒷집에서 기름을 얻어다 바르고 올라 왔지.”

기름을 바르고 올라 가니까 미끄러워서 더 못 올라 가거든.

그러니까 만날 못 올라 가니까 다시,

“아가 아가, 어떻게 올라 갔니?”

‘아, 지 동생하고 둘이 올라 갔구나.’

동생이 어린께,

“도끼로 깡깡 찍어 갖고 발을 딛고 올라 왔지.”



근게 그냥, 도끼로 탁 찍으니까 발 디딜 때가 생겨 버리거든. 탁탁 찍고 지기들 있는 데까지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형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새 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현 줄을 내려주시오,”

하니까, 새 줄이 내려왔데. 그래서 새 줄을 막 타고 둘이 타고 올라간께. 호랑이도 위까지 올라와서 저도 인자 그대로,

“저를 살릴려면 새 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면 현 줄을 내려주시오.” 했어.

하나님이 그냥 패섬하니까는 현 줄을 내려줬어. 줄이 인제 썩은 놈, 줄이 인제 중간 만치 올라가니까 중간에 폭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버리니까, 그 수수 알지?, 밥도 해 먹고 하는 수수.

그 수수대를 감나무에다가 밥알을 묶어서 썩워 놔거든, 그 수수대로 폭 떨어져 부니까는 그냥, 그 호랑이 동구멍으로 콧 쑤서 갖고는, 호랑이는 죽어 불고, 그 수수대를 이렇게 까면, 너희들은 농사진디를 안 봐놔서 몰라. 수수대를 이렇게 까면은 빨가니 그제 있다. 그제 빨가니 피같이 나와. 그제 호랑이 피다 그제 전설이야.

수수대를 까면, 껍데기를 까면 수수도 까서 먹잖아. 이렇게 까. 까면은 속에가 빨가니 피같이로 나와. 그제 호랑이 피다 그러거든.

그래서 수수가 그렇게 빨개. 호랑이가 그렇게 떨어져서 동구멍을 쑤서 가지고, 피가 흘러서. 또 그 수수대는 또 낮으로 탁탁 자른게 이렇게 뽕족 뽕족 하거든. 콧 쑤신께 고 피가 묻어싸서 그제 호랑이 피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

24. 사람이 죽으면 보인다는 여자, 남자 도깨비불

할머니 동네에는 귀신은 있는가 모르는데, 할머니 동네에는 다리가 있대요. 저 큰 산에서 내려오면 물이, 비가 많이 오면 그리로 물이 다리로



하나 차고 찰랑찰랑 하니 내려오고, 비가 안 올 때는 조금씩 내려가고 그래. 보면은 우리 어려서는 도깨비불이라고 해 가지고, 저 밑에서 반짝반짝하니 그 도깨비불이 그렇게 내려와요.

비가 올려고 하면은 밤에는 도깨비불이 반짝반짝 함서 돌아다녀. 그럼 할머니들이,

“비올라고 도깨비불 났다. 도깨비불 났다.”

그래.

사람이 죽을라면 불이 나간다. 불은 혼.

지금은 그런게 절대 안 보이지만, 옛날에 할머니 어려서는 할머니도 그 불 봤다. 여자 불은 동그래 가지고, 동그란 옛날에 할머니 대리미질 한 쪽 대리미 같어. 동그래 가지고 길죽하니 모가 달렸다. 그래 갖고 이렇게 날아가면, 그 동그란, 길죽하니 찰랑찰랑 함서 불이 동그란 불이 저리 날아가. 그럼 사람 혼이 나간다고.

내가 봤는데, ‘혼 나간다 저. 혼 나간다. 누가 죽을라나 보다. 저것이 멀리 가면 저, 혼 나가고도 한 3년 살고, 가지한데, 조금 가다 툇 떨어지면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불이 그렇게 나간다니까, 사람한테 있는, 이렇게 하면 불 있지요. 내가 나가 보이잖아. 그 불이 그렇게 나가 불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여. 그 불이 그렇게 나가. 나가믄, 저기 멀리 진등까지 넘어가면 누구 불인가 좀 오래 살다가 죽겠다. 한 삼 년 살다 죽겠다. 어른들이 그러지. 그런갑다 하고 봤지.

남자 불은요. 대비자루 같이, 마당 쓰는 대비자루 있지?. 길쭉하니 불이 생겼어. 여자야는 동그래서 꼬리만 달렸는데, 길쭉한 것이 주욱 날아가.

“아무개 할아버지가 아프시다 던데, 저 양반 돌아가실랑가, 그쪽에서 불이 날아간다고.”

그러믄서 여름에 다리에서 더우니까, 놀면서 보믄 그렇게 날아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구.

그것이 그런갑다 하고 할머니는 봤지.

“아무개 불나간다, 죽을란갑다. 아무개 할아버지 돌아가실란갑다. 대비 지락 같은 게 남자 혼이 나가는 구만.”

25. 도깨비의 실체

그러고 인자, 또 우리 대수가에 그때, 나로 해서 오빠되는 양반이 새앙을 잡수고, 산에서 제사를 잡수고, 산에서 새앙을 잡수면, 집에 어른들 갖다 드리라고, 떡, 고기, 인자 새앙 잡수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한데.

그 때는 많이씩 해. 가난한 세상이라 새앙 잡수 때 많이 해야 자손들이 먹으니까, 돼지도 막 잡고 그래서 놓은께, 돼지고기, 떡, 과일, 그 때는 종이도 없고 비닐도 없고 하니까, 짚을, 짚을 이렇게 꼭 째매면 이렇게 안생겼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 갖고, 이렇게 해서 묶어. 짚에다 묶어 갖고, 갖고 와.

가난한 세상이라 그렇게 해서, 갖고 술 자시고 인제, 새앙 잡수면 술 있은께, 술 자시고, 할머니 산 동네에서 야산 하나를 넘어가야 해.

잔등을 자기 집을 그렇게 떨어진데 살아. 술 자시고, 그걸 갖고 가는데, 도깨비한테 흘려 갖고, 야 고기 같은 거 생고기 같은 거 갖고 밤에 가면 옛날엔 도깨비가 그렇게 막 끌고 간데. 길이 흰허니 있어서. 술이 취해 놓은께 다른 길은 당최 없고 그 길만 흰한 게 한없이 저녁내 그리 갔데.

그런데 다른 길은 캄캄해서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자기 집이 어디인가를 도대체 모르겠은께, 그 흰한 길로만 한하고, 저녁내 가서, 자기 집이 안 나오지, 저녁내 가서, 그래서 도깨비불만 따라서 갔데.

나중에 이제 술도 깨고, 닭도 울어서 새벽이 돌아오고 그래서 정신이 나서 본께, 어디어디 산 아주 가운데서 섰더라. 자기가 보니까 자기 옷도 두루마기도 다 찢겨지고, 다리도 그냥 피가 짹짹 나고, 얼굴도 벗겨지고, 넘어지고 어쩔성 그렇게 따라간 거야. 그래서 한 허고 그러게 고기 그 놈



든 놈을 확 던져 저 불면 거기 가서 붙어 불고, 사람한테는 안 온데, 그 놈 먹을 라고 그렇게 따라 간게,

그래 갖고 그냥 가시밭을 헤치고 가서 얼굴도 다 뜯기고, 아주 사방이 다 멎고, 저녁내 그렇게 다녀서.

그래 갖고 집에 와서, 어째서 이제 오냐, 저녁내 길이 흰해서 한하고 가도 우리집은 안 나오고, 다른 데는 킁킁해서 전혀 갈 수가 없었게, 갔다가 날이 섰다고, 근게 이제 도깨비한테 홀려서 그런 거지. 술 취하고 고기 그 놈 들고 간게, 귀신이 붙어 갖고 말하자면 그래 갖고 도깨비한테 홀리면은 오래 못 산다.

그 오빠가 3년 살고 돌아가셨는데, 영 얼굴이 다 굵혀져 부렸당께. 도깨비가 가시밭으로 어디로 막 데리고 다니니까, 그래 갖고 아침밥을 먹고, 낮에 지 아들을 데리고,

“나 정신 차린데 거길 좀 가볼란다. 무엇이 날 그렇게 데리고 다녔나 보겠다.”

빗자루 있지. 마당 쓴 거, 다 닳아진 빗자루가 있더라. 그 빗자루도 도깨비가 된데.

지금 세상에야 있냐 만은, 빗자루, 몽둥이 이렇게 도깨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하고 따라가서 그래서 그 오빠가 온 몸이 그렇게 뜯겨 갖고, 그때 새앙 잡순 걸 따라가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래서 왔더라고, 두루마기도 다 찢겨서 오고, 가시에 뜯겨 오고, 근데 자기는 가시밭을 그렇게 가는 줄 몰랐데.

그냥 우리집이 어째서 안 나온가 그거만 보고, 다른 데는 원최 킁킁해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도깨비한테 홀리면은 혼이 벌써 나간데. 도깨비가 자기 혼을 빼간게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고는 3년만에 죽었어.

오빠가 그때는 그것이 전설이지. 지금은 전기불이 흰하니까 도깨비가 오지도 못해. 할머니 동네도 사방에서 포가 팡팡 쏘게, 있도 안 해. 다 놀라서 나가 불고 있겠냐. 그 흰해서 모, 있더라도 모 보이지도 않해. 그때



는 전구가 없고, 초췌이 요만하니 다가 석유 넣어 갖고 불을 쓰니까, 포뭇이 사람이나 겨우 보이지.



6. 을지로(乙支路) 3, 4, 5가동

1) 지역개관

을지로 3·4·5가동은 을지로 3·4·5가, 주교동, 방산동, 입정동, 초동, 산림동, 인장동 1가, 저동 2가동 등 10개 법정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관할 명칭으로 ‘을지로’는 1946년 10월 1일 서울의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변경할 때, 세종로·충무로 등과 같이 우리 나라 위인 가운데 한 분인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장군의 성을 따서 붙였다.

주교동은 주교동 126번지 북쪽에 있던 ‘배다리’, 즉 ‘주교’로 불려지던 다리가 있으므로 해서 연유한 동명이며, 주교는 이곳에 주교사가 있었다는 데서 연유했다고도 한다. 방산동은 부근에 있는 가산, 또는 조산이라 부르던 곳에 심어져 있던 무궁화꽃의 향기에서 연유되었고 입정동은 갯방, 즉 갯을 만드는 집에 우물이 있으므로 동리 이름을 ‘갯방우물골’이라



고 한 데서 유래되었고 산림동의 동명은 ‘살리뭇골’이라는 명칭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산림동은 살리뭇골이라는 의미의 산림과는 관계 없는 하천변의 평지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동명이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초동은 초전동의 약칭으로 지금도 초전골로 전해오며 진초, 마, 갈 등을 가공하지 않고 재료 그대로 파는 초물전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이다. 조선 초 한성부 행정구역이 5부 52방으로 정해질 때 남부 혼도방, 성명방, 명철방 지역에 속했으며 일제 때 경성부에 ‘정회’를 설치할 때, 황금정 3정목정회, 4정목정회, 5정목정회가 설치되었고, 광복 후 1946년 10월 을지로 3가 동회, 을지로 4가 동회, 을지로 5가 동회로 바뀌면서 을지로 3·4·5가 지역의 행정을 담당했다.

그 후 1955년 4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을지로 3가 동사무소가 신설되면서 그 관내에 을지로 3가, 산림동, 입정동이 관내에 속하고 을지로 4가 동사무소 관내에는 주교동, 방산동, 을지로 4가, 오장동과 합쳐져 을지로 4·5가 동사무소가 신설되었고, 이어서 1985년 9월 1일 행정동의 통합 및 분동 조치로 을지로 3·4·5가 동사무소 관할구역에서 오장동과 충무로 3가가 제외되어 을지로 3·4·5가, 주교동, 방산동, 입정동, 산림동, 초동, 인현동 1가, 저동 2가의 10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오늘에 이른다.

2) 구전설화

유춘학(남, 47) - 1

이정숙(여, 68) - 2. 3

1. 구미호에 홀린 아이

옛날에 한 아가 있었는데 글방을 다녔는데 집에서 글방에 가는 길에는

쑥대밭이 있었어. 어느 날 글방에를 가는데 쑥대밭에서 한 색시가 나와서 이 아를 끌구 어떤 기와집으로 가서 놀게 됐지.

그런 일이 있은 후 이 아이는 점점 몸이 상해 가는 거야. 같은 글방에 다니는 아가 이걸 보구,

“왜 이렇게 몸이 그렇게 상해가네.” 하구 물어 본 거야.

이 아는, “글방에 오는 길에 쑥대밭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색시가 나와서 게와 집으로 끌구 가서 논 담부터 이렇게 상했다.” 구 말했지.

이 말을 듣고 동무아이는 머이 그러나 ‘한 번 보겠다’ 구 그 쑥대밭에 가 본게야. 그랬더니 쑥대밭에서 색시가 나오더니,

“오래비 온다.”

하며, 이 아를 끌구 게와집으로 가서 그리구 이 아를 눕혀 놓구 지갑에서 웬 구슬을 꺼내더니 이 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굴려 올리구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굴려 내리고 하는 게야. 이렇게 여러 번 했지.

이 아는 그 구슬이 턱주자리까지 왔을 때 잘못해서 그 구슬을 입에 넣고 먹어 버린거야. 그랬더니 색시는 아흔 아홉 잡아먹은 영을 고만에 맥히웠다 하며, 그러니까 기와집두 없구, 색시두 없구 다만 구미호하구 이 아만 쑥대밭에 있었지 않아.

이 아는 그 구미호를 때려잡아 죽이구 보니까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가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

이 아는 아흔 아홉 사람에 영을 먹어서 힘이 센 사람이 돼서 도원사가 되었다고 하더라.

2. 사시 좋은 삼 형제

옛날에 아들 삼 형제가 있었는데 아주 우애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남들한테 사랑을 한 거야.

“우리 형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렇게 각자들 행동 안하고 같

이 친하게 지낸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보니까 화딱지가 난 거야.

“당신네가 그렇게 잘해구 사나 안 사나 보자.”

그래 여자들이 셋이 푹푹 뭉쳐 가지고 만동서가,

“우리 이거 끓여놓자고 우리 서로 거짓말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만동서가 떡을 해 먹었는데 작은집에 하나도 안 주더래. 작은 집에서 뭘 해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주냐고 서로 이렇게 남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진짜 작은집에서 떡을 해 먹고 큰집을 안 주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아 동생더러,

“그럴 수가 있느냐.”

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싸움이 나가지고 형제기간에 싸 돌아 선거야. 돌아섰는데 그때서 여자들이 모여 가지고,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아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의가 좋다고 그러더니 왜 그렇게 으르렁 으르렁 거리고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웃으면서,

“그거 우리가 다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가정에는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화목하다고 그 얘기가.

3. 나쁜 할머니

옛날에 강원도 그것도 원주라는 데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할아버지가 소 장사를 했어. 정실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 후처를 얻었거든. 정실의 아들은 장계를 들어서 손주를 낳았지.

손주를 낳았는데 후처 할머니가 번실(본실)의 그 손주를 이뻐했어. 자기 딸은 늦게 낳어도 이뻐하지도 않고. 이걸 큰마누라가 죽고 나중에 이 양반이 후처를 둔 거야.

후처가 딸을 낳고, 그 큰마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손주를 낳았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이뻐했지. 후처는 자기 딸은 처음에 낳지만 속으로는 이쁘겠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고 손주도 그렇게 이뻐했어.

따로 살았거든 할머니 따로 그 옆에다 살구 여기다 큰아들 따로 살림을 내놓고 사는데 하루는 이 큰며느리가 빨래를 해 가지고 오니까는 애가 방에서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여.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래 얼렁 쫓아 들어가니까 애가 그냥 머 아주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그런데 그 서모가 방에서 나오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여.

“그 애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난 모른다.”

고 그리고 간 거여.

그런데 애를 보니까 막 침을 흘리면서 침을 만지니까 미끌미끌 한 거야. 할머니가 젓물을 먹인 거야.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그래 병원으로 끌고 가고, 그 할머니 밖에 그럴 사람이 없잖어. 아무도 없는데. 옛날 시골엔 집이 뜨문뜨문 있었거든, 그런 일이 있었지.

7. 광희동(光熙洞)

1) 지역개관

광희동은 충무로 4·5가, 인현동 2가, 예관동, 오장동, 광희동 1가, 광희동 2가, 쌍림동, 을지로 6가, 을지로 7가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관할지역 명칭으로 광희동의 동명은 도성팔문 가운데 하나인 광희문에서 비롯된다.

쌍림동은 마을입구에 문을 세우고 방수하여 도적을 경비하던 이문(里門) 한 쌍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되었다. 원래 ‘상리문동’이라 부르던 것이 음이 변해 쌍림동으로 되었는데 쌍이문골·쌍리문·쌍리라고도 하였다.

조선 초 한성부 행정구역이 5부 52방으로 정해질 때 남부 명철방 지역

에 속했으며, 일제 때 ‘정회’를 설치할 때 광희정 1정목 정회와 광희정 2정목 정회가 설치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0월 광희동 1가동회와 광희동 2가동회로 바뀌어 광희동 1가 지역, 광희동 2가 지역의 행정을 담당했다.



1947년 말에 조사된 현재 광희동 사무소 관내의 각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쌍림동은 쌍림동부동회와 쌍림서부동회, 을지로 6가와 을지로 7가는 을지로 6·7가 동회가 각각 설치되어 행정을 담당했다. 1955년 4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동설치조례〉에 의해 동제가 실시될 때 광희동 1가 동사무소, 광희동 2가 동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 후 주민수효의 감소로 1970년 5월 15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 행정동이 변경되어 쌍림동, 광희동 1가, 광희동 2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희동이 설치되었다. 1975년 10월 1일에는 을지로 5가동이 폐동되면서 그 관할 구역의 일부인 을지로 6가, 을지로 7가도 광희동으로 편입되었고 1998년 9월 14일 정부조직개편으로 구 충무로 4·5가동과 통·폐합되어 충무로 4·5가 일부, 인현동 2가, 예관동, 오장동 일부가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구전설화

김인순(여, 53) - 1. 2. 3. 4.

1. 바보총각 장가들기

옛날에 어떤 바보 총각이 있었는데, 그 총각이 인제 장가를 들어 가고, 색시집 장인 걸음을 가게 됐는데, 색시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래 가지고서 아르켜 주기를, 색시가,

“우리 집은 염똥이니까, 염똥 염똥 그러고 오면 될 것이다.”

고 해. 떡을 한 석 짝 싸 가지고 가는데, 염똥 염똥하고 계속 길을 가는 거야.

가다가 토랑(개울)을 건너다가 그 말을 잊어 먹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말이 어디루 갔는지 모르고, 염똥 염똥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보니까, 밭 밑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웁지, 저게 뺏아갔구나.”

그래 갖고 그 물로 내려가서 망건을 벗어 가지고 물을 막고, 물을 푸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에이. 염똥 없는 사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웁지 웁지 건졌다.”

그러면서 계속 염똥 염똥하고 가.

그러다가 우물을 지나다가 어떤 색시가 국수를 씻고 있으니까,

“여기 엇그저께 두데바지치고 장가간 집이 어디만큼 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실은 자기 색시였어. 누구가 아니고,

“아가 아가, 저 인상이.”

그러면서 국수를 한 주먹 쥐어주면서,

“저 개만 따라가라.”

고 그러니까, 그 개가 울타리로 뛰어가면 울타리고 가고, 변소로 가면 변 소로 가고 해서 그 개를 계속 따라가는데, 어떤 쪼그만 초가집을 그 개가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웁지. 저 집이구나.’ 하면서, 가서 인사를 하는 거야.

“이제 왔다”

고 그러니까, 장모가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지금 저 애가 밥도 안 먹고 누워 있다.”

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하도 바보니까 화가 나서 국수 시켜 가지고 와서 누워있는 거야. 인제 장모가,

“저 애가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저 국수 좀 갖다가 주라.”

고 그러니까, 남편이 국수를 가지고 가서 주니까, 그 여자가 하도 화가 나니까 방구를 뽕 끼니까, 뜨거워서 그런 줄 알고,

“식었다 부지 마라.”

그랬데, 거 신랑이 진짜 바보지.

2. 묘자리 잡기

예전에 어떤 여자가 나이가 마흔이 지나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장가가기 전에 죽었어.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 되는 이가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산소 자리를 좀 봐서 쓰겠다구서는 지관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죽은 우리 아들 뒤편 쓸 만한 데 써주게.”

그러니까는 그 지관이,

“그러면, 내 손자 볼 자리에다가 써주마.”

그래서는,

“아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서 손을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산소 쓰라는 자리에다가 뒤편 쓰게.”



그래서는 인제 어디만큼을 가다가는 길 옆인데,

“여기다 산소를 쓰면은 손자를 볼께야. 삼 년 안에. 그라고 거기에다 묘를 쓰고, 묘막을 하나 옆에다 지어 놓으라” 구.

그래서는 묘막을 지어 놓고 왔는데, 그러자 아마, 그 이듬해가 됐는지, 어떤 처녀가 지나가다 말구, 별안간 소내기(소나기)를 만났어요.

소나기를 만나니까, 인제 묘막 지은 데를 들어가서 앉았으니깐, 졸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잠이 들었네.

근데 그 처녀 꿈에 웬 총각이 그냥 처녀한테 덤벼들더라는 거지.

처녀가 놀래 가지고 깨 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집엘 갔는데, 차차 태기가 있어 가지구 아이를 배버린 거야. 그니까 집에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구.”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부모가 물으니까,

“나는 아무 일두 없었다구. 그때 아무 때, 어디 오다가 그 묘막 속에 들어가서 좀 졸려서 자는데, 꿈에 총각이 덤비던 그런 생각밖에는 없다.”

구 했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 없는 시집으루다가 애를 낳아가지구 가서, 거기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산이 그렇게 좋으면, 한국에 그렇게 영특한 묘자리두 있다고 내가 들었어.

3. 천명찬 막내딸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딸 칠 형제가 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모두 불러놓고 큰딸에게,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딸이,

“저는 아버지 덕에 먹고 삽니다.”

그러는 거야. 또 둘째 딸에게,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딸도,

“저도 아버지 덕에 먹고 삽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 인제 막내딸에게도 물어봤지. 물어봤더니,

“저는 제 덕에 먹고 살지 누구 덕에 먹고 살아요.”

하고 대답을 하네. 이 아버지가 노(怒)해 가지구,

“내일 아침 거지가 오거든 팔려보내라”

고 호령을 했어.

그 이튿날 새벽이 되니까, 막내딸은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을 하고는, 거지가 오기를 기다렸어. 인제 정말루 그 거지가 오니까 막내딸이 얼른 따라나선 거야.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식구들이 놀래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며, 붙잡아도 한사코 거지를 따라가네. 이 딸래미가 보통 고집이 아니야. 근데 이 놈의 거지는 딸이 여우로 보여서 콩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거야. 딸이 자꾸 쫓아가니까 거지가 더 빨리 도망가지. 이제 이 놈의 거지가 산 속에 있는 지 집에 가서는 허둥지둥 문을 열구, 지 엄마한테,

“어머니 저기 여우가 따라 온다.”

고 하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도 무서워서 같이 문을 잠갔지. 근데 뒤쫓아온 막내딸은 문을 잡고 거지 엄마에게,

“나는 여우가 아니에요. 저는 댁의 아드님과 같이 살려구 왔다고요.”

그러네, 그리고 그 집에 살았어.

근데 이상한 게 거지집 담벼락이 온통 금으로 쌓은 거였어. 아무리 봐도 금이거든. 그래서 그 딸이 거지한테 마차를 가져오라고 해서 담을 다 헐어 버리고 마차로 실어서 팔아버렸어. 인제 거지가 부자가 된 거지. 집도 아주 크게 짓고, 좋은 옷 입고 아주 훌륭한 신랑이 된 거야. 막내딸은 그 거지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고.

근데 그 딸이 집을 지을 때, 대문이 열리면 자기 이름소리가 나오게 했네. 목수에게 부탁해서 문이 열리면 자기 이름을 부르게 했어. 근데 그 딸의 아빠는 말이지 딸이 집을 나가고 거지가 된 거야. 그래서 밥을 얻으러 다니

는데 웬 큰집에서 대문이 열리면 자기 딸 이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주인 만나게 해달라고, 마님 만나겠다고 때를 쓰네. 그래 막내딸이 만나 보니 자기 아버진 거야. 그래서 다른 식구 다 찾아서 잘 살았던 얘가지.

4. 하루 밤에 만리장성 쌓은 이야기 유래

그 전에 진시황 때, 이 만주서부터 저 임조까지 그게 전부 만리래. 만리장성이 큰 거거든. 그래서 부역이 그 땐 굉장히 심했데. 가면 머 만리장성이 다 쌓도록 부역을 해야 되고 그러잖으면 오거든.

그런데 집에서 누가 대신 보내주면 그 사람이 오게 됐더라 그거야.

웬 사람이 그것두 무식한 놈이지. 웬 사람이 인제 한 산골에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외딴 집이 있어. 젊은 여자가 혼자 있는데 그 날 밤에 잘 잤지. 잘 자고 나니까, 그 이튿날 여자가 편지를 한 장 써주면서,

“이걸 만리장성 쌓는데 아무 구역에 가서 이 편질 아무개에게 전해 주시오.”
그러네.

근데 이 놈이 글을 해봤더라면 알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가져 갔지.

만리장성 쌓는데 그 남잘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해준 거야. 주니까 그 남자가 보구서 인제 감독관이 있을 거 아냐. 그 감독관에게 갖다 줬어. 주니까 그 편지 갖다 준 놈을 붙들어서 만리장성을 쌓게 하고 남자는 보내줬단 얘가지.

그니까 그래서 하루 밤만 자두 만리장성을 쌓으라는 거야.



하정숙(여, 57) - 5. 6



5. 거시기 좋아하다 죽게 된 과부덕

옛날에 아래, 윗집이 살았는데 윗집은 맘이 아주 불량한 거야. 두 집 다 과부인데 아랫집은 참 착해.

그런데, 어느 날은 다 저녁 때 중이 들렸어. 그 아랫집에 들렸는데, 방이 하나였어. 저녁을 잘 해 줘서 먹고 자는데, 안방이 이렇게 있으면 손님이니까, 중은 아랫목을 주고 자기는 윗목에서 자는데 베개를 하나, 이렇게 칸을 막아서 자는데, 아! 이 놈의 중놈이 자다가 보니까 다리 한 짝을 슬그머니 그 과부 다리에다 올려놓고 잔단 말이야.

이 과부가 보니 꽤심하지. 다리를 치워버렸어.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과부 배때기에다가 척 걸친단 말야.

‘이거 안되겠다.’

그러고는 또 치워놔. 또 한참을 자느라니까 또 이 놈이 몸을 획 돌리면서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 과부가 벌떡 일어나서는 자는 중놈 뺨따귀를 냅파 때려버렸지. 그리곤 하는 말이,

“이런 요 요망한 중놈아. 네가 중이면 중이었지 과부 자는 방에 와서 그 따위 행세를 하느냐. 당장 나가라.”

구 하니까 그 때 중이,

“아, 미안하다.”

구 하면서, 그 밤중에 행장을 수습해 가지고 가면서 거울을 하나 쫓아. 주면서,

“당신이 거울 속에서 당신 얼굴을 들여다 보면서 아쉬운 것을 생각하면은 거기서 그제 나온다.”

는 거야. 그래 아침인데 쌀도 없고, 그래서 쌀을 생각하니 쌀이 나오거든. 나무를 생각하니 나무가 나오고 그래 인제 부자가 된 거지.

근데 이웃집 과부가 가만 보니까 참 잘 살거든. 꽤심도 하고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 그니까, 이 착한 과부가,



“그런 게 아니라, 중이 하나 찾아 왔었는데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했더니 거울 같은 것을 하나 주더라.”

하니까. 이 윗집 과부가 행실이 나빠 참 몸단장을 하고 눈썹을 뽑고 소지랄 개지랄을 하면서 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중이 오나.

석 달 열흘째 되던 날 다 저녁 때 되었는데, 다 떨어진 바랑자루를 하나 짊어지고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오네. 그니까 이 과부가 꽃방석을 내어 놓고,

“이리 앉으라 저리 앉으라.”

하고,

중이 사랑으로 들어간다니까, 이리 안방으로 오라고 해서 밥을 잘해 먹였어. 근데 중이 한사코 사랑에 가겠다는데 과부가,

“사람의 집에 왔다가 사랑에 가 잘겍니까? 안방에서 주무시오.”

자는데, 중은 잠을 쿨쿨 자요. 자는데 이 여자는 행실이 나쁜 여자라 슬그머니 중에게 다리를 가져다 얹진 거야. 그니까 중이 다리를 썩 집어서 치워 놓는단 말야. 한 방에 자니 이 과부가 견딜 수가 있나. 또 다리를 중의 배때기에다 올려 났어. 그니까 중이 다리를 썩 밀어 놓더니 또 그러니까 중이 벌떡 일어나더니,

“과부면 과부였지. 과부 노릇을 똑똑히 하지 못하고 무슨 짓이냐?”

그리고 간다고 나서거든, 그니까 과부가,

“정말 가냐?”

고 물었어. 중이 가야겠다고 하네. 근데 중이 뭘 꺼내주고 가거든. 그니까 이 과부가 옳다 뵈다 한 거야.

그 이튿날, 인제 밥을 하는데 이 여자가 행실이 나빠. 어이구 남자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밥하다 말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 참 우스운 애긴데 젊은 처자한테 이런 거 말해두 돼나? (예, 하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것 참. 거울 속에서 절구대 같은 놈이 썩 나오더니, 부엌 바닥에다 눕혀 놓고는 디립다 방아를 찧어 버리는 거야. 아이고, 이런.



그래 가지고는 이제 실컷 했지.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만 했으면 됐을 텐데 하루에 한 서너 번, 횃수가 너무 잦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너 좀 나오라.”

아이고, 그냥 기둥가래 같은 놈이 막 나오더니 방아를 찧는데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중엔 도망을 갔어. 밥하다 말고 인제 도망을 갔는데, 아, 이거 산으로 가면 산으로 쫓아오고, 덩불로 가면 덩불로 쫓아오고, 하두 쫓아오니까 내를 건넜는데 건너 가서는,

‘이젠 지가 못 쫓아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 이 놈이 성난 독사처럼 물을 삭삭 가르면서 쫓아 오거든. 그래서 죽어라 하고 도망치다가 이 놈한테 방아를 찧어서 죽었다는 거야, 이 여자가, 과부가.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고치라는 얘기지. 그 중이 보통 중이 아니라 도사라고 과부 정자를 시험한 거야.

6. 현명한 부잣집 아들

옛날에 어느 고을에 사또보다 부자인 어느 부자 집이 있었어. 그 부자 집이 너무너무 부자라서 사또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줬지.

근데 사또가 어느 날 새끼 뺨 황소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하네. 그래서 인제 돈을 암만 주고라도 구하려고,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서 앓아 누었어. 근데 그 집에 쪼그만 애가 있었는데, 참 영리해. 일곱 살인가 그랬는데 아주 영리해. 그래 이 애가,

“아버지 뭐 땀에 그래요?”

하고 자꾸만 물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인제 사또가 시킨 일을 얘기 해 줬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문제없다고, 걱정 말라”

고 하면서, 아버지는 누워있으라고 하면서 문간방 여기다가 새끼하고 고

추하고 달아논 거야.

인제 사또가 명령 내린 날이 왔는데 사또가 새끼 뱀 황소를 찾으러 왔는데,
“여봐라.”

하면서 찾으니까, 어린애가 나가 가지구,

“니네 아버지 어디 갔냐? 빨리 새끼 뱀 황소를 가져오라고 해라.”

하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애기를 낳느라고 못 나왔습니다.”

그러네. 아, 사또가,

“에이 이 놈아, 어디 남자가 애기를 낳아.”

하니까, 이 어린애가,

“그럼 황소가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하는 거야. 그니까 이 사또가 아, 그 놈 참 똑똑하다고 관가로 데려가서
상을 줬데. 영특한 놈이지.



이길환(남, 76) - 7

7. 현명한 남편

옛날에 어머니랑 자기 부인 이렇게 해서 한 식구로 살고 있는데, 어머님
하고 자기 부인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어.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
지 아들이 어머니한테 들어보면 어머니 말이 옳고, 부인한테 들어보면 부인
말이 옳은 거야. 이진 그러니 뭐, 매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그렇게 싸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



다 못해서 하루는 저 바깥에서 어머니 없는 데서 부인을 나오라고 해서,

“여보쇼, 내가 오늘 바깥에서 저녁을 살 테니 좀 나오쇼!”

해서 나와 가지구서,

“여보, 어머니한테 시달림을 받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소? 우리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 거여. 식사를 같이 하는 도중에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어머니를 죽입시다. 죽이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아주 행복스럽게 살겠는데, 우리 죽입시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허우, 당신은?”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좋시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우리가 늘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어머님을 죽여 살인죄로 걸리면 우리도 죽는 거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저 어머님이 뭐 좋아 하는 거 모두 죄다 해 주라 이거야. 그 대신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저 열심히 아무 일을 해서라도 내가 자금을 대 주겠소. 그러니까 어머니께 대해서 어머니가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해 주쇼.”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네에서 볼 적에 효도를 하고 사는 거니께, 그 후에 어머니를 죽입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인죄를 면하지 않우?”

부인이 듣고 보니 맞거든.

“예, 그럼시다!”

한다 말이야. 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어.

그래서 이 남자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 가지구서, 돈을 자꾸 벌어들여 부인한테 준 거여. 부인이 그걸 가지구 시어머니가 해 달라는 대로 그냥 죄다 해 준 거여. 이것이 한 2~3년이 되니까 시어머니가 그쪽에 머느리 등을 두들기면서,

“아가, 내가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맞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이 좋구나.”

그러구선 인제 이렇게 나오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잘 융화가 된 거야. 그찍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해 주는 게 기특하니까 애기도 잘 봐 주고 며느리를 이뻐하니께, 며느리도 시어머니 진지도 지어드리고, 이러니께 아삼육이 됐거든. 그러니께 며느리는, ‘시어머니 없으면 난 못 살어’ 이 정도가 되고, 시어머니는, ‘아이 난 너 없으면 살맛이 없다.’ 이 정도로 가차와 진 거야. 그걸 아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진 됐다 생각되어 아들이 부인에게,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합시다.”

불러 내놓고서, 저녁식사를 이렇게 쓱 하고 나서, 칼을 버쩍버쩍한 놈을 상에 딱 내어 놓구선,

“이제 우리 어머니 죽읍시다.”

그러니께 그찍에 며느리가 남편을 끌어안고,

“나 어머니 없으면 못 살우. 죽이지 마십쇼.”

그래 가지고 이게 화해가 된 거여. 그 후로 부텨은 이게 잘 돼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8. 장충동(獎忠洞)

1) 지역개관

장충동은 장충동 1·2가, 목정동 등 3개 법정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구역 명칭으로 장충동의 동명은 1946년 10월 1일에 일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이 부근에 있던 장충단의 이름을 따서 생겨난 것이다. 1900년에 설치된 장충단은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사건) 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열사를 기리기 위해 제를 지내던 곳이다. 목정동의 동

명유래는 지금의 묵정동, 충무로 4·5가, 필동 2·3가에 걸쳐 있던 ‘먹정골’이라는 마을이름에서 비롯된다. 먹정골에는 ‘먹절’ 혹은 ‘묵사’로 부르던 절이 있었기 때문에 연유되었으며 동네 한 귀퉁이에 매우 깊은 우물이 있어 늘 시커멓게 보이므로 ‘감정우물’ 혹은 ‘오정동’으로 불렸는데, 바로 먹적골의 ‘감정우물’이라는 뜻에서 동명이 연유되었다.

현재와 장충동 일대는 조선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 지역에 속했으며 일제 때 ‘정회’를 설치할 때 동서헌정회, 서서헌정회가 설치되었고 광복 후 1946년 10월 장충동 1가 동회와 장충동 2가 동회로 바뀌어 장충동 1·2가 지역의 행정을 담당했다.

1947년 말에 조사된 현재 장충동 사무소 관내의 각 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묵정동은 묵정동회가 설치되어 행정을 담당했다.

1955년 4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 의한 행정동제 실시로 장충동 1가, 2가를 관할하는 장충동 1가동, 장충동 2가동 사무소라고 칭했고 묵정동은 충무로 5가 일원과 함께 신설된 치현동에 속했다.

1980년 7월 1일(서울특별시 조례 제1413호) 〈동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해 충무로 4·5가동의 관할구역 일부가 장충동으로 편입 조정될 때 묵정동 일부가 장충동 관할이 되었고, 1985년 9월 1일 장충동사무소 관내에 묵정동이 편입되어 장충동 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장충동 1가, 장충동 2가, 묵정동이 포함되어 오늘에 이른다.

2) 구전설화



류재동(남, 75) - 1

1. 은혜 깊은 호랑이

우리 시조할아버지가 인제 저녁에 어디 나들이를 가시다가, 거 호랑이가 그냥 숨도 못 쉬구, 죽어 가는 형태여서, ‘왜 그러나 보니까’ 는 그 비녀가 여자가 꼽는 그 비녀가 목구멍에 꽂혀 가지고 그걸 뺄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 그 비녀를 꺼내서 호랑이를 살려줬데.

그 호랑이가 산소 자리를 잡아줘 가지고 지금 현재 황해도에 명당에 모여 있어.



심종국(남, 85) - 2

2. 안동 계비연 미륵이 된 김부자

예전 안동땅에 김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고려말 사람으로 매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먹는 것도 아끼고, 입히는 것까지도 아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전에 거지들이 이 집으로 밥을 얻어 먹으러 왔는데 김부자는 문간에 결마래를 갖다 놓고서 거지들이 못 들어오게 할 정도였고, 심지어 몽둥이로 쫓아버렸다. 그렇게 살다가 김부자는 죽었어.

그래 가지고 저승에 가니까 저승사자가,

“니는 여기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가냐.”

고 하니까,

“너는 이승에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다. 너는 거지들한

테도 동냥 하지 않고 아주 나쁘게 살았으니 너는 여기는 못 들어오고 지옥뿐이 갈 수 없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김부자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마을에 와서 거지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안동에 있는 반공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미륵이 되었다.

그것이 안동 제비연의 미륵이지. 안동 제비연 미륵은 바로 김부자인 것이지.



이수영(남, 70) - 3

3. 김정승, 이정승

옛날 한 동네에 김정승, 이정승이 살았다. 김정승 할아버지는 자식이 셋이나 되고 이정승은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 이정승이 대를 물려줄 걱정이 되어 양반집에서 고민거리가 되어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있는데 하루는 김정승이 이정승 집에 놀러가서 사랑채에서 바둑을 두었다. 그렇게 바둑을 두고 있는데 김정승이 이정승에게 고민을 물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이정승이,

“자네는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나는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대를 물려줄지 고민이네. 그리고 자손이 없으니 죽어서 조상님에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정승이,

“우리 둘이 친구가 되었으니까 자네만 알고 있게나. 그저 저녁에 사랑
채서 안방으로 잠자리를 들 적에 어떤 행동을 취하나, 자네.”

그러자,

“방에 들어갈 적에 기침 한 번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잔다.”

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하루 저녁 내가 대신 잠자리에 들면 안되
겠냐?”

고 말을 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 기침을 쿵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마누라는 불도
끄고 누워 자는데 김정승이 그 마누라와 합방을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난 후 열 달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정승
아들보다 이 아들이 머리가 매우 좋았다.

그렇게 얼마 세월이 흘러 김정승은 이정승 아들이 매우 탐이 났다. 그래
서 이정승한테 하루 저녁 놀러가서 그 아들은 자기에게 주라고 했던 것이다.

이정승은 밥을 먹지도 않고 며칠을 보내고 있으니 아들이 와서,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이정승은 그 사실을 다 이야기 해 주었고,

“오늘 서당을 마치고서 김정승댁으로 가거라.”

했다. 그러자 그 아들은 눈치를 채고서 밥상을 차려 가지고 가서 아버지
에게 진지를 드시라고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고민을 잠시 잊기로 하고 자식이 하라는 데로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이 서당에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오늘 서당 훈장님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었는데 이걸 맞춰보십시오.”

하고서는,

“수수를 수수밭 위에 심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 밭
이 떠내려 가는데 아래 밭에 수수가 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수수가 탐스
럽고 좋아서 나중에 서로 싸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서는,

“씨는 아무 씨가 되어도 그것을 낳고 기르는 것은 땅 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것은 자연히 땅 임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는 김정승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서는 조금 전의 질문을 그대로 이정승에게 했다. 그러니까 그 해답이 나오거든 그러자 아들은,

“그럼 저를 왜 오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김정승은 할 이야기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정승은 그 아들에게 대를 이어주고 오래오래 잘 살았던 것이었다.



이만석(남, 70) - 4

4. 도깨비한테 얻은 돈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강원도 인제는 무지한 산골이다. 차도 안 다니고 옛날에는 거기서 삼십 리를 걸어가면 화전민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 그들은 화전만 붙여 먹고 살기 때문에 논도 없고, 옥수수하고 잡곡만을 지어먹고 살았다. 거기가 바로 ‘노루재’라는 곳이다.

그 곳의 한 집안에서 밥을 할려고 하는데 솔뚜껑이 밥솥보다 큰데 솔뚜껑을 솥 속에다 넣어져 있는 것이었다. 주인은 어느 놈이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인지. 솥을 다 깨지 않으면 솔뚜껑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였다.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별 짓을 다 해 놓는 것이었다. 이불도 갖다가 나무에다 걸어 놓고, 또 방안에 갖다 놓으면 다시 그렇게 나무에 걸려 있곤 했다.

그래 고심 끝에 주인은 이사를 가기로 하고 이사를 가버렸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이 그 집으로 살러 왔다. 그런데 또 진흙을 집 전체에 발라놓고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부부끼리 방안에서 자고 있으면 다리를 묶어 놓기도 했다.

또 이 사람들도 집을 떠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았다. 그리고 또 술뚜껑을 술에다 넣어 놔거든, 그래서 집주인이 어떠한 방법이 없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속을 깨버렸다. 그러자 그 술 안에 돈이 엄청나게 있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 물으니, 동네사람들은 ‘그 돈으로 빨리 땅을 사 놓으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주인은 큰 동네에다 땅을 사두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땅에 쇠말뚝을 박아놔서 네 개를. 그리고 여기저기에 밧줄을 매 가지고 그 땅을 끌고 가려고 하더라 도깨비라는 놈이. 그저 밤새 자고 나면 없어지는 거였다. 그래서 주인은 땅을 팔아서 판 데로 갔다. 그런데 그 놈의 도깨비가 이사를 간 곳 까지 쫓아왔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깨비한테서 얻은 재산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김연순(여, 72) - 5



5. 일제 시대 파평 윤씨 여흥강 전설

옛날에 파평 윤씨 장군이 있는데 어, 윤관이라고 그 장관이 있었는데 이 왜정 하에 싸움이 났잖어? 싸움이 났는데 인제, 일본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저 원산 넘어 여흥강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남편의 고향이자 인자 거기 사는 동넨데, 원산서 살았고 여흥으로 우리 시아버지가 옛날에는 왜정 때 큰칼을 차고 우체국 국장님으로 그리로 발령을 내서 가셨는데... 그때 당시 싸움이 막 났을 때, 그래 인제 왜정 하에 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쫓아가 여흥강이라는 데가 굉장히 크데. 그런데 인자 건너갈 길이 없는데 머가 그냥 잉언지 거북인지가 짝 깔리더라. 그니까 이분들이 인제 쫓병들하고 장군들이 그걸 타고 건너가서 보니까는 잉어가 싹 흐트러지고 없고 일본 놈들이 몇 놈이 건너오다 몇 명이 죽었는데. 그 강에 빠져서.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는 내가 우리 인제 시아버지 고향사람들을 통해서 알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파평 윤씨는 잉어를 안 먹어요, 잉어를 안 먹어 일절. 왜 애기 나쁜 보통사람들 잉어 사다가 과먹고 어찌고 하는데 우리 파평 윤씨는 잉어를 안 먹어. 그 나 인자 불교신자니까 만약에 인자 절예를 가쁜은 잉어 쪼끄만 거 사다가 강에 띄우고 또 자라 사다가 강에 띄우고 나는 그 전설밖에 몰라요 (할머니 윤가세요?) 오운씨예요 파평윤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 우리 시아버지가 파평윤씨 윤형호 (할머니 성함이요) 나는 김자 연자 순자... 어, 그것이 아주 참 전설에 내려오는 말이라 우리 윤씨네 애들이 이렇게 명절 때 오면 그것밖에 얘기해 줄 게 없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 우리 윤씨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 왔기 때문에 그 윤관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윤형호... 우리는 잉어를 안 먹는다. 너들도 어디 가서 그런 건 먹어선 안 된다.”

이렇게 거 전설에 내려오는 얘기를 잘해 주시더라고. 이게 윤관 파평 윤씨의 전설이야, 이게. 그 잉어가 그냥 등을 짜악 깔아주니까 그 많은 군사들

이 막 건너가고 나서 돌아다보니까 그것이 반쯤 오다가 일본 놈들은 많이 빠자 죽고, 그래 가지고 기냥 싹 흐트러지니까 못 건너 왔지. 이렇게 윤관 장관이 그 때 당시 승리를 했다 해서 그게 그렇게 좋은 얘기야. 이제 됐지?

9. 신당동(新堂洞)

1) 지역개관

신당동은 신당(神堂)을 모시는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명으로 신당이란 무당들이 받들어 모시는 신령을 모시는 집을 말하며 갑오개혁 때 신당(神堂)과 발음이 비슷한 신당(新堂)으로 바뀌게 되었다.

광희문(水口門) 밖에 위치한 이곳의 신당을 중심으로 많은 무당들이 모여 살아 무당촌을 이루었으므로 신당(神堂) 혹은 신당(新堂)이라는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본래 수구문은 서소문과 함께 도성 안의 상여를 밖으로 통과시키던 문인데 수구문 밖 신당동 일대가 공동묘지였으며 1920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묘지가 겹겹이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조선 태조 3년(1394)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 한양을 한성부라고 개칭하고 태조 5년(1396)에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5부 52방으로 나눌 때 한성부 성저십리(城底十里)에 포함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겪고 결국 갑오개혁 때 남서(南署) 두모방(豆毛坊) 왕십리계의 신당리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당동은 중구 관내 법정동 가운데 가장 많은 행정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신당 1동 ~ 신당 6동까지이다. 현재 신당동에 속해 있는 지역들은 과거 황학동 · 흥인동 · 무학동 · 충현동 · 약수동 · 청구동 · 문화동 등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2) 구전설화 〈신당 1동〉

최준기(남, 78) - 1. 2. 3.
아무개 할머니(여, 73) - 4. 5.
김정환(남, 78) - 6. 7.

1. 귀신 이야기

귀신이 없다는데 귀신을 본 사람이 애길 했어. 내가 들었어, 직접. 그때
이 지금은 탑골공원인데 왜정 땐 파고다 공원이란 했어.

거기 인저 내가 회사 다닐 때 저 뭐여 우리 회사는 저저 지금으로 말하
면 백화점이 정자원에 있었는데 거긴 쉬는 날이 휴무가 월요일이란 말이
여. 일요일 날이 아니구. 그 친구들하고 인저 저 탑골 공원에 갔어.

노인네들이 지금같이 많지 않지. 많진 않은데 오물 조물 앉아있어. 고
길 가만히 가니까 저 뭐야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뎡기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그러고 근데 한 사람이 눈이 꼭 매 눈이여.
남자가 눈이 매눈인데, 곱신거리는데,

“영감들, 내가 귀신 본 사람이오.”

하고 애길 하더라 말야. 그러니까 다른 노인네가,

“당신 귀신 직접 봤소?”

하고 물었더니.

“그렇소.”

“그럼 어디 한 번 얘기 해 보슈.”

그래서 애길 허는데, 그전에 내가 강원도 강릉 근처 어디 사는데, 그 사
람이 직접 총 놓는거 포수였지. 겨울이면 강원도에서 산돼지 같은 거 잡
으러 뎡기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길,

“나는 총을 잘 못 쓰지만 열 발을 쏘면 여덟 발은 내가 맞추오.”

그렇게 애길 하는데. 눈이 매눈이여. 그 사람이 애길 하는데 거 어느 고갯데 올라가는 길이 십리, 내려오는 길이 십리라는 거야. 거기서 셋이 가는데 이 돼지를 한 번 쫓으면 배고픈 줄도 모른다.

돼지 잡을 욕심으로다가 올라가는데 인저 겨울이니까 진눈깨비가 오고 해도 지는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는 거야.

근데 도라꾸가 땡기는 길이 하나 있는데 인자 거기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있었대.

돼지 사냥 할 적엔 다리 아픈 줄 몰라도 끝날 때 그날 밤 것도 못 잡을 것 같으면 다리가 많이 아프다. 근데 내려 갈 길이 한 이십 리 되니 주막이 있나 잘 때가 있나. 그 중간에 터덜 터덜 셋이 총을 들어 매고 중간쯤 내려오니 저 위에서 도라꾸 불빛이 비추더라. 그때 맘은 어린애같이 엄마 만나건 마냥 기쁘네. 차가 오더니 딱 설 수밖에 이 사냥꾼이 말을 했어.

“아 이거 미안하오. 배는 고프고 어디 주막 있으면 거기까지만 실어주시오.”

그리고 보니깐 도라꾸에 운전사 혼자 탔더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둘이 타고 자기가 제일 젊은데 뒤에 탔다라는거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내다 보니께는 어여쁜 아가씨가 손을 흔드니께, 딱 쉬던거여. 탁 쉬더니 타라고 했지. 타라고 하니께 여간 좋아요? 옆에 태우고 운전수까지 넷이니 얼마나 좁겠어. 그러구 내려갔단 말이며. 또 차가 있어요. 그 이렇게 보니께 왜 그러냐고 보니께,

“아, 자네 아까 색시 태운거 맞지?”

하고 말이 나왔단 말이며.

“거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깐 아가씨가 없단 말이며. 포수들하고 운전수랑 넷이 놀렀단 말이며. 하두 이상해서 포수가 안내를 했어. 운전수가 살 때를 되서 그런지 이 포수를 만났단 말이며. 아 인자 총을 앞에다 재고 말이며.



“거 앞으로 그런 여자 있으면 귀신이니까 덮어놓고 쏘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디어.

그 별에 다 내려가도록 안 나타나더래. 색시가 산을 내려가니깐 주막집이 있더라. 배는 곱게 주막집에 들어서서 십자문이네, 대문이 아니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문이야. 이렇게 달랭이 가져가 문에 차 달았다고 이렇게 달랑달랑 흔드니깐 안에 할망구가 나오더라는 거야. 할망구가 보니깐 운전수랑 포수를 알아보더라는 거야.

“할망구 우리 하룻밤만 자고 갑시다.” 그러니깐 할머니가,

“어, 포수군!” 그러더라.

들어오는데 밥을 해주면서 할망구가 쳐다보면서,

“아 포수들이닌깐 살아 나왔군!” 그러더라.

뭔가 이상해서 밥 다 먹고 할망구를 들어오라고 해서 물었어.

“포수니깐 살아왔다고 하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얘기 하나 마나 그렇지 뭐.”

그러더라. 그래서 포수들이 말하라고 그러니깐 할머니가,

“오늘 내려오는데 아가씨 못 봤어?”

하고 할머니가 묻더라는 거야.

“여기까정 포수아니든 운전수는 거기 정신 쓰여 가지고 길은 좁고 무서워서 막 밟게 돼서 벌써 죽었어. 포수총 믿고 운전수 살아 온거야.”

라고 말하더라.

“그 아가씨가 뭐요?”

“응. 색시 나물캐러 가다가 죽은 여잔데 밤중이나 날이 갓으면 반드시 나타나고 운전수가 내려가면 반드시 타고 사라져서 운전수들 놀라게 해서 죽게 만들지.”

그러더라.

귀신이닌깐 흘린단 말이여. 내 그런 얘기를 들었지.

2. 돼지보다 약한 놈이 호랑이더라

산돼지보다 약한 놈이 호랑이더라.

사냥할 때 쫓 보며는 산돼지는 배에 맞아도 창자가 다 나와도 살아서 돌아 댕긴다. 막 달려든다. 무서워 뱉다 달려도 쏜쌀 같이 막 달려 들어와. 옆으로 피하든 저 마치 횡하고 가 있고 그거 얼마큼 해야 그저서 죽는데.

근데 산돼지 사냥하러 쫓 하니 가만히 보니 바위 위에 호랑이가 있더라.
‘나 이제 죽었구나.’

옛말에, ‘호랑이는 자기에 총을 쏘면 그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도 죽는다.’

그런 말을 들어 가지고 죽겠다고 생각했지. 피할 도리가 없더라. 보니깐 금방 쫓아와서 죽일 것 같더라.

“어차피 죽을 바에는 총이나 한 번 쏘고 죽자.”

그래서 한 발을 쫓다. 그래서니 죽을까봐 바위 밑에서 얼른 또 오면 쏠려고 기다리니까 암만 기다려도 안 오더라. 이상하다 해서 고개를 들어 살펴 피니까 거기서 보니까 팩 시러져서 죽었드라. 그래서 자기가 애길 하는데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죽는데 산돼지는 안 죽다고 더 무서운 동물이라.

호랑이가 돼지보다 약한 동물이라.

3. 개는 오래 먹이지 말아라

우리 집안에 사람이 오래도록 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집의 개를 갖다가 7년을 먹였어. 그 개를 쪼그만 할 때부터 옛날 어르신들 말에,

“개 오래 먹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다 오는데 집안에 쓌는데,

“요놈의 여우가 나를 보고 이려고 있나.”

하고 총으로 쏘단 말이야. 탕 하고 쏘고 보니깐 자기네 개더라. 그래서 개

를 오래 맥이면 도술을 부린다는 말이 생겼다.

4. 말승냥이의 보복

근데 우리 친정 셋째 작은어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말승냥이 새끼는 어려서는 강아지 새끼 닮았던 말이에요.

나무하러 갔다가 그걸 집어서 가지고 와서 돼지우리에다 그걸 집어넣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돼지가 그걸 잡아먹었지.

인자 그걸 돼지가 먹었는데, 말승냥이가 그날 저녁으로 뒤집혀서 그리고선 새끼 집어온 누이동생을 물어갔어. 아주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찾으러 돌아 땀졌는데 거기 인자 덩불 속에 인자 사람이 가니깐 비린내가 쳐 나더라. 거죽은 감쪽같이 내비 두고 속은 다 빼먹었데.

그래서 누이동생 하나를 잃어 먹었다고 우리 친정 셋째 작은어머니가 말씀 하셨던 거야.

말승냥이는 꼭 보복을 한데.

5. 여우 이야기

인자 시골이니깐 고개 고개 넘어 딸네 집엘 간 거야. 가면은 한 고갯 넘어 가쁜 여우가 나와서 또 달래고 또 달래고 그러선 떡을 다 줬단 말이야.

근데 또 가니깐 뿔(뿔) 고갯 넘어가는데 대가리 짤라 주구 팔 짤라 주구 그랬데. 그리고 남은 것은 등결만 남아서 이렇허구 짤레나무 속으로 들어갔데. 그랬다더라고. 여우는 요물이야.

6. 교만한 조진사

백 여년 전 얘기로.

이게 경상북도 봉화군 봉송면 도향리라는데 가문은 조씨가 살아. 조씨가 사는데 조진사라고 교만이 푹푹 돌른 사람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아 글썽 교만 부렸다간 망하는 거여. 사람이 됐다하는 것을 내세우면 망한다고. 근데 그 집에 몸종이 여시가 하나 있고 머심아가 하나 있고 어아 바이는 없고, 여자만 삼 모녀가 사는데 저 어마니 종이 죽어 버렸어. 죽어 버리니께네 거 조진사가,

“종년 죽은 거 뭐 알 것도 없고, 동구 밖에다 물어버려라.” 한 거야.

동구 밖에다 묻고 나서 몇 해가 지난 거야. 남매가 컸는데 머심아가 큰 애고 계집애가 동생인데 아 한 5~6년 되니께네 어디로 달아 나불고 없어. 요즘 같으면 수배를 해가지고 찾지만은 옛날에는 못 찾으니까네,

그래 있는데 조진사가 어디 갔다가 오다니께네, 동구 밖에는 늙은 노승이 열병을 하고 두리 누었어. 열병이 뭐냐므는 머리까지는 염병인데, 열병을 하고 두리눴길래 조진사가 무신 맘으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자기는 걸어 들어왔어. 그 열병이니까네 뒷방에다 저 한 짝 구석방에다가 뒹셔 놓고, 이 조달수를 걸어 메기고 이래가지고 구조를 했는게 한 서너 달 넘으니까네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고 일 년 있고 이 년 있고 삼 년 있었는데, 그 조진사가 대사 말만 들으면 일이 잘돼. 잘 때는 데도 사월 초파일을 한 두어 달 앞서어 나두고 이제 봄날이 따뜻해지니까네 조진사네 집에 있던 대사가,

“소승은 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진사가,

“그래 가라. 뭐 나았으니까 가라.”

그러나 대사가 하는 말이,

“내가 죽는 놈을 살렸으니까네 제가 산소는 볼 줄 모르지만은 내가 산소를 좀 봐 줄꺼이니께네 그럼 내일 한 번 산 밟으러 갑시다.” 이래, 인제 대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니께네 조진사 들으니 괜찮다 말이여.

그 이튿날 자고 나서는 어디로 갔나 하므는, 종의 무덤으로 간 거야. 종의 무덤으로 가서는



“이 산소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단 말이야. 물으니께네 지방이 뭐라고 했냐면, “여거는 정승이 났오.” 한다 이거야. 조진사가 속으로,

‘야! 이 미친놈아 종놈이 죽었는데 원놈의 정승이나. 이 자식아.’
속으로 욕을 하고는,

“아, 이대사 오늘 우리집에 손님이 오시기로 했으니 내일 가지 뭐.”
그리고 들어 가부렀다는 거야.

그래 인자 간 뒤에 사월 초파일일이 거진 한 두어 달 앞서 놔두고, 그 동구 밖에서 쫓대 나발 불거든. 조진사가 문을 열고 이래 보니께네 거기 인제 흥두곡 자손이 종가에 있는데, 절이 안 올라가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집을 이래저래 대충 치워놓고 기다리는데 아딱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니만은 가만히 와서 만은,

“가매가 아 저게 어 골원이 탄 것이 연이라.”

그래. 연에서 딱 내리더니만은 말이여.

그 마당에서 그 조진사한테 절을 하는데 보니께네 삼 정승 판사라 하고 왔는 모양이다. 그래 인제 그러니께네 인제,

“이게 누구냐?” 하니께네. 우리 어머니 종 암검이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 조진사가 아뿔싸, 그 종의 말 들은편데. 이런 생각을 먹었던 말이야.

그래 인제 들어와서 쉬어 가는데 저 어미 뒤편에 땡겨서 인제 가는데 보니께네 그냥 죽은 거 파도 안 하고 고마 그러 물어났는데, 볼 모양이 없거던.

그러니까네 인제 이놈이 가가 주고 지고 나을 데려와선 장소를 좀 옮길라고 인자 계산을 하고 갔는데, 쫓 그래 인자 갔는데 그 뒤에 그 대사가 참 주인 앞에 뭐라 그러는고 아이가,

“계가 사월초파일날 못 오거들랑 금강산 아무 암자에 날 찾으러 오세요. 그 와서 없거들랑 한강 건너 김진사네 집으로 오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겠다 하고 인제는 금강산 어느 암자에 인자 가가 주고 그 대사를 찾아야겠다 하골랑 종놈을 데리고 인제 가마를 미고 갔단 말이야. 가이께네 이런 재가 마지막 재를 넘는데 재고개에 인제 쉬는데 동자가 서이 나

와 가지고 장난을 하고 노는 거야. 꼬마중이 서이 나와서 장난을 하고 노는데 아이 조진사가 그 마지막 잣마루에 딱 올라가이께네,

“아이고 조진사님 먼데서 오시는데 참 노독이 없으신가?”

그말이야. 인사를 깎듯이 하는데 깜짝 놀래 부렸단 말이야. 이게 조진사가 그러니께네 그러믄 저 뭐시기,

“야야 아무 스님이 지금 대사가 계시느냐?”

“예 계시죠. 그 어른이 마중 나가라 그래서 막 왔습니다.” 이카는 기라.

아이구 참 그래서 보이께네 짚신을 말이며 한 켄레씩 노나주면서,

“마 먼데서 왔으니 신발 다 떨어졌으니께네 새 걸로 갈아 신고 들어오시오.” 한 거야.

그래서 줄랑줄랑 따라 들어갔는데 그 넓은 놈의 마추칸에 사람은 없고 그 동자가 앉아있는데,

“야, 선생님 어디 가셨냐?” 하고 물으니께네 동자가,

“선생님 아래 돌아가셨는데요.”하는 거야. 그래서 조진사가,

“어예 어떻게 아는가?” 하고 물었더니 동자가,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야.

‘아이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김진사네 집 찾아가야겠다.’ 생각하고, 김진사네를 찾아갔는데 가이께네 그 여자는 여시가는 김진사네 집으로 시집을 갔어. 그 노승이 가르쳐줬는 거라 말이야.

그레가지고는 얘기를 하니께네 저 종을 보내 가지고 집에 가서 경상도 봉화가지고 그 종 문서를 가져와서 쳐대고 거기 인제 집으로 와 가지고요.

그 얼마나 원통한지 말이야. 교만을 툭툭 떨던 조진사가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의 백여 년 전 얘기가.

7. 현풍 괄씨 이야기

현풍 광씨들이 효자 열녀 뭐 이런 것이 많이 났어. 암행어사란 분 인저 현풍이라는 거 광씨네 동네를 들어가니께네 거 여름인데, 아 오뉴월 여름인데 느티나무가 짝악, 그늘이 얼마나 두터운 놈이 느티난게 느티나무 밑에 보고 말이지.

어른들이 돌맹이를 가져다가 말이야 목치미를 비고 말이며, 코가 노랗도록 막 잠을 자는데 대 여섯살 먹은 애가 천자문을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 어사가 가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거 가 가주고,

“야, 너 왜 저 두터운 그늘 놔두고 왜 하필이면 뜨거운 오뉴월 땀벌을 안고 책을 읽느냐?”

이러니께네. 책을 이려고 보더니 탁 덮어 놓고는 바싹 일어나가주고는 하는 말이, “저 건너 사람 보입니까?” 이러더라 말이며.

사람이 소를 몰고 밭을 가는데 그 사람을 가르키면서,

“저 우리 아버지인데, 딴 사람은 다 밥 먹고 쉬는데 우리 아버지는 힘들게 일하시는데 편하게 글 배우는 놈이 그늘 나무 밑에 못 있습니다.” 이거야.

효자지 그런 생각하고 저리 인자 쪽 내려가다께네 한군데 가니께네 한 삼사십 살 먹은 사람이 밭을 가는데 잔소리를 많이 해. ‘쿵지렁 쿵지렁’ 잔소리를 많이 허는데 어사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니가 아직 정신이 안 왔구나!’ 그러니께네.

가만히 나무 그늘 앉으니께네 저 먼데서 곰방지에다 뭘 이고 말이며 치마꼬리가 팔락 팔락 부리나케 오는 게, 자기 마누라 같애. 그러드니 마는 밭가에다가 곰방지를 내려놓았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은 밥이고, 보재기에 있는 건 소준데 신랑 보고 암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질 않는 기라. 부예가 치올라 다른 사람들은 밥 다 먹고 잠들 자는데, 여태까지 새참이 다 지나가도록 점심도 안 가지고 오니께네 화가 나서 밥 먹으러 안 올라온단 말이며. 그리 인제 가만히 생각하니 안 되겠어.

이제 뒤에 밭 가는데 졸랑 졸랑 따라다니며 왔다갔다 두어 번 건드리니 만은 남자자식이 말이며 마누라한테 큰 절을 하고, 죽을 맥이고 밥을 먹

기 시작한 거여. 그걸 지켜보던 어사가,

“저 자식이 미쳤구나. 왜 저러고 있냐.”

그러드니 만은 남자에게로 갔어, 그리고 물었어.

“화가 잔뜩 나 있는 거 같더니 만은 그래 마누라한테는 왜 절을 하시오?” 그래서 농부가 대답했지.

“내가 지금 첫 아이를 낳아 가주고 양금양금 기 땡깁니다. 이거야 머시마가 양금 양금 막 방안에 기 땡기는데 우리 엄마가 노망기가 있는데 마누라가 빨래를 한 솥 해놓고 아이 걸 손 빨래 할 게 더 있어서 불을 지펴 놓고 도랑에 가 빨래하고 오니까 네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저 어머니 하는 말이,

“야야 거 운 좋은 날이다.” 마누라가,

“뭐가 좋은 날인데요. 어머니” 이러니까네,

“오늘은 황계장 닭이 퍼덕퍼덕 방 안에서 놀고 있길래, 거 놔 붙잡아서 삶아 왔으니까네 먹거라.”

이거야. 남자가 울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가서 솥뚜껑을 열어보니 첫 아이를 삶아 놓은 거요.

부인은 그런게에 아무 소리 안하고 첫 아기를 산에다 묻고 빨래를 속에 걸 다 꺼내고 깨끗이 청소한거야.

노다지 돌아 땡기는 놈의 장닭을 붙잡아 가주고 삶아서 그걸 어머니 잡수라고 해 드리고 오다보니께네 점심이 늦어서 미안하다 이거지.

“나는 우리 어머니지만 당신은 시어머니가 되는 건데, 용서해줘서 고맙소.”

그래서 그 농부가 절을 한 거였어. 이런게 바로 효자야.

현풍 광씨네 이야기야.

〈신당 2동〉

최순희(여, 83) - 1. 2.

1. 도깨비 본 이야기

저 산에서 밤에 저녁 먹고 나문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하네. 사람도 없는데 거는 아주 산인데 거이 유심이 보니까는 거이 도깨비불이란단다.

섣달 그믐날에는 도깨비들이 막 “키~악” 무슨 막대기 같이 허새비 같이 막 도는데 불덩이가 그냥 확~ 불덩이를 쏘는 기라. 이런 사람들은 불덩인기라. 자기들이 막 쏘고 그런 기라. 사람 몸의 인이 떨어져서 그게 불이 대는 거라.

2. 늑대 꼬리 이야기

하루는 자는데 문을 요만치. 옛날엔 초가집에 문이 요만 안 하든 팔을 빼 가지고는 문에 요만치 놓고 머릴 딱 문지방을 비고 잤거든, 이리곱살 묵어가 뵈이 물로 짝 묻히는기라. 얼굴에다가 그래가 내가 소리를 질렀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너무 무서거봐 말이 안 나와 가지고는 내가 난중에 보니 거기 늑대드란다.

이웃집 사람이 보니까 늑대가 어슬 어슬 나오드란다. 쫓기에다가 물을 적셔 가지고는 죽었으면은 물고 갈라고 나를 죽여가 물고 갈라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내가 산골짜기 사능계.

〈신당 3동〉

장화연 (여, 86) - 1.2.

1. 양반과 상놈의 차이

옛날에 양반 상놈이 있잖아. 상놈하고는 절대 혼인을 하지 않잖아. 고

기를 사러 가도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가면 딱 떼주고,

“이리 내 놓아라.”

하면 딱 주고,

“우리집으로 가져오라.”하면 갖다 주고 그러걸랑.

그런데 양반 비서가 있어. 20살 먹은 큰 애기가 드물었어. 어지간한 집은 다 일찍 시집을 갔지. 20살이나 먹은 규수가 있는데 양반의 집 총각이 여자보다 1살 더 먹었어. 그러디 둘이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인자 예식날이 닥쳐서 결혼식 하는 날, 옛날에는 막 자기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했잖아. 그래 딱 신랑이 오는 데 여자가 보니까,

“남자는 얼굴이 사주가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내 사주를 보니까 자식이 없어. 아! 저 집을 무혼 할 수가 없다. 내가 반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신랑도 들어와서 인자 저기하고 그러는데, 딱 들어와서 가지고 안겨서 생각 했는데 별 수단이 없어.

첫날밤에는 방을 차려 주는데 신랑이 딱 보니까 참 여자가 일색인 거야. 아주 어떻게 이쁘던지 그 남자가 자기를 상대하면 자기가 반대를 하면 절대로 말을 안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도디는 거여.

가만 앉아서 보니까 신랑은 아들 삼형제디 자기는 아무 것도 없거든. 인자 초마에다 콩 하나 담고 바늘을 갖고 와서 술잔을 놔 놓잖아, 둘이 술을 나눠 먹으라고 신랑이 술상을 딱 갖고 와서 먹자고 그러니까 그 응답도 안하고, 저 응답도 안하고 등잔불에 바늘로 콩 하나 꿰 갖고 툇 튀겨서 먹고 툇 튀겨서 먹고 그러거든. 인물은 일색인디 상대가 안되잖아, 말도 안 하고 상대가 안돼.

“양반의 집 딸이요.”

요 참 좋은디 상대를 안하거든. 아무리 봐도 안되게 생겼으니께, 신랑이 하인 종을 부르잖아

“아무게야 이리 오너라. 그래 가마 대라, 난 간다. 저런 여자하곤 안산다.” 가버렸 걸랑. 가버렸는데, 인자 동네사람들이 다 그러지.



“제 동생이랄지, 누님이랄지는 퇴박 맞았다 퇴박 맞았다.”

옛날에 그런 것 불고하고 가만 있는디. 그 신랑집을 종들 보고 다 알아 보라구 했어. 그 집이 어디게며 오늘 가도 찾아 갈 수 있는 조건을 종들에게 말해놔어. 큰 애기 집에서는 아무두 모르지 그 종들만 알지.

“너희들 나하고 약속한 거, 한 마디라도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럼 그때는 여자가 사람을 죽일려면 죽이는 시대여.

그래 딱 그러구 있는디 낭중에 들으니까 신랑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네.

“낭중에 또 갖다오라 그랬어.”

아들 하나를 또 낳어, 아 셋째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여. 여자가 친절에서 무일하구 신랑 퇴박 맞았으니까, 오두가두 못하는 거야.

옛날엔 판 남자 만나면 안되고 그러니까 열녀각을 세웠잖아. 인자 가만 있으니까 아들 셋을 딱 낳은 뒤에 종들보고,

“나 가마 태워서 그 집 문 앞에다 딱 대 놓고 아무 보고도 가마 손대지 말고 그 신랑에게 문을 열라고 해라.”

느닷없이 가마가 들어오니 신랑집에서는 깜짝 놀래지.

신랑이 세워놓고 신랑이 가마문을 열라고 있으니 신랑이 와서 문을 열어줘, 딱 들어가서

“나는 다른 것은 다 싫고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안을 것인데, 한 끼니에 밥 한 숟갈씩만 나에게 줘라. 옛날에는 안방 옆에 골방이 하나 있었어. 그 방 하나 치워주면 난 여기서 혼자 잘란다.” 라고 했어.

혼자 살라니까 그만 그 고통을 받고 참말도 못하고 오직 허것어.

옛날 결혼하다가 판 여자가 왔으니 그 여자가 조와라 하것어. 이년 저년하고 밥도 여전 주지 않고 종 데리고 식모 데리고 밥 먹었어.

“양반의 집이요.” 그 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딱 있으니까 밥도 한 끼니 한 숟갈씩 안 주고 하니 집안이 그 런디 그 큰 아들이 엄마같으니, “울엄마 울엄마”



그렇게 따랐어. 아들이 그래 그 틈에서 재미가 있어 살아 다른 취미는 없어. 아 그런디 밥이 그냥 조금씩 밖에 안 주니 배 고파 죽겠어.

그래도 뭐란 말도 못하고 그대로 사는데 하루는 집안이 난리가 났드래. 큰애 보고,

“야 왜 집안이 씨끄럽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벼슬을 하러 가야 하는데 도포를 못 저서 못 간다.”

“그러면 도포를 내가 지을 것이니 가져오라고 해라. 옛날엔 양반집 딸이야. 바느질도 잘하고 글두 문장이요. 못하는 것이 없지.”

저까짓 것이 무슨 도포를 지랴. 아들 낳은 마누라 지랄할 것이 아냐. 그러거나 저러거나 내버려두고 하루는 옷이라고 딱 내 났는데 양쪽에다 남자 여자가 봉황을 그려서 수를 놓아 가지고, 여자가 밤낮을 배고파서 기다리는 시늉을 해서 놓아 갔어. 그래서 그 놈을 입고서 벼슬을 하러 갔네.

왕자 어르신이,

“너의 집에 누가 이 도포를 졌나?”

물었어.

그래서 신랑이 이렇구 저렇구 다 가르쳐 줬지. 갈쳐 주니까, 난중에 그 마누라가 독차지 하구 살았잖아요 낳지는 않았어도 환영받고 살었드래요.

2. 용감한 아들

옛날에 인자 부부가 살잖아. 부부가 사는데, 아들 하나 낳아서 아들이 세 살 먹었는데. 그 마누라가 어느날 어린아이를 놓고 죽어 버렸어. 어린애 놓고 죽어 버리니까 남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 어떻게 옛날에 살 수가 없잖아. 가난하기는 가난하고 애기를 맥여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골로 들어갔어.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큰 통나무 넣고 구워가지고 숯장사를 했어.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먹구 살아야 하니까 산속에서 숯을 굽고 먹고 사는데, 하룻저녁에는 인자 아들 데리고 숯을 굽고 사는데,



“너는 인자 연령이 차 가지고 결혼도 해야 하는디 나는 일생이 그렇지 만 너는 입장이 그래서 어떻게 좋냐?”

아들이, “나가 살자니 돈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하고 걱정을 해. 호랭이가 딱 오더니,

“나 너 안 잡아먹고 너 해꼬지 안할 것이니 너 나하고 통하자.” 그러데.

그러자 산에 가서 숯을 굽다가 아, 선냥을 해. 선냥이 뭐시냐 하면 낫도 맨들고 호맹이도 맨들고 이런 송곡도 맨들고 다 하거든. 아, 그러자 호랭이 딱 와서,

“안 그러면 너 나 이빨만 해 주라. 너 없는 거 귀도 말고 나 이빨만 해주라.”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빨 하듯이 송곳을 다 맨들어서 이빨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우 아래 이를 딱 해서 갖다 씹워줬어. 고놈을 씹워주었더니 느닷 없이 돼야지도 더 물어오고 쌀도 한 가마니 들어다 쥐 버리고 업어다가 가져오니 가져와도 모르지.

짐승이 보고 있는디 누가 알아 암두 모르지 그래서 갖다주니 하루는,

“네 아들도 걱정이니 큰 애기 업어다 주마. 그리고 인자 결혼 해라.”

고는 큰 애기를 업고 왔드래.

그 큰 애기는 인자 내일 결혼하려고 오늘 목욕하다가 잡혀왔어. 옛날에는 뒤란에서 목욕을 했어. 물 데워 가지고 목욕을 하고 딱 옷을 입고 있으니 그냥 업고 와 버렸으니 집에서는 암 것도 모르지.

아, 그런게 집안에서는 난리 났네. 내일 혼인하려는 색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고 밤에 난리가 났는디, 인자 그 큰 애기를 업어다 쥐서 사는디 큰 애기 친정 아버지 환갑이 닳쳤어.

하루는 큰일이네. 시아버지가 생각하니 환갑이 닳쳤는데, 뭘 해서 그때는 찾아가 봐야 하는디 할 수가 없거든. 걱정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 내가 다 해주니 걱정을 말고 나를 사람 눈에는 말로 뵈고 너 하고 나하고는 호랑이다 그 누구보고 말도 말고 나 신고 가라.” 고 했다.



김재옥 (남, 71) - 3. 4.

3. 용문사의 은행나무

용문사가 은행나무 안 열린 거로 유명했거든. 그렇지. 그런데 요샌 열려. 열린다고 은행이.

그 은행나무가 왜 안 열렸냐고 그러냐면. 그게 유래데, 요전에 가보니까 열렸다고 그러더라고. 열린 걸 봤다고 하더라고. 원래 옛날 책자를 보면은 안 열리는 거였어, 은행나무가. 은행나무가 이거 열 세 드럼 되는데 은행이 안 열리는 유래는 양평에 말이여 원이 은행나무에 은행 열리는 걸 보고 이거로 저 옛날에 납세를 하는 거지. 한 가지에 얼마나 열리니까,

“너 은행을 얼마나 고을에다 내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지승이 은행 떨어질 때쯤 되면, 중들이 배낭을 들고 은행을 동냥 대냈대 은행을. 그게, 은행나무 권 자리가 연못인데, 은행이 연못에 다 빠져 가지고 은행을 못 건지잖아. 그래 가지구, 그걸 채우기 위해서 스님들이 동냥을 대냈다 이거야.

은행 동냥을 대냈는데, 이 주지승이 말이여 스님들이 지금 은행을 말이야 시주하러 대니니까 골치 아프거던. 그래서 주지승이 말이야 달밤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바람 속에 초립을 쓴 어린이가,

“왜 스님 걱정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야.

“은행은 열리는데 고을원이 은행을 세금으로 내라고 해 보니까, 보다시



피 연못에 다 떨어져 가지고 은행을 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은행을 시주받으러 데니는데 어찌 이 고민이 안 되느냐?”

그러니깐, 이 초립둥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러면 그 은행이 안 열리면 되겠네요.”

그랬단 말이야. 안 열리면 지가 안 오니까.

“그런데, 거 어떻게 천지조화로 안 열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그거 간단합니다. 그거 안 열리면 되요.”

그러더라 거여.

“그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안 열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진 거여. 근데 그 다음부터 은행이 안 열리더라 거여. 사화에 찾아보면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은행 안 열린다고 돼있어. 근데 지금은 열린다는 거여. 그러니까 마, 시기가 이상한 거지.

그것이 거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안 열린 거로 유명한데 그 은행나무가 마 의태자가 금강산 개골산으로 들어갈 때 백목을 심고 가다가 꽃아 논 거거든.

신라 56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의 망국을 원망하면서 베옷을 입고 개골산 개골산이 금강산이거든. 개골산이 겨울에 금강산이여. 거기 풍악산 봉래산 개골산 금강산 그러거든. 금강산은 이름이 네 개거든.

마의태자가 갖다 놓고 그걸 꽃아 놓고 금강산에 갔는데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려 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

4. 유성룡 삼촌 유사치의 지략

정조 4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때 유성룡 대감이 우상을 했어. 우의정, 우의정을 했지. 유성룡 대감이 원래 경상도 아냐. 임진왜란

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고향에를 갔어.

유성룡 대감의 삼촌이 우리가 보통 아치 그러면 모자란 사람 그러지. 유아치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성룡 대감의 삼촌이여.

근데 이 사람이 시골 서당에서 애들만 가르치고 있었어. 그래서, 유성룡 대감이 이제 고향에 가서 자기 삼촌이 입각을 했으면 좋기 때문에 삼촌보고,

“입각을 해서 나라를 좀 생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유성룡 대감보고 이랬어.

“조카가 정승 반열에 있는데 내가 가서 뭐할거냐.”

이거야. 그리고 안 갔거던. 그런데, 유아치 선생이 신기를 보고,

“나라에 문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대관목을 했어.

“모처럼 왔으니 나랑 바둑이나 한 번 두자.”

고, 그 때 거 보통 정승 반열에 올라 있으면은 국수야 국수. 그래 바둑을 딱 두는데, 딱 두고 나니까 유성룡이가 요만큼만 살고 다 죽었다 이거야. 삼촌이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지 몰랐어. 전멸을 한 거야 전멸을. 거 유성룡이 요만큼만 살았어. 그래서,

“삼촌 제가 졌습니다.”

그러고 바둑판을 섞으라고 그러니까,

“잠깐만 나뒤풀라.”

라는 거여. 그리고 유성룡 대감보고 그랬어.

“이 바둑판을 보고 느끼는 바가 뭐냐.”

몰랐어. 그러니까 유대감이 그걸 몰랐어. 그래서,

“삼촌 가르쳐 줘쇼.”

그니까 뭐냐면,

“나라가 전부 다 뺏기고 요만큼 남았을 때 유대감이 어떡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황당한 질문이잖아. 일국의 재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삼촌보고 일어나서 절을 한 거야.

“가르쳐 줘쇼.”

“만약에 아, 왜구의 침입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원군을 청해야지요.”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군을 어디서 청할 거냐. 청나라에다 청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요만큼 남았을 때는 우리 나라 힘이 모자라니까, 다른 나라 우방국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아마도 대감이 갈지 모르겠다. 그 때 다시 나한테 들리라.”

그런 거야. 그래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일본 사신 갔다 온 놈들이 말이야 노론 소론 해 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아, 놈들이 쳐들어 왔어. 그래서 거 의주까지 쫓겨 갔잖어.

그 때, 청나라에 사신을 가는데, 유성룡 대감이 아니냐 다를까 가게 생겼어. 그래서 자기 삼촌한테 갔어. 가 가지고,

“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봉투를 세 개 줬어. 이게 유래야. 봉투를 세 개 줬는데, 흰 봉투하고 파랑 봉투하고 노랑 봉투 이렇게 세 개를 줬어.

“그래 청국에서 첫 번째 올 때는 거기서 이어성(이여송)이가 올거다. 이어성이가 오는데 의주에 오다가 서너 차례 걸릴 것이다. 그러면은 봉투 이걸 하날 줘라.”

아니냐 다를까 이어성이가 말 타고 딱 오더니 손을 짹 벌리거든, 압록강 변에 와서. 그래서 자기 삼촌의 얘기대로 봉투를 딱 줬어. 뜯어보니까 쌀하고 소금이 들어 있었어. 그 봉투에 그래 왜 손을 벌렸냐 그러면,

“우리 십만 대군이 너희 나라 가는데 이 사람들 먹일 양식은 있느냐.”

그런 거야. 그리고 손을 벌렸는데 그걸 꿰뚫어 본 거야. 그래서 봉투를 주니까 쌀하고 소금이 있으니깐 되었다 이거야. 이어성이가 말이야, 암만해

도 자기 속을 꿰뚫어 본 거 같거든. 그래서, 이어성이가 강변에 와 가지고 또 손을 벌린 거야. 또 손을 벌리니까 이 때에 삼촌이 파랑 봉투를 주라고 했거든. 파랑 봉투를 주니까 파랑 봉투를 딱 뜯어보니까 땅 지형 생긴 것을 몇 가지 그려 놔거든.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전쟁하러 가는데 지형이 생긴 걸 모르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하면서 손을 딱 벌린 거여. 그러니까, 유아치 선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래 딱 보니까 지도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 아,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너희가 와도 충분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 인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의 경우 이어성이가 배짱을 부리면은 의주 부사 누구를 찾아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해결 될 것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를 찾아간 거야.

아, 압록강을 건너는데 은다리를 놓으라는 거야. 일국의 대원수가 가는데 그냥 건너갈 수 없으니 은다리를 놓으라고 했어. 은다리를 어떻게 놓냐구. 그래서 고심 끝에 자기 삼촌이 얘기한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그가 자기 삼촌이 가르친 제자야.

그래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본 거야. 그래서 딱 찾아갔는데,

“아구, 스승님이 이걸 해 놓으라 그랬습디요.”

그러는 거야. 뭘 해 놓으라 했냐면 침녕쿨 있지, 침녕쿨.

‘넌 가서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침녕쿨만 가져다 말려 가지구 창고마다 싸 놓거라.’

했다 이거야. 창고마다. 그게 아구 이제 이게 쓸 때가 됐다 이거야.

“스승님이 왜 그걸 해 놓으라 했는지 몰랐는데 이 걸 쓸 때가 됐습디요.” 하는 거야. 침녕쿨 다리를 엮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리가 왔는데 침녕쿨이 전부가 다 하얗게 되거든. 그래, 이어성이에게,

“이제, 은다리를 놔오니 건너갑시다.”

그랬거든. ‘은다리를 놓을 턱이 없지.’ 하고 이 놈이 배짱을 부린 건데 나와 보니까 하얀 다리가 놓아져 있거든. 그래, 이어성이가 ‘조선이 망할 때

가 안됐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건너온 거야.

건너와서 이어성이가 장백산에 산혈을 뚫고 왔어. 아, 조선에 명인이 많은 걸 보니까 요놈의 산혈이 좋아서 그렇다 이거야. 그래 그걸 뚫어 버렸어. 산혈을 뚫고서 여기 왔다 이어성이가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지 엄마보고 얘기를 한 거야.

“아, 그 조선에 가니까 산혈이 기가 막힌 것이 있어서 내가 뚫고 왔다.”

그러니까 지 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 집안은 너 대로 망했다.”

그게 자기네 혈이라 이거지 자기네 산혈을 뚫었다 이거야. 그래서 망했다는군.

〈신당 6동〉



공상철(여, 80) - 1~8

1 산삼 이야기

옛날에 아주 지극한 효자가 살았었는데, 엄마 한 분만 모시고 살았지. 근데 병이 났는데 아무리 해도 낫지 않아. 아무리 약을 써두.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산에서 도사가 내려와 가지구,

“자네 어머니는 세 살 짜리를 삶아 먹어야 낫지. 그러기 전에는 안 낫는다.”



하더라. 그래서 여자더러 그랬더니 그냥 허락을 하는 거여, 삶아 먹이라구.

“우리는 또 낚자.”

고, 애가 들어오니께 그 놈을 잡아서 삶았지. 솥을 열어 보니께 그냥 큰 인삼이 사람처럼 뻗어 있더라. 그래서 얼른 그걸 먹었더니 엄마가 일어나서 재밌게 살았데.

그게 인제 인삼이 들어오는 걸 눈이 잘못 보인 거야. 애로 보였지. 그걸 먹고 나니께 애는 놀다가 들어오더라잖아. 허허허... 놀다가 들어 오더라잖아, 놀다가 들어오더라 아들이.

2. 잉어 이야기



잉어 그거는 어디냐면 저기 음—천안군에 오얏골이라는 동네가 있어. 오곡리라고 그 면소재진 데 냇가가 크게 있어. 아주 그냥 다리를 놔야 걸어댕기고 그런디 거기 살았는데. 개울 옆에 엮드려서 어디가 그걸 잡아 잉어를. 그러니께 못 잡고서는 엮드려서,

“우리 엄마 드리게 잉어 좀 하나 나오게 해달라.”

고, 한나절 기도를 하고 일어나니께 그 무릎팍 닿았던 자리서 잉어가 한 마리 나오더라. 그래서 삶아 먹여서 엄마가 병을 고쳤대.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안 나아. 아무리 약을 쓰구,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는데 잉어를 먹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잉어 먹구,

그 아들을 이제 시험했던 거지 뭐,

그래서 그 병이 나았던 거야. 그래 옛날엔 효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데..

3. 도깨비 이야기

도깨비는 아주 산골에 있어. 지금은 도깨비가 없지. 우리 고모부께서 고을살이를 했거든, 사또 같은거. 근데 인제 서울 와서 이 한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인제 제삿상을 차려놓고 막, ‘어어이.’ 하고 제사를 지내.

그렇게 인제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가 그 이튿날 그 자리를 가보니깐 빗자루에 피 묻은 게 그게 도깨비 피가 된 거여.

나중에 제삿상을 다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낸 거여. 근데 인제 도깨비여. 그래서 그 목욕하러 갔다가 그런 도깨비도 봤다고 그러더라구.

도깨비불이 인제 땡기다가 감나무에도 불이나 그럼 도깨비들이 가서 그렇게 장난을 친다구, 그러구 해 가지구 숲 안에 넣어 놓고 그래, 도깨비들이. 그게 인제 뭐가 그렇게 했었느냐면 이런 저기 빗자루 같은데 피 묻은 게 있잖어. 그것들이 그렇게 도깨비로 변한데. 피묻은 도리깨나 빗자루 같은데.

여자들 부엌에 앉아서 이렇게 불 때잖아, 나무. 그럼 그걸 못 깔고 앉게 해. 왜 그러냐니깐 그것이 인제 혹시 그 월경이 나오잖아. 그럼 거기 묻으면 그게 도깨비가 된데.

4. 아무나 못 가는 신씨 고린장터

천안 오동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긴 그냥 크게 이렇게 고린장만한 집을 기와집처럼 지어 놓고 문을 해 달았데.

신장군이라는 그 사람을 거기다가 부자니깐 이렇게 해 놔는데 이런 사람이 가면 그냥 별안간 벼락이 치구 막 비가 오구, 막 천둥번개가 오구 해서 아무 것도 못 간데. 신씨가 있으면,

옛날에 그 장군이 인제 고린장 마냥 대문이 있다. 평택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신씨의 고린장한터가 있더라구. 거기 가면 나쁜 소식을 듣기 때문에 구경을 못하지.

5. 귀신들린 여자

막 귀신들린 여자가 무덤 사이에서만 살아, 집에서 안 살구. 막 아무리 쇠고랑을 채워도 안돼.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인제 누가 길 가다가 봤는데 이게 그 속에서 재잘재잘하는 소리가 나.

‘제삿밥을 못 얻어 먹구 왔다’ 구 하는 소리가.

허허 인제 합장을 했지 부부를 갔다가.

근데 그 날이 제삿날인디 아이구 그냥 밥도 더럽게 그냥 뭐 머리카락 그런게 들구 막 돌이 들고 그래서 잘 못 먹었다고 그러면서 애를 화룻불 에다 집어 쳐 넣었다 그러지.

그 소릴 인제 장사가 들었어. 거기서 느지막이 집을 떠나서 그 동네를 가니까 내외가 불에 타서 그냥 디어서 그러더라.

‘아 오늘이 아버지 제사구나 그래 잘 못 얻어 먹었다구’

예수를 안 믿구 무신론자던가 마귀 섬기는 자들은 제사를 잘 지내야 된 데. 죽은 조상이나 산 조상이나 잘 거뒀야 내가 잘 된가 이거여.

6. 어머니 눈을 뜨게 한 효부

시어머니가 소경인 며느리가 인자 신랑은 어디로 나가구 혼자모시는데 하도 가난해서 대접할 게 없어. 그래 가지구 지렁이나 잡으러 땡겼어. 지렁이를 잡아다가 익혀가지구 엄마 드렸더니 맛있게 잡숴고,

“우리 아들이 오면 이제 자랑을 해야지. 우리 효부가 이렇게 했다” 고, 이러구선 고거 잡숴고 한 마리씩 자리 밑에다 넣었어. 옛날 왕골자리 있을 때 거기다 싹 넣구 싹 넣구 그랬는디 인제 아들이 돌아오니께

“우리 효부 며느리가 이렇게 날 맛있는 걸 해 줘서 먹구 이렇게 살았다” 고 했는디. 아들이,

“엄마 지렁이네” 했더니, 눈을 피뜩 떴데, 허허...

깜짝 놀래가지고 소경이 눈을 펴뜩 떴데. 맛이 하두 좋아서 먹었는데 지렁이라고 아들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떠버렸데, 허허.

7. 사람으로 변신해진 못한 구미호

이제 여우가 변신을 해 가지고 나무꾼하고 사는 그런 이야기야.

나무꾼이 여자를 만나서 하두 예뻐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는디 항상 자다가 어딜 나가 이상해서 망을 보구 그러는디 나가더니 꼬랭이 달린 것이 재주를 넘어. 여우가 왜 재주를 넘는다는 거잖아. 재주를 넘구 들어 오구, 들어오구 했어. 아주 의중게 살았는데 그런 게 있어. 그래 가지구 나중에 알아 가지구선 그랬더니 알았다구.

‘그걸 어떻게 알았냐’ 구 그러면서 대번 여우로 변해 가지구 재주를 홀랑홀랑 넘어가지구 도망을 쳤대. 여우가.

허 사랑하는 신랑인 게 못잡아먹구, 자꾸 재주를 넘으니까 이쁜 여자로 변하더라.

8. 호랑이도 켜 새끼는 이뻐한다

시골에 있었던 애긴데, 나물을 뜯으러 갔어, 밥을 싸 가지구 산으로. 산 골이니께 갔는디, 그냥 이쁜 강아지들이 굴 앞에 우글우글해. 그래 가지구 아유 이쁘다구 강아지 보라구 그러니까 그제 호랑이 새끼여.

그래 가지구 이 여자들이 이쁘다고 만지니까, 굴 안에서 ‘어형~’ 하구 호랑이가 나오더라. 그냥 바구니고 뭐고 다 내버려 버리고선 집으로 왔는디, 그 이튿날 나물 뜯은 바구니를 호랑이가



문 앞에다 물어다 났더라.

그이들은 간이 커, 산골 사람들이라. 지 새끼 이쁘다고 쓰다듬었잖아.
그래서 고맙다구 나물바구니를 문 앞에다가 물어다 났더라.

10. 황학동(黃鶴洞)

1) 지역개관

황학동이란 동명이 생긴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1936년에 만든 <대경성정도>에 의하면 당시 이곳이 대부분 논밭이었는데 황학(黃鶴)이 날아왔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비롯된 듯하며, 또한 현재 신당 제5동 관내에 옛날 자연부락의 하나인 백학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여 황학동이란 동명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조선 초 한성부를 5부 52방으로 나눌 때 한성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영조 27년(1751년)에 반포된 <도성 3군문 분계총록>에 의하면 남부 두모방(성외) 신당리계였으며, 갑오개혁 때는 한성부 남서 두모방(성외) 왕십리계 신당동으로, 이듬해 5월 26일에는 칙령 제98호로 한성부 남부 신당리동으로 되었다.

1936년 4월 1일(부령 제8호) 황학동은 신당정으로 개칭되어 경기도에서 경성부로 편입되었으며, 1943년 6월 10일(부령 제163호) 성동구 신당정이 되었다. 광복 후 일제식 동명 변경에 따라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으로 불리워지다 그 후 (서울특별시 조례 제419호)에 의해 신당동에서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황학동으로서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으나, 1970년 5월 18일(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 신당 8동으로 개칭되었다. 1975년 10월 1일 성동구에서 중구로 편입되었고 이 때 상왕십리동 일부가 황학동으로 편입되었고, 1975년 10월 10일(서울시 조례 제1286호) <동명칭 및 구역



획정>이 있을 때 신당 8동이 황학동으로 개칭되면서 신당동의 일부도 황학동에 편입되어 현재와 같은 구역의 확정이 이루어졌다.

2) 구전설화

송기순 (남, 78) - 1. 2. 3. 4. 5.

1. 현명한 아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아들 하나를 둔 양반집이 있었지. 그 집은 밥 걱정은 안하고 잘 살았는데,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아들보고,

“너가 이만큼 장성을 했으니 나가서 절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든지 10년을 공부하고 오라.”

고 명을 내렸다.

아들이 그래서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9년이 되었다. 아들은,

“아이고, 아버지가 10년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9년을 했으니까 이만 공부를 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

하고서 집에 오는데, 오다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저울추가 이만한데 그걸 둘로 갈고 있어. ‘저걸 저렇게 가는지 미련한 사람이 있나.’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그것을 갈고 있소?”

하니까,

“내가 이것을 갈아 가지고 바늘을 맨들라고 합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바늘을 맨들려면 쪼그마한 걸로 만들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언제까지 바늘을 맨들수 있겠소?”

하니까,

“만들고 있소.”

우리 아버지가 10년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일 년을 못 참고서 내려 왔으니 그걸 깨닫고 다시 절에 갔던 거야. 공부를 마치고서 했다는 거야.

2. 명당 잡아준 이야기

한 풍수지리학가가 어디를 가다보니까 십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울어요. 가만히 보니 저거 아버지가 죽어서 어린애가 울고 있거든.

‘야, 이거 불쌍하구나.’ 금석발복(今夕發福) 자리가 있어요. 옛날에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 있는데 풍수지리학가가,

“저 놈 부자되게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 아이하고 같이 자고, 그러는디 혈 수 없이 저그 아버지 시체를 엄을 해가지고서 나가는 거야. 풍수지리쟁이가 지고서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 금석발복 자리, 금새 부자되는 자리가 있거든.

‘그래 거기다 써야 겠다.’ 그래서 거그다 묘자리 썼어,

그리고 2~3년 후에 와 보면 저 놈 부자가 되겠지 하고 떠났어.

“잘 있거라. 니가 부자가 되면 살만큼 살 거다.”

하고 작별하고 떠났지.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서 찾아갔어. 그런데 겁도 없고 쑥대밭이 되어 버렸다. 집도 없고. ‘아뿔사! 이런 낭패를 했구나. 세상에 이런 실수가 있구나. 다시 풍수짓은 안해야겠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쇠를, 애를 저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나. 쇠를 돌로 부수려고 하는데,

“아서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 번 다 하니까 세 번 다 안된다 했어.

“아서라. 안 된다.”

하는 거야, 깨지 않고 주머니에다 넣고 마을로 내려 왔어.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

하니까,

“아, 어떤 미친 놈이 금석발복 자리를 써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평이 났네.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랬노라구. 내가 죽일놈이라.”

구.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니까 아주 못된 망나니야. 절을 받아도 시원찮을 놈이야, 그러게 사람이란 것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야 허는 거야. 귀신이 다 있어 명석귀신은 명석을 돌돌 말아서 변할 수 있고 달걀로 변해서 사람을 때려.

어느 선비가 공중묘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밤 열두 시에 떡 내려보니까,

“여보게, 여보게.”

불러. 공동 묘지에 아무 것도 없는데.

“어, 오늘이 내 제사야 같이 가세. 밥 먹으러 가세.”

“그러세.”

이런 말도 있어. ‘귀신이 죽어서 제삿날에 제삿밥을 얻어 먹으러 온다는 거야.’ 자손 된 도리는 제사를 꼭 지내라. 제사 한 번 잘 지내면 안택보다도 낫다는 거야.

3. 봉이 김선달 이야기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밥을 못 먹고 마냥 굶고 있으니까, 건달로 땡겨도 나무도 산에 가서 해 올 수 없고, 피를 부려서 하루 아침에는 나무 장사를 불러다,

“앞마당에 내려 놓으라 했지.”

그리고 다 사겠다고 흥정을 하는 거야. 엉터리로 깎는거야. 팔 수가 있어. 어느 정도 받아야지.

“가지고 갈라면 다 가져가라.”

고.

4. 아버님 밀구녕으로 잡수세요

간장을 자꾸치니까는,

“아버님, 저기 밀구녕으로 잡수세요. 밀 구녕으로 잡수세요.”

간장이 밀구녕으로 자꾸 새들어 가거든 그러니까, 밀으로 잡수세요를,

“밀구녕으로 잡수세요.”(간장을 어떻게 먹는데요)

시아버지 오셨다고 목을 쭈어서 시아버지 대접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간장을 자꾸 넣는 거야.(아, 목에다가).

어, 근데 밀으로 썰어서 새고, 새고 하니까,

“아버님 밀구녕으로 잡수세요 밀구녕으로 잡수세요.”(목이 그러니까 막 스며드는 거구나)

매끄러우니까 밀으로 간장이 다 새지.

5. 장사꾼 똥은 개도 산 먹는다

장사꾼은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속물까지 퍼 주어야지만, 팔 수 있고 남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다보니 속이 탄다. 그래서 장사꾼의 똥은 그런 속에서 나오니 개도 먹기를 거절한다고 해요.



이장순(남, 86) - 6. 7.

6. 계 뵈에 넘어간 빛나간 원님



옛날에 원님이 있었잖아. 원님 거 원님이 인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발령이 나서 인자 그 고을로 간 거여. 가다 보니까 이쁜 여자 아낙네가 절구질을 하고 있더라.

‘내가 인저 저 여자를 어떻게든지 내 소첩을 삼아야겠다.’고 그러고 갔어 인자 가 가지고 이방터러 그랬어.

“아무개 논 있는데 그 밭 가운데 집이 그게 그 아낙네가 남편이 있느냐?” 물었어. 이방이 대답하길,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다. 근데 돈이 없고 어려워서 그렇지 부부가 참 금슬이 좋고 재밌게 산다.”

그런께. 그러면 그 여자를 소실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피를 낸 거야.

“아, 내가 내기를 해 가지고 세 번을 이기면은 마누라를 주고, 내가 세 번을 지면은 이 고을 재산을 받을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어. 이제 남자를 불러다가,

“내가 너하고 내기를 하려는데, 세 번을 해 가지고, 니가 맞추면은 이 고을 재산을 받을 줄 것이고, 너는 아무 것도 없다매? 있는 건 마누라밖에 없다매? 그러니까 니가 지면 마누라를 내놓아라.”

원님이 그러니까 못한다고도 못하고 그냥 마누라 뺏길 일 생각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저만하고 이만 저만하니까 그걸 알겠느냐?”

그런께, “예” 그러고 갔어. 가서 생각을 하니까 당채 생각이 안 나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으니까 마누라가,

“여보 왜 원님한테 다녀오더니 잠을 못 주무십니까?”

그런께,

“말하지 말라고. 나 당신 뺏기게 생겼다.”

고, 그런께,

“왜 그러냐?”

“아, 글썄 저 원님이 물어보길 부용당 연못이 있는데 연못의 물이 몇 잔이나 되겠냐고 그러는데, 내가 몇 잔인지 알고 그걸 말을 해야 하오. 그걸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뺏기게 생겼소.”

“아,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부용당 만한 잔으로 한 잔 되겠다고. 그만 한 연못 잔으로 한 잔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군.”

하고 갔어.

“생각이 났느냐?”

“예.”

“그럼 그제 몇 잔이나 되겠느냐?”

“네. 부용당 만한 잔으로 한 잔 되겠습니다.”

“어. 그제 맞았다.”

그리고 갔어.

‘아, 요놈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마누라를 빼앗나’ 하고 보니까, 저 건너 그냥 나무가 그냥 백백칠칠이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저 놈에게 물으면 못 일러내겠지 하고,

“야, 이 놈아! 저 건너 산에 백백칠칠이 서 있는 나무가 몇 주나 되느냐?” 한게, “네.” 이라고 집에 갔어. 또 고민을 하니까 마누라가,

“그래.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시냐?”

“아, 저 건너 산에 백백칠칠이 있는 나무가 몇 주나 되느냐 그러니, 그 많은 거 내가 몇 주나 되는 지 아느냐.”

“아, 그럼 그 사람이 말한 거 백백이면 이백이고 칠칠이 사십구니까 이백 마흔 아홉 주라고 하라.”

아, 그런게 갔어. 가서,

“그럼 몇 주냐?”

라고 하니까,



“아, 원님이 백백칠칠이라고 했으니까 백백이면 이백이고 칠칠은 사십 구니까 이백 마흔 아홉 주라.”

고 그랬어. 허, 그랬더니 지가 말한 대로 꿈쩍을 못하겠거든. 인자 화가 있는 대로 났어. 요 놈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피를 낸 거지 이 놈이 이거는 못 일러 내겠지, 내 모가지를 베어 가지고서 달으면 몇 근이나 나가는지 내일은 그래야지. 그리고,

“애, 요 놈아 내 목을 달으면 몇 근이나 나가겠느냐?”

그걸 알 수 가 있어? 베어서 달아 봐야 알지. 그러고 갔어. 가서 마누라한테 갔어.

“어이구, 원님 얼굴을 베어서 달아보면 몇 근이나 나가냐고 하는데 원님 머리를 베어서 달으면 원님이 죽을 것이고. 아, 그러니 어떻게 하나.”

“아, 죽거나 말거나 자기가 일러 내라 그러니까 저기 열 다섯 근 나간다.” 고, 그러라고. 가서,

“그 몇 근이나 되겠냐?”

“네, 열 다섯 근 나가겠습니다.”

“니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럼 베어서 달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아, 베어서 달아보면 지가 죽잖어?

그래서 고을 반을 줘 가지고 잘 살았대.

7. 한 번 옆지를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옛날에 시집을 갔대. 갔더니 아무 것도 없는데, 선비라 만날 책만 보고 과거 본다고 책만 보고서는 그냥 이것저것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어서 피를 피죽을 끓여 주면 먹고 참 냉수 마시고도 이를 쭈시고 앉아서, 그냥 글만 보고 가서 또 과거를 보면 낙방, 과거를 보면 낙방, 아, 여자가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

“염병할 내가 나가야지. 내가 시집와서 맨날 저 놈의 책만 보고 앉아서 고생을 시키니까 차라리 장님한테 가는 게 낫겠다.”

그래 나가서 얻는다는 게 장님을 얻었어. 장님이 더군다나 뭘 벌어? 먹고 그냥 앉았기만 하지. 그래. 거기를 갔어도 거기 가서도 품팔이하고 그냥 피죽을 떠다 죽 끓여 주고 그러는데. 한 번은 남의 집일을 가면서 샅 받 어다 논 벼, 쌀 찢어야지 벼가 나오잖아. 그 벼를 널어서 그전에 절구통에 다 찌니까 그걸 널어놓으면서, 달걀을 열 개를 삶아 주면서 그 장대로 이제 눈 멀었으니까 장대로 ‘휘이휘이’ 새 쫓으면서, 이 계란을 삶아 먹으면서, “새를 보라”

고 그랬어. 새를 보라고 해서다, 이 놈의 것 계란을 하나를 까서 먹고 했 으면 괜찮은데,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 놈의 계란을 달걀을 여기다 놓고 소금을 넣고 하나 또 까고 그렇게 다 까 놓으니까, 아, 동네 에서 장난꾸러기 머슴아이가 그 놈을 까 놓는 대로 다 먹고 강아지를 갖 다 뺏어. 인제 다 까 가지고 먹을 라고 보니까 계란은 하나도 없고 강아지 만 있더라.

그 놈이 먹었다고 때리고 하나도 못 먹고 앉았은게. 요 놈이 가만 있으면 되는데 그 나무 위에 가서 오줌을 싸니까 나무 잎파리가 푹푹 떨어지니까,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

그래 가지고 이걸 접어가지고 갖다 들여놓고서 방에 가 있으니까 마누라 가 점심 주려고 와 보니까 멀쩡한 날 벼를 안 널어놓고 거기다가 놔 놓고 방에 앉아 있으니까,

“아이구, 그 놈이 장난하느라 그랬나보네.”

계란은 다 먹었냐고 하니까,

“아, 그 놈의 강아지가 다 먹고 난 하나도 못 먹었다.”

고 하니까,

“아무 놈이 까부느라고 지가 다 주어 먹고 강아지 갖다 놓았구만.”

그것도 모르고 나무 위에서 오줌 쏘는데,



“소나기 온다.” 그리고 그 늑한테 속았다고 그러지.

말라 가지고선 벼를 널어놓고 또 앉혀 놓고 갔는데 진짜 소나기가 오더라. 소나기가 오는데 나무 밑이니까 직접 안 오고 똑똑 떨어지잖아?

“야, 이 늑아,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까불지 마, 까불지 마.” 하고 앉았어.

이 마누라가 못 미더워서 와 보니까 비가 와서 벼가 젖는 데도 앉아서, “까불지 마, 까불지 마.” 하고 앉았더라.

그래서 인저 도로 갖다 놓고 그러고서는,

“아이구, 내 팔자가 그래서 눈뜬 늑이나 감은 늑이나 내 팔자가 그래서 맨날 품팔이하면서 사는구나.”

하면서. 품을 팔러 가서 몇 년을 고생하고 그랬는데, 어디서 저기 저기서 그냥 머리에 어사화를 꽃고 삼현육각을 잡히고 막 오더라.

‘아이구, 어떤 사람은 저렇게 벼슬을 해 가지고 어사화를 꽃고 해 가지고 오냐’ 보니까 자기 남편이더라. 자기 남편이니까 거기 가 가지고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중년이 되어도 좋으니까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 달라.”

고 그러니까 딱하니 모래사장에다가 동이를 하나 주었어.

“물 한 동이 갖다가 거기다 부어 가지고 주워 담아 한 동이가 되면 부인으로 삼으리라.”

그랬어.

그 뜨끈뜨끈한 모래에다 물 한 동이 부으니까 간 데도 없지 뭐. 한 동이가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엎지러진 물은 쓸어 담을 수가 없다.”

임귀동(여, 95) - 8.

8. 서울 이름 풀이 가사

한 나라를 둘로 나누어 한이 많은 한남동
 남북통일이 소원이라고 원한 맺힌 원남동
 하나님께 기우제 지내는 사직동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성수동
 나라에 몸을 바쳐 충신동
 부모님께 공경 잘한다고 효자동
 서민들을 보살피며 구제하는 적선동
 편지 배달을 잘해주는 체부동
 공돈이 잘 생긴다 흥제동
 잘못된 일 많아 볼 낮이 없다 면목동
 매일같이 만나본다고 상봉동
 백 리를 가나 천리를 가나 만리동
 겨울철에 움파를 심어도 청파동
 환자들이 모여 앉아 물을 마신다 약수동
 총각들이 엽전 갓구 잘들 논다 제기동
 송아지가 어미 찾아 울어댄다 마장동
 노파들이 모여 앉아 실 감는다 문래동
 허술하다 부서졌다고 사근동
 현금 없어도 살 수 있는 수표동
 육사생들이 모여 산다고 장교동
 외국 수출 잘한다고 수송동





Ⅲ

문헌설화



Ⅲ. 문헌설화

1. 전설

1) 지명전설

1. 한양(漢陽) 도읍

아태조(我太祖)가 한양(漢陽)에다 도읍(都邑)을 정하고 무학(無學)이라는 중을 시켜서 대궐(大闕)을 짓게 했다. 그래서 무학은 경복궁(景福宮)을 짓는데 경복궁을 지어 노면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할 수 없이 대궐을 딴 데다 지어 보려고 대궐 지을 땅이 어텐가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가니까 농부가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데 소가 말을 잘 안 듣고 잘 가지 않으니까 이 놈의 소 무학이같이 미련한 소야 하면서 소를 몰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농부는 한양이라는 터전은 학체(鶴體)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대궐을 지으니 대궐 지은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학이란 날라가는 새이기 때문에 날개가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뻔한 이치인데 무학은 그 이치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고 있으니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다. 대궐을 지으려면 먼저 학이 날지 못하게 날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사대문(四大門)을 지어서 날개를 눌러 놓고서 대궐을 지어야 대궐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학이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겠다고 하고서 사대문을 지어 놓고 대궐을 지었다. 그랬더니 대궐이 무너지지 않았다.

경복궁 대궐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종묘(宗廟)를 지었다. 종묘는 이십 팔간(二十八間)만 짓고 종묘의 대문에는 창엽문(蒼葉門)이라는 현판(懸板)

을 써서 부쳤다. 어째서 종묘를 이십팔간만 짓고 그 때문에 창엽문이라는 현판을 써 부쳤는지 수십세(數十世)를 지나도 아무도 그 뜻을 몰랐다. 그러다가 광무제(光武帝) 때에 와서야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이씨(李氏) 조선왕조(朝鮮王朝)는 이십 팔 세로써 끝을 맺었다. 종묘에 각조(各朝) 왕의 위패(位牌)를 모시는 간수도 이십 팔 간으로 된 이치도 거기에 있다. 그리고 창엽문이라는 것도 창자(蒼字)는 풀어보면 일백 십 팔 군이 된다. 무학은 이렇게 이조(李朝)의 미래 까지도 알아서 공사를 하였다고들 말하고 있다.

(임석재, 《한국구전설화》(경기도편), 평민사, 1989, 23쪽.)

2. 남산이 될뻔한 인왕산(仁旺山)

옛날 무학(無學)이라는 중이 한양에다 서울을 정하려고 했었는데 한양의 남쪽에 산이 없어서 남산(南山)을 만들기 위해서 산이 많은 함경도(咸鏡道)에 있는 산 하나 보고 너 한양에 가서 한양의 남산이 되어 다오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한양 가까이 와 보니까 남산이 씨익 들어앉아 있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전에 있던 데로 가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면 것도 쑥스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산이 지금 인왕산이라고 하는 산이다. 그래서 인왕산은 서울을 등지고 있다고 한다.

(임석재, 《한국구전설화》(경기도편), 평민사, 1989, 23쪽.)

3. 이성계의 꿈

옛사람들은 귀인의 꿈을 해석할 때는 어쨌든 좋게 해석하였고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 내려 민심을 끌었다. 이성계의 꿈을 해석한 데도 이런 점이 깃들어 있다.

이성계는 대답하고 용감한 장수였으나 늘 꿈이야기를 하고는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였다. 이성계의 꿈은 주로 무학이 해석하였다. 한 번은 이성계가 방아짚는 꿈을 꾸고 무학더러 이 꿈을 해석하라 하였다. 무학은 꿈이야기를 듣고는 인차 해석했다.

“좋은 징조인가 보다. 방아를 찌었으니 덜꾸덩덜꾸덩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글로 쓰면 덕가동(德加東)이니 동방에서 덕을 입힌다는 뜻이 옵니다. 그러니 귀인으로 될 징조인가 아뢰옵니다.”

그 후 이성계는 또 무학을 찾아가 꿈이야기를 했다.

“지난밤 꿈에는 수탉이 나래치고 우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된 일이고?”

무학은 또 이성계를 쳐다보며,

“아주 좋은 꿈인가 보나이다. 수탉이 우니 날이 밝아올 것이고 닭이 울 때 ‘꼬끼요!’ 하고 울었겠으니 한자로 고귀위(高貴位)인즉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니 장차 왕위에 오를 징조인가 봅니다.”

하였다.

이성계는 본래 탄 생각을 품고 있던 차 왕이 될 징조라 하니 더 없이 기뻐하였고 꿈을 해석해 주는 무학을 더욱 믿어주었다.

이성계는 또 무학을 찾아가 꿈이야기를 하였다.

“집에 누워있는데 서까래 세 가지가 떨어져 나의 등을 눌렀는데 그 바람에 놀라깨니 꿈이었네. 이 꿈은 죽을 징조가 아닌고?”

“아니올시다. 그것은 왕위에 곧 오를 징조올시다. 서까래 셋을 지었으니 그것이 곧 임금 왕자옵시다. 그러니 부디 대업을 이룰 때를 놓치지 마옵소서!”

이성계는 대희하여 무학을 보고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고?”

무학은 본래 중이라 이성계를 보고,

“절을 크게 짓고 부처님께 시주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였다.

이성계는 무학의 말대로 강원도 안변군 사기동 산골에 큰 절당을 짓고 불공을 드렸다. 꿈을 임금왕자로 해석하고 지은 절이라 하여 이 절을 석왕사(釋王寺)라 이름지었다.

(김선풍, 《조선조구비문학총서》(3), 민속원, 1991, 408~409쪽.)

4. 관우묘(關羽廟)를 모셨다.

선조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의 장사들이 말하기를,



“평양 싸움과 홍산(鴻山) 싸움을 비롯하여 삼로(三路)의 적을 쫓을 때, 관우(關羽)가 나타나서 신병(神兵)을 이끌고 와서 도와 주었소.”

하고는 이렇게 알리는 것이었다. 처음에 명나라 장수인 설호신(薛虎臣)이가 서울 안의 북악산(北岳山) 위에다 관우의 묘를 새로 세워, 그 안에 석상(石像)을 모시고 그 동쪽에 비를 세워서 왜군을 친 사실을 기록하여 놓았었다.

그 후 병오년(丙午年)에 서쪽의 산의 동대(東臺)에 옮기었고 무술년(戊戌年)에 유격(遊擊)으로 있는 진인(陳寅)이가 송례산(崇禮山) 기슭에 또 묘를 새로 세우고, 제독(提督)인 양호(楊鎬)를 비롯하여 여러 병정이 은(銀)을 내어 조력하였으며, 또 명나라 본국에서 은돈을 내어서 도와서, 부하를 나무로 새겨서 관평(關平)과 주창(周倉)이를 문의 좌우에다 세워 관우를 모시게 하였다.

이로부터 모든 장수들이 나갈 때마다 이 관묘(關廟)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오월 열 사흘 날은 관우의 생일날이라, 묘에서 큰 제사를 지내게 되자, 모두 말하기를,

“오늘에 풍우가 만일 있으면 신령이 오는 것이로다.”

하더니 과연 그 날의 저녁 때에 이르러서 천둥과 번개와 아울러서 큰 비가 내렸다.

이 외에도 안동(安東)과 성주(星州)에 관묘를 세웠으니, 안동의 것은 목상이요, 성주의 것은 흙으로 만든 것이다.

이 두 묘 중에서 성주묘가 가장 신령스럽다고 하여 유명하다는 것이었다. (尹泰榮, 《李朝五百年 奇談艷譚》,志成社, 1959, 428~429쪽.)

5. 아차고개에서 죽은 홍계관(洪繼寬)

홍계관(洪繼寬)이는 명종(明宗) 때의 사람으로서 점(占)을 잘 치는 까닭에 신복(信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유명하였다.

젊어서 자기의 수명을 점하여 보니 그 해와 날짜가 나타나는데 비명(非命)으로 횡사(橫死)할 패였다. 그래서 이런 중에도 혹시나 살아날 도리가 없나 하여 그것을 또 점을 쳐 보니 임금이 앉으시는 용상(龍床) 밑에 숨으면 가히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소리를 들으신 임금이 그 날을 당하여 용상 밑에 숨어 있게 하셨는데 그 때 마침 쥐 한 마리가 처마끝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임금이 문득 홍계관이 용하다는 점괘를 시험하여 보시려는 생각이 나서 홍계관에게 물어 보셨다.

“이제 여기 쥐가 지나가는데 몇 마리가 가는지 알겠느냐? 점으로 맞춰봐라.” 이 분부에 홍계관이는 곧 점을 쳐 보고는 아뢰었다.

“세 마리올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신 상감은 그의 엉뚱한 말에 크게 노하시고,

“너의 점이 무엇이 맞는 점이나? 요망되게 남을 속이는 점이다. 짐까지를 속이니 이러한 자는 당장에 극형을 하여야 옳다.”

호령을 하고는 형관(刑官)에게 당장에 끌어내라고 명하여 벌을 내리게 되었다. 이래 저래 죽게만 된 것이다. 이 당시에 죄인을 처형하는 곳이 당

현(堂峴)의 남쪽 강변 모래사장에 있었다.

여기까지 끌려 온 홍계관이기가 기가 막혀서 형장에 이르자, 다시 한 번 점괘를 쳐보니 뜻밖에도, 한 식경만 지나면 살 수 있다. 이러한 점괘였다.

이것을 안 홍계관이가 형리(刑吏)에게 간청하기를,

“여보, 형관! 기왕이면 한 식경만 참았다가 형을 집행하십시오. 나의 마지막 청이외다.”

하고 간청을 하니, 사람 좋은 형관은 홍계관의 소망대로 기다려 주겠다고 허락을 하였다.

이 때에, 임금은 홍계관을 잡아서 보낸 다음에 처마 밑에 있던 쥐를 잡게 하여 그 쥐의 배를 갈라보니 뜻 밖에도 쥐의 뱃속에 새끼 두 마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신 상감은 크게 놀라고 이상히 여기사,

“그러면 과연 홍계관의 말대로 모두 세 마리가 아니냐? 어미 한 마리와 새끼 두 마리이니 틀림 없는 점이었구나! 홍계관의 점은 과연 신점인가 보다. 점괘가 맞았을 뿐 아니라 그런 신인(神人)을 죽일 수는 없다.”

하시고는 중사(中使)에게 급히 명을 내리시어,

“홍계관의 처형을 중지시키라.”

는 분부를 내리었다.

이 명을 받은 중사는 말을 급히 달려서 당현에 이르러 멀리 바라보니 마침 형벌을 내려서 홍계관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바라보고,

“어명이오. 사형을 중지하라!”

중사가 힘이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원래 먼 곳이라,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일각을 닦는 때였다. 얼른 중지시키지 않으면 한 사람의 목숨이 이슬같이 사라지는 위험한 때다.

“어명이다! 어명이다. 중지하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리지를 않았다. 이렇게 되자, 생각다 못한 중사는 어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 방도 저 방도를 생각하여 보았던 것이다.

한편 형장에서는 형관이 홍계관의 말대로 기다려 주었으나 때가 이미 한 식경이나 지났던 것이라, 더 기다릴 수가 없다 하여 형리들이 홍계관을 끌어내어, 목을 치려고 홍계관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게 하고 마지막으로 술 한 사발을 준 다음에, 시퍼런 칼에 물을 뿜어, 모든 마른을 다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형관이 모래사장 멀리 저편을 바라보니 마상에 높이 앉은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임금의 어명으로 오는 전령(傳令)이 분명하였다. 이것을 보니 형관들은 그만 겁이 났다. 죄인을 끌어 내오는 대로 즉시 처형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곳에 당도하여 이미 한 식경이나 지나지 않았는가? 임금이 이것을 아시고, 왜 속히 끝을 내지 않고 꾸물거리는 것이냐는 독촉이 노는 것이 분명하였다.

멀어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나 손짓을 자꾸한다.

“여보게, 빨리 하라는 손짓일세.”

“그래 얼른 해 버려. 괜히 늦은 것을 상이 아시었으니 야단이 아닌가?”

“어서, 어서.”

형관들은 서로 독촉을 하고는 시퍼런 장검으로 홍계관의 목을 내려쳤다.

“앗!”

모든 일은 끝이 나고 만 것이다. 신인이라고 일컬던 홍계관은 칼 아래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유를 중사가 날날이 임금께 고하니 임금은,

“아차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소리치고 사형하는 형장(刑場)을 당현(堂峴) 남쪽에서 옮기어 당현으로 고치었다.

그 후부터는 이 곳을 이름하여 아차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尹泰榮, 《李朝五百年 奇談艷譚》, 志成社, 1959, 287~290쪽.)

6. 다옥동(茶屋洞)의 팔독집에 얹힌 사연

철종(哲宗) 대왕 말년.

김춘보(金春甫)는 아침 일찍 이판서(李判書 : 吏曹判書)댁 소슬대문 앞에 서서 이덕 교전비(轎前婢)가 나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러기를 날 수로 따지자면 한 달 하고도 열 이틀이나 넘었다.

조금 있자니 과연 이 집 소슬대문이 열리며 나이 열 여덟 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계집종 하나가 쓰레기 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쏘고 있었다.

춘보는 언제나 하는 버릇처럼 우르르 그 계집애 곁으로 가서,

“애, 내 성명은 김춘보다. 응.”

이 한 마디를 던지고는 그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셋골목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계집애는 김춘보를 보고 별달리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이 때면 어떤 우스꽝스러운 사내가 따라 와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거나 하고 하나의 일과로 당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빛이었다.

매일 아침마다 이 계집아이는 김춘보라는 말을 들어 왔으므로 먼 발치서 그 사내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보여도,

‘옳지 저 사람이 김춘보다!’

하के끔 그 사내의 얼굴과 성명이 뚜렷하게 기억되었다.

이렇게까지 되게 된 내력은 이러했다.

아랫 다방골(下茶洞)에 사는 김춘보라는 청년이 어느 날 아침에 우연히 가운데 다방골(中茶洞)의 이판서댁 앞을 지나다가 때마침 쓰레기를 버리려고 대문 앞에 나온 교전비인 옥섬(玉蟾)이를 보았는데 어쩐지 유달리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어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떨어지기 싫도록 연연 분망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비록 천한 계집종일망정 장안에서 명성이 쩡쨍 울리는 이조판서댁의 하인 계집애이므로 마음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한 나머지,



‘웁다, 그 애에게 내 이름을 귀에 익도록 알려주어서 무슨 연분이 닿으면 사랑을 이루어 보리라.’ 하는 전술을 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춘보는 때를 맞추어 자기의 이름을 일러주고 가는 길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옥섬이가 김춘보에게 정을 보일 리는 만무한 일이었다.

그 날 저녁 때 옥섬이가 찬간에서 일을 하고 있노라니까 별안간에 안방서쪽 영창이 좌르르 열리고서,

“옥섬아! 게 있느냐? 냉큼 이리 오너라.”

하는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구나 그 목소리는 보통 때와는 달리 몹시 날카롭고 독기가 서렸다.

“예—.” 하고, 옥섬이가 물기 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닦으면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네 이년, 게 앉거라, 죽일 년!”

하면서 마님은 살기가 자욱한 눈초리로 옥섬이를 뚫어지게 쏘아보는 것이다.

“웬 일인가? 내가 무슨 잘못이나 저질렀나?”

하고, 옥섬은 조심스럽게 뒷목에 살며시 앉았다. 물론 고개도 소곳하게 내려 숙였다.

“네, 요년, 능지처참을 할 년 같으니…어린 년이…너 요년, 아기가 가지고 놀던 금두꺼비를 어쨌느냐 말이다. 요년아, 그 금두꺼비를 어느 놈을 갖다 주었어? 바른 대로 대라! 당장에 죽인다, 요년.”

마님은 주먹을 불끈 쥐고 옥섬에게로 다가오며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쉴네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금두꺼비가 어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을 했지만 참으로 그런 말은 청천의 벽력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내리는 격이었다.

금두꺼비의 내력은 이러했다.

이 집이 이조판서택이므로 전국의 군수는 모두 이 택 대감이 내고 들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산(雲山) 사람 박재봉(朴再逢)이 군수를 한 번 해 볼 심산으로 작년 가을에 운산에서 캔 지금(地金) 여덟 냥(兩)으로 금두꺼비를 만들어서 이 집 대감께 선사를 한 것인데 사실은 뇌물로 바친 것이었다. 그 형상이 매우 탐스럽다 해서 이제

겨우 돌잡이인 이 집 대감의 장손(長孫) — 옥섬이가 교전비로 따라온 이 댁 만머느리가 낳은 첫 아들의 장난감으로 안에 들여보낸 것인데 그 동안 몇 달 잘 가지고 놀았는데 이 날 낮에 옥섬이가 아기를 보아 주던 사이에 그 금두꺼비가 없어졌다고 하여 온 집안이 발각 뒤집힌 것이다.

그러자 남녀 종들은 도둑의 누명을 옥섬이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좀 자세히 말하자면 옥섬이의 나이가 벌써 십칠 세이고 몸맵시로 보던지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 필시는 그녀가 그 값나가는 금두꺼비를 어떤 정돈 늬에게 뒤로 빼돌렸으리라는 터무니 없는 추측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이 댁 마님이 친히 심문을 개시한 것이다.

남자의 대범한 성질과는 달리 몹시 끈적끈적한 여자의 성질—더구나 악독하고 매섭고 인정 없는 이 댁 마님의 독특한 성격이고 보니 옥섬에 대한 고문이 쉽사리 끝날 리가 만무했다.

그래서 이 날 밤새도록 먹이지도 않고 재우지도 않으며 마님은 꼬집고 때리고 갖은 악형을 다 했다.

“요년아, 그래 그 금두꺼비를 어느 늬를 주었냐? 바로 대라! 어서 바로 그 늬의 이름을 대란 말이다. 어서 대지 못하느냐?”

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한 말을 되풀이 하며 악형을 계속하는 것이다.

옥섬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악형을 견디었다.

그러나 연약한 어린 여자의 몸이 어찌 끝내 참을 수가 있으랴? 먼동이 흰하게 틀 무렵 옥섬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 예, 마님 김, 김, 김춘보를 주었어요.”

“뭐? 김춘보? 그래 그 놈이 어디 사니?”

“사는 데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 그런데 어디란 말이나? 어서 대라 요년!”

하면서 또 사정 없이 옥섬이의 넓적다리를 죽어라 하고 꼬집는 것이다.

“예, 마님 그 남자는 조금 있으면 우리 대문 앞에 와 있을 거예요.”

옥섬은 더 말할 기운조차 없어서 말끝을 맺지 못하고 그만 기절을 하였다.

날이 밝자 옥섬이가 소슬대문을 나올 때를 앞질러서 김춘보는 아무 잡념도 없이 오직 옥섬이에게 자기의 이름을 또 한 번 일러주어야겠다는 기쁨을 지니고 이판서댁 문 앞에 나타났다.

그러자 대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판서댁 종놈 두 명이 나오더니 다 짜고짜로 김춘보를 붙들고서,

“이 자식이 바로 김춘보라지…….”

하고, 그만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큰 사랑 앞마당에 꿇어 앉히고서,

“마님, 김춘보란 놈을 잡아 대령했습니다.”

하는 것이다. 그러자 영창이 열리며,

“너 이 놈, 우리 집 종년 말이 우리 집 금두꺼비를 너에게 주었다는데 당장에 그 금두꺼비를 가져오든지 그 금두꺼비 값을 내 앞에 바치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금부(禁府)에 가두어서 물고를 내겠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청천에 벼락을 맞은 듯이 어리둥절했다.

춘보는 그러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상도 하다. 이 집 종계집애가 무슨 까닭으로 금두꺼비를 나에게 주었다고 했을까?’

그러나 꿈쩍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미루고 주인마님의 요구대로 응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는 이런 처지에서선 이론도 변명도 하등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김춘보는 머리를 급실거리며 입을 열었다.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분부대로 하옵지요. 금두꺼비 값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래? 금두꺼비의 무게가 스물 닢 양이니 그 근량 값만 바치면 되느니라.” 하고, 주인마님은 영창문을 닫는 것이다.

집안 하인들까지도 금두꺼비의 근량이 여덟 냥인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만 마님은 거기에다 놀랍게도 세 배를 부른 것이다.

김춘보는 오막살이도 팔고, 시골에 있는 땅 마지막까지 혈가로 방매해서 가까스로 금두꺼비 값을 치렀다.

이 꼴이 된 김춘보는 자기 아내를 친절으로 보내고 괴나리보파리를 쫓아지고 유람을 떠나 충청, 경상도를 거쳐 관동팔경(關東八景)을 더듬어 통천(通川) 충석정(叢石亭)을 찾아가 고저(庫底)라는 곳에서 어느 여관에 서사(書士)로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따뜻한 봄은 어김 없이 또 다시 장안을 찾아 왔다.

다방골 이판서의 집에서도 봄 청소를 하게 되어 하인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온 집안을 깨끗이 치우는 중에 안방 윗목에 놓인 의거리를 들어내고 보니 먼지가 쌓인 장뜰새에 금두꺼비가 끼어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 날 청소에는 옥섬이도 끼어 있었던 것이다.

“마님, 금두꺼비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한 계집 하인이 들고 나와서 소리를 쳤다.

여러 하인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마님이 그 금두꺼비를 자세히 보니 틀림 없이 김춘보를 주었다던 그 금두꺼비였다.

“참, 옛말이 옳다. ‘화냥의 때는 못 벗어나도 도둑의 때는 벗는다’ 더니 억울한 옥섬이의 때가 이제는 벗게 되었구나.”

한 늙은 계집종은 이렇게 말하며 옥섬이를 위로하였다.

일이 이쯤이고 보니 아무리 토색의 왕인 이 집 대감도 일을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춘보를 찾을 도리가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김춘보에게 억지

로 빼앗다시피한 돈을 옥섬이에게 속량(贖良)의 사례금이라 하여 주고서 그 날로 종을 면하게 하고 자유로이 나가 살게 하였다.

옥섬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꽤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김춘보의 신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옥섬은,

‘내가 죽기 전에 김춘보 서방님을 만나고 말리라. 그래서 꼭 신세를 갚으리라.’는 결심을 하고 그는 그 날부터 종로 북쪽 행낭 뒤(지금 화신 뒤)에 집을 사서 술청을 내고 매일 같이 오는 손님 중에서 김춘보가 나타나 기만을 기다렸다.

술청을 낸 뜻은 사람을 찾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옥섬이 자신이 술청에 나가서 앓을 필요가 없었고 또한 큰 이익을 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데 술집이 좋더라는 소문만 내기 위함이므로 첫째 좋은 술을 쓰고, 둘째 진진한 안주를 값싸게 팔고 보니 손님은 매일 같이 늘었다. 옥섬은 방안에 앉아서 조그마한 문구멍으로 팔뚝을 내밀어서 술잔에 술을 따라주고 하니 손님들은 이 술집을 <팔뚝집>이라고 부르며 널리 광고를 하게 되었다.

이 해 여름도 지나가고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늦가을이 동해안 고저에도 찾아 왔다.

고향을 떠난 지도 어느덧 일 년이 훨씬 넘었고, 절기도 또한 애상의 가을이 되고 보니 고저에 있는 김춘보는 서울이 몹시 그리워졌다.

김춘보가 어느 날 서울서 왔다는 손님에게 서울 소식을 물으니 최근의 서울 소식을 이렇게 말했다.

첫째는 철종대왕이 승하한 후 흥선(興宣) 대원군의 둘째 아드님인 아기대왕[高宗皇帝]이 새로 등극하여서 천하가 태평하며 만백성이 기뻐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종로 행낭 뒤 골목에 팔뚝집이란 술집이 새로 났는데 술맛 좋고 안주가 싸고 맛이 있어서 장안 술꾼이 모두 그 집으로 모여든

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무엇보다도 팔뚝집 술맛을 보고 싶어서 하루도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이튿날로 서울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다.

옥섬이 술집을 낸 지도 벌써 여덟 달이 다 되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김춘보 서방님은 보이질 않았다.

종로로 들어닥친 김춘보는 어느 사람에게 물어서 팔뚝집으로 썩 들어섰다.

“아이구, 이제는 제법 चु군! 여보 술 한 잔 주시오. 우선 맛좀 봅시다.”
하고, 술청 앞에 나타났다. 옥섬은 목소리가 귀에 익은지라 얼른 창틈으로 내어다 보았다.

아, 생시인가 꿈인가? 기다리고 그리던 김춘보가 나타난 것이다.

“얘들아, 다 어디 갔느냐? 지금 들어오신 손님을 이 방으로 모시고 대문을 닫아라.”

하고, 외친 옥섬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김춘보를 반기었다.

뜻밖에 이 광경을 당한 춘보는 한참 어리둥절하였으나 여인이 옥섬이임을 알아차린 그는 말 없이 옥섬의 뒤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섰다.

그 뒤로 김춘보는 다시 처자를 불러다가 살림을 차리고 옥섬을 소실로 삼아 편안히 여생을 보냈다.

물론 팔뚝집은 그 뒤로 자취가 없어졌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6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407~411쪽.)

7. 수구문(水口門)의 검객(劍客)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조정은 물론 온 사회가 매우 어지러웠던 이조 중엽 인조(仁祖) 임금 시대 어느 해 선달 그믐.

천민과 상인들만이 드나들고 죄수들이 이 문을 나가면 저승객이 된다는 수구문(水口門) 밖 고개 마루턱.

찌그러진 샷갯을 깊숙히 눌러 쓰고 굵고 긴 막대기 지팡이를 겨드랑이

에 낀 허름한 사나이 하나가 나무 등걸 위에 묵묵히 수구문을 향해 고개도 까딱 않고 앉아 있었다.

군데군데 죄수의 목을 달아매는 교수목(絞首木)이 눈에 띄고 철맞지 않은 진눈깨비가 질끔질끔 쏟아져 내리고 있어 수구문 밖 수십 리는 별로 사람의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 없이 황량하고 으시시하도록 살벌하기까지 하였다.

정오가 조금 넘었을까, 하늘엔 짙은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서 더욱 음산하고 괴이한 변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살기 감도는 날씨였다.

이따금 이 괴상한 사나이는 삿갓 속으로 진눈깨비가 녹아 스며드니 삿갓을 조금 위로 치켜 올리고서 한쪽 소맷자락으로 얼굴을 닦는 것이다.

이처럼 사나이가 한식경이나 진눈깨비를 맞아가며 묵묵히 앉아 있을 즈음 수구문 옆 허물어진 돌담 위에 건장한 또 하나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장검이 쥐어져 있었다.

그 의문의 사나이는 성큼 담 위에서 뛰어내리더니 고개마루턱에 앉아 있는 사나이를 향해 그리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다가갔다.

흰출한 키에 딱 벌어진 어깨, 험상궂은 얼굴엔 시커먼 수염이 더부룩하다. 먼 곳에서 보아도 포도청 포졸 같지는 않고 장안의 파락호 같은 인상이다.

주먹만한 상투 위에 이따금 진눈깨비가 하얗게 쌓이다간 녹아 버리고 쌓이다간 녹아 버린다.

사나이의 걸음걸이는 어딘지 위엄에 차 있다.

두 사나이의 거리가 차츰 가까워졌다.

삿갓을 쓴 사나이는 그런대로 망부석처럼 동요가 없다.

다가오는 사나이를 향해 삿갓을 조금 위로 치켜 올리고는 매섭게 쏘아 불 뿐이다.

두 사나이의 거리가 이십여 간쯤으로 좁혀졌을 무렵 다가오는 사나이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왼쪽 눈 위의 지령이 같은 칼자국이 약간 경련

을 일으켰다.

이윽고 일종의 야유에 가까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사나이는 서너 간 간격을 두고 걸음을 멈추었다.

장검을 고쳐 잡았다.

그제서야 앉아 있던 사나이는 천천히 끼고 있던 통나무 같은 막대기를 왼손으로 잡고 일어선다.

아주 여유 있게, 그리고 몹시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바른팔 소매가 바람결에 너풀거린다.

바른팔이 없는 외팔이었다.

그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단장을 사타구니에 끼고는 너풀거리는 바른쪽 팔 소매를 고의춤에 쭈셔 박으면서 서너 간 앞에 서 있는 사나이를 향해 샷갓을 다시 조금 더 치켜 올렸다.

그리고는 다시 한 팔로 단장을 다부지게 움켜 잡는다.

두 사나이는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긴장된 침묵, 두 사나이는 거의 동시에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서로 빈틈 없는 눈초리로 매섭게 쏘아보고만 있었다.

“음, 왔구나! 용칠이…….”

장검을 든 사나이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 때! 잃어버린 팔 하나를 찾으러 왔다!”

외팔이는 야무지게 받아 넘긴다.

“그래? 오늘은 네 바른 팔을 찾기 전에 아무 것도 찾고 싶은 생각마저 못하게 해주마. 하하!”

장검을 든 사나이는 여유 있게 호탕한 웃음을 짓는다.

“자! 외팔이로는 어림도 없을 걸!”

“오냐! 너를 죽여주마! 나는 오늘을 위해 이제껏 살아온 거다. 네 놈을 죽이지 못하면 네 놈에게 내가 죽을 뿐이다.”

외팔이는 사타구니에 단장을 끼고서 날세게 왼손으로 단장 속에서 장검

을 빼어들었다.

햇볕도 없는 음산한 날씨에 장검의 날은 날카롭게 번쩍였다.

순간 외팔이는 두어 간을 뛰었다. 용칠이란 사나이가 반쪽으로 갈라졌을 것만 같은 무서운 일격이었으나 용칠이란 사나이가 역시 만만치가 않았다.

왼쪽으로 날쌔게 몸을 돌리면서 먼저 외팔이가 앉아 있던 나무등걸 위에 여유있게 버티고 섰다.

두 사람은 다시 칼끝을 마주대고 빈틈을 찾아 한 바퀴를 돌았다.

외팔이가 수직으로 내리치는 칼끝을 칼등으로 가볍게 막아냄과 동시에 원형을 그리며 용칠이의 장검이 외팔이의 왼쪽 샷갓끝을 베어 버렸다.

무서운 숨씨였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는 외팔이의 칼끝도 용칠이의 상투 끝을 베어냈다.

우열이 없는 그야말로 용호상박이다.

칼은 수 없이 부딪쳐 불꽃을 튀기고 땅을 차고 허공을 뿔 적마다 눈가루가 사방으로 튕졌다.

진눈깨비는 사정 없이 내리 퍼붓고 피를 봐야 끝이 날 두 사람의 장검은 미친 듯 허공을 가른다.

땀물과 땀에 두 사나이의 옷은 후질근히 몸에 달라 붙고 눈에선 불꽃이 튀긴다. 얼마가 지나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한식경이 지나도 두 사나이는 지치거나 피로한 기색이 없이 점점 싸움은 치열해 갈 뿐이었다.

이따금 기합 소리만이 허공을 울릴 뿐 황량한 벌판엔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 안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두 사나이의 사투가 계속 될 뿐.

이야기는 삼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조 십육 대 인조 임금이 즉위한 선달 그믐.

폭군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하였으나 오래 고질병이 된 당쟁의 씨를 가시지 않았다.

서로 권력과 세력을 잡으려고 모함과 살육을 다반사로 했으며 사회 역시 혼란할 수밖에 없어 파락호와 자객들이 장안의 밤거리를 누비고 광해군 밑에서 녹을 먹던 조정 대관이며 지방 방백들은 혹은 귀양을 가고 혹은 자객이나 파락호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이 날 밤 남산골 신임 이판서댁의 깊숙한 밀실에서는 자객 용철이와 삼남이가 희미한 호롱불을 사이에 두고 나직한 밀담을 하고 있었다.

두 자객은 무릎을 꿇고 명령을 받는 것이요, 소리를 죽여 밀령을 내리는 자는 이대감이었다.

그것은 실로 무서운 살육의 지령이었다.

“그러니까 용철이는 김판술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여러 갈래로 잘라 각각 땅 깊숙히 묻으란 말이다. 그리고 삼남이는 북촌 김판술집 가족 일가를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도륙을 하란 말이다. 만약에 한 놈이라도 남긴다든가 하면 시끄러울 테니까. 너희들 둘은 자정을 기해서 각각 실수 없이 행동하여라. 알겠느냐? 그럼, 너희들의 숨씨를 믿겠다.”

순간 대답 대신 삼남이의 얼굴엔 피로운 빛이 스쳐갔다. 너무 끔찍스런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대감은 두 자객이 황송해서 대답을 못하는 줄 알고 반문을 했다.

“왜 대답이 없느냐? 자신이 없느냐?”

“아니옵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두 자객은 머리를 조아렸다. 이대감의 얼굴엔 회심의 미소가 흘렀다.

“그러면 각별히 조심하여 시끄러움이 없이 거행한 후 아무 데고 멀리 장



안을 떠나가 있다가 서너 달 후에 올라 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박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네!”

두 자객은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잠시 후 남산골 이대감 집을 나온 용칠이와 삼남이는 아무 말 없이 각각 헤어져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매섭게 추운 선달 그믐 밤이었다.

달도 없고 눈도 오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자정이 되자면 아직도 멀었다.

김관술 대감하면 파락호인 삼남이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강직하기로 이름난 대감이다.

아무래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가족을 몰살하라니 어쩐지 이번만은 꺼림직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하물며 김대감을 무고하게 감옥에 가두어 놓고 어명도 없이 용칠이에게 수구문 밖에서 토막을 내어 묻어 버리라는 것은 웬 일인가. 참으로 이번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한낱 자객의 신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삼남이는 애오개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신 후 북촌 이대감 집을 향해 무겁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삼남이는 얼굴을 검은 수건으로 가리고 눈만 내놓고 살그머니 담벼락에 붙어서 집안의 동정을 살폈다. 이윽고 그는 날썰게 땅을 차고 높다란 김대감 홀들담을 성큼 가볍게 올라서서 뒷뜰 헛간 옆으로 뛰어 내렸다.

참으로 새처럼 빠르고 날랜 솜씨였다.

장안의 파락호들 중에서 삼남이는 정말 귀신 같이 빨랐고 그의 검술은 용칠이도 겁을 낼 정도였다.

사방은 고요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다시 방안의 동정을 살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으며 ‘ㄱ’자 형으로 아담한데 방은 서너 개뿐이며 불은 모두 꺼져 있고 동쪽 대청 마루와 불은 작은방 창문에만 불빛과 함께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었다.

삼남이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불빛이 비치는 방으로 다가갔다.

문앞 담벼락에 몸을 붙였다.

잠들지 않은 사람부터 처치해야 소란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여느 때처럼 그렇게 긴장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었다.

이 때 방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천지 신령님! 저의 아버지를 살려 주십시오. 네! 아무 죄도 없는 저의 아버지를 제발 살려 주십시오. 오늘밤도 아버지는 자정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으시네요. 하느님, 정말 영영 다시는 뵙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까요? 하느님!”

순진하고 앳된 김판술의 어린 딸의 목소리였다.

삼남이의 가슴은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코끝이 찌르르했다.

장검을 쥔 바른손의 맥이 풀렸다.

잠시 후 삼남은 김대감 집을 나와버렸다.

그는 수구문을 향해 줄달음쳤다.

그는 양심이 살아난 것이다.

어쩌면 용철이가 이미 일을 끝냈을 지도 모르는 일이라 황급히 수구문을 뛰어 넘었다.

거리에서 창을 든 파수군이 소리를 쳤으나 그는 고개마루턱을 향해 비호같이 달렸다.

캄캄한 삼남의 시야에 서너 명의 시커먼 그림자가 고개마루턱에 어른거렸다.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삼남이가 고개마루턱에 닿아 보니 피비

린내가 코를 찔렀다.

김판술 대감의 몸은 여나무 토막이 되어 있었다.

삼남은 그만 정신이 아찔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김대감의 한 쪽 다리를 두 토막으로 내는 포졸의 정수리를 내리 쳤다.

비명도 없이 포졸은 폴썩 주저 앉았다.

“어! 이 놈이 환장을 했나?”

깜짝 놀란 용철이가 장검을 빼어 들었으나 삼을 들고 있던 남은 포졸 한 명이 또 삼남의 칼에 두 동강이 났다.

그제사 삼남은 펄떡 제정신이 들었다.

실상 그는 김대감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고 포졸이나 용철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삼남이! 눈알이 뒤집혔구나, 이 놈! 응!”

“그런 게 아니라…….”

삼남은 장검을 내린 채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도무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용철의 장검이 번개같이 날아 삼남의 바른 팔을 어깨 밑에서 바짝 잘라 버렸다.

삼남은 이래서 외팔이가 된 것이다.

그 후 삼 년 동안 삼남이는 용철이에게 복수를 하려고 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 용철을 만난 것이다.

매서운 기합 소리와 함께 외팔이의 장검이 용철이의 배를 스쳤다.

“으으윽!”

처절한 용철이의 비명 —.

그러나 쓰러질 듯 하던 용철이의 장검이 외팔이의 가슴에 꽂혔다.

두 사나이는 동시에 쓰러졌다.

매서운 바람을 타고 진눈깨비가 뿌렸다.

두 사나이의 몸은 눈바람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불한당, 이름 없는 자객의 허무한 최후였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6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286~290쪽.)

8. 왕십리(往十里)와 무학도사(無學道士)

고려조가 멸망하고 이성계(李成桂)가 이씨조선의 태조로 등극하자 고려의 도읍지인 송도(松都)를 버리고 도읍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이태조(李太祖)는 민심 수습이나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옛 고려의 도읍지인 송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풍수지리에 밝은 무학(無學)이라는 중에게 명하여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해 보라고 했던 것이다.

왕명을 받은 무학도사는 송도를 떠나 남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산수지리를 면밀히 살피며 그가 도착한 것이 삼각산(三角山)이었다.

무학도사는 삼각산에 올라가 지세를 살펴 보고서 다시 산에서 내려와 남쪽인 왕십리(往十里)로 갔다.

이렇게 풍수지리를 살피던 그는,

“됐다. 이 곳이면 이조의 도읍지로 가장 적당하다. 어서 돌아가 임금께 기쁜 소식을 전하리라.”

하며, 이 곳을 도읍지로 정하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노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이라, 이 놈의 소가 미련하기가 마치 무학 같구나. 어째 바른 길을 두고 지름길로 가려드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무학도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학은 소를 몰고 지나가는 그 노인을 살펴 보았다. 그가 보통 노인이 아님을 곧 알아차리고 얼른 뒤를 쫓아가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말씀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하니, 그 노인은 돌아다 보지도 않은 채,

“무슨 말이오?”

하며, 그대로 소를 몰고 가는 것이었다.

무학은 다시 쫓아가면서,

“지금 듣자 하오니 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학같이 미련하다고 하셨는데 저의 생각에는 이 곳이 도읍지로 가장 알맞은 것 같아 결정을 하였는데 어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소승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을 하였다.

“그런 것을 내가 어찌 안단 말이오?”

하고, 노인이 그냥 소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무학은 다시 절을 하고 옆드려 간청을 했다.

노인은 그제서야 걸음을 멈추고,

“여기서 십 리만 더 가시오.”

하고 손을 들어 가르쳐 주었다.

무학도사는 너무나 감사하여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 노인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십 리를 더 가니 과연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쌓인 요새지가 있었다. 이 곳이 바로 지금의 문안인 것이다.

“이 곳이야말로 정말 도읍지로 최적이로다.”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학도사는 곧 송도로 돌아가 이태조에게 보고하여 무학의 말대로 이곳에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무학도사가 소를 몰고 가는 노인에게 도읍지를 물었을 때,

‘십 리만 가라.’

고 하였다 하여, 왕십리(往十里)란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고 대궐을 짓게 한 후 둘레에 성을 쌓게 하였다. 그런데 인왕산 밑에 가면 선바위라고 하여 마치 손바닥을

세워 놓은 것 같이 생긴 바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저동이다.

무학도사가 성을 쌓으며 살펴보니 그 선바위를 성 안쪽으로 넣고 쌓으면 불교가 흥성해질 것이고 바위를 성 밖에 두고 쌓으면 불교가 앞으로 쇠퇴해질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무학은,

“이 선바위가 성안으로 들게 성을 쌓도록 하라.”

고, 인부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때 무학도사와 같이 축성공사장을 둘러보던 정도전(鄭道傳)은 무학의 흥중을 미리 알고,

“아니오, 그것을 성곽 밖에 두고 쌓도록 해야 하오.”

하고 주장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되게 되었다.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조금도 자기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입다툼을 벌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서울 주위에 마치 성곽 모양으로 눈이 내렸는데 이상하게도 성을 쌓을 자리만큼 뽕 둘러서 눈이 내린 것이다.

태조는 이 광경을 보고,

“이것은 필시 하늘이 지정해 주신 성곽이니라. 그러니 서로 입씨름을 하지 말고 눈이 내린 자리대로 성을 쌓게 하라.”

고 명했다.

그리하여 눈이 내린 자리대로 성을 쌓은 것인데 선바위는 성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었다.

무학도사는 앞으로 불교가 쇠해질 것이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탄식해 마지 않았다.

과연 이조 때에는 고려조 때에 불교가 성해서 많은 폐단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여 차츰 불교를 탄압하였다. 즉, 중을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여 장안에서는 중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장안에서 동북으로 서 있는 혜화문(惠化門)에서 십리쯤 가느라면 번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벌리(伐李)라고 하는 동리였다는 것이다.

고려 때에 《운관비기(雲觀秘記)》라는 책에,
“이씨(李氏)가 한양에 도읍하리라(李王都漢陽).”

라는 예언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안 고려의 충숙왕(忠肅王)은 한양에 남경부(南京府)를 세워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을 부윤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삼각산 밑에 외얏나무(李)를 많이 심게 하여 그 나무가 자라나기만 하면 베어 버리고 또 자라면 베어버리고 하여 이씨 성의 지기(地氣)를 눌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곳 이름이 벌리(伐李)로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이태조가 등극하여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벌리(伐里)라는 마을을 번리(樊里)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르도록 했다고 전해 온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6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221~223쪽.)

9. 서울과 왕십리(往十里)

이조의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혁혁한 무훈으로 중망을 한 몸에 거둔 후 송도(松都)의 수창궁(壽昌宮)에서 등극을 하자, 때에 민심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민심을 수습하는 의미로 보아서도 도읍지를 옮기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태조께서는 고달산(高達山) 암자에 있는 명승 무학(無學)을 사부(師父)의 예로서 불러들이어 천도의 땅을 의뢰하였다.

어느날 무학은 이태조와 같이 동야(東野)-- 지금의 왕십리(往十里) 근방-- 에서 지세를 살펴 보며 섰으니까 한 노인이 밭을 갈면서 소를 보고 꾸짖기를,

“미련하기 마치 무학 같구나.”

하므로,

무학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 노인에게 묻기를,

“지금 소더러 무학 같이 미련하다고 하시었는데, 내가 무학이요. 내 생각에는 이 곳이 도읍지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데 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하니 그 노인 대답이,

“여기서 십 리만 더 들어가 보시오.”

하고 가르쳐 주므로 무학은 서쪽으로 십 리를 더 들어가서 다시 지세를 살피니, 사방이 험한 산에 둘러 쌓였는데, 도읍지로서는 좋은 곳이었다.

그 뒤 한양(漢陽)이 도읍지로 결정이 되어 사방에다 축조를 계획하자, 무엇으로서 그 구획을 정하느냐에 고심하였다. 그러자 어느날 밤에 눈이 왔는데, 그 날 밤을 지내고 나니, 한양 주위에는 마치 성 모양으로 팽 둘러 눈이 쌓여 설울(雪圍)이 스스로 선을 쳐서 그 경계를 보이는 것 같았다. 마침내 성벽의 주위 선(線)은, 그 눈 온 자리 설(雪) 울(圍)에 좇아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서울의 땅 이름이 설울의 와전으로 ‘서울’이 된 것이라고 하며, 그 때 그 노인이 무학의 물음에 대답하여,

“여기서 십 리만 더 들어가라.”

고 하였다 해서, 그 곳을 왕십리(往十里)라 하였다고 한다.

(최상수, 《조선지명전설집》, 연학사, 1947, 64~66쪽.)

14. 회현동(會賢洞)의 은행나무①

파도처럼 밀려드는 왜병들은 부산에 상륙한지 십 여일 만에 서울 가까이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당황한 가운데 어전회의를 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충신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그 때 한 사람이 말을 했다.

“왜군들이 무서운 것은 조종 때문인즉 두꺼운 쇠로 갑옷을 만들어 입으면 충알이 몸을 뚫지 못하여 능히 대적해 싸울 수 있는 줄 아뢰오.”

별 다른 방편이라고는 없어서 왕 이하 모든 신하가 이 말을 옳게 들었다.

곧 밤낮을 가리지 않고 쇠옷을 만들어서 군사들에게 입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이었다.

그 무거운 쇠옷을 걸치고 어떻게 전장터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어허-, 그토록 힘들여 만든 쇠옷이 쓸모가 없어지다니!”

왜병을 막아내는 방법이 또다시 여러 가지로 대두되었으나 허황된 공론에 그치고 말았다.

“상감마마! 왜군이 서울 근교에 다다랐으니 잠시 몽진을 하시옵소서.”

“과인이 불쌍한 백성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지요.”

“시각이 급하옵니다.”

“어서 떠나소서.”

여러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권하는 바람에 선조는 하는 수 없이 피난 길에 올랐다.

이 때에 승승장구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왜적은 소서행장(少西行長)과 가등청정(加藤清正)이 한데 합쳐서 한강 근처에까지 이르렀다.

“장군! 나는 동쪽으로 강을 건너 동대문으로 들어가겠으니 장군은 남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 합시다. 누가 먼저 들어가나 내기를 해 봅시다.”

가등은 술한 군졸을 이끌고 강을 건넜다.

소서행장도 뒤질세라 동으로 돌아 강을 건너 동대문으로 향하였다. 이 때 서울은 무방비 상태였다.

“하하! 조선놈의 군사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정찰을 한 다음 들어가야지.”

하고는 선봉을 서 있는 부장에게 정찰을 명했다.

얼마 후에 부장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

“장군님! 성을 넘어 들어갔다 와 보았으나 조선군의 수효는 알 수가 없사옵고 척후병만이 큰 은행나무에 올라가 이쪽 동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바보 자식! 병력이 대략 얼마나 있는 지도 모르고 왔단 말이냐? 다시 가서 확인하되 매복해 있는 놈들이 있을 지도 모르니 자세히 알아 보라!”

서슬이 시퍼렇게 호령하자 부장은 황겁히 부하 몇을 데리고 또 다시 척후에 나섰다.

“음, 저 나무에 있는 놈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저 놈을 사로 잡으면 전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조선 군사는 적군이 나타났는 데도 꼼짝 않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저 놈의 자식을 어떻게 하나? 당장 쫓아가서 총으로 쏘아버리고 싶은데 복병이 나타나면 어찌한다?”

왜병은 복병이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했다.

원래 거리가 멀어서 활이나 총으로는 쓸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본진으로 돌아온 왜병은 소서행장에게 허위보고를 했다.

“장군님, 조선 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겐 소총이 있고 군사들의 사기 또한 충천하니 일시에 공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이 소서행장이 가는 곳엔 조선놈들이 추풍낙엽인데 무얼 주저하겠느냐? 어서 서둘러서 가등보다 우리가 먼저 입성을 해야 하겠으니 빨리 공격하라!”

그런데 당시 서울에 남아 있던 조선 군사들의 수효는 수천에 불과했다.

얼마 되지 않는 군사들에게 장수 한 사람이 소리를 쳤다.

“비록 우리는 수가 적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한양을 지키자!”

왜병들이 겁나서 도망칠 궁리만 하던 군사들은 막상 적이 눈 앞에 닥쳐오자 이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도리밖에 없었다.

“싸우자!”

“왜놈들을 무찌르자.”

“한양을 지키자.”

여기 저기서 용기를 가다듬고 소리를 질렀다.

“장군님! 남쪽에서 적의 대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급박한 보고를 받은 조선 군사는 곧 병력을 정비하여 남대문 쪽으로 달려갔다.

드디어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 군사는 허무하게 무너져만 갔다.

왜병들이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쏘아대며 달려드는 바람에 여기 저기서 쓰러지는 것은 조선 군사들뿐이었다.

그래도 조선 군사들은 이를 악물고 화살을 날리며 칼을 휘둘렀으나 당해내는 도리가 없었다.

“장군님! 동쪽에서도 왜놈의 대군이 이 쪽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양쪽에서 협공을 당한 조선군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싸움은 한 번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한 채 한양은 적의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다.

서울에 입성한 가등과 소서행장은 한 자리에서 만났다.

“으흠, 이번에는 내가 한 발 빨랐소! 장군이 져으니 무엇을 주겠소?”

가등이 웃으면서 말하자,

“그 놈의 은행나무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빨리 입성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가래침을 내뱉으며 부하에게 소리쳤다.

“지금 곧 가서 그 놈의 은행나무를 잘라 버리고 오너라.”

부장이 부하에게 도끼를 들려 가지고 은행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갔다.

“아주 밑등부터 싹뚝 잘라 버려라!”

즐개 하나가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기 시작했다.

“엇샤, 엇샤.”

하며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몇 번인가 찍었을 때였다.

“억! 나, 나무에서 피가 나온다!”

하고, 고향을 지르며 벌떡 나자빠졌다.



“뭐? 나무에서 피가 나온다고?”

부장이 드러다 보니 과연 선혈이 팔팔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부장이 이런 사실을 곧 소서행장에게 알리자,

“음, 그 이상한 일이다. 필시 그 나무에 사연이 있을 터이니 그대로 놓아 두어라!”

하고는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것이다.

그 은행나무는 지금도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36번지에 남아 있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7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340~342쪽.)

11. 회현동의 은행나무②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일본군이 서울로 쳐들어 왔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일본군의 소서행장(小西行長) 부대는 서울 동대문(東大門)으로 해서 문 안으로 쳐들어 오고, 가등청정(加藤清正)의 부대는 그 이튿날 남대문(南大門)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 보다 먼저 우리 나라 군사의 척후는 일본군의 행편을 지금의 서울 회현동(會賢洞) 2가 36번지 집 뒷뜰에 있는 크나 큰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정찰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입성하자, 그들은 이 은행나무를 도끼로 베어 버리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 밑둥을 깊이 찍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그 찍힌 곳에서 시퍼런 핏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므로 일본군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 나무 베는 것을 중지하였다고 한다.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38~39쪽.)

12. 국사당의 유래

함경도 영흥(永興) 땅 어느 마을에 노파 한 사람이 살았는데 슬하에 딸



하나가 있었다. 이태조가 아이 때 그 집 앞을 지나가자 노파는 태조에게 몰래 말하기를,

“장차 임금이 될 것이니 몸을 조심하시고 시장하거나 무슨 의심나는 일이 있거든 꼭 찾아오시오.”

하였다.

하루는 태조가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비가 몹시 와서 그 집에서 자게 되었다. 노파가 웃으면서,

“오늘은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잘 오셨소.”

했다.

저녁이 되어 태조는 아랫목에 눕고 딸은 웃목에 누웠다. 밤이 깊자 할머니는 태조에게 앞으로 어찌어찌 할 것이며 임금이 되거든 도움을 한양에 정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그 딸이 말참견을 한다. 노파가,

“방정맞은 년 왜 자지 않고 이러는 것이여.”

하고, 태조에게,

“도련님 고년 뺨을 때리시오.”

했다.

말하던 것이 누설되면 큰 일이라고 생각하여 뺨을 한 대 몹시 쳤더니 그 딸이 사지를 바르르 떨고 죽는다. 태조는 어어가 없어,

“내가 당신 딸을 죽였으니 나를 관에 고발하여 죄를 받게 하시오.”

하였다. 노파는 태연히,

“이 일은 제가 잘못하여 죽은 것이고 저의 운명이요. 그러나 이 밤으로 나가 저 아이를 묻읍시다.”

했다. 태조는 그 아이의 시체를 지고 노파는 땅 팔 것을 메고 나가 뒷산에 묻은 뒤에 태조의 소매를 잡고 울면서,

“내가 도련님이 한 번 치면 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때리라고 한 것은 영특한 임금님의 큰 사업에 누가 끼칠까 한 것이요. 이 길로 가시어 대업을 이루시고 잊지나 마십시오. 나도 새벽이 되면 다른 데로 가겠소.”



하였다.

그 뒤 태조가 세상에 나와 현관(顯官)이 된 뒤에 그 할머니를 함경도 전역으로 수소문했으나 영영 찾을 수 없었다.

그 뒤 태조는 조선을 개창하고 한양에 도읍을 정한 뒤에 남산 중턱에 집을 짓고 그 모녀의 초상을 그려 달고 '국사당(國師堂)'이라 칭호하고 춘추로 무당을 시켜 굿을 하여 그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이 당은 원래 남산에 위치해 있었다. 풍수지리학적(風水地理學的)으로 남산은 서울 장안의 안산(案山)으로서 그 정상에 국사당과 봉수대가 있었다. 지금의 8각정 자리에 국사당이 있었으나 일제가 저들의 신사(神社)를 세우기 위해 1925년 7월에 지금의 인왕산 중턱으로 강제로 옮겨 놓은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옛날에는 왕실에서 임명한 관리자의 후손이 당을 관리했다고 하나 현재는 관리자가 별도로 있으며 여러 곳의 무당들이 이곳에 와서 내림굿, 우환굿, 재수굿, 지노귀(指路鬼)굿 등을 하고 있다.

(이재곤, 《서울의 민간신앙》, 백산출판사, 1996, 201~202쪽.)

13. 선바위의 유래

선(禪)바위의 유래는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고 천도할 곳을 찾다가 현재의 서울을 찾아내고는 인근 산에 올라가 바라보니 국운(國運)이 5백년 밖에 유지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이곳 선바위에 와서 천일기도를 하였다고 하며, 그 뒤부터 이 바위가 유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성계가 도성을 쌓을 때 왕사(王師)인 무학대사(無學大師)와 문신인 정도전(鄭道傳)이, 이 바위를 성 안으로 하느냐 성밖으로 하느냐로 크게 의

전이 대립되었다. 태조는 결정을 미루고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에 4월인데도 눈이 쌓이고 있었다. 밖을 내다보니 낮에 희의하던 곳이 보이고 안쪽으로 들어쑤은 쪽의 눈이 녹아 버렸다. 태조는 이것이 하늘의 계시임을 알고 정도전의 주장대로 선바위를 성 밖으로 두게 하자 무학대사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제 중들은 선비 책보파리나 짊어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하고, 길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도 선바위에서 위로 5백 미터 미만의 거리에 옛날 축성한 성곽이 남아 있다.

선바위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연 암반 위에 그대로 있었으나 1960년대 중반에 제단을 만들고 담을 둘렀으며 바닥을 시멘트로 평평하게 다듬었다. 이것은 주위 사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치성의 효과를 본 어느 개인이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암자에서 관리인을 보내 관리하고 있다.

이 곳에는 하루에도 수 십 명씩 참배객이 다녀간다. 그들이 내는 불전과 인등(引燈)을 켜는 비용으로 선바위를 관리하고 있다.

14. 고운단골(美洞)/통역관 홍순언의 미담이 깃든 을지로 1가①

을지로(乙支路)라는 이름이 광복 후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따서 제정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곳에 구리개, 은동(銀銅) 등 금속과 관련된 동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때는 황금정(黃金町)이라고 불렀다.

현재는 그 이름을 듣기 어렵게 되었지만 을지로 1가와 남대문로 1가에 걸쳐 ‘고운단골(美洞)’이란 동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와 같은

동명이 유래되었을까?

조선 선조(宣祖) 때 홍순언(洪純彦)이란 통역관이 이 곳에 살았다. 그는 서얼(庶孽) 출신으로 높은 관직에는 오를 수 없었으나 통역뿐만 아니라 문장도 뛰어났고, 인품도 출중하였다. 또한 남의 불행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의기의 남자였다고 각종 기록에 나타나 있다.

홍순언이 어느 해인가 명나라에 가는 사신을 따라 남경 역관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지내기가 무료하여 거리 구경을 나섰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밤이 되었는데 마침 홍등가(紅燈街)를 지나게 되었다. 홍순언의 눈에 기이하게 보인 것은 집집마다 등불을 내걸고 여인의 몸값을 써 붙여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집 대문에 써 붙인 여인의 몸값이 너무나 엄청난 가격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마음을 크게 먹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으니까 주안상을 든 소복한 미녀가 들어와 절을 하고 고개를 드는데 홍순언은 저도 모르게,

“허!”

하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들어온 처녀의 미모가 마치 하늘의 선녀라고 고결한 인품이 공주와 다름 없지 않은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홍순언은,

“보아하니 귀한 댁의 규수 같은데, 대체 어찌된 일ियो.”

하고 묻자 처녀는 입을 열지 않다가 마지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말문을 열었다.

“원래 저는 절강(浙江)지방 사람인데 외동딸로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세가 기울어져 아버님이 벼슬을 구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며칠 전에 부모님이 전염병으로 한 날에 갑자기 돌아가시니 저는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역시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 그런데 장례는 어떻게 지냈소.”

“예. 장례를 지내기도 막막하던 차에 이 집주인이 주선하여 간신히 치렀지만 이제 고향으로 부모님이 시신(屍身)을 모셔야겠고, 그 동안의 진 빚도 갚으려면 제 몸을 팔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오늘 처음 나온 것입니다.”

하며 울음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홍순언은 민망히 여겨,

“내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여기 얼마 많지 않으나 이 돈으로 진 빚을 갚고 고향에 돌아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도록 하시오.”

하고 주머니를 털어 선선히 2천금(二天金)을 주고 그 자리를 일어섰다.

이에 처녀는 너무 감격하여 큰절을 세 번이나 하더니,

“하늘이 소녀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가 보옵니다. 대인의 은혜는 반드시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인의 성함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이에 홍순언은 거절했으나 처녀는 끝내 홍순언의 이름을 알고서야 그 돈을 받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선조 17년(1584).

홍순언은 조선 왕실의 계보가 명나라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치기 위해 파견되는 사신 황전옥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명나라 서울 부근 조양산에 도착하니 전에 없이 구름 같은 장막을 치고 조선 사신 일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모르던 차에 명나라 예시부랑 석성(石星)이 홍순언을 따로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다.

석성이 홍순언을 자리에 모신 뒤 부인을 들어오게 하는데, 그 부인이야말로 전에 자기가 구해준 처녀가 아닌가. 어리둥절하는 홍순언에게 그 부인은 지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즉, 그녀는 고향에 돌아가 얼마 후 석성의 계실(繼室)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홍순언의 은혜를 잊지 못해 틈틈이 비단옷감을 짜면서 ‘보은단(報恩緞)’이라는 꽃무늬의 글자를 수놓았다. 그리고 홍순언이 조선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석성의 노력으로 조선의 요구는 관철되었다. 이윽고 귀국길에 오르자 석성의 부인은 보은단과 각종 예물을 홍순언에게 선사하였다.

이로부터 홍순언이 사는 곳을 보은단골, 고운단골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15. 보은단골의 유래②

선조 임금 시절에 홍순언(洪純彦)이라는 통역관이 있었다.

이 홍순언이 어느 해, 왕의 특명으로 명나라 서울에 갔었을 때의 일이다. 해가 질 무렵 변화한 장거리를 혼자 지나가려니까, 한 곳에 술한 사람이 모여서 웅성대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홍순언은 호기심이 불쑥 일었다. 얼른 사람의 벽을 비벼 헤치고서 앞으로 나가 보니까, 어떤 어여쁜 처녀를 곁에 세우고 한창 떠드는 중이었다.

홍순언은,

‘오라! 저게 바로 말로만 듣던 사람 장수로구나.’

하고, 얼핏 알아낼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곧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본 이상 별로 흥미가 없어서, 홍순언은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문득,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장수가 부르는 몸값이 터무니도 없이 큰 돈이었기 때문이다. 또 한 번 호기심이 되살아 난 홍순언은 그 처녀의 얼굴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허!’

하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처녀는 아름답기가 하늘의 선녀 같았다. 그 뿐인가, 인품이 또 마치 나라의 공주처럼 고귀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게다.’

홍순언은 동정심과 의협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사람 장수에게 수작을 걸었다.

“여보시오, 내가 그 값에 살 터이니 나와 함께 갑시다.”

이리하여 홍순언은 그들을 객관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간신히 돌아갈 노비만 남기고 돈을 선뜻 내어 주었다. 물론 그 처녀를 산 것이다.

사람 장수가 돌아가자 처녀는,

“어려운 처지를 구해 주셔서 무어라 인사를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하고 눈물어린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말씨나 태도를 보고 홍순언은,

“보아하니 귀한 덕의 규수 같은데 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이렇게 사람을 샀으면 여자의 경우는 종으로 삼든지 혹은 아내로 삼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홍순언은 이 때, 그런 생각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힘닿는 데까지 도와 줄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

처녀도 홍순언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눈물 반 말 반으로 다음과 같은 신세를 말해 주었다.

원래는 남경에서도 문벌이 높은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그러나 가세가 극빈하여 벼슬을 구하려고 서울에 올라온 부모를 따라 왔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 부모가 급병으로 여관에서 한 날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혈혈단신이 된 어린 처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여관집 주인의 주선으로 명색만의 장례는 치렀으나, 이래서 지게 된 빛과 또 장차 살아갈 길이 아득해서 마침내 몸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말을 들은 홍순언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참으로 딱한 사정이요. 내 비록 그대를 사기는 했지만 사정을 안 이상 우리 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소. 여기 얼마 안 되는 노자를 주겠으니 이것

으로 우선 고향에 돌아가 훗날 좋은 사람에게 출가하도록 하오.”

처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천금을 들여서 사 놓은 사람을 그대로 보내 주겠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아, 그것이 참말이십니까?”

처녀는 솃제 홍순언 앞에 주저앉았다. 그러다가 홍순언이,

“나는 비록 큰 부자는 못 되지만, 명나라 임금을 뵈러 온 조선의 사신이오. 그런데 어찌 농이나 거짓말을 하겠소. 아무 염려 말고 내가 이른 대로 하오.”

처녀는 감격한 나머지 말도 못 이루었다. 그리고는 바로 큰 절을 세 번이나 깎듯이 하였다.

“하늘이 소녀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가 보옵니다. 그렇더라도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날 홍순언은 낮익은 명나라 관원에게 사실을 말하고,

“부디 이 처녀를 무사히 고향에 보내도록 조치해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명나라 관원도 홍순언의 의로운 처사에 크게 감동되어, 즉시로 자기 하인을 시켜 남경까지 처녀를 호송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무사히 남경 본 집에 돌아간 처녀는,

“훌륭하신 외국 분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 드리자.”

하고, 손수 비단 옷감을 짜기 시작하였다. 그 비단에 ‘보은단’ 즉 은혜를 갚기 위한 비단이란 꽃무늬 큰 글자를 수놓은 것은, 자신의 일편단심을 나타내고자 함이요, 또 어느 때든 그 은인에게 손수 바치려고 한 심정도 곁들여 있었다.

이런 지 몇 해가 지나, 우리 나라에는 큰 난리가 일어났다. 바로 임진왜란이었다.

이 때, 홍순언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구원군대를 청해 온 일은, 역사의 기록대로이다.

그러나 실상 홍순언의 청을 들어주게 하는 데에 큰 구실을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날 홍순언이 구해 준 그 처녀였다.

당시 남정에 돌아간 그 처녀는 얼마 후 훌륭한 집안에 출가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되는 사람이 마침 명나라의 군사 일을 맡은 병부상서로서, 이를 테면 조선에 구원군을 파견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이 병부상서가 부인의 간청도 있고, 또 마침 명나라로서도 왜적의 침략을 미리 물리칠 필요도 있다고 여겨서, 결국 대장 이여송의 군대가 파견된 것인데 역사에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 자체는 물론 공교롭기 짝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조그마한 일이 나라의 큰 일을 위하는 하나의 바탕도 될 수 있는 좋은 보기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홍순언은 명나라 병부상서 부인에게서 직접 받은 ‘보은단’을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돌아왔을까?

그것보다는 그 무렵 홍순언이 살던 동네를 이 일로 해서 ‘보은단 골’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차츰 잘못 전해져 ‘곤단 골’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곤단 골’이 서울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기록이 없어 찾지 못하지만, 그런 대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권희철, 《우리의 민담(1)》, 한국자유교육협회, 1973, 178~183쪽)

16. 부엉바위 전설 - 암지네와 사랑을 나눈 한은석

중구 예장동 산 5번지(승의여자 전문대학 서쪽), 남산 공명골(孔明骨)에는 부엉바위(휴암)가 있다. 바위 모습이 마치 부엉이처럼 생겼다 하여 부엉바위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간혹 범바위라고도 부른다. 이 바위 밑에는 물맛이 좋은 약수가 나오는데 예부터 이 약수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조선 중기 영조 때, 어느날 밤 이 바위 위에 한 선비가 앉아 신세타령을 하고 있었다.

‘제기랄, 세상에 이다지도 험하단 말인가. 부자(父子)간의 정리를 끊는 말세에 내 이제 죽지 못해 살아온 몸, 이제 얻어먹기도 힘이 드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자. 아니다, 이 바위 위에서 떨어지면 죽지도 못하고 자칫하면 병신만 되기 쉬우니 나무에 목을 매고 죽어 버리자.’

죽기로 마음먹은 선비는 바위 위에서 내려와 목을 땔 나무를 두리번 두리번 찾았다. 마침 부엉바위 바로 아래쪽의 나뭇가지에 목을 매기에 안성 마춤인 것 같았다. 그는 줄을 걸기 위해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때였다.

“사람 살려요.”

별안간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 밤중에 웬 여인의 소린가?’

나무에 목을 매려던 선비는 귀를 귀울여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다.

“사람 좀 살려줘요!”

여인의 음성은 아주 가까이 들려왔다. 잠시 후에 삼십이 채 안되어 보이는 여인이 선비 앞에 나타났다.

“아니. 젊은 여인이 밤중에 웬 일이시요?”

선비는 의심이 더럭 들어 여인에게 물었다.

“네, 한밤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대관절 어디 사시기에 밤길을 잃으셨소?”

“네, 문 안에 복숭아를 갖고 갔다가 날이 어두워서 길을 잃고 말았는데 금방 귀신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서 그만 무서운 생각에 창피를 무릅쓰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어요.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 길을 알 것 같습니다만 혹시 바쁘시지 않으시면 저의 집이 바로 요너머 과일 밭이오니 저를 좀

데려다 주시어요.”

이렇게 부탁한 여인은 손에 짐을 들고 있었다. 여인은 짐을 선비에게 넘겨 주면서 들어 달라고까지 하였다.

‘허허, 일이 묘하게 되었군.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청하다니….’

조금 전까지만 해고 죽으려 했던 선비의 이름은 한은석(韓恩錫)으로서 일찍이 관직에 있다가 영조에 의해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관직에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혔다.

하지만 워낙 결백한 한은석은 모아 놓은 재산도 없는 데다가 가족은 많아 살림이 몹시 궁핍하였다. 그래서, 한은석은 건디가 못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결을 하기로 한 것이다.

갑자기 만난 여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한은석은 여인을 따라 밤길을 더듬어 나갔다. 여인의 집은 남산 너머 후암동 복숭아 밭에 있었다. 그가 여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니 식구라곤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에 여인은 조출한 주안상을 차려 내왔다.

한은석은 여인이 따라 주는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밤을 여인과 함께 지내는 행운을 얻었다. 그러나 두 남녀에겐 밤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어 한은석이 돌아가려 하니 여인은 수 십냥의 돈까지 주었다. 그러나 성격이 대쪽 같은 한은석이 돈은 받으려 하지 않았으나 여인은 막 무가내로 손에 쥐어 주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한은석은 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후부터 한은석은 매일 밤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달콤한 밤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이 날 밤도 한은석은 후암동의 여인의 집을 찾아가려고 남산 부엉바위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아, 가엾은 사람으로군.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니…”

한은석이 주위를 살펴보니 부엌바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한은석은 괴이쩍게 여기면서 노인을 쳐다보았다.

“노인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허, 내 답답해서 그러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가엸단 말이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도 모르고 있으니, 당신은 오늘밤 그 계집한테로 가면 죽고 마오.”

“네? 노인장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남의 앞 일까지 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묻지마오. 실은 그 계집은 사람이 아니라 수 천년 묵은 지네인데 사람의 진을 빼먹는단 말iero, 그 동안 당신도 그 계집한테 진을 빼앗겨 왔는데 오늘밤을 마지막으로 당신은 죽고 마오.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은 살 수가 있소. 이 담뱃대에 담배를 꼭꼭 담아가지고 입으로 뱉 후 입 안의 고인 침을 절대로 뱉어서는 아니되오. 고인 입안의 침을 그 계집의 얼굴에 뱉으시오. 그래야만 당신을 살 수 있소. 자아 이 담뱃대를 가져 가시오.”

하고 노인은 한은석에게 담뱃대 한 개를 주었다.

한은석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괴이한 일이었다.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나 그녀의 호의로 이렇게 호강을 해오는 터에 그 착한 여인이 자기를 해치는 무서운 지네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밤중에 부엌 바위에 나타난 노인도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노인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은석은 곰곰이 생각하며 노인이 시킨 대로 담뱃대를 입에 물고 여인의 집으로 갔다. 한은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대문을 흔들었다. 그러자 안에서 급히 달려 나오는 여인의 소리가 들려왔다.

‘입 안의 침을 뱉아라. 그러면 네가 산다’

한은석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다지도 어여쁘고 마음씨 고운 여인을 어



찌 죽인단 말인가.

“여보, 밤길에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인은 대문을 열며 반색을 하였다.

이때 당연히 한은석은 입안에 고인 침을 여인의 얼굴에 뱉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한은석은 차라리 자기가 죽더라도 노인이 시킨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한은석은 입안의 침을 땅에 ‘탁’ 뱉어버렸다.

“아이고, 서방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은석이 땅에 침을 뱉자 여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하였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허리를 굽혔다.

“실은 서방님이 아까 만났던 노인의 말대로 저는 지네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천년 묵은 지령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을 질투해서 서방님을 시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인데 서방님을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라 할지, 여기 돈 만냥이 있사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여인은 많은 돈을 내 놓았다.

한은석은 어리둥절하였다. 너무나 많은 돈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도 한은석은 여인과 단꿈을 꾸고 이튿날 집으로 돌아갔다. 또 다음날도 한은석이 여인의 집을 찾았더니 이게 웬일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엿하게 있던 집이 자취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은석은 너무 허망하였다. 지네의 변신인 그 여인이 사람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진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한은석은 여인이 준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그의 자손들도 번창했다고 한다.

17. 약식(藥食) - 중림동 약전에서 만든 찹쌀 밥

옛부터 정월 대보름날이면 원석(元夕)이라 하여 약밥과 약과를 만들어 먹는다.

약밥을 만들어 먹게 된 까닭은 《동국 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씌워져있다.

신라 21대 소지왕(炤知王)이 정월 대보름달 신하들과 함께 천천정(天泉亭)으로 나갈때 어디선가 까마귀가 은그릇을 물고 날아와 왕의 행차 앞에 떨어뜨리곤 주위를 빙빙 돌다가 날아가 버렸다.

“괴이하다. 까마귀가 은그릇을 떨어뜨리고 가버리다니…….”
하면서 측근의 신하가 은그릇을 주워 왕에게 바쳤다.

왕도 이상하여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튼튼히 봉해진 그릇 바깥 면에,
“이 뚜껑을 열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하고 그릇을 열어 보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한 대신이,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하를 일컫는 것이 분명하니, 이 그릇을 열어 보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고 아뢰자 왕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여봐라 어서 이 그릇을 열어 보아라.”

왕의 명에 따라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열어 보니, 그 안에 흰 종이가 있었다. 흰 종이에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궁중의 용상(龍床)뒤에 있는 가야금 상자를 활로 쏘아라”

이를 읽은 왕은 즉시 행차를 돌려 궁궐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야금 상자를 행해 활에 살을 먹여 힘껏 쏘았다. 화살이 박히자 신음 소리가 났다. 과연 그 상자 속에 두 사람이 있었다. 바로 왕비와 궁중에 출입하는 중이 정을 통하다가 왕을 죽이기 위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왕은 구 사람을 즉시 주살(誅殺)하였다. 즉, 매년 정월 대보름을 ‘까마귀 제삿날’이라 하여 찹밥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약밥의 시초라고 하였다.

18. 바뀐 신랑 - 수표교 답교놀이 때 술에 취한 이안눌

장충단공원 안의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교(水標橋)는 조 선초 세종때 완공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다리는 지금부터 38년 전까지 중구 수표동(43번지)과 종로구 관수 동(152번지) 사이의 청계천에 놓여 있었으나 1959년에 청계천 복개공사 로 매몰되게 되자 이곳으로 이전되었다.

도성 내의 청계천 위에는 8개의 다리가 걸려 있었지만 이 수표교는 그 중에서 아름답기가 으뜸이었다. 따라서 청계천의 모든 다리는 모두 복개 되었지만 수표교만은 해체하여 장충단공원에 복원시켜 놓았다.

“저 수표교는 원래 마전교(馬廐橋)라고 했대지요.”

“그렇다네. 이 다리 이름이 바뀐 것은 영조 36년(1760)에 큰 물이 날 것에 대비하여 청계천 수위를 짚 수 있는 수표(水標)를 세운 뒤부터 수표 교라고 붙여졌답니다.”

“그런데 수표(水標)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으음. 수표석(水標石)은 지금 청량리동의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보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육각(六角)돌기둥의 교각(橋脚)과 돌 난간까지 쳐져 있어 서 다리가 매우 아름답군요.”

조선시대에는 정월 대보름날이면 수표교 아래 위에서 연싸움이 벌어졌 다. 연싸움이 벌어지면 구경꾼이 서로 편을 나누어 응원하였다. 연싸움이 끝나면 이긴 편 의 환호성과 진 편 의 탄성이 엇갈려 흥미와 흥분의 도가니 를 이루었다.

한편 수표교에 얹힌 이야기로 다리 밟기를 빼 놓을 수 없다.

조선시대 중종 35년(1540)부터 서울 장안 사람들 사이에는 정월 대보 름날 저녁에 12개 다리를 밟으면 일년 내내 재앙을 막고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이 날은 통행금지마저 해제되어 많은 부

녀자들이 장옷을 쓰고 나와 다리를 밟았다.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답교(踏橋)하니 무뢰한까지 몰려들어 한데 어울렸다. 이에 남녀의 풍기가 문란해지자 한때 답교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선조(宣祖) 때에는 답교 풍속이 계속되었던 것 같다. 이때 갓 장가든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1571~1637)은 답교놀이로 어울렸다가 술에 취해 수표교 부근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 깨어 보니 자기 신방(新房)이 아니었다. 이안눌은 정신이 번쩍 들어 옆의 신부를 깨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뜬 신부도,

“에그머니, 아니 누…누구세요.”

하며 이안눌 못지 않게 놀라는 것이었다.

이 신부도 신혼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밤 늦도록 신랑이 들어오지 않아 하인들이 찾아 나섰다가 만취해서 쓰러진 이안눌을 신랑으로 알고 업어다가 신방에 재운 것이다.

이안눌은 적이 당황하여, 신부에게,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렀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니는 제 팔자 소관이자 연분인가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이나 늙은 부모의 무남독녀로 자라 어쩔 수도 없으니, 소녀를 소실로 허락해 주신다면 이만 다행이 없겠습니까.”



“나 역시 고의로 저지른 과오가 아니고, 새댁 또한 화냥끼로 한 잘못이 아니니 소실로 맞이한들 상관있겠소. 그러나 엄친 슬하에 아직 과거에 오르지도 못한 주제에 어떻게 두

여인을 거느릴 수 있겠소.”

그러나 신부에 간청에 못이겨 이안눌은 부랴부랴 신부와 같이 그 집을 몰래 빠져나와 그 길로 신부를 이모집에 의탁시키고 과거에 합격하기까지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신부집에서는 갑자기 신부가 온데 간데 없는지라 영문을 몰라 전후를 살핀 끝에 진상이 드러났다. 이에 신부집에서는 주위를 의식하여 신부가 변사한 양 서둘러 장사를 치르고 수심의 나날을 보냈다.

이윽고 몇 해가 지나 29세에 이안눌이 과거에 급제하자 그제야 신부를 소실로 맞이하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신부의 노부모들은 기가 막힌 중에도 한편으로는 외동딸이 살아 있음을 기뻐하여 남은 여생을 그에게 의탁하였다.

소실이 된 신부의 집은 대대로 역관(譯官)을 해 온 집안으로 장안에서도 잘 알려진 부잣집이었다. 신부 또한 천성이 지혜롭고 부지런하였으므로 이안눌은 평생을 여유 있게 지내며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여 마침내 청백리(淸白吏)의 영광을 얻었다.

이안눌은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참의를 거쳐 강화부윤에 재임하던 중 광해군의 폭정에 분개하여 사직하였다가 인조반정 후에 예조참판에 등원종(元宗)이라는 시호를 받고 돌아왔으므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예조판서에 올랐다.

이안눌은 권 필(權韜), 윤근수(尹根壽), 이호민(李好閔) 등의 많은 문인들과 교제하여 가깝게 지냈다. 이안눌은 이들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의 모임을 만들어 현재 동국대학교 내에서 모임을 가졌다. 영조 때 예조판서, 판돈령부사를 지낸 이안눌의 현손인 이주진(李周鎭)은 조상의 집터를 기념하기 위하여 암벽에 해서(諧書)로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고 여섯글자를 각자(刻字)해 놓았다.

최근까지도 이안눌이 살았던 동국대학교 북문 가까운 암벽에는 ‘동악선생시단’이라고 쓴 각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각자는 1985년에 동국대

학교에서 암벽을 헐어내고 건물을 세울 때 없어졌다. 그 대신 부근에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는 글자를 큰 자연석에 새겨 놓았다.

19. 무학대사가 지은 궁궐

태조대왕 이성계, 시조 이성계씨가 한양 등극을 헐라고 무학대사를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고 서울을 와서 터를 잡아 가지고 그 대궐 터를 잡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대궐은 짓기만 하면 쓰러져. 멀쩡한 집이 자꾸 쓰러져. 그러니 암만해도 소용이 없어. 밤에 쓰러지니까, 거 멀쩡한 집이 쓰러지니까, 무학대사가 저 서울을 학의 혈이예요. 날라 대니는 학이 있죠. 서울이 학의 혈로 잡은 거예요. 근데 무학대사가 대궐을 짓기만 하면 다 지어놓으면 쓰러져 버리니까, 자기가 염치가 없으니까 강원도 금강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여.

근디 정 이월달에 왕십리를 가니까 하얀 백발 노인네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면서 소끄랭이를 가지고서 쇠 잔등을 두대기면서,

“이라, 이 놈의 소, 이 놈의 소가 미련하기는 무학대사같이 미련헌 소.”라고 팬단 말여.

근게 무학대사는 동양에서 쳐주는 분인디, 무학대사처럼 미련한 소라고 그러닌게, 무학대사가 가만히 들으니까 기가 막힌단 말여.

그런게 그 영감한테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절을 하면서,

“지가 무학울시다. 잘못된 것도 많고, 모르는 것이 많은데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서울을 무슨 혈로 알고 서울을 잡았느냐?” 이거여.

“양주목을, 학의 혈로 잡었습니다.”

“학의 혈로 잡었다면 학 잔등에다가 대궐을 짓는데, 사대문을 짓고 성을 쌓고 대궐을 지어야지, 학 잔등이다가 짓는데 날개만 한번 ‘후’ 날으면

은 집이 쓰러지는 것 아니냐. 대궐이, 그러고 학을 다리고 날개를 눌러서 집을 지어야 꿈쩍 않는다.”

그렇게 영감이 말을 혀.

그러서 기가 맥혀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여. 무학대사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떠보니께, 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그래 도망을 가다 다시 와서 이성계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성을 쌓고 사대문을 내고, 그 사대문 났다는 거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시구문이라고 있어, 시구요. 시구문을 짓고, 서대문을 짓고 성을 쌓고서 집을 지으니까 학을 눌러 놓아서 모가지고, 다리고, 날개고, 눌러 났으니께 집이 안 쓰러지죠. 그렇게 집을, 대궐을 지었다는 거여.

20. 무악재 유래

서대문서 홍제원 넘어갈라고 하면 무악재라고 그러죠. 재라는 건 고개를 가지고 재라고 그래요. 거시기 인저 송도, 개성에서 임금이 가서 세운 건 태조지요. 이 이성계씨가 서울로 와 가지고 한양 등극이 되고 나니까 이 임금이 계신디다가 그 나라 좋은 물건이 그리 다 들어오거든요.

근디 사람이 오는데, 지금은 고개를 잘랐지만은, 잘랐지. 그 재는 산고개요. 산을 잘를 줄 모르니까 산고개란 말여. 그 산고개를 오는데, 전부 등짐장사라고 전부 등에다 짊어지고, 지금은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지만은, 팔러 나오는데 지금 말이 무학대사가 그 고개를 넘어 댕겼다고 해서 ‘무악재 고개’ 라고 한다. 근대 그게 아네요. 그레 아니라는 걸 쓰세요.

양쪽 산 속에 그 나쁜 도둑놈들이 있다가 짐을 가지고 팔어 오는 걸 가지고 그 때 여기는 일하면은, 감이 없었어요. 인삼이, 개성에 고려인삼만 있었지. 그 팔러 오면은 도둑놈이 들와서 다 뺏어가요. 그래서 인제 홍지원 저쪽에서 한 이십 명이고, 삼십 명, 장사꾼이 모여서 넘어오는 거여. 그래 도둑놈이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덮칠 수가 없어. 덤비다가는 잡히

지. 그래, 사람이 모아 가지고 넘어 대니는 고개라고 히서 무악재고개여.
무학대사가 다녔다 해서 무악재 고개가 아녀.

21. 버티고개 유래

신당동 끝과 약수동이 이어진 부근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높은 큰
고개를 버티고래가 한다.

옛날 이 고개는 길이 좁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도둑이 많았으므로 모
양이 험악하고 마음씨가 곱지 않은 사람을 보면 ‘밤중에 버티고개에 가서
앉을 놈’이란 농담을 하였다. 옛날 순라꾼들이 야경을 돌면서 ‘번도!’ 하
면서 도둑을 쫓았는데 그말이 변하여 번티(番峙), 버티, 버티 또는 한자로
부어치(扶於峙)가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한성부의 진산인 삼각산의 인수봉이 어린애를
업고 다니는 형국이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서쪽의 무악과 떡고개를 두어
서 어머니가 떡을 가지고 그 애를 달래서 머무르게 하고, 또 남쪽에는 별
아령(伐兒嶺)을 두어서 아이가 나가면 별을 주겠다고 하여 그 아이를 못
나가도록 막았다는 것으로 그 별아령이 변하여 버티고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지》(I), 1994.)

22. 남소문(南小門)과 버티고개 유래담

숙종조에 있어서 남인(南人)들의 개문론에 반대하여 서인(서인) 측에서
는 같은 음양학적논리(陰陽學的論理)에 입각한 개문불길론을 들고 나왔던
것인데, 결국은 ‘개문불길’의 주장이 관철되어서 문제의 남소문(南小門)
재개(再開)는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숙종조에서 남소문이 폐색(閉塞)하였기 때문에 왕실에 여자가

많이 나고 남자가 적다는 논법(論法)과는 반대로 지금까지 구비로 전하여 오는 말에는 남소문을 열어 놓으면 서울 시내에 여자의 음행(淫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의 논거(論據)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펍 오래 전부터 전하여 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한화(閑話)거리가 되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 지세의 동남방이 저하(低下)한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 오는 일종의 전래적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남소문이 있는 산마루를 예전에는 ‘버티고개’라 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버티고개’의 ‘버티’는, 저 숙종실록(권 49) 26년 경인 11월조 안정기(安鼎基)의 상소 중에 보이는,

“대소부아현간 유일폐문 시위남소문야(大小負兒峴間 有一閉門 是謂南小門也)”중의 ‘부아현(負兒峴)’의 원어(原語)가 아닌가 한다. 즉 ‘부아’는 우리말의 광명을 의미하는 말 ‘불’, ‘부여’의 한문식 기사인 것으로서 인거(人居) 중심지에서 동남방에 있는 산, 현(峴)이 흔히 ‘부아’로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남소문이 있던 고개의 우리말 지명 ‘버티고개’도 역시 고개의 방위가 서울에서의 동남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출산(日出山)’ 또는 ‘광명현(光明峴)’을 의미하여서 ‘버티’라고 불리워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 ‘버티’는 남산의 일명인 ‘열경산(列慶山)’, ‘인경산(引慶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병도, <남소문과 개폐문제>, 《향토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7, 117~118쪽.)

23. 영미교(永尾橋)의 유래

황학동에서 종로구 승인동 숭신국민학교와 동묘(東廟)로 나가는 교차로에 조선시대 가설된 영도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청계천 복개공사

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 영도교(永渡橋)는 조선초에는 왕십평대교(旺尋坪大橋)라고도 하였으며 고종 이후에는 영미교라 불렀는데 그것은 영미동에서 내려오는 개천 끝에 놓인 다리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내놓고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귀양갈 때 이 다리를 건넜으며 이 때 송비(宋妃)는 이곳까지 따라와 단종과 생이별을 하고 송인동의 진업원 암자에 시녀 셋과 함께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지내면서 매일 동망봉(東望峯)에 올라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부군(夫君)의 평안을 빌었다. 그뒤부터 이 다리를 영리별교(永離別橋)라 하였는데 이것이 영미교로 변음되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지》(I), 1994.)

24. 약주(藥酒)의 유래

만리 2동 전 양정고등학교 동쪽 운동장은 선조 때 재상 약봉(藥峰) 서생(徐生)의 집터로 서약봉터라 한다.

서성의 어머니 이씨가 이곳에 집을 수십 간 짓는데 비록 눈은 멀어서 보지 못하였으나 감역하는 것이 매우 치밀해서 정상인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씨가 보통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소문을 일찍이 들은 적이 있는 목수는 일부러 대청 기둥을 거꾸로 세워 그녀의 능력을 시험코자 하였다. 구석구석을 손으로 만지며 점검하고 있던 이씨는 즉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목수에게 잡을 것을 요구하자 목수가 기둥을 바로 고쳐 세웠던 일도 있다.

아직 젊었을 때 어린 아들 서성만 데리고 청상과부가 된 이씨는 아들을 위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나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져 가서 막연하던 차에 약현객주에 머무르게 되었다. 평소 음식 솜씨가 뛰어났던 이씨는 묵고 있던 주막 집 주인이 혼자서 애쓰는 것을 보고

도와줄 요량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즉석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모두가 맛이 뛰어나다는 찬사를 보내주어 그곳에서 주먹밥을 만들었으므로 이를 약밥이라 하였고, 눈이 먼 이씨가 막걸리를 만들면서 한 없이 걸러내자 맑은 술이 되었는데 그 맛 또한 일품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청주(淸酒)를 약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지》(I), 1994.)

2) 이인 · 고승전설

1. 양녕대군(讓寧大君)

양녕대군(讓寧大君)은 이조(李朝) 삼대(三代) 왕인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첫째 왕자인데 글 잘 하고 글씨 잘 쓰는 왕자였다. 일찍이 세자에 책봉(冊封)되었는데 태종대왕이 셋째 왕자인 충녕대군(忠寧大君)한테 왕위를 전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부왕(父王)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체하고 여러 가지 해괴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세자 책봉이 되지 않았다.

그 동생인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양녕대군이 그렇게 되니까 세자 책봉은 자기한테 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부왕한테 잘 보려고 몸가짐이며 말씨와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근신(勤愼)하고 글도 열심히 공부했다. 양녕대군은 효령이 떡 줄 놨는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꼬워서 하루는 효령을 발길로 걷어차면서,

“충녕을 모르냐.”

했다. 효령대군은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아차리고 절에 들어가서 늘 북만 쳤다. 북을 치고 해도 북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찢어지지 않고 질긴 것을 ‘효령대군 북가죽’이란 말이 생겼다.



양녕대군은 왕위에 뜻이 없어서 해괴한 행동만 거듭하기 때문에 종내는 세자 책봉도 폐립되고 말았다. 자유로운 몸이 되자 경향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시흥(詩興)이 일어나면 시를 지었다. 어떤 절에 가서 지은 시에 이런 것이 있다.

산하조작반(山霞朝作飯) - 산에 낀 안개는 아침밥을 짓고

나월야위등(蘿月夜爲燈) - 덩쿨에 걸린 달은 밤에 등잔불이 된다

독숙고암하(獨宿孤岩下) - 외로이 서 있는 바위 밑에서 혼자 자니

유존탑일층(唯存塔一層) - 탑은 한 층만 남아 있다

남대문에 걸려 있는 승례문이라는 현판(懸板)은 양녕대군이 쓴 것이라고 한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이 현판이 떨어져 없어져서 다른 사람 글씨로 현판을 만들어 달았다. 그런데 다른 현판을 달았더니 떨어져 버렸다. 다시 달면 또 떨어졌다. 몇 번 고쳐 달아도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광해군 때 청파(靑坡) 배다리에 있는 응덩이에 서기(瑞氣)가 비쳐서 그 응덩이를 파 봤더니 양녕대군이 친히 쓴 승례문의 현판이 나왔다. 이것을 갖다가 남대문에 달았더니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승례문의 현판은 그 현판이라고 한다. 훌륭한 사람이 쓴 훌륭한 글씨는 신기한 영검이 있다고 한다.

(임석재, 《한국구전설화》(경기도편), 평민사, 1989, 52~53쪽.)

2. 양녕대군의 호색

양녕대군(讓寧大君)은 세종(世宗)의 장형(長兄)이다. 일찍이 서관(西關)을 오유(遨遊)하겠노라고 고하니, 세종께서 임별에 여색을 삼가하라고 거듭 당부하셨다. 대군은 그 말을 받들어 모시고 떠났다. 임금께서는 관서의 도신(道臣: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려, 대군이 만약 친하게 지내는 기생

이 있거든 치전(馳傳:역전(驛傳)의 역거(驛車).)으로 서울에 올리도록 하였다. 대군은 성교(聖敎)의 엄칙(嚴勅)을 받들어 많은 읍에서 방기(房妓)들을 모두 물리쳤다. 방백과 수령들은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들었는지라 아름다운 기생들을 모집하여 백반으로 야유(揶揄)하도록 시켰다.

대군이 평안북도 정주(定州)에 이르렀는데 어떤 한 기생이 소복을 입고 호곡(號哭)하고 있었다. 대군은 그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 사람을 시켜 몰래 빌미를 만들어 그녀를 부르도록 하였다. 대군은 귀신도 모르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밤에 그 기생과 더불어 친압하고 시 한 구절을 지어 그녀에게 주었다.

명월도 수침(繡枕)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밤바람은 무슨 일로 비단 장막을 걷우는가

이는 대개 은밀하고 유심(幽深)한 뜻을 말한 것이었다.

그 다음 날 도백(道伯)은 역마로 그 기생을 치송하니, 임금께서는 기생에게 밤낮으로 그 시를 노래하여 익히도록 시켰다.

대군이 돌아옴에 임금께서는 그를 맞이하여 위로한 뒤 인하여 말씀하셨다.
“이별할 때 여색을 경계토록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대군이 말했다.

“소신(小臣)이 성군의 가르치심을 삼가 받들고서 어찌 그것을 잊고 감히 여색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형님이 수막(繡幕:수를 놓아 장식한 막. 여기서는 기생집.)이 밀집한 가운데에서도 깊히 삼가하시고 돌아오셨으니 매우 가상하고도 기쁩니다. 구득(購得)한 한 가희(佳姬)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인하여 궁궐 안에 잔치를 배설하고 양녕대군과 친압한 기녀로 하여금 그녀가 받았던 시를 노래불러 술자리를 돕도록 했다. 대군은 깊은 밤에

그녀와 가까이했던지라 처음에는 그 기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 시를 듣고서야 계단을 내려와 땅에 엎드려 대죄(待罪)하였다. 임금께서는 몸소 계단을 내려와 대군의 손을 잡고서 웃었다. 마침내 그 기녀를 대군에게 보냈다.

기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관향(貫鄉)을 알 수 없는 지라 명명하여 ‘고정정’(考定正:살펴서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지금의 이영하(李令夏)가 그 후예이다. 고정정은 미친 종실로 어육(魚肉)을 사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록 삶아서 익힌 뒤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로 물렸다. 그런 까닭에 향간에서는 억지로 바꾸는 것을 ‘고정정 교역(考定正 交易)’이라고 칭했다.

참의 이영하가 일찍이 그의 부인과 더불어 바둑을 두다가 도로 물릴 것을 강청하니 그 부인이 말했다.

“당신이 고정정(考定正)이요? 어째서 매번 도로 물리는 것입니까?”

이영하가 노하여 말했다.

“어찌 바둑 두는 일로 남의 조상을 매도하는 것이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영하가 등제(登第)하자, ‘노처추평’(老妻 推枰:노처(老妻)가 바둑을 두다.)으로 희제(戲題)를 삼았다고 한다.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480~482쪽.)

3. 양녕과 세조의 농담

양녕대군은 비록 실덕(失德)한 것으로 해서 세자의 자리가 폐해지기는 했지만 만년에 가서는 때로 자기 몸을 숨기곤 했다. 세조가 어느날 양녕에게 묻기를,

“내 위무(威武)가 한나라 고조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하니 양녕은 대답하여,

“전하께서 아무리 위엄이 있으셔도 선비의 갓[冠]에 오줌을 누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했다. 세조는 또,

“그러면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것이 양(梁)나라 무제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하고 묻자 양녕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는 아무리 불교를 좋아하셔도 반드시 밀가루로 고기를 만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했다. 세조는 또 물었다.

“내가 간하는 말을 막은 것이 당나라 태종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양녕은 여기에 또 대답하기를,

“전하께서는 아무리 간하는 말을 막으셔도 반드시 장온고(張蘊古)를 죽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했다.

이렇게 양녕은 항상 농담처럼 풍자해서 말하기를 좋아했고 세조도 역시 그의 방탕한 말을 좋아해서 희롱하는 일이 있었다.

양녕대군 제(禔)는 황음(荒淫)하고 아무런 직업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천성은 호탕하고 활달해서 남에게 구속되는 일이 없었다. 평생 동안 자봉(自奉)을 몹시 후하게 하고 주색과 놀고 사냥하는 일 이외에는 하나도 손에 대는 일이 없었다. 그 아우 효령대군 보(補)는 불교에 혹해서 일찌기 불공을 드리면서 양녕대군을 청했더니 양녕대군은 사냥꾼과 활 쏘는 사람, 거기에 누런 사냥개에, 사냥하는 데 쓰는 도구를 싣고 가서 비밀히 토끼와 여우를 잡게 하고서 자기만 와서 불공에 참례했다.

조금 있다가 사냥꾼은 짐승을 잡아다가 바치고 포인(庖人)은 고기를 구워 드리며, 마부는 술을 가져왔다. 효령대군은 마침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하고 있는데 양녕대군은 구운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술을 마시며 태연한 태도를 하고 있었다. 효령대군은 정색하며 청했다.

“형님은 오늘날이라도 술과 고기를 잡숫지 마시오.”

그러나 양녕대군은,

“나는 하늘에서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살아서는 임금의 형이 되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 될 것이다.”
했다.

부처라고 말한 것은, 즉 효령대군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들은 몹시 쾌하게 여겼다.

(허봉, 《해동야언》(이민수 역), 대양서적, 1972, 195~196쪽.)

4. “저 남산에 가서 돌 깨는 첩(釘) 남은 것 없네” / 참소

옛날로부터 향간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런 뜻도 없이 무심하게 생겨난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말을 만들려고 해도 이것이 용납되지 않고 순전히 허실한 속에서 자연히 생겨서 스스로 감통되어 먼저 정해진 참응(讖應)이 틀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 태종조(朝) 때,

“저 남산에 가서 돌 깨는 정(釘) 남은 것 없네.”

라는 동요가 있었다.

이 정이란 돌을 깨는 연장이다. 그러다가 얼마 안되어 남언과 정도전이 죽음을 당했다. 이에 이것을 풀기를,

“남산이란 남은 남언(南言)을 말한 것이요, 정은 정과 음이 같이니 정도전을 말한 것이요, 또 여(餘)자는 우리말로 남언의 음과 비슷하므로 정(鄭)과 남(南)이 없어진다.”

했다. 성종조 때는 “망마다승슬어이라(望馬多勝瑟於伊羅)”

라는 동요가 있었다.

‘망마다’란 상말로 사양하고 끊는다는 말이고 ‘승슬어이라’란 상말로 싫다는 말이니 모두 끊는다는 뜻이다. 이런 동요가 생긴 지 얼마 안되어 성종의 폐비 윤씨를 죄가 있어 폐했다.

(허봉, 《해동야언》(이민수 역), 대양서적, 1972, 374~375쪽.)

5. 일시일호(一匙一呼) 싱거운 계장을

오성대감(鰲城大監) 이항복이 젊었을 때 절에 올라 글을 읽었다. 어느 날 식사에 반찬이 없었다. 오성은 중을 불러 밥상 곁에 앉히고는 한 숟갈을 뜰 때마다 ‘계장’ 하고 부르게 하였다. 중은 시키는 대로 오성이 밥 한 숟갈을 뜰 때마다 한 번씩,

“계장.”

하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대여섯 숟가락을 뜨도록 중이 재빨리 외치자 오성은,

“계는 지나치게 짜니 너무 낭비하지 말게. 너무 낭비할 것 없어.”

하고 조금 느리게 부르라 하였다.

(이가원, 《골계잡록》, 민중서관, 1977, 397쪽.)

6. 창명계곤(創名濟困) / 병역면제(兵役免除)의 길

오성(鰲城) 대감이 북청(北靑)에 귀양살이를 할 때였다. 어떤 교생(校生) 하나가 자주 와서 뵈곤 하였다. 때마침 도사(都事)가 그 고을에 이르러 고강(考講)을 하게 되었다.

교생은 천자문을 옆에 끼고 수강석으로 들어갔다. 도사가 교생에게 기리기 ‘안(雁)’ 자를 읽으라 하였으나 교생은 한참 동안을 괴롭게 생각을 거듭하더니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다. 곁에 있던 반당(伴僮: 서울 각 관아에서 부리는 사환)이 그의 낙강(落講:인조때 군정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본디 군역에 나가지 않던 교생·원생으로 대소과(大小科)에 낙제한 사람을 군적(軍籍)에 넣었음.)을 딱하게 여겨서 가느다란 소리로 약간 가르쳐 주었으나, 우둔한 교생은 끝내 깨닫지 못하기에 반당이 화가 난 끝에 교생을 향하여,

“진짜 노연충(盧蓮蟲)이로군.”

하고 꾸짖었다. 대개 노연충이란 말은 상한(常漢)을 모욕하는 것으로 쓰였다. 이 말을 들은 교생은 곧 목청을 높여,

“노연충(盧蓮蟲) ‘안(雁)’ 자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도사는 크게 해괴하게 여겨 그 교생을 군대에 편입시키려 하였다. 교생은 할 수 없이 곳 오성(鰲城)을 찾아 뵙고 하소연을 하였다. 오성은 그 연유를 묻고서 책망하기를

“네가 글자를 잘못 읽었으니 어찌 좋은 길이 있겠느냐?”

하기에 교생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물러가 버렸다. 그 이튿날 도사가 와서 오성(鰲城)을 뵙고서,

“대감께서 이런 고을에 유배생활을 하시느라 궁색하신데 무엇으로 밥 반찬을 하시는지요?”

하였다. 오성(鰲城)은 서슴지 않고,

“만일에 기사(己沙)가 없었다면 어찌 고기맛을 볼 길이 있겠는가?”

하였다니 도사는,

“기사(己沙)란 무슨 물건입니까?”

“북방 사투리에서는 생치(生雉)를 기사(己沙)라고 한다네.”

“그럼 그 밖엔 다른 반찬거리는 없는지요?”

“비록 노연충이 있긴 하지만, 얻기가 극히 어려워서 한 달에 겨우 한 두 마리에 그칠 뿐이라네.”

이 말을 들은 도사는 잠자코 무엇을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윽고,

“소관(小官)이 그저께 그르친 일이 있었소이다.”

하고 이내 교생에게 낙강(落講)시키던 일을 상세히 말하는 것이었다. 오성은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허이, 청년 명관(名官)이란 앞길이 만리(萬里) 같으니, 아예 억울한 일은 하지 말게.”

하고 주의를 주었다. 도사가 오성을 하직(下直)하고는 곧 동헌(東軒)으로

들어가 문제의 교생 이름을 군적에서 뽑아버렸다.

(이가원, 《골계잡록》, 민중서관, 1977, 622~623쪽.)

7. 숙종대왕, 야수를 다닌 이야기

숙종대왕은 낮이면 정사에 분망히 보내고 밤이면 장안은 물론 서울 근교까지 나가서 순시하였다.

어느 하루밤 임금은 평민복을 하고 서울 뒤골목으로 걸어갔다. 현대 농민옷차림을 한 사람이 배낭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 절름거리고 걷는 품이 먼 곳에서 온 사람임에 틀림 없었다. 대왕은 그의 곁에 가 어디서 오는 길손이냐고 물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삼수에서 왔는데 금상님을 만나보러 왔다는 것이었다. 대왕은 히히 웃으며 그를 보고 물었다.

“대왕을 봐선 뭘하오?”

“소인이 사는 삼수에는 들죽이 많은데 맛이 좋아 들죽을 진상으로 올리려고 배낭에 넣어지고 왔습니다. 현대 금상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이렇게 해맽니다.”

대왕은 그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며 서울길을 걸었다. 그런데 산속에 이르니 한 자그마한 담 안에서 왈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이 담 곁에 서며 삼수농부더러 자기를 목마타고 담 안을 보라기에 대왕의 어깨를 타고 안을 살폈다. 안에서는 건달뱅이들이 투전을 놀다 싸우는 판이었다.

임금은 삼수농부와 이곳저곳 다니다 밤이 깊어지니 그에게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를 데리고 경복궁대문 앞 까지 가서 금상님을 보시려면 내일 아침 이곳에 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튿날 삼수농부는 경복궁대문 앞에서 임금을 만나려고 서 있었다. 늦은 아침 때가 되니 사모 쓴 사람이 대문 밖에 나와서 그를 데리고 궐내로 들어갔다. 그가 바로 어명을 받고 삼수농부를 데리러 나온 전령관이었다.

삼수농민은 어전에 가서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몇 번이나 절을 올리고



진상을 올렸다. 진상을 올리며 용안을 살펴보니 그가 바로 지난밤에 자기와 동행하던 분이였다. 나라에 충성한 삼수농부는 들죽 한 짐 지고 가서 진상을 올린 것으로 하여 벼슬자리를 얻어 가지고 고향에 있는 관직터로 가게 되었다.

(김선평, 《조선족구비문학총서》(三), 민속원, 1991, 410~411쪽.)

8. 과거 급제순

성종(成宗)은 때때로 미행(微行)을 하곤 하였다. 어느날 밤, 눈에 달빛이 비쳐 빛나니 임금께서는 서너 명의 내시(內侍)와 함께 남루한 옷차림으로 행차하였다. 행차가 남산 아래 이르자 때는 바야흐로 삼경(三更)이 지난 후인지라 온갖 소리가 모두 고요하였다. 그런데 산 아래 몇 간 오두막집에서 등불이 명멸(明滅)하였고 책 읽는 소리가 들렸다. 임금께서 복건과 도복 차림으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이 놀라 일어나 임금을 맞이하여 앉게 한 뒤 물었다.

“늬시길래 깊은 밤에 이곳에 이르셨습니까?”

임금이 대답했다.

“우연히 지나다가 독서하는 소리를 듣고 왔소이다.”

그리고 덧붙여 물었다.

“읽는 것이 무슨 책이오?”

“역경(易經)입니다.”

임금께서 그와 더불어 문난(問難: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문의함.)해 보자 노인이 응대하는 것이 마치 물 흐르는 듯 하였으니, 이 사람은 진실로 큰 선비였다.

임금께서 물으셨다.

“연세가 몇이시오?”

“오십여 세입니다.”

“아직도 과거 공부를 그만두지 않으셨소?”

“운수가 기박한 까닭에 여러 차례 과장(科場)에서 낙방하였습니다.”

임금께서 노인에게 사초(私草: 자기 자신이 사사로이 쓴 원고.)를 보여 달라고 청하자 그 노인은 곧 사초를 내어 보여주었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명작이었다. 임금께서 괴이히 여겨 물었다.

“이같은 실력과 재주를 갖추고도 아직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유사(有司)의 책임이오.”

“운수가 없는 소치이지 어찌 유사가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사초 중에서 한 편의 제목과 내용을 암기한 뒤 물었다.

“모레 별과(別科)가 있다는데 혹 듣지 못하였소?”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 명령이 내렸습니까?”

“얼마 전에 임금님으로부터 명령이 있었으니 노력하여 보도록 하시오.”

임금은 작별을 하고 나와 액례(掖隸: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이원(吏員).)를 시켜 쌀 2곡(斛)과 고기 10근을 밖에서 던져 놓고 갔다.

임금은 대궐로 돌아온 후 곧 명령을 내려 별과를 실시하였다. 별과 시험날이 되자 어제(御題)를 지난 밤 유생의 사초 가운데 있었던 제목으로 내걸고 그 글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있지 않아 시권(試券: 시험답안지.)이 들어와 비쳐졌는데 과연 지난밤 보았던 부(賦)가 있었다. 임금이 칭찬하며 상을 내리고 비답(批答)을 많이 내려 그 시권을 제일 잘 쓴 답안으로 삼았다.

탁방(挾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내어 붙임.)할 때 신은(新恩)을 불러들였는데, 장원급제자는 지난밤 보았던 늙은 유생이 아니라 어떤 젊은 유생이었다. 임금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어 보았다.

“네가 이것을 지었느냐?”

“아닙니다. 소신의 늙은 스승의 사초 중에서 제목이 마침 맞는 것이 있어 이를 써서 올린 것이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다.

“너의 스승은 어찌하여 과거보러 오지 않았느냐?”

“신의 스승이 어찌다가 쌀밥과 고기를 포식하고 갑자기 관격(關格: 위급한 병.)을 앓게 되었으므로 과거 시험장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소신이 스승의 사초를 가슴에 품고 온 것입니다.”

임금이 한참 동안을 묵묵히 있다가 그를 물러나도록 하였다.

이는 굶주렸던 뱃속에 임금이 하사한 쌀과 고기를 지나치게 포식하여 병이 생겼던 것이었다. 이로서 보건대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그 유생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55~57쪽.)

9. 백사의 해략

선조 경자년에 백사 이항복이 호남지방을 체찰(體察: 실상을 자세히 살핌.)하였는데, 선조께서 그에게 반역의 정상(情狀)을 기찰하라고 하시니 백사가 계(啓)를 올렸다.

“역적은 조수(鳥獸), 어별(魚鼈)처럼 곳곳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닌지라 기찰하기 어렵나이다.”

사람들은 모두 기담(奇談)이라고 일컬었다.

국법에 관직을 삭탈 당한 자는, 비록 대신이라 할지라도, 급제(及第)라고 호칭하였다.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영의정으로 있다가 삭직되어 급제라고 칭해지고, 백사 또한 그 때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역적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말하였다.

“나의 동접(同接: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은 이미 급제하였는데 나는 어느 때나 급제하려나!”

동쪽 교외에 나가 살고 있을 때 어떤 백성이 찾아와 알현한 뒤 말하였다.

“소인이 호역(戶役)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요!”

공이 말하였다.

“나 역시 호역 때문에 살 수 없을 지경이네!”

그 때 백사가 호역(護逆)했다는 탄핵을 받고 있었는데, 호역(戶役)과 더불어 동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으니 그가 해학을 잘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이 때 국가에 일이 많았는데 해당 관사가 매사를 대신과 의논하여 입계(入啓: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직접 아뢰거나 계장(啓狀)을 올리거나 하는 것.)하였기 때문에 그 번잡하고 혼란스러움을 이기기 힘들 정도였다. 하루는 예조(禮曹) 낭관(郎官)이 수의(收議:각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하는 일로 그 좌석에 있었고, 백사는 바야흐로 생각을 짜내어 대답하고 있는데, 그 때 마침 어린 계집종이 안에서 나와 아뢰었다.

“말에게 먹일 콩이 이미 다 떨어졌는데 무엇으로 먹이를 주지요?”

백사가 질책하였다.

“말 먹일 콩을 계속 쓰는 일도 대신과 의논하여야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자산(慈山) 사람 이춘복(李春福)을 어떤 사람이 고인(告引: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대는 것.)하였으므로 금오랑(金吾郎:의금부도사)이 자산에 이르러 종적을 살펴보니 경내에 이춘복은 없고 이원복(李元福)만 있었다. 금오랑이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니 국청(鞠廳:조선시대에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에서 이원복을 잡아 심문하려 하였다. 그 때 공이 위관(委官)으로 그 자리에 있다가 증론을 보니, 이미 굳게 정해져 깨트릴 수가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자 하여도 무고한 사람이 횡액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므로 이내 말하였다.

“내 이름 또한 저 자와 더불어 서로 비슷하니, 모름지기 글월을 올려 내 자신을 변호해야지만 무사할 수 있겠구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웃었고, 그 옥사는 마침내 그치게 되었다.

그 당시 역적을 다스리는 옥사가 크게 일어나 수사(收司:연좌의 뜻.)의 형틀이 매우 엄하였는 데도 공은 동요하지 않고 한 마디 말로 옥사를 해결 해버렸으니 그를 위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는 반역한 형적이 분명치 않은 데도 거짓으로 자복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공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 일찍이 소나무 껍질을 찢어 떡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사람을 찢어 역적도 만드는구나!”

그의 기상은 넓고 컸으며 해학을 섞었으니, 옥사가 그에 힘입어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무척 많았다.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249~251쪽.)

14. 이양소(李陽昭)의 충절

이양소(李陽昭)의 자(字)는 여건(汝建)으로 고려말 사람이다. 우리 조선 태종(太宗)과 같은 해에 태어났으며 홍무(洪武) 임술(壬戌:1382)년에 또 태종과 같이 진사(進士)가 되었으므로 젊었을 적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다. 혁명이 일어나자 양소는 연천(漣川) 도당곡(陶唐谷)에 은둔하였고 태종께서는 양소의 거처를 탐문하여 몸소 그의 집에 찾아왔다. 술을 마시며 옛일을 이야기하다가 더불어 시를 지었는데, 임금께서 먼저 지었다.

“가을비 반쯤 개고 사람 반쯤 취하노니(秋雨半晴人半醉)”

양소가 즉각 대구하였다.

“저녁 구름 비로소 걷히자 달이 차츰 떠오르네(暮雲初捲月初生)”

대개 월초생(月初生)은 태종이 젊었을 적 사랑했던 계집의 이름이었다. 임금께서 상 밑으로 양소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자네는 진정 나의 옛친구일세.”

명하여 뒷 수레에 타라고 하니, 양소는 굳이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선비들은 양소가 거처하던 곳을 왕림리(王臨里)라고 명명하였는데, 지금

도 어막터(御幕墟), 어수정(御水井)이라고 칭하여지는 곳이 있다.

양소가 처음에 태종과 더불어 곡산(谷山) 청룡사(靑龍寺)에서 함께 공부하였을 때, 그 곳의 산수를 사랑하여 일찍이,

“훗날 이 곳 군수가 되고 싶소.”

라고 말하였었는데 임금께서 그 말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곡산군사(谷山郡事)에 임명하여 이로 말미암아 양소를 불러내려고 하셨다. 그러나 양소는 이번에도 왕명에 응하지 않았다. 태종께서는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그가 거처하던 산을 ‘청화(淸華)’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대개 백이(伯夷)의 청풍(淸風:백이숙제의 높은 품취와 깨끗한 정절(高風淸節).)과 희이(希夷)의 화산(華山)에서 취한 이름이었다.

그 후 누차 불렀어도 나오지 않자 임금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어 그가 살던 곳에 집을 짓게하고 편액을 ‘이화정(李華亭)’이라 하였다. 그러나 양소는 그 곳에 거처하는 것 또한 즐겨하지 않고 깊은 골짜기로 옮겨가 초가 집을 짓고 이름하여 ‘안분당(安分堂)’이라 하였다. 마당에 문행(文杏:살구 나무의 이종(異種).)을 심었고 가야금 타고 독서하는 것으로 여생을 마치겠다 하여 ‘금은(琴隱)’이라 자호하였다. 죽을 때가되자 자신의 명정을 ‘고려진사이아무개’라고 손수 썼다. 태종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차탄하며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 그의 뜻을 굴복시키지 못하였으니, 죽은 후에 관직으로 더럽힐 수 없도다.”

특별히 시호를 ‘청화공(淸華公)’이라고 추증하였다. 또 국사(國師) 무학(無學)을 보내어 장지(葬地)를 택하여 철원(鐵原)으로 장지를 삼으려 하였더니 양소의 아들이 말하였다.

“아버지님께서 유언으로 명령하시기를 ‘내 장지는 연천 지방을 떠나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령이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철원 10리를 연천에 소속시키도록

명하시고, 아울러 그 땅의 전토, 숲, 골짜기 등의 땅을 빙둘러 봉(封)하여 모두 하사하고 수총(守塚)을 두었으며 양소의 아들을 불러 관직을 주었다.

그 때 또 원천석(元天錫), 남을진(南乙珍), 서견(徐甄)이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양소와 더불어 세상을 피하여 새 왕조에 굴복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고려사처사(高麗四處士)’라고 하였다.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263~265쪽.)

11. 권진사가 본 무릉도원의 목멱어(木覓魚)

백문(白門) 밖 권진사(權進士)는 어린 나이에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갔으나 문과(文科)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유람하는 것을 일로 삼았으며 스스로 자장(子長)의 풍취(風趣)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전국을 두루 돌아다녀 그의 발걸음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명산대천과 경치 좋고 조용한 곳, 그리고 이름난 지역은 찾아가 보지 않은 곳이 없었고 어떤 곳은 두 번, 세 번 가기도 하였다.

그가 어느 날 춘천(春川) 기린창(麒麟倉)에 갔는데, 그 날은 바로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가 점사(店舍)에 앉으니, 약림(若笠)을 쓰고 소를 탄 어떤 한 사람이 그 점사에 와서 그 곳의 과부에게 물었다.

“저 방 손님은 어떤 양반이요?”

점사의 과부가 말하였다.

“저 분은 서울에 사시는 권진사님입지요. 8도를 두루 돌아다녀 방방곡곡 유람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저희집에도 세 차례나 와서 머무르셨기에 친국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 양반이 잘 아는 것이 있소?”

“풍수술(風水術)에 자못 숙달하십니다.”

“혹 내가 저 분을 모셔갈 수는 없겠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후 과부가 권진사에게 들어와 고하였다.

“모 촌에 사는 아무개 첨지(僉知)가 진사님께서 재주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지금 진사님을 청하여 모셔가기를 원하니, 진사님께서도 의심하지 마시고 잠시 행차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권진사는 바야흐로 점사에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서 무료했던 터라 대답하였다.

“이 곳에서 멀지 않다면 한 번 가서 노니는 것을 어찌 꺼리겠소?”

이에 아무개 첨지라는 자가 와서 권진사를 뵈고 말하였다.

“진사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지금 소를 타고 왔으니 잠시 누추한 저의 집으로 가시는 것이 어떠하실지요?”

권진사가 말하였다.

“첨지가 거처하는 곳이 이 곳에서 몇 리나 되오?”

“이 곳에서 30리 밖에 있습니다.”

그 날로 소를 타고 갔는데 첨지는 고삐를 잡고 뒤에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정오 무렵이었다. 타고 있던 소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보행하여 대략 3, 40리쯤 갔을 때, 권진사는 첨지에게 물었다.

“영감께서 거처하시는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 하구려!”

“제가 거처하는 곳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몇 리쯤 온 것이오?”

“80리 왔습니다.”

권진사는 곧 몹시 이상하게 여겨 말하였다.

“지금 이곳까지 거의 100리를 왔는데도 마을이 아직도 멀리 있다면, 어찌 허황되게 처음에는 30리라고 말하였소? 영감이 나를 속여 데리고 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오?”

“그럴만한 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점사 주인은 내가 30리쯤 되는 마을에 거처한다고만 알고 있지 내가 거주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일찍이 안 적이 없습니다.”

권진사는 마음속으로는 비록 의아하고 괴이하게 여겼으나 이미 여기까지 와 버린터라 고삐를 돌릴 수도 없었으므로 마침내 오로지 남은 노정만을 바빠 재촉하였다.

대개 저자로부터 30리 이외에는 모두 심산유곡의 암석과 숲길로, 낙엽은 정강이가 빠질 정도로 쌓여 있었는데, 단지 작은 길 하나만 나 있었다. 오후 세네 시 경이 되자 침지가 소를 멈추며 말하였다.

“잠시 내려서 요기나 하고 가시지요.”

권진사는 곧 소에서 내려 물가에 미리 가져다 두었던 도시락밥을 먹고 물을 떠 마신 뒤 다시 소를 타고 갔다. 해는 이미 서산에 지고 시각은 황혼을 향하고 있었다. 잠시 후 멀고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나자 침지가 그에 응해,

“왔네!”

라고 소리쳤다. 권진사가 소의 등 위에서 보니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젊은 촌백성들이었다. 이들이 횃불을 가지고 앞길을 인도하였다. 고개를 넘어 내려가자 어렴풋한 가운데 한 큰 마을이 구령을 온전히 다 차지하고 있었고, 닭과 개 소리,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곧 어떤 집에 당도하여 소에서 내려 문안으로 들어가니 방과 창이 정교하고 깨끗하였으며 용마루와 처마가 앞이 탁 트여 널찍하였으므로 산중 협곡에 사는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 같지 않았다.

그 다음날 문을 열고 두루 살펴보니, 마을 안에 인가는 거의 200여 호 되는 것 같았고, 앞에 펼쳐진 평야는 끝 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양전(良田)과 미토(美土)가 아닌 곳이 없었다. 그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자 20여 리라고 하였으니, 이 곳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밖에 있는 무릉도원이었다. 또 벽을 사이에 둔 대어섯 간의 방안에서는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물어보니, 마을의 젊은이들이 헛되이 낭비하며 놀지 않고, 매년 가을과 겨울을 당하면 낮에는 밭 갈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데, 반드시 이곳에 모여 공부한다고 대답하였다.

권진사가 8도를 두루 유람하면서 무릉도원을 한 번 보았으면 하는 소원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무릉도원을 해후하게 된 지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쁜 나머지 좀 전의 첨지에게 갑자기 공경을 드리며 무릎을 꿇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신선이십니까? 귀신이십니까? 이 마을은 무슨 마을입니까?”

첨지가 놀라 괴이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진사님! 어찌하여 갑자기 경대를 하시오? 나는 별인(別人)이 아닙니다. 선세(先世)에는 본래 고양(高陽)에 거주하였었는데, 나의 증조부(曾祖父)께서 마침 이 곳을 얻어 고향집을 철수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때 동성의 당내(堂內) 지친(至親)과 외가, 처가, 당내의 족속들, 그리고 인아(姻 :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중에서 따라오기를 원했던 자를 포함해 도합 30여가와 더불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곳에 들어온 후에는 세상에 왕래하지 않기로 상의하고, 다만 약간의 경서(經書)와 소금, 육장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땅을 개간하여 논을 만들어 식생활을 해결하였으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곧 이 중에 있는 모든 친족들이 대대로 인척관계를 맺어 문득 주진의 촌(朱陳之村: 서주(徐州)의 주진촌(朱陳村)에 주씨와 진씨만이 살아 대대로 혼인을 하였으므로 양가(兩家)에서 대대로 통혼하는 사이를 주진지호(朱陳之好)라고 하며 그들이 사는 마을을 주진지촌이라 하였음.)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자손이 번성하여 같은 우물을 쓰는 집이 거의 200여가나 됩니다.”

“먹고 입는 것이야 이 안에서 경작하고 베 짜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소금 얻는 일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진사님께서 어제 타셨던 소는 하루에 200여 리를 갑니다. 증조께서 이곳에 들어오실 때 데리고 왔던 소가 낳은 것인데, 이같이 잘 걷는 소를 매년 한 필씩 낳고 있습니다. 이웃 저자에 왕래할 때는 반드시 이 소를 타고 가 소금을 사가지고 오므로 온 마을의 소금은 바로 이 소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고기로는 노루, 사슴, 산돼지, 양 등이 있고 벌꿀통



300여 개가 산 아래 줄지어 놓여 있는데, 별도로 주관하는 사람은 없고 상호간에 양보하며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첨지가 소년들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니 권진사님을 모시고 물고기 잡는 놀이나 하거라.”

그 소년들 중 어떤 소년은 겨와 쪽정이를, 어떤 소년은 뽕죽하게 깎은 막대기를 가지고 일제히 한 못에 모여 물 속에 겨를 풀어 놓아 그것이 아래로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에 소년들은 일시에 몽둥이를 가지고 유영하며 물결을 내리쳤다. 조금 지나니 한 자나 되는 물고기들이 모두 물 위에 떠올랐다. 무슨 고기냐고 물으니 ‘목먹어(木覓魚)’라고 하였는데, 붕어와 비슷하였으나 흰 비늘이 있었다.

권진사는 한 달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동네사람들의 선산까지도 다 구경하였다. 그 마을을 떠나올 때 첨지가 거듭 부탁하였다.

“이 마을은 춘천도, 또 낭천(狼川)도 아닙니다. 이 너른 들 앞에 펼쳐 있는 것이 몇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데다가 사람들이 이 곳에 온 적도 없고 세상에서 이 곳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사님이 이 곳에 이르신 것은 또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 산을 나가신 후에 행여 다른 사람에게 떠들썩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권진사가 말하였다.

“나도 역시 집으로 돌아가 가솔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첨지가 말하였다.

“쉽지 않을 것이외다. 쉽지 않을 것이외다.”

권진사는 산을 나온 이후 늪도록 집에 거처하면서 매양 탄식하였다.

“내 평생에 진짜 무릉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 속세일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까닭에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그 곳에 가지 못하였구나!”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304~309쪽.)

12. 평양 기생의 식감

광해(光海) 말에 평양(平壤)에 한 기녀(妓女)가 있었는데, 나이는 16~7세 가량이었다. 정갈한 몸가짐을 하여 의시(倚市:의문매소(倚門賣笑)의 준말. 문에 기대 웃음을 판다는 뜻으로 옛날에 기녀(妓女)의 생애를 칭할 때 쓰이던 말.)의 자태나 벽에 구멍을 뚫고 답장을 뛰어 넘어 남자와 놀아나는 행동이라곤 없었으며, 기생이 비록 천한 것이지만 마땅히 한 지아비에게 정절을 지켜 종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평양 감영 본부의 비장과 책객(冊客)들이 그녀의 자색에 반하여 매번 그녀를 가까이 하고자 하였으나 만에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녀에게 형벌을 가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녀의 부모에게 칼을 씌워 가두어 놓기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므로 감영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괴물이라고 칭하였다. 그녀의 부모가 남편 될 사람을 매번 구할 때마다 기생은 말하였다.

“지아비는 백년 손님이니 제 자신이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이 원근에 한 번 전파되자 풍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미남자, 풍채 좋은 자, 부호의 부류 아닌 자가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이런 사람들이 기생 집 문전을 가득 채웠는 데도, 기생은 한결같이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하루는 기생이 대동문(大同門) 누각에 앉아 있다가 문 밖에서 땀나무를 지고 있는 노총각을 보더니 자기 아버지를 불러 말하였다.

“저 사람을 반드시 우리 집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녀의 부친은 총각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한심하여져 그녀를 책망하며 말하였다.

“너의 심정은 참 이상도 하다. 너의 자색을 사모하여 반하지 않는 자 없으니, 위로는 사또본관의 별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호장과 책객의 수청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아래로는 아무개 댁 서방님, 아무개 댁 서방님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은 한결같이 모두 원하지 않고, 천하에 흉악한 보잘 것 없는 걸인을 얻고자 하니 이 무슨 심보냐?”

그러나 비록 그녀 부친의 위세로도 딸아이의 성정을 또한 어떻게 해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걸인 녀석을 맞아 남편으로 삼아주었다.

그 후 여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이 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서방님과 같이 상경하여 산업(産業)을 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더불어 상경하여 서문(西門) 밖에 주점을 열어 색주가(色酒家)로 장안 제일이 되었다. 경성 안밖의 호탕하고 부귀한 무리들이 폭주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 때 주당 5, 6명이 왕래하며 술을 마셨는데, 그 여자는 그들이 돈이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고 명령하는 대로 반드시 술을 갖다 바쳤다. 그들은 술빛이 많았으나 한 번도 그 빛을 다 갚은 적이 없었다. 그 주당 중 흑자가 염치없노라고 말을 하면 그녀는 말하였다.

“후일 많이 갚아주시면 됩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그 주당은 묵동(墨洞) 김정언(金正言), 이좌랑(李佐郎) 무리였다. 그녀가 조용히 김정언에게 말하였다.

“이 동네는 저에게 생소한 자들이 많으니 남촌(南村)으로 옮겨 거처하려고 합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나으리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김정언이 말하였다.

“그것 좋으이. 우리들도 멀리 와 술 마시는 것이 상당히 고생스러웠네. 자네가 만약 가까이 온다면 우리들이 반드시 좋은 주인이 되어 주겠네.”

여자는 곧 묵동으로 이사하였는데 하루는 김정언을 보고 말하였다.

“저의 남편은 목불식정(目不識丁)인데다가 언문도 해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술빛을 기록하는 것까지도 매번 분명치 않은 구석이 많으니 바라옵건대 나으리께서 어림에 공부 수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만 주신다면 제가 마땅히 선생으로 대접하여 하루에 한 병의 술을 바쳐 올리겠습니다.”

김정언이 말하였다.

“좋으이. 내일 식전에 책을 들려서 보내게.”

여자는 남편에게 통감(通鑑) 제 몇 권을 사오게 하더니 그 중간 쯤에 표를 붙이며 말하였다.

“서방님께서서는 이 책을 가지고 김정언 댁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십시오. 그 때 선생께서 반드시 처음 장부터 가르치려고 하시더라도 서방님은 반드시 이 표를 붙인 장부터 가르쳐 달라고 청하셔야지 그의 말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남편은 부인 말에 따라 다음 날 아침 책을 끼고 배우러 갔다. 김정언이 말하였다.

“천자문(千字文)이냐? 유합(類合:조선조 때의 한문(漢文) 학습서.)이냐?”

“통감 제4권입니다.”

김정언이 말하였다.

“이 책은 너에게 당치도 않으니 천자문을 가지고 오너라.”

“이왕 가지고 온 것이니 이 책을 배우기 원하옵니다.”

“이 책도 또한 글일지니 방해될 거야 없겠지.”

첫장부터 가르치자 그녀의 남편은 표 붙인 곳을 손수 펼치며 말하였다.

“표를 붙인 곳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김정언이 말하였다.

“반드시 첫장부터 가르쳐 줄 것이다.”

남편이 끝내 김정언 말을 듣지 않고 표 붙인 장을 고집하니 김정언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책으로 후려치며 말하였다.

“천하에 불출한 놈이로고! 도무지 지 마누라 말만 듣는구먼.”

남편은 크게 원망하며 돌아가 처에게 말하였다.

“이후로는 김정언에게 술을 주지 마오. 동냥도 안 주면서 표주박까지 깨트리느라 격이니...”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서방님의 인물이 만약 잘 났다면 어찌 이 같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조금 있으니 김정언이 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녀가 말하였다.

“우리 같은 무리들도 때를 만나면 양반이 되는 것이 가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언이 말하였다.

“잠시 기다리게.”

그리고는 술을 따르라 하더니 마셨다.

그런데 그녀가 표를 붙였던 곳은 광광(霍光:전한인(前漢人). 무제(武帝)의 유조(遺詔)를 받들어 대사마 대장군(大司馬 大將軍)으로서 소제(昭帝)를 도왔으며, 다음 창읍왕이 음란하므로 그를 폐위시켜 중기(中期)의 정치실력자 선제(宣帝)를 세웠음.)이 창읍왕(昌邑王)을 축출하는 기사였으며, 이른바 김정언이라는 자는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였고, 이좌랑은 연양(延陽: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를 가리킴.)이었다. 여자는 반정(反正)의 의론(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잡자는 의론으로, 1623년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옹립하려는 의론을 의미.)이 일어나 장차 성사되리라는 것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통감 제4권을 가지고 먼저 그 뜻을 시험해 보았던 것이고 승평 또한 이미 그녀가 자기들이 모의하고 있는 일을 미리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수일 후에 승평과 제공(諸公)이 과연 반정을 하였고 논공(論功)할 때를 당하여 먼저 평양 기생의 술빔을 말하자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녀 남편의 이름을 물으니 알고 있는 자가 없었다. 승평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그 자는 기축생(己丑生)이라더군. 육갑(六甲)으로 이름을 하면 너무 좋지 못하니 기(起)자 축(築)자로 이름을 지음이 어땠겠는가?”

모두 말하였다.

“좋소.”

그리하여 그녀의 남편은 3등훈에 기록되었고, 곧 한성(漢城) 좌윤(左尹)을 제수받았으며 마침내는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었다고 한다.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405~409쪽.)

13. 이일제의 용력(勇力)

병사(兵使) 이일제(李日濟)는 판서 이기익(李箕翊)의 손자이다. 용력(勇力)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빠르기는 나는 새와 같았다. 어릴 적부터 호방하고 얌매이지 않아 글공부를 하지 않는지라, 판서 공은 늘 그것을 근심하였다. 십사오 세에 이르러 비로소 관례(冠禮)를 치렀을 뿐 아직 장가들지는 아니하였다.

어느날 밤 일제가 몰래 창가(娼家)에 가니 액례(掖隸: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이원(吏員) 또는 하례(下隸).)와 포교(捕校) 무리가 자리에 가득 앉아 술과 음식을 낭자하게 먹고 있었다. 나이 어린 소년인 일제가 술 자리에 곧바로 들어가 기녀와 더불어 희롱하니, 그 자리에 있던 불량배들이 모두 말했다.

“이처럼 무례한 젖내 나는 아이놈은 때려 죽여도 싸다.”

그러더니 때지어 일어나더니 그를 발로 찼다. 일제는 손으로 한 사람의 다리를 잡아서 그것을 몽둥이로 삼고 한 번 휘두르니 모든 사람이 땅에 쓰러졌다. 그러자 그들을 버려 두고 문을 나서 몸을 날려 지붕에 올라 지붕을 따라 달려가는데, 오륙 칸을 뛰어넘기도 했다. 이 때 한 포교가 방로 하러 동료 사이를 빠져 나왔다가 술좌석에서 일어난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지라, 일제를 본 그는 마음으로 몹시 이상하게 여기고, 그 또한 지붕에 올라가 일제의 뒤를 쫓다가 그가 이판서 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포교는 일제를 친히 아는 사람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 일에 대하여 전하니 판서 공이 일제에게 매를 때리고 문밖을 나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친구들을 따라 꽃을 찾으러 남산 잠두봉(蠶頭峯)에 올랐다. 이 때 한량 수십 명이 소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 있다가 일제가 오는 것을 보고 동상례(東床禮:신랑다루기.)를 받아먹자고 합의를 보았다. 그래서 일시에 모두 일어나 그의 소매를 잡아 거꾸로 매달려고 하자, 일제가 몸을 솟구

쳐 뛰어 올라 소나무 가지를 꺾어 좌우로 휘두르니 그들은 일시에 바람결에 쓰러지는 듯 쓰러졌다. 그런 뒤 일제는 산을 내려갔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일에 관한 이야기가 차차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 특별히 천거되어 무직(武職)에 부쳐졌고 지위가 아경(亞卿:경(卿)의 다음 벼슬. 곧 참판(參判)·좌우윤(左右尹) 등을 공(公)·정경(正卿) 등에 상대해서 이르던 말.)에 이르렀다.

판서 조엄(趙儼:(1719:숙종45~1777:정조1) 1763년 통신정사(通信正使)로 일본에 다녀옴.)이 일본에 통신사로 갔을 때 일제를 막빈(幕賓:비장(裨將).)으로 아뢰어, 그와 함께 항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화(失火)로 배 위에 불이 붙어 화염이 창천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도명(逃命)하여 급히 옆에 있는 인명 구급선으로 내려갔다. 또 연이어 구급선에 불붙을 염려가 있는지라 노를 저어 불붙은 배를 피하여 달아났다. 불타고 있는 배와의 거리가 수십 칸 되는 곳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정신을 수습하고 서로 도와 각각 사람 수를 계산해보니 일제 한 사람만이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당황하면서 그가 불에 타 죽었으리라고 여겼다. 조금 있으니,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뱃머리에 서서 바라보니 일제였다. 그래서 배를 멈추고 기다리니 일제가 불 한가운데로부터 몸을 날려 구급선 위로 뛰어 내렸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대개 일제가 술에 취하여 선창(船艙)의 상층(上層)에서 자고 있느라고 불이 난 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 또한 창황 중에 그를 살피지 못했던 것이다. 일제가 잠에서 깨어나 불길을 보고 옆에 있는 배로 뛰어내렸던 것이니, 그의 신용(神勇)이 이와 같았다.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744~746쪽.)

14. 김가(金家)와 채가(蔡家)의 결혼(結親)

영조말에 채생(蔡生)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의 집안은 가세가 빈곤하여

승례문 밖 만리현(萬里峴)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었다. 와사(蝸舍)가 무너져 내리고, 단표(簞瓢:조출한 음식.)조차도 자주 걸렸으나, 채생의 부친은 개제(愷悌:용모와 기상이 화락(和樂)하고 단아함.)하고 성실한지라 편안하고 조용하게 스스로를 지키며 춥고 배고픈 것으로 인하여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엄하게 가르쳐 가통을 잇고자 하여, 하나라도 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 사랑에 빠져 포용하는 법이라곤 결코 없이, 반드시 발가벗겨 승망(繩網) 속에 집어 넣어 서까래 위에 높이 매달아 놓고 난타하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가문의 박복(剥復:난세(亂世)가 극하여 치세(治世)가 되어가는, 치란(治亂)·흥망(興亡)의 이치를 일컫는다.)이 오로지 너의 한 몸에 달려 있다. 혹독한 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찌 허물 뉘우치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채생의 나이는 그 때 18세로 우수현(禹水峴)의 목학구(睦學究:훈장.) 집에 위금(委禽:혼례의 납채(納采)에 기러기를 드리는 일.)하였는데 비록 결친(結親)의 날을 당해서도 책임으라는 과업을 명령하였다. 친영(親迎: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음.) 후 잠자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친은 날을 정하여 허락하였다.

하루는 부친이 채생에게 말했다.

“한식일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구나. 묘제(墓祭)에는 내가 몸소 가야겠지만, 다만 네가 어른이 된 후로 아직 성묘하지 않았으니, 정리(情理)로 보아 모두 편치 않은 일이다. 내일 새벽에 떠나 사흘간 바빠 걸어 백여 리쯤 달리면 가히 기한 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무덤에 도착해서 일을 치를 때에는 모름지기 일개 ‘성(誠)’ 자만을 사용하고 절하고 무릎꿇고 물러서고 다가가는 것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라. 길 가는 중 만약 여자와 상여를 보게 되면 반드시 그를 피하여 돌아보지 말 것이며, 그로써 마음을 가지런히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니라.”

채송은 황송해 하며 명을 받들었다.

다음날 새벽 같이 길을 떠나는데 부친이 또 문 밖까지 나서 부탁하였다.

“먼 길을 걸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 경(經)을 반복하여 암송하도록 하거라. 여관에서는 반드시 절식하여 이수(二豎:병마(病魔).)를 면하도록 힘쓰거라. 힘써 행하도록 해라.”

채생은 입을 가득 벌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남문으로 가 십자가(十字街)를 돌아가는데 갈포옷을 입고 미투리를 신어 그 행색이 초라하였다. 갑자기 5, 6명의 사납고 건장한 노비들이 금색 안장과 수놓은 언치를 한 한 마리의 준마를 끌고와 길가에서 절하였다. 채생은 수치스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져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곧 달아났다. 그러자 노비들이 채생을 단단하게 에워싼 뒤 예를 갖추고 말했다.

“소인의 영감님께서 낭군을 받들어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빨리 말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채생이 의아하여 머뭇머뭇하며 말했다.

“너희들은 어느 집안의 노비이고? 나는 사방 어느 곳에도 현달한 친척이라곤 없는데 누가 이러한 일을 시키더냐? 속히 물러가거라!”

노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힘을 합쳐 채생을 껴서 억지로 말안장에 앉힌 후 말에 채찍질을 가했다. 말은 마치 나는 용처럼 달렸다. 채생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딱 벌린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애절하고 비통하게 사정했다.

“나의 부모님은 모두 연로하시고 형제 또한 없네. 그대는 특별히 자비를 내리어 나의 실낱 같은 목숨을 살려주게나.”

노비들은 못 들은 척 하고 오직 말을 몰 뿐이었다.

이윽고 한 문으로 달려 들어갔다. 무수한 작은 문을 지나니 그 가운데 넓은 집이 웅장하게 서 있는데 제도(制度)가 굉창(宏敞)하고 미각(味覺):인중방과 서까래.)에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여러 노복들이 채생을 부축하여 마루에 오르게 하였다. 마루에는 한 노옹이 머리에 오사 절풍건(烏紗折風巾:검은 깃으로 만든 절풍건. 절풍건은 고깔 비슷한 모자이다.)을 쓰고, 명

주(明珠)를 펜 실은 양 턱에 늘어뜨려 한 쌍의 금관자(金貫子)로 고정시켰으며, 몸에는 대화청금창의(大花靑錦襜衣: 큰 꽃이 수놓아진 청색 비단으로 지은 창의. 창의는 벼슬아치가 일상에 입고 있는 옷으로 소매가 넓고 뒷솔기가 갈라져 있다.)를 입고, 허리에는 홍조아대(紅條兒帶: 8품 이상의 관원이 사복(私服) 차림에 두르는 띠.)를 두른 채, 침향수로 만든 의자 위에 높이 앉아 있었다. 그 곁에는 5, 6명의 아환(계집종.)들이 짙은 화장에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차례로 줄지어 서 있었다. 채생이 급히 주인옹의 무릎 앞에서 절하자, 주인은 채생을 붙들여 일으킨 뒤 인사를 나누고 곧 이어 채생의 성명 문벌 그리고 나이를 물었다. 채생은 일일이 대답했다. 주인옹이 기뻐하며 미소를 움직이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내 그리 박명한 것은 아니구만.”

채생은 본래 우둔한지라 무슨 일인지 자신이 생각해서 풀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오직 얼굴이 온통 빨개져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주인옹을 모시고 앉아 있었다. 주인옹이 말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상서(象胥: 역관(譯官).)로 업을 삼아 지위가 욱되게도 금비(金緋: 당상관의 관복을 비단옷과 옥관자(玉貫子)로써 표상한 것을 일컬음.)에 오르고 가산이 부유하니 어찌 스스로 만족하지 않겠나. 다만 나에게 오직 하나의 딸이 있을 뿐인데, 남의 여피(儷皮: 한 쌍의 가죽.)를 받고 미쳐 합근례(결혼식.)를 치르지도 못하고 사위가 갑자기 죽었네. 청춘공방의 사정이 지극히 가엾으나, 예법상 절개를 지켜야 하고 또 남의 이목도 꺼려져 곧바로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지 못한 채 삼 년이 흘렀네. 전날 밤 딸아이가 갑자기 슬피 우는데, 소리 소리마다 한이 서려 있고, 마디마디 단장(斷腸)하는 듯하여, 비록 길가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아플 정도였으니, 일점 골육으로 온통 그 애에게 의지한 채 살고 있는 내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하루를 참고서 본다면 하루의 근심을 야기시킬 것이고, 백 년을 참고서 본다면 곧 백 년의 낙(樂)이 없을 것이네. 결함 투성이의 세계는 빠르기가 흐르는 물 같아, 비록 사육(絲肉: 풍류와 고기음식.)으로 귀를 깨우

치고, 비단옷으로 눈을 사치하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을 즐겁게 해도 오히려 많이 즐기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여기거늘, 나는 어찌하여 유독 눈물로 일용(日用)을 삼고, 슬프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가계(家計)를 삼아야 하나! 일이 궁박한 지경에 도달했는데도 계책이 나오지 않기에 동복(僮僕)들을 시켜, 새벽에 천구(天衢)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우귀천(賢愚貴賤)을 막론하고 반드시 처음 만나는 나이 젊은 장부를 온 힘을 다해 맞아오게 하여 그로써 가연(佳緣)으로 적승(赤繩:결혼하는 것.)이 주합(湊合:한 곳에 모임.)하게 되었으니 매우 절묘하네. 바라건대 딸아이의 외로운 과부됨을 불쌍히 여겨 그 아이로 하여금 자네의 건줄(巾櫛:아내나 첩이 됨을 공손하게 일컫는 말.)을 받들도록 하여 주게나.”

이 말을 들은 채생은 더욱 어리둥절해져 감히 응낙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인옹이 말했다.

“봄철의 밤은 실로 짧네. 닭이 이미 울었으니 날이 밝기 전에 화촉을 밝히게나.”

그러더니 채생을 끼고 일어나 행각(行閣)으로 이끌고 들어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화원 둘레가 수백 보는 되었으며, 사방이 회칠한 담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담장 안 가득하게 연못을 파 조그마한 배가 그 물가에 대어져 있었는데 3, 4인을 겨우 용납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그 배를 같이 타고 연못을 건넜다. 연꽃의 봉오리가 들쭉날쭉한 지라 지척도 분별할 수 없었다. 이향(異香) 속을 거슬러 올라가니 언덕이 깎아지른 듯 서 있는데, 문채나는 돌을 쌓고 그 중간에 사닥다리를 놓아 언덕 위로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배에서 내려 계단을 다 올라가니 12난간이 있는데 화문석이 빛났으며 주렴의 금박이 빼어나게 영롱했다. 주인옹은 채생을 그 곳에 남겨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채생이 그 곳에서 있으면서 가만히 엿보니 기이한 풀과 바위들, 이름난 꽃과 채색무의의 새들이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 같아, 그 황홀함을 도저히 형상해 낼 수 없었다.

잠시 후 두 명의 청의(靑衣:옛날 신분이 천한 사람이 입던 옷.)가 채생을 맞



이하여 인도하였다. 채생은 그들의 뒤를 따라 한 홍원(紅院)에 이르렀는데, 푸른 색의 사창(紗窓) 안에는 은촉(銀燭)이 환히 밝혀져 있었고 향연(香煙)이 간들거리는데, 이팔 낭자가 월태화모(月態花貌: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이르는 말.)로 곱게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차려 입은 채 방안에 발을 돌우고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사라졌다 오락가락하며, 한 선비가 머뭇머뭇 다가오는 것을 살펴 볼 뿐이었다. 낭자는 연보(蓮步:미인의 걸음걸이.)를 잠깐 움직이더니 아름다운 자태로 다가와 채생에게 공경을 표하고 들어와 절을 올렸다. 채생도 머리를 숙여 답배한 뒤 모피방석 위에 짝하여 앉으니 시중드는 계집종이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데, 방장(方丈:성대한 밥상.)에 옥기(玉器)가 뒤섞여 있었다. 채생은 부끄러워 감히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니 주인이 말했다.

“딸아이의 부귀는 내가 본래부터 소유했던 바이네. 다만 그 아이가 자네를 우러러 모심에 만약 은정이 끊이지 않고 질투를 행하지 않는다면 백년의 부조(鳧藻:환열(歡悅)을 비유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네. 모름지기 자네가 그것을 도모하게나.”

채생은 이번에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주인은 몸을 돌려 나갔다. 한 할머니가 두 개의 비단 핫이불을 칠보 침상 위에 편 뒤 채생에게 휘장 안으로 들라고 청하였다. 채생이 용기를 내어 들어가니 할머니는 또 낭자를 부축하여 채생과 나란히 앉혔다. 그리고 나서 유소(流蘇:오색실로 된 술.)를 내리고 그것을 문채나는 코뿔소 뿔로 눌러 고정시켰다. 채생은 여전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지라 아직 어찌지 못하다가, 완랑(阮郎)의 천태(天台:완조(阮肇)라는 사람이 천태산에 약초캐러 들어갔다가 선녀를 만나 놀았다는 고사가 있음.)로 해석하고, 유의(柳毅)의 동정(洞庭:유이는 당(唐) 이조위(李朝威)가 지은 전기(傳奇) 《유의전(柳毅傳)》의 주인공으로, 그는 동정(洞庭)의 용녀와 짝을 맺었다.)에 스스로 비유하고는, 등잔불을 불어 끄고 베개를 나란히 베고 누우니 그 정애가 애뜻하여 끊어지지 않았다.

해가 삼간(三竿:정오.)에 이르러서야 채생은 비로소 잠자리에서 일어났

는데 자신의 속옷과 상의 그리고 허리띠가 아무 것도 없었다. 채생은 놀
람과 의아스러움을 이기지 못해 낭자에게 물으니 낭자가 대답하였다.

“몸에 맞도록 옷을 짓느라고 감히 몰래 내갔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노파가 무늬 있는 상자를 가지고 들어와 말했다.

“새 옷이 다 되었으니 낭군께서는 나와 입어 보십시오.”

채생이 그것을 바라보니 곱고 귀한 비단옷이 찬란하게 빛났는데 자신의
몸에 꼭 들어맞았다. 채생은 크게 기뻐하며 그 옷을 입고 곧 조찬을 먹었다.

주인이 들어와 그의 기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채생이 머뭇머뭇거리며
말했다.

“어르신네께서 한미한 저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지극한 은혜를
정중하게 베푸시니 오래도록 생관(甥館:사위가 거처하는 곳.)을 탐하여 그로
써 작은 경의라도 표하고 싶지만, 묘제(墓祭)가 곧바로 있고 갈 길은 먼지
라 만약 일각이라도 지체한다면 기한 내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
다. 이에 감히 이별을 고하옵나니 삼가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애걸합니다.”

주인이 말했다.

“선릉(先壟:선조의 무덤.)이 여기에서 몇 리나 되나?”

“백 리쯤 됩니다.”

“험난한 길을 피곤한 걸음으로 간다면 사흘을 허비할 것이지만, 준마로
한 번에 달린다면 만나절의 일정에 불과하네. 그러니 모름지기 이틀만 더
머물러 가게나. 나의 이러한 바람을 외롭게 하지 말기 바라네.”

“부친의 가르치심이 매우 엄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에서 엄체하였다가
종내에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날리며 달려 들어간다면 일이 쉬 발
각나고 말 것입니다. 어르신네께서 재삼 생각하여 주십시오.”

“내 계산이 이미 익히 서 있으니, 안심해도 좋네. 제발 심려하지 말게나.”

채생도 실은 차마 그 곳을 저버릴 수 없었는데 이 말을 듣자 스스로 다
행으로 여겼다.

주인은 채생을 이끌고 산정(山亭), 수사(水榭), 송대(松臺), 죽전(竹田)에 이르러 관광을 즐기며 회포를 풀었는데, 그 개개의 곳이 모두 그윽한 곳에 있는 승경이었다. 주인이 말했다.

“나의 성은 김(金)이고, 관직은 지추(知樞:조선조 때의 중추부의 정2품 무관의 한 벼슬.)이네. 세상사람들이 서로 과장하여 나의 산업이 나라 안에서 제일이라고들 말하지. 그래서 보잘것 없는 내 이름자가 자못 널리 퍼져 있는데 자네도 혹 들어보지 못했는가?”

채생이 말했다.

“거리의 군졸 농사짓는 지아비라도 모두 귀댁의 명성은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뢰로 귀를 씻어내듯 실컷 들었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내가 후사가 없는 인연으로 정원의 수풀에 좋은 풍치를 극진하게 이루어 놓고 성정을 도야코저 했으므로, 경관 좋은 원락(院落:주택 안의 가운데 뜰.)과 누사는 실로 많아 내 분수에 지나칠 정도네. 그러니 세상사람에게 말하여 큰 죄를 얻는 일이 없도록 삼가해 주기 바라네.”

채생은 ‘예예’ 대답하였다.

이틀 동안을 그곳에서 지낸 채생은 새벽에 일어나 길에 올랐다. 수레와 말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하인과 마부들이 무리지어 그를 옹위하였다. 해가 미쳐 기울지도 않아 벌써 추하(楸下: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오리(五里) 되는 곳에 도달하였다. 그 곳에서 채생은 옛 옷으로 갈아 입고 발 감개를 하고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제를 지내고 다시 길에 올랐는데, 채 몇 십 발자국을 걸어 나오지도 않아 이미 거마(車馬)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채생은 다시 비단옷으로 갈아 입고 말을 달려 김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인하여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김씨가 말했다.

“춘부장께서는 자네가 걸어올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을 타고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시네. 백 리나 되는 먼 길을 하루만에 돌아가 틈이 이미

새버리면 보철(補綴)할 수 없네. 이를 밤을 더 묵은 후 돌아가 뵈는 것만 같지 못할 것 같네.”

채생이 향규(香閨)에서 편안히 지내니 새로운 정이 흡족하였다. 기한이 되 이별하는데 눈물이 흘러 얼굴을 적셨다. 남자가 나와 이후의 만남에 대해 물으니, 채생이 대답했다.

“부친의 가르치심이 엄중하여 나가 놀 때는 반드시 방소(方所)를 알려야만 하오. 아마도 봄 가을 묘 제사에 다시 나를 대신 가도록 시킬 것인즉, 그 때 또 한 번 오늘과 같은 만남을 지읍시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세월만 보낼 수밖에…”

남자는 일반 과부라. 말을 나눔에 눈물을 흘리며 난새와 봉황이 이별하는 듯 했다.

채생은 나이가 아직 어려 마음이 어리석은지라 본래부터 화금(火金:부싯돌에 부딪쳐 불을 내는 쇠조각을 의미함.) 주머니를 몹시 가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집안이 워낙 가난해 가지지 못했었는데, 김가(金家)에서 제공한 것은 화려한 자수에 만든 품이 정치(精緻)하여 그 진기함을 애호하였기 때문에 차마 쉬이 놓고 올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본 남자가 말하였다.

“이 주머니를 큰 주머니 속에 감춰 두면 사람들이 추측하여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옛 옷으로 도로 갈아 입고 이 물건만 휴대한다면 몹시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채생은 남자의 말대로 베로 만든 주머니 속에 그것을 집어넣고 귀가하였다.

채생이 복명(復命)하니 부친은 급히 선영(先塋)의 안부를 묻고, 이어 제를 성실하게 지냈는지 태만하게 지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채생은 이에 아주 자세하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부친은 채생에게 즉시 책 읽을 것을 명령하였다. 하루는 부친이 채생에게 내실로 들어가 잠자도록 지시하였다. 채생은 밤이 되자 부인이 거처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깨어진 창, 새는 처마에 바람은 빠속까지 뚫는 듯 매서웠고, 부들자리 삼이불에 벼룩과 빈

대는 매우 치열하였다. 아내는 형차(가시나무비녀.)에 짧은 치마, 때 낀 얼 굴 수척한 모습으로 일어나 그를 맞이하였다. 채생은 조금치도 뜻에 맞는 것이 없어 한 마디의 말도 주고 받지 아니하였고, 생각이 오로지 김씨 집의 난규(蘭閨:부인이 쓰는 아름다운 방.)에만 가 있어, 전날의 행락(行樂)과 노닐었던 일들이 마치 꿈같이 여겨졌다.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운 지라 채생은 원미지(元微之:당(唐)의 백거이(白居易)와 더불어 당시 시단의 쌍벽을 이루었다.)의 시구를 묵송하였다.

일찍이 창해를 지나면 물이라 하기 어렵고(曾經滄海難爲水)

무산을 제외하면 구름이 아니도다(除却巫山不是雲)

채생은 이 시구절이 자신의 신세와 암암리 부합함을 깨닫고 길게 탄식하며, 전전불매하다가 새벽종이 치자 그 때서야 비로소 눈을 부쳤다.

날이 환하게 밝아어도 채생은 깨어나지 못하였다. 아내는 여명(黎明)에 먼저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며 말했다.

“존장(尊章:시부모.)이 평일에는 금슬이 무척 좋고 곡진한 정이 항상 돈독했었는데, 묘소를 다녀온 후로는 홀연히 한결같이 냉락하게 대하니 필시 정을 준 다른 사람이 있어 지난날 좋았던 우리의 관계에 끼어든 것일 게다.”

그리고 나서는 채생의 용색과 의복을 낱낱이 살펴 보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던 베주머니를 보니 전날에는 늘 비어 있었는데 오늘은 가득 차 있는지라 의운(疑雲:의심스러운 사건.)이 점점 가리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몰래 그 안을 살펴보니 과연 한 개의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는 화금(火金)과 화석(火石)이 가득 차 있었고 또 매실 모양의 은화도 들어 있었다. 아내는 이에 크게 분개하여 그것들을 침상 위에 쪽 늘어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만을 기다렸다.

“개 돼지 같은 놈아!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느 겨울에 한 자라도 더 읽

어내겠느냐.”

인하여 문을 열어 젖히고 꾸짖었다. 채생이 놀라 일어나 옷을 추스리는데, 부친이 눈을 돌리다가 침상에 놓여 있는 작은 주머니를 목격해 버렸다. 놀라움과 통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채생을 발가벗겨 노끈 그물에 넣어서 서까래 위에 매달고 힘껏 때렸다. 채생은 이에 고초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일이 사실을 고백하였다. 부친은 이에 더욱 격노하여 길길히 날뛰더니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서는 이웃집에서 한 힘 좋은 심부름꾼을 빌려 그로 하여금 김령(金令)을 불러오도록 시켰다.

김령은 본래 호화로운 사람으로 비록 재집대신(宰執大臣:한 나라의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대신.)이라 한들 앉아서 그를 맞이할 수는 없을진데, 하물며 일개 훈장이 일개 심부름꾼을 보내서야 스스로 올까마는, 한갓 청상과 부인 딸의 귀속(歸屬) 때문에 능멸과 핍박을 감수하고 즉시 말을 달려와 채노인에게 알현하였다. 채노인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사위를 택하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아옹(阿戎:판 사람의 아들.)을 만나 피차가 불행하였음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일ियो. 이제는 흘러간 물ियो 사라져 버린 구름입니다. 양가의 안일을 서로 간섭치 않으면 그만일 것이지 어찌 남의 틈과 허물을 잡아 가지고 고성으로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부친은 이에 응대하지 못했다. 김씨가 즉시 인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말했다.

“진실로 이 후로는 물고기가 호수에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 듯(이는 ≪莊子≫에 나오는 말로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의 존재를 잊어버리듯이 구애받음 없이 자유스러운 것을 말한다.(魚湖相忘))하여 삼가 서로 핍박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표연히 가버렸다.

일 년이 흘러간 어느날, 김령이 비를 무릅쓰고 채노인 댁으로 왔다. 채씨 노인이 말했다.

“지난 날 굳게 약속했거늘 오늘은 무슨 일로 나의 뜰을 지나가는 것이요.”

김씨가 말했다.

“마침 교외에 나왔다가 갑자기 퍼붓는 비를 만났는데 이 곳에는 달리 아는 사람이 없길래 감히 귀택에 들어온 것이오. 잠깐 폭우를 피하고자 하니 만망컨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채노인도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오랜 비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 울적한 기분을 씻어낼 수 없었는데 당신을 만났으니 우리 한담이나 나눕시다.”

김씨는 예를 갖추어 매우 공손하게 하였고, 담화가 자세하여 마치 소의 털이나 누에실처럼 빈틈이 없고 조리가 정연하였다. 그렇지만 가부(인척(姻戚), 즉 결친을 의미한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채노인이 평생 좇아 노닌 대상은 춘 학당의 수재(秀才)들에 지나지 않아, 종일토록 그들과 접해 말을 나누어도 서로 빈궁함을 다투는 것이 마치 한 판에 도장찍은 듯이 판에 박혔었는데, 김씨의 말주변이 박식하고 시원시원하며 위엄이 있는 데다, 아침하는 미소로 좋은 낮빛을 하고 대하는지라, 채노인은 그를 크게 좋아하고 심취하게 되었다. 김씨는 그 뜻을 가만히 알아채고, 즉시 종복을 불러 말했다.

“내가 달려왔더니 배가 고프다. 전대 안에 있는 음식물을 빨리 가져오너라.”

종복이 곧 좋은 안주와 맛있는 음식을 올렸다. 김씨는 술을 대백(大白: 큰 술잔.)에 가득 부어 무릎을 꿇고 채노인에게 올렸다. 채노인은 위가 열리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 진실로 꿀꺽꿀꺽 마시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짐짓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가 말했다.

“술잔을 서로 권하는 것은 본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황차 우리는 만난지 이미 오래고 안면 또한 익히 익었는데, 같이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혼자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채노인은 말이 막혀 술을 받아 마셨는데 한 번에 잔을 다 비워버려, 가슴에 막혔던 돌덩이 같은 것을 다 씻어버리니, 평소 장을 메우고 있던 나물신(나물의 신)이 맛있는 고기음식에 채여 부서졌는지라, 취안(醉眼)



이 마치 조수 같았고, 가슴깊이 품은 회포가 흩어져 명랑해졌다. 김씨가 실컷 즐긴 뒤 돌아가려고 하는데 채씨 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좋은 술친구입니다. 꼭 자주 왕림해 주십시오.”

김씨가 말했다.

“오늘은 하루에서 내린 비 덕택에 다행히도 대작할 수 있었지만, 저는 공무와 사사로운 일로 종일토록 분주합니다. 어떻게 몸을 빼내 다시 올 수 있을런지요.”

채노인은 문 앞까지 나가 김씨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취한 채 방에 들어와 가족을 모아놓고 잠시 동안 김공의 좋은 점을 성대하게 칭찬하더니, 곧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채노인은 어제 되넘기 당한 것을 자못 후회했지만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씨는 몰래 집안 사람을 시켜 채생 집안의 동정을 엿보도록 시켰다. 하루는 그 사람이 돌아와 고하였다.

“채생의 집에서는 닳새 동안 불을 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드러누워 있는데 그 경상이 비참하여 보는 사람의 가슴을 메이게 합니다.”

김씨는 이에 채생에게 편지를 보내고 수십 공방형(孔方兄:엽전(葉錢)의 이칭.)을 보냈다. 채생의 온 집안 사람들이 기뻐 날뛰며 급히 음식을 마련하고서 노옹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빌린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채옹에게 음식을 올리니 그는 굶주림을 채우는데 급했던지라, 자세히 물을 겨를도 없다가, 하루 이틀 다시 끼니를 염려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괴상하게 여기고 연고를 물었다. 채생은 그 연유를 모두 갖추어 대답하였다. 채노인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차라리 구렁에서 뒹굴지언정 어떻게 앉아서 명분 없는 물건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미 지나간 것은 다시 토해 내기 어렵고 또한 값을 길이 없지 만 이후로는 삼가 계율을 깨트리지 말아라.”

채생은 ‘예예’ 하고 대답하였다.

어언지간에 돈이 떨어지고 전과 같이 주리게 되었어도, 채노인이 본래

그 성품이 면밀하지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라 산업을 꾀하지 않았다. 채생과 모친이 동서로 달리고 아래에서 주워 위를 보충했지만 일년이 지나서는 모두 힘겨워 했고 결국에는 빛이 산적하고 사망이 호흡에 압박하게 되었다. 김씨가 또 탐지하여 그러한 채씨 집안의 사정을 알아내고는, 이에 다시 열곡(十斛) 쌀과 백금(百金) 돈으로 그들을 살려 목숨을 이어가게 했다. 채생이 어찌 부모님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것을 차마 볼 수 있으리오. 마음과 폐가 불타는 듯했고, 병경뇌치(鉶磬黽恥 : 병(鉶)은 빈민을 지칭하고 뇌(黽)는 왕을 비유하여, 백성의 빈곤은 왕의 치욕이 된다는 의미이다.)라, 비록 분료통 메는 고용살이를 한다 한들 어떠한 일도 마다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호의로 원조를 보냄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 채생은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 부친에게 음식을 풍부하게 차려주었다. 부친은 바야흐로 흥미한 중에서 괴롭고 피곤하여 오직 음식 먹는 것만을 탐하고 있었는데, 채생이 며칠 동안 계속 기름진 음식을 공급하자 이내 병이 나았다. 그 후로도 계속해 맛있는 음식으로 조양(調養)해 주자 채노인이 물었다.

“이 음식물은 누구에게서 마련했느냐?”

채생은 그 자세한 사정을 고하였다. 부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령은 어찌하여 다급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구해 주시고, 차후로는 결단코 받지 말아라. 만약 받는다면 태형을 가할 것이다.”

채생은 이에 또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베계를 높이 베고 누워 음식물을 먹으며 5, 6개월 간 계옥(桂玉: 땀나무와 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비축해 놓았던 식량이 다 떨어지자 슬프고 고통스럽기가 전보다 열배는 더 하여 고초로 허다한 세월을 보냈다.

채노인은 기일에 당했어도 빈조(제사용품.)가 모두 없으니 사정이 매우 꺾박하였다. 방 구석에 앉아 온갖 계책을 내느라 마음을 태웠다. 그 때 문득 한 노복이 궤미돈 이백 냥을 싸 가지고 와 채생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

그 노복은 김씨 집안에서 기르는 자였다. 채생은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거절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부친이 말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급한 경상을 보고 제사비용을 돕겠는데 전부 거절하는 것은 정의상 옳지 않다. 반은 돌려주고 반절만 받는 것이 진실로 중도에 적합할 것 같다.”

채생은 부친의 명에 따랐다.

다음날 김씨가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와 채생에게 주었다. 채생은 이에 또 거절하고자 하니 그 부친이 말했다.

“이미 익힌 음식물이니 낭패스럽게 돌려보내지는 말아라. 금번은 염지(染指:숫가락을 솥 속에 넣어 국물 맛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물건을 옳지 못하게 가지는 것을 일컬음.)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차후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도록 하여라.”

인하여 맛있는 음식을 성대하게 벌려 놓고 서로 더불어 먹었다. 온 집 안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음식을 칭찬하는 소리가 우뢰소리 같았다. 김씨가 은근하게 채노인에게 술을 권하니 채노인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 마셔 곧바로 흠뻑 취하기에 이르렀다. 채노인은 김씨에게 문경지우(刎頸之友:죽고 살기를 같이하여 목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친한 사귄.) 맺는 것을 허락하며, 또 채생을 가르쳐 말하였다.

“너와 김씨 집안의 규수는 본래 초 나라와 월 나라의 사이처럼 멀었으나, 문득 진(秦) 나라와 진(晉) 나라의 사이 같은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만약 하늘이 준 인연이 아니라면 어찌 이 같을 수 있었겠느냐? 네가 끝내 그녀를 소홀하게 버리어 남의 평생을 절단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밤은 무척 길하니 그 규수에게 가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계속 머무르지는 말아라.”

채생은 이에 크게 기뻐서 ‘예 예’ 하며 그의 말을 따랐다. 김씨는 채노인에게 두 번 절하여 충심으로 사례하고 급히 청백색의 얼룩말에 태워 채생

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혹 채노인이 그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변할
까 두려워 한 나머지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채생이 돌아오니 채노인이 어제 했던 이야기를 전혀 기억
하지 못하고 괴이하게 여기며 물었다.

“너는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관대(冠帶)를 했는고?”

채생은 이에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채노인은 후회스러움과 부끄러움으
로 얼굴을 붉히며 채생의 죄를 책망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채생에게 일
임하여 그 하는 바를 들어도 규각(圭角:말과 행동이 모아서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일.)을 드러내지 않았고, 의식과 제사는 모두 김씨에게 의뢰하게 되
었고, 김씨는 또 매일 술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곡진하게 하였다. 채노인
은 일찍부터 가난을 근심하여 머리가 일찍 희어졌는데, 무릇 앉아서 옷
차려 입고 놀고 먹으며 게다가 날마다 어울려 술을 실컷 마심에 이르러서
는 자못 자적(自適)함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고해(苦海)같
이 여겨져 몸에 좁쌀이 돋았다.

하루는 김씨가 종용(從容)하게 다가가 말하였다.

“공의 아들이 저의 집에 왕래하는 것이 점점 남의 눈에 거리끼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발을 끊어 주었으면 합니다.”

채노인이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마땅히 우리 며느리를 몰래 맞이하여 집안에 감추어 놓겠소.”

김씨가 말했다.

“공의 아들은 나이 젊은 포의(布衣:벼슬이 없는 사람.)로 위로는 정위(庭
:부모가 계시는 방. 곧, 부모라는 의미.)가 있고 아래로는 정실(正室)이 있
니 결단코 집안에 잉첩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노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묘책을 생각해서 우미한 저에게 가르쳐만 주시오.”

김씨가 말했다.

“귀댁의 곁에 집 한 채를 따로 지어서 편의대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

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고견(高見)은 어떠하신지요?”

채노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집을 높이 짓지 말고, 비복을 많이 거느리지 말 것이며, 광을 풍부하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안의 청빈함과 간소함을 지켜주시오.”

김씨는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 재물을 모아서 기와집을 세웠는데 그 구역에서 제일가는 집을 지어 놓으니, 그것은 채노인의 뜻과 몹시 어긋났다. 채노인은 어찌할 수 없었으나 때때로 혀를 차며 계속 김씨를 꾸짖었다. 김씨가 말했다.

“집이란 자손을 기르는 곳입니다. 가만히 보건데 족하께서는 옥주(玉朱)를 가슴에 품었으면서도 아직 세상에 팔지를 앓은지라 자부(子婦)로 하여금 마땅히 그 보답을 받게 할 것이니, 어찌 고대문려(高大門閭)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채노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나무라기를 그쳤다.

집이 완성되자 낙성을 하였다. 김씨는 저녁에 채생의 집으로 딸아이를 보내 시부모를 예알(禮謁)토록 했다. 그녀는 새로 지은 사옥에 거처하며 사흘간은 소연(小宴)을 베풀고, 닷새간은 대연(大宴)을 베풀어 그로서 시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안팎의 종복들에게 모두 환심을 얻었다. 채생이 그 모친에게 고하여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하시며 함께 황혼기에 임박하셨으나 소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배움이 없는지라 봉격(奉檄:부모가 있는 사람이 고을의 원이 되는 기쁨.)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돌아보건데 지금 일분(一分)이라도 정성껏 봉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새 집으로 옮기어 거처하시게 한 뒤 편안히 부귀를 누리시도록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원하옵건데 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모친이 말했다.

“내가 만약 그 곳으로 옮기어 거처한다면 김씨 집안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채생이 말했다.

“이것은 김령과 측실의 뜻입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말을 전하여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모친은 자못 수궁할 뜻을 가졌다. 그래서 채노인에게 그 사실을 다 갖추어 말하니, 채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지기(志氣)가 지나치게 쇠하여 쓸데 없는 소리까지 하는구려.”

그 처가 노하여 말했다.

“내가 존장을 따르면서부터 도산검수(刀山劍水: 아주 험하고 위험한 지경을 비유한 말.) 일찍이 하루라도 근심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입고 먹는 것을 의지할 데를 얻어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마음을 놓게 되었으니, 차부(次婦)의 은혜가 실로 큼니다. 게다가 또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남은 생애를 봉양코자 하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굳이 따르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채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가시오. 나는 마땅히 궁색한 집을 지키겠소.”

채생의 모친은 날을 택하여 새 집으로 옮겨갔다.

채생의 부친이 때때로 그 새 집에 가 볼 것 같으면 수십 명의 종복들이 문 앞에서 맞이하여 절하고 좌우에서 웅섭하여 곧바로 별당(別堂)으로 들어갔다. 별당은 부친을 위해 일부러 크게 지었으니 혹시라도 오시면 머물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것이었다. 별당 안에 들어가면 도서(圖書)가 시렁에 가득하고, 화죽(花竹)이 돌계단에 피어 있으며, 사령(使令)들이 앞에 가득하여 응대하는 것이 마치 물흐르듯 하였다. 들어가 노처를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날이 저물도록 앉아 있다 누워 있다 하면서 차마 버리고 갈 수 없었다. 종내에 억지로 집에 돌아오면 허물어져 가는 집 몇 칸이 여전히 스산할 뿐이었다. 채노인은 스스로 생각하였다.

“여생이라곤 얼마 남지도 않아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순간에 불과할

텐데 어찌 용렬하게도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 이 같은가?”

급히 채생을 불러 말했다.

“내가 홀로 빈 집에 거처하면서 너에게 붙어 먹고 있으니 오히려 폐가 되는구나. 또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도 만년이라 더욱 어려우니, 새 집에서 함께 지내며 단란하게 살고자 하는데 네 뜻은 어떠하냐?”

채생은 크게 기뻐하였다. 채노인은 그 날로 새 집으로 옮겼고 집안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곧 부곽(負郭:성내에서 가까운 곳.) 십무(十畝)를 문서로 만들어 채생에게 주었다.

채생은 바야흐로 집안에 얹매일 것이 없게 되자 오직 과업에만 종사하여 얼마 있지 않아 과거에 급제하였고, 공명이 세상에 빛났다고 한다.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541~560쪽.)

15. 청수동 설화(鄭壽銅 說話)

가깝게 지내던 조두순(趙斗淳)의 잔치에 초대받은 정수동이 솥을대문을 들어서니, 사람들이 어린애가 동전 한 닢을 삼켰는데 창자에 동전이 붙으면 죽게 된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이 때 그가 나서서 사랑에 모인 대감들이 들으라는 투로,

“걱정할 것 없네. 아랫배만 슬슬 쓰다듬어주면 그만일세. 어느 대감은 남의 돈 몇 만 냥을 삼키고도 배만 쓸고 있으면 아무 일 없는데, 까짓 제 돈 한 닢을 삼키고야 무슨 배탈이 나겠는가!”

하고 소리를 쳤다. 대감들이 이 말에 흠칫하였으나, 이윽고 술잔이 돌고 유흥이 무르익자 초대감이 좌중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냐고 물었다. 어느 대감은 호랑이라 하고 도둑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대감이 나서더니,

“양반의 호령 한 마디면 호랑이도 잡고 도둑도 잡을 뿐 아니라, 양반네의 명령에 누군들 꿈쩍하겠소. 그러니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양반이오.”



하며 좌중을 둘러보자, 잠자코 있던 정수동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를 탄 양반도둑입니다. 가슴에 호랑이(옛날의 호패)를 달고 온갖 도둑질을 자행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삼천리강산을 망치니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소!”

라고 하여 좌중을 숙연하게 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1990, 822쪽.)

16. 정수동의 공짜 소입

고려 유명헌 한량, 부자집—저 뭘 그 뭐 정승판서 자식덜, 그저 뭐 오입쟁이—아무리 한량이라두 그 당채 이—옥션이래는 그 명기한테를 아무리 오입을 해두 듣지 않았답니다. 워낙 절색이구 가무 고음 잘 허구… 근데 정수동이 인제 그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 그게 어떤 여잔데 그래 서울에 한량들이 그래 응, 대감집 도련님—도련님들두 오입을 못허구 그러나? 내가 한 번 해 보지.”

그 뭐 정수동이 건달 아니겠습니까? 그 김선달이 모냥으루. 그럼 이제 괴나리봇짐에다 이 돌을 그냥 잔뜩 집어 넣구 인제 괴나리봇짐 해 가주구 갔답니다. 가서 인제,

“술상을 차려 오라.”

구 그리구 거기서 뭐 자라 소리 이 놈이 못허는 거지. 빈털터리구 뭐…

그래 하루밤 이제 잘 먹구선,

“나 혼자 자겠다.”

구 그래 벽장 속에다 이제 인제 그거 은덩어리라구 해구선 인제 벽장 속에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 무겁구 하니까, 은덩어리루 알밖에? ‘아, 이—저 사람이 은덩어리 잔뜩 집어 넣었구나,’ 그래 아침에,

“나 볼일 좀 있다.”

구

“저 은덩어리 벽장 속에 는 거, 그냥 두구 나 어디 좀 장안에 볼일 좀 보구 오겠노라.”

구 그러구서는 일부러 한 이삼 일 있다가... 자, 이 옥선네 집이서는,

“아, 이거 은덩어리는데 그걸 꼬낼 순 없고 아무리 술값이라두 뭐 오신다 그랬으니 그거 오시겠지.”

한 삼 일만에 인제 밤중에, 인제 뭐 한 열두 시 자정 돼 가주구서는 급히 아주 문 두들기구,

“빨리 보파리 달라.”

구

“아이, 돈 많은 은덩어리 보파리 달라.”

구

“아니 들어와 하루밤 주무셔야지, 그냥 가서?”

“아냐.”

“아, 왜 말 못해?”

“꿈용 꿈용.”

이게 ‘꿈용 꿈용(두 손가락으로 코를 싸 쥐며 코 멘 소리로) 꿈용 꿈용...’

옥선이 다시 붙잡아서 ‘아, 이거 그 용꿈 끈대는 거는 그 말 그 꿈용 함부로 안하는 건데, 저 양반이 용꿈을 꿔구나. 응, 그래 말 안허구(코를 잡고 코 멘 소리로) 꿈용 꿈용...’

“꿈용 꿈용. 보파리 보파리.”

그래 자 은덩어리 있지. 용꿈 꿔지.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하여튼 들어오쇼.”

안 들어가겠단니까 인제 억지루 먼저 들어가주군 아니 술상 잘 차려 놓구,

“아, 여기 왜 그냥 가실라 그러냐?”

“아이, 나 빨리 집일 가야 된다.”

“그래 꿈용이 무슨 말이나?”

“아이, 그 얘기 허믄 안 된다.”

그래 응큼스럽게 인제…그 꿈용 짜(字)려니 했으니깐 이 걸 용꿈 끈 건 지 알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아, 이 집이 가야 돼. 집이 마누라하구 인제 용꿈 꿰 가주구 아들 이제 낳겠다.”

그거지. 인제. 그런 걸 옥선이가,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아이, 나 집이 가야 된다.”

구

“아이구, 집이 가야 되는데…”

뭐, 이제 거— 거기서 인제 옥선이 명령으루 하루밤 자구선… 뭐—뭐 잘 놀아 줬겠쥬. 그 무슨 은덩어리— 무슨 은덩어리야. 새벽에,

“나 빨리 집— 또 집이 또 가야 된다.”

구 그래 외박 한 번 하구, 그 놈 돌덩어리 그냥 놔두구서 정수동이 오입했다 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두 그 기지(機智)예요? 오입두 기지라고요.

(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 1-4(의정부시. 남양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33~735쪽.)

17. 꺾꺾 선생과 이순풍

꺾꺾 선생 이순풍이가 그 동네 장사를, 십오 세 된 사람이 장사를 하러 저 아래개를 갔는데, 여럿이 갔는데 삼 년을 걱정했는데, 이 꺾꺾 선생한 테다설랑에 점을 하고들 야단인데 꺾꺾 선생 점 값이 삼십 전이더라. 그 런데 이 저저 흠어머니 아들인데 단 살림살이를 죄해도 이십— 열 냥밖에 안되어. 열 냥밖에 안되는데 가서 점을 해달라니깐 댓 냥이 모자란다고 안 해 주더라. 그러니까루 메뉴리가 물을 길러 가다가서는 하는 말이,

“우째 오셨다 가느냐?”

구, 그러니까루,

“아이, 그런 그런게 아니라 선생님한테루 점을 하러 왔더니 댕 냥이 모
자라서 열 냥을 가져 갔더니 안해 줘서 간다.”

구. 그러니깐 물둥이를 내려 놓군,

“내가 점 쳐준다.”

구. 그래 점을 치다는,

“음! 아무 날 아무 시에 들어올 텐데 그저 정성을— 깨끗하게 정성을 하
구 그 날 비가 많이 올 꺼여. 비가 많이 올 텐데 우더지를 틀어서 끼구 자
다가설랑에 밤중에 놀란 곁에 일어나서 ‘무슨 잠을 이렇게 깊이 자느냐?’
구 냅다 끌어서 동장머리를 치라.”

구. 그러더라여. 그래설랑에 와서는 인제 참 그 날이 돌아왔는데, 참 빨래
도 깨끗하게 하고 집안도 죄치고, 정수 한 둥이를 내다가 마당 가운데다
놓구 녹음이 지놓구 이러서는, 들어와서는 터두지를 틀어서 이렇게 끼구
자다가 밤중은 한 예 냅다 우더지를 집어 내던지면서 이렇게 급한데 무슨
잠을 이렇게 자느냐구 내트리라고 그러더라. 그래 내트렸어. 그라군 그
이튿날 점심 때 들으왔단 말이야, 아들이. 다른 사람은 못 오고.

“그래 다 같이 셋이 오다가서는— 무인지경에 오다가 집도 없더라. 아
무것도 없는데, 비는 퍼붓고 저물긴하고 그러는데 이런 바우가 있더라는
군 그랴. 그 바우 밑에 가서 셋이 웅크리고 자는데, 어머니가 아무개를 부
르더니 손목을 잡아 내트리는데 뛰어나가 보니깐 바우가 텅텅 무너지더라
구. 그래 그 사람은 다 죽었다.”

구. 그러더라여. 그래 꺾꺾 선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아, 그 놈 꼭 죽
을 놈이 돌아왔잖어?

그래서 에이 내가— 가만히 점을 쳐보니깐 아, 메뉴리가 점을 해주지
않았어? 에이 메뉴리를 죽일라고 칼을 쓱쓱 갈지. 칼을 가니까루 메뉴리
가 가만히 앉아 점을 쳐보니깐 아, 시아버지가 절 죽일라고 칼을 갈잖아.
에이, 도망을 가자. 어디쯤 도망을 가니깐 못— 못논들을 매는데, 팽가릴
뚜드리가 놓구 못논을 매지.

“여보세요! 내가 저 도랭이 밑으로 들어갈 테니 도랭이를 덮어 농구설랑에 그 위에다가 장구를 올려 놓구 고 놔에다가 넘어 서다가서는 물 한 사발을 떠 놔 달라.”

구, 그러더라. 그러니깐 이지 거기 가서 씨러지구는 도랭이를 덮구, 장구를 올려 놓구 그 넘어다가는 사발 하나를,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구는 못 논들을 매지. 아, 그래더니 참 칼을 들구 쫓아 오잖어. 광곽 선생이 쫓아 오는데,

“여기 여인네 하나 가는 거 봤느냐?”

니깐,

“못 봤다.”

구.

“음! 못 봐. 음! 여기 장구고개가 있소?”

“장구고개 있다. “

구.

“장구고개 잔등에 떠받이 있소?”

그러니깐,

“사발우물 있어요.”

“에이, 그 사발우물에 꼭 빠져 죽었겠다.”

구, 도루 갔어. 가서는 메뉴리 죽은 귀신이 미서워설랑에 북을 달아 놓구 그냥 경을 읽어. 경을 뺏다 읽는데 메뉴리가 밤에 들어왔어. 들어와서 뉘편을 꺾꺾 찌르면서,

“여보! 아버님이 날 죽은 지를 알고 저렇게 경을 읽는데, 아버님은 다 산 노인네구 나는 이팔 청춘 아니요? 내가 살아야 하오? 다 산 아버님이 살아야 하오? 두 가지를 농구 생각을 해서 아버님 돌아가시게 하면 지금 저렇게 신이 올라서 뚜디리는데, 마당에— 저 마루 밑에 물을 한 대야 떠다 놓구서 지금 하는데, 그 물양푼을 둘러메치며는 그냥 모두 팔만 신장이 웅위를 해설랑 아버님을 모셔 갈 게라.”

구, 그러거든,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깐, 아낙은 참 이팔 청춘이구, 즈 아버지는 다 살았거든. 나와서 대야를 댈다 메트리니깐, 아 지 아버지가 빠드러졌잖아.

죽었대. 그래설랑에, 그— 즈 아버진 장사 지내고, 그 아들이 이저 내우 사는데 메누리는 이순풍이구,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곽곽 선생이여. 곽곽 선생, 이 순풍이. 그 경 읽는 데 산통 흔들잖아요?

산통 흔들면 곽곽 선생, 이순풍이를 넣어 가지구 흔들어 경을 읽는데. [조사자 : 그렇죠.] 그래 이렇게 흔들어 가지구서는 그게 점괘 빼 가지구서는 이러구 이러구(산통 흔드는 모습을 하며) 또 하구 이렇게 세 번을 흔들잖아?

(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1-9(용인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476~478쪽.)

18. 허생전

허생은 목적골에 살았다. 바로 남산 밑까지 고추 당고 보면 거기는 우물턱 우에 늪은 살구나무가 섰고 바람비를 가리우지 못하는 두어간 초가집이 이 나무를 향하여 사립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 집 주인인 허생은 글 읽기를 좋아하고 그의 안해는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 호구를 하였다.

하루는 그 안해가 배가 고파 못 배겨 눈물을 지으면서,

“당신은 평생에 과거 한 번도 못 보고 글은 읽어서 뭇 하겠소?”

라고 하였다. 허생은 웃으면서 말한다.

“내가 아직 글을 못 다 읽었소.”

“그러면 재인바치질이나 해보지요.”

“재인바치질은 본디 배운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 장사라도 해야지요.”

“딱한 말이요. 미천 없는 장사를 어떻게 하겠소.”

안해는 화를 बार 내면서 바가지를 긁었다.

“그래! 밤낮 없이 글을 읽어 배웠다는 것이 고작 ‘어떻게 하겠소’란 말 뿐이요? 재인바치질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러면 도적질이라도 못할 것이 뭐요?”

허생은 책을 덮고 일어서면서,

“애석하구나. 내가 당초 십 년 동안 글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했더니 금년이 칠 년이렸다.”

허생은 말을 남기고 사립을 나섰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지라 곧추 운종가(雲從街:서울의 종로거리.)로 갔다. 그는 거리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다.

“한양성 중에 갑부가 누구요?”

변씨가 제일가는 부자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 그는 되잡아 변씨 집을 찾았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넋지시 읊을 하고는 다짜고짜로,

“내가 집이 가난한 터라 잠깐 시험삼아 해볼 일이 있어 그러니 임자는 나에게 돈 만 냥만 돌려우.”

“중소! 그러시우!”

란 말 한 마디뿐 선 자리에서 만 냥을 내여 주었다. 허생은 끝내 한 마디 인사말도 없이 가버렸다. 옆에 있던 변씨의 자제들과 문객들은 허생을 속절 없는 비렁뱅이로 보았다. 허리띠는 헤어져 속 실이 이삭 패듯 나왔고 가죽신 뒤턱은 찌그러지고 갓모자는 주저앉고, 중추막 자락은 구질구질, 멀건 콧물이 뚝뚝 들었다. 비렁뱅이 손이 간 뒤에 모두들 눈을 휘둥거리면서,

“주인장은 대관절 그 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네.”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돈 만 냥을 허공대 놓고 던져 내 주시면서 성명도 안 물어보시니 대체 웬일이시요?”

“자네들이 모르는 말일세. 대체로 남에게 아쉬운 사정을 말하는 자는 언제나 제 의사를 떠벌려 먼저 신의를 자랑하면서도 어디로 그의 얼굴빛은 비굴하고 이야기는 중언부언하는 법이네. 그러나 아까 그 손님이 비록

옷과 신발이 허술하기는 하나 말은 간결하고 눈초리에 뱃심이 나타나고 얼굴에 수집은 빛이 없으니 이런 이는 재물이 없어도 자족(自足)하는 사람일 것이네. 그가 시험해 본다는 일이 필시 작은 일이 아닐 터이니 나 역시 그 손을 한 번 시험해 보겠네. 안 주면 몰라도 돈 만 냥을 기워 줄 바에야 성명은 알아서 무엇할 것인가.”

하였다. 허생은 돈 만 냥을 얻어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안성(安城)은 경기도 충청도의 접경이요, 삼남의 길목인지라 허생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허생은 대추, 밤, 감, 배, 석류, 감자, 굴 등속을 싯가의 뱃값으로 무역해 두었다. 허생이 무역해 쌓아 둔 뒤로 국내에서는 잔치이고, 제사에 소용할 과일이 없어져서 허생에게 뱃값을 받아 갔던 장사치들이 이 번은 십 배 값을 내고 되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이것을 보고 긴 한숨을 짓고 말하기를,

“돈 만 냥으로 이렇게 판을 치게 되니 우리 나라의 바닥을 짐작할 수 있구나!”

하였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마포, 백목 등 피륙을 가지고 제주로 들어가 말총을 있는 대로 끌어 모으면서 말하기를,

“몇 해를 못 가서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 동이지 못할 걸!”

하였더니 과연 얼마 안 되어 망건 값이 십 배로 뛰어 올랐다.

허생은 어느 날 바닷가로 가서 늙은 사람을 보고 물었다.

“바다를 멀리 떨어져 나가 살만한 빈 섬이 없을까?”

사공의 대답이,

“있소이다. 일찍이 제가 풍랑에 불려 바로 서쪽으로 사흘 동안을 표류해 가서 어떤 빈 섬에서 밤을 묵었는데, 아마도 사문(沙門)과 장기(長崎) 어간인 듯 합디다. 꽃과 나무가 제 혼자 피고 나무열매, 풀 열매가 제 혼자 익고, 사슴이 떼를 짓고 물고기가 놀라지 않았습디다.”

“자네가 길잡이를 하계나. 나와 같이 부귀를 누릴 거네.”

사공은 그 말을 좇아서 즉시로 좋은 바람을 맞아 동남으로 향하여 그 섬

에 닿았다. 허생은 높은 둔덕에 올라 한참 바라다보더니, 서글픈 기색으로,

“땅이 천 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 볼 것인가. 그래도 흙이 기름지고 샘물 맛이 좋으니, 넉넉한 집주인 늙은이 노릇하기에는 알맞겠구나!”

하였다. 사공이 있다가,

“사람 없는 빈 섬에 누구와 함께 살 것입니까?”

“덕이 있는 곳에 사람이 붙는 법이거든! 덕이 없음을 걱정할 일이지 사람 없는 걱정이야 할 것 없네!”

하였다. 이 때에 변산(邊山)에는 ‘도적 떼’가 수천이나 몰려 있었다. 지방 관청에서는 군사를 풀어 놓아도 잡을 수가 없었으나 ‘도적 떼’도 역시 나와서 노략질을 못하고 방재 주려서 곤경에 빠졌던 터에 허생은 그들을 찾아갔다. 허생은 대뜸 물어서,

“자네들은 여편네들을 가졌나?”

“없소이다.”

“그러면 논 밭을 가졌나?”

도적들은 비웃으면서,

“여편네가 있고, 논밭이 있을 바엔 무엇이 답답해서 도적질을 하겠소.”

허생은,

“그럴 일이다! 그러면 왜 장가를 들어 집을 짓고 소를 사고 농사를 지어 살아서 도적이란 이름을 면하고 앉아서 부부의 낙을 즐기고 나가서 쫓기고 붙들릴 걱정이 없이 기리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게 살지를 않는가?”

여러 도적들은,

“어째서 이 짓을 말다 하겠소. 다만 돈이 없대요.”

허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들은 도적질을 하면서 어째서 돈 걱정을 하나. 내가 자네들을 위해 변통을 해 주겠네. 내일로 바다에 나가보면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모두 돈 배일 터니 마음대로 가져들 가게!”

허생이 ‘도적 떼’와 약속을 하고 간 후에 도적들은 모두들 미친 사람이

라고 비웃었다. 그 이튿날이 되어 ‘도적’ 들은 바다에 나가보니 허생이 돈
이십 만 냥을 싣고 왔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래져 죽 늘어서 절을 하면서,
“그저 장군의 명령대로 하오리다.”

고 하였다. 허생은 그들에게,

“그저 힘대로들 지고 가게나.”

고 했더니 이 때야 여러 도적들이 다투어가면서 돈 짐을 지는데 애달프게
도 한 사람이 백 냥 더는 지지 못했다. 허생은,

“자네들이 힘이 부족해서 백 냥밖에 들지를 못하니 그러고야 무슨 도적
질을 하겠나. 비록 자네들이 지금에 양민이 될려 해도 이름이 도적 명부
에 실려 있음에야 돌아갈 수도 없구나. 내가 여기서 기다릴 터이니 자네
들은 각각 백 냥씩만 가지고 가서 여편네 한 명, 소 한 마리씩만 데리고
오려무나.”

여러 도적은 ‘네.’ 하고는 다 흩어져 갔다. 허생은 이천 사람이 한 해 동
안 먹을 양식을 자신이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도적들은 한
사람 남김 없이 다 돌아 왔다. 이내 함께 배에 싣고는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이같이 ‘도적 떼’를 몰아간 후 나라에서는 마음을 놓게 되었다.

섬에 도착한 그들은 나무를 베여 집을 짓고 대를 엮어 바자를 만들었
다. 아직 손도 대보지 못한 생땅이라 백 가지 씨앗이 무성하고 묵발 새발
도 없이 한 줄기에 아홉 이삭씩 여물었다. 당년에 삼 년 먹을 양식을 저장
하고는 남은 곡식을 몽땅 배로 싣어 장기로 가서 팔았다. 장기란 땅은 일
본의 속주로서 호수가 삼십 일만인데 때 마침 큰 흉년이 들었던 터에 이
곡식을 풀어서 은 백만 냥을 얻었다. 허생은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내가 이제는 시험을 좀 해보았구나!”

이 때야 허생은 남녀 이천 인을 죄다 불러 놓고 말하되,

“내가 처음 자네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 온 후 먼저 살림살이부터 풍족
하게 만든 후 따로 글자도 만들고 의관도 만들 작정을 했더니 땅은 작고 또
내 덕이 박한지라 나는 오늘로 떠나겠네. 아이를 낳거든 오른 손으로 술을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먼저 난 이계는 사양해서 먼저 먹일 것이다.”

다른 배들을 죄다 불 사르고는,

“안 가면 못 오겠지!”

하였다. 은 오십 만 냥을 바다에 던져 집어 넣고는,

“바다가 마를 때는 가지는 자가 있겠지! 백만 냥이라면 온 나라에서도
용납할 수 없을 터인데 더구나 작은 섬에서랴!”

글 아는 자를 모두 함께 배에 태워서 데려 내고는,

“이 섬만이나마 화근은 끊어야지!”

라고 했다. 온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과 의지할 데 없
는 사람들을 고루 구제하고 났으나 아직도 십만 냥이 남았었다.

“응! 이 돈은 변씨에게 갚아야 되겠군!”

하고는 변씨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기억하겠소?”

변씨는 깜짝 놀라서,

“당신의 얼굴 빛이 옛날보다 조금도 나은 데가 없으니 만 냥 돈을 치패
보지나 않았소?”

허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재물 때문에 얼굴이 돋보이는 것은 임자네들 일일 갓소. 만 냥이 어찌
서 도적을 살찌울 수야 있겠소.”

이러고야 은 십만 냥을 변씨에게 내어 주면서,

“내가 한 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글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당신 돈
만 냥을 꾸게 되어 미안하오.”

변씨는 깜짝 놀라 일어서 절을 하고는 사양하면서 십일조의 이자만 받
겠다고 하니 허생은 대로하여,

“임자는 어찌서 나를 장사치로 불고!”

하고는 옷을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뒷밭만 밟아 따라가 바라
보니 그 손은 남산 밑으로 가서 어느 오막살이집으로 들어 갔다. 웬 늙은

노파가 우물 독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 변씨는 물었다.

“저 오막살이집은 뉘 집인가요.”

노파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허생원 댁입니다. 허생원은 집이 가난한데다가 글읽기를 좋아 하더니 하루 아침은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은 지가 벌써 오 년이나 되 었답니다. 그 마누라가 혼자 남아 있으면서 그가 집 나간 날을 제사 날로 정하고 제사를 지낸답니다.”

변씨가 비로소 그 손님의 성이 허씨인 것을 알고는 한숨을 짓고 돌아왔 다고 한다. 변씨는 그 이튿날로 받은 은을 죄다 가져다가 줄려니 허생은 사양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백만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가지겠소. 나 는 오늘부터 당신을 의지 삼아 살 터이니 당신은 가끔 나를 보살피 식구 에 따라 양식을 보내 주고 몸을 재서 옷감이나 보내 주면 일생을 이것으 로 만족하겠소. 누가 재물 때문에 마음을 괴롭히겠소.”

변씨는 허생을 백방으로 달랬으나 필경 어쩔 수 없었다.

변씨는 이때부터 허생의 살림살이를 대증하여 군색할만 하면 언뜻 자신 이 용전을 가지고 가서 주군 했다. 허생은 흔연히 받다가도 혹시 더 올 때 가 있으면 장이 좋지 못해서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재액을 보낸단 말이요.”

술을 가지고 갈 때는 매우 좋아하면서 서로 권커니 취하도록 마셨다. 벌써 몇 해를 두고 정분을 날로 두터워져 변씨가 한 번은 조용히 문기를 오 년 동안에 어째서 백만 냥을 벌었더냐고 했더니 허생은 말했다.

“이것이야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은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 록이 국내에 다니지 못하므로 백물이 제 바닥에서 나서 제 바닥에서 자자 지거든요. 무릇 천 냥 돈이란 그리 많은 재물이 못 되므로 그리 많은 물건 을 도거리로 살 수는 없고 보니 이것을 열로 쪼개면 족히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지요. 물건이 가벼우면 옮기기가 쉬우므로 열 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 물건이 비록 꼴리더라도 아홉 가지 물건이 떠나가면 이익이 서로 보충될 터이니 이것은 이익을 보는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나 좀스러운 장사 방법이지요. 무릇 돈이 만금이 되면 족히 물건을 다 끌어 모을 수 있으므로 수레에 실으면 온채 수레가 되고 배에 실으면 온 배에 실을 수 있고 고을로 치면 한 고을을 도맡을 수 있어 그물의 코처럼 물건이란 물건은 모조리 끌어들일 수 있지요. 육지에서 나는 물건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통거리로 사두든지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재화 중에 한 가지만 통거리로 사두든지 만 가지 약재 중에 한 가지만 통거리로 사둔다면 한 가지 물화가 꼬리를 감추자 백 명의 상고들은 손속히 말라들 것이니 이는 백성을 해치는 장사 방법으로 뒷날 세상이라도 일 맡은 자가 이런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좀 먹을 것이요.”

변씨가 묻기를,

“애초에 당신은 무엇으로써 내가 돈 만 냥을 낼 줄 알고 나를 찾아와 청했던지요?”

“꼭 당신만이 내게 주었을 것이 아니라 만 냥을 가진 자라면 안 주어낼 수가 없지요. 내 자신의 짐작으로 내 재주라면 능히 백만 냥은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마는 운수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내가 어찌 꼭 알 수야 있었겠소. 그러매 나를 부리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일 터라 반드시 부한테 더욱 부할 것도 역시 하늘 운수겠지요. 이려고야 어찌 돈을 꾸어 주지 않겠소. 벌써 돈을 꾸 다음에는 돈 임자 복을 빙자 삼아 장사를 했으므로 손만 대면 성공을 하게 되었으니 만약에 내 자신의 돈으로 했다면 성공과 실패를 단정 못할 것이요.”

변씨는 다시 말하기를,

“방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의 치욕(청군이 침략한 병자호란을 가리킴.)을 설분코져 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지사로서 한 번 팔뚝을 걷고 지혜를 짜낼 때입니다. 당신 같은 재주로 무엇 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세상 모르게 파묻혀 있습니까.”



“예로부터 자취 없이 숨어 있다가 사라진 사람을 쫓아보아 어찌 능히 적국에 사신으로 갈만한 인물로 누더기 속에서 늪어 죽은 조성기(趙聖期) 같은 인물에 한할 것이며, 전쟁이 나면 군량을 이어 댈만한 인물로 바다 구석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죽은 류형원(柳馨遠:반계정사.) 같은 이에 그치겠소. 오늘에 나라 정치를 맡아보는 사람들이야 알만 하지요. 나는 결국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요. 버린 돈은 능히 구왕(九王:청태조의 14자로 청조 창건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예친왕.)의 머리를 살 수 있었지마는 이것을 바다 속에 던지고 온 것은 돈이 쓸데가 없었던 까닭이래요.”

변씨는 후유 하고 한숨을 쉬고 나갔다. 변씨는 본디 이완(李浣) 이 정승(政丞)과 사이가 좋았다. 이완은 당시 어영대장(御影大將)으로 있었는데 일찍이 그는 변씨에게 요즘 시정 여염에 파묻혀 있는 뛰어난 재주가 있는 자로 함께 큰 일을 할만한 인물이 없을까 하고 말한 적이 있었다. 변씨가 허생 이야기를 했더니 이 공은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런 인물이 있을까. 이름은 뭐라지?”

“소인과 삼 년 동안을 같이 지냈지마는 끝내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공은,

“그는 틀림 없이 이인(異人)일세. 그대와 함께 가보세.”

하고는 이완은 밤을 타서 탈 것과 하인들을 물리치고 혼자 변씨와 함께 도보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세워 두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찾아온 사연을 죄다 이야기했더니 허생은 들은 척도 않고는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옆구리에 차고 온 술병이나 끌러 놓소. 한 잔 맛있게 먹읍시다.”고 하였다. 변씨는 이 대장이 한데서 오래 섰는 것이 민망하여 여러 번 귀뜸을 했으나 허생은 듣지 않았다. 밤이 깊어서야 허생은 손을 불러들이라고 하였다. 이 대장이 들어와도 허생은 앉은 채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 대장은 어색하여 몸 가늘 바를 모르고 이내 국가에서 어진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자 허생은 손을 설레설레 흔들면서,

“밤은 짧고 이야기는 길어 듣기 지루하구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지?”

“대장이올시다.”

“그러면 너는 즉 국가의 신임 받는 신하로구나. 내 마땅히 와룡선생(臥龍先生)을 추천할 터이니 네가 능히 임금께 청하여 세 번씩 그 오막살이를 찾도록 할까?”

이 대장은 고개를 드리우고 한참 있다가는,

“어렵습니다. 다음 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아직 다음 계책은 배운 것이 없다.”

이 대장은 그래도 자꾸만 물었다. 허생은,

“명 나라 장사들이 조선에 대하여는 목은 은혜가 있다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들 몸을 빠져 조선으로 와서 홀아비 신세로 이리저리 유랑하고 있으니 네가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고루 시집보내고 훈척 세가들의 저택을 빼앗아 그들을 들도록 할까?”

“어렵습니다.”

고 하였다. 허생은,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고만 하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 가장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들려주십시오.”

“무릇 대의를 천하에 소리치려고 할진대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남의 나라를 치려고 하면서 먼저 간첩을 쓰지 않고는 성공한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만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고나서 중국과는 친하지 않다고 자인하고 있지만은 조선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그들에게 복종한 까닭에 그들은 조선을 신뢰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옛날 당 나라 원 나라 때 모양으로 조선의 자재들을 보내어 유학과 벼슬을 시키고 상인들의 출입을 마음대로 하도록 청한다면 조선이 자기들에게 친해지는 것을 즐겨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청년

자제들을 뽑아 머리를 깎고 되복을 입히고 선비들은 과거를 보이고 평민들은 강남 지방 까지 멀리 장사를 나가도록 하여 이 나라의 허실을 엿보고 지방의 호걸들과 결탁을 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요, 국치를 설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만약 주씨(朱氏:성이 다른 제후국가.)의 나라가 되기는 어렵잖을 것이다.”

이 대장은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조심스리 지키고 있으니 누가 머리 깎고 되복색 입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허생은 화를 버럭 내면서 꾸짖기를,

“그래! 소위 사대부라는 게 대체 무엇이나. 오랑캐 땅에 나서 자칭 사대부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나. 아래 우 입성을 소복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 상복이 아닌가 머리를 쥐여 묶어 뼈죽하게 꼳았으니 이거야 남방 오랑캐의 복상투가 아니냐 무엇이 예법이란 말이나. 번오기(繁於期:진시황이 잡아 죽이려던 장수로 연나라 태자 단(丹)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갈 때 진시황의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번 오기의 머리를 베어 가고자 청했을 때에 번 오기는 언뜻 자기 목을 베어주었다.)는 자기의 사사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자기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진국시대 조나라 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는 되복 입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금에 명나라를 위하여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머리칼 한 오리 까지 아끼고 앞으로 장차 전장에 나가 말을 달리고 칼을 내두르고 창을 쓰고 돌을 날릴 궁리를 한다면서도 그 놈의 넓은 소매를 그대로 두는 것이 소위 예법이란 말인가. 내가 세 가지 계책을 말하였으되 너는 한 가지도 들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도 네 입으로 조정의 신임 받는 신하라고 하니 대체 신임 받는 신하 꼴이 이렇단 말이나. 이 죽일 놈 같으니!”

하고는 좌우를 돌아보면서 환도를 찾아 찌르려고 드니 이 대장은 대경失色하여 벌떡 일어나 뒷바라지를 차고 뛰어나가 갈광질광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허생의 집을 가본즉 허생은 사라지고 빈 방만 남아 있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는 명나라 유민(遺民)이라고도 한다. 송정 갑신년 뒤로 명나라 사람들이 많이들 나와 살았다. 생(生)도 혹시 그렇다면 그 성은 허씨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는 조 판서 계원(趙判書 啓遠)이 경상 감사가 되어 순행차로 청송(靑松)에 왔을 때 길 옆에 웬 중 두 명이 서로 마주 베고 누웠었다. 앞선 자가 쫓아가서 고함을 쳤으나 그들은 피하지를 않고 채찍으로 쳐도 일어나지 않아 여럿이들 붙들어 끌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공이 이르러 가마를 멈추고는 어디 사는 중들이냐고 물었다. 두 중은 일어나 앉아 한결 더 뻗뻗한 태도로 눈을 흘기고 한참 동안 있다가 하는 말이,

“너는 허장성세를 하고 추세를 한 덕에 고을 자리를 얻은 자가 아니냐!” 고 하였다. 조공이 중들을 보니 한 명은 붉은 상관이 둥글고 한 명은 검은 상관이 길었다고 한다. 말하는 태가 자못 범상치 않아 가마에서 내려 그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중은 말하기를,

“따르는 자들을 물리치고 나를 따라오라!”

고 하였다. 조 공은 몇 리를 따라가노라니 숨은 가빠지고 땀은 자꾸만 흘러 좀 쉬어서 가기를 청했더니 중은 화를 내어 말하기를,

“네가 평소에 여러 사람들과 있으면서는 언제나 흰소리를 하면서 몸에는 갑옷을 입고 선봉을 맡아서 명 나라를 위하여 복수 설치를 한다고 떠들더니 지금 보아 몇 리 걸음도 못 걸어 한 자죽에 열 번 혈떡이고 다섯 자죽에 세 번을 쉬려고 하니 이려고야 어찌 요동과 계주(桂州) 별관을 말을 타고 달릴 것인가?”

라고 하였다. 어떤 바윗돌 아래까지 닿으니 거기는 나무에 기대어 집을 만들고 뿔나무를 쌓고는 그 우에 자고 있었다. 조 공은 목이 말라 물을 청하니 중은,

“응! 귀인이라 또 배도 고프겠지!”

하고는 누른 좁쌀떡을 내어 놓고 소나무 잎으로 가루를 내어 개천 물에 타서 주었다. 조 공은 이마를 찡그리고 마시지 못하고 있으니 중은 또 다

시 꾸짖되,

“요동 별은 물이 귀하거든! 목이 마르면 응당 말 오줌이라도 마셔야지!”
하고는 두 중은 마주 부둥켜안고 엉엉 울면서,

“손 대감! 손 대감!”

이라고 외치고 조 공에게 묻되,

“오삼계(吳三桂)가 운남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강소 절강 지방이 소란한
것은 네가 아느냐?”

고 하였다. 조 공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니 두 중은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네가 방백의 몸으로 천하에 이런 큰 일이 있겠마는 듣지도 못하고 알
지도 못하고 함부로 큰 소리만 쳐서 벼슬자리만 얻었을 뿐이구나!”

조 공은 대관절 중들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중은,

“물을 필요가 없다, 세상에는 역시 우리를 아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는
여기 앉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꼭 같이 와서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하고는 일어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 조금 뒤에 해는 지고 오래 지나
고 중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 공은 밤늦도록 중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밤은 깊어 풀 나무는 우수수 바람소리가 나면서 범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조 공은 기겁을 하고 거의 까무러쳤다. 여럿이 들은 횃불을 켜들
고 감사를 찾아왔다. 그리하여 조 공은 거기서 편잔을 당하고 골짜기 속을
빠져 나왔다.

이 일이 있는 지 오래 되어도 조 공은 언제나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불
안하여 가슴 속에는 한을 품게 되었다. 후일 조 공은 이 일을 우암(尤庵)
송(宋) 선생(태조 현종 때 학자 송시열.)에게 물었더니 선생은 말하기를,

“이는 아마도 명 나라 말년 총병관(總兵官) 같이 보이오.”

“언제나 나를 깔보고 ‘너’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 나라 중이 아닌 것을 밝히려는 거요. 땀나물을 쌓
아둔 것은 와신상담(臥薪嘗膽)을 한다는 뜻일 거요.”

“울 때는 손 대감을 찾으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태학사 손승중(孫承宗)을 가리키는 것 같소. 승중은 일찍이 산해관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청군과 싸운 적이 있었으니 두 중은 아마도 손승중의 부하일 것도 같소.”

(박연암, 《열하일기(하)》(리상호 역), 국립출판사, 1957, 91~109쪽.)

19. 고가(古家)의 귀신(鬼神)

서울 남부(南部) 소공동(小公洞)에 신막고(申莫古)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원 주인은 판 사람이고, 신막고가 이 집을 빌려 들었다.

그런데, 이 집은 항상 남을 빌려 주는 집이오, 원 집주인은 살지를 앓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집에 귀신이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귀신이 있는 까닭에 배겨나지를 못하고 자꾸 이사를 하였던 것이다.

신막고가 이 집에 드니, 역시 귀신이 나타나는데 여니 사람과 같이 말을 통하는 것이었으나, 그 형체만은 보이지를 앓았다.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 들어와서 말하기를,

“주인 영감. 이제부터는 소인이 주인 영감을 모시겠으니 무엇이든지 일을 시키십시오. 모두 청하시는 대로 하여 올림쇼.”

하는 말 소리만 들리는 것이다.

신막고는 이 말을 듣고, 괴상히 여기며, 귀신에게 말하기를,

“누구인지 형체를 못 보겠으나, 그대가 나의 소청을 듣고 주인 대접을 한다니 고마우이 그러면, 오늘 쌀이 없으니 좀 구하여 주겠나?”

이렇게 청하여 보았다.

“그야 이를 말씀입니까? 주인 영감의 말씀이라면 일부분 시행입죠. 그러나 한 가지 올릴 말씀은 소인이 양이 커서 불시에 배가 고프니, 어느 때든지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 말만을 남겨 놓고 대문 소리가 나더니, 어디론지 사라지는 것이었

다. 물론 몸은 일체 보이지를 았았다.

얼마 있다가, 끽끽하는 소리가 나면서 대문이 열리더니, 쌀 한 말을 마루 위에 갖다 놓는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인 영감. 쌀을 얻어 오느라고 아주 시장하여 죽겠습니다. 밥 세 그릇만 주십시오.”

하는 말 소리다.

신막고는 쌀을 얻어 오는데, 그 재주에 놀랐으나, 마침 신막고 내외가 밥을 다 먹고 없었던 터이라,

“쌀을 갖다 준 것은 고마우나, 우리 내외가 밥을 다 먹고 난 후라, 줄 것이 없으니, 이따 저녁에나 주겠으니 그리 알고 기다리게.”

이렇게 말을 하니,

“그러면, 소인이 갖어 온 쌀은 도로 보내겠습니다. 잔말 마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쌀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도 하고 대문이 삐걱 삐걱하기도 하며, 솥뚜껑이 솥 안으로 들어 가기도 하여 집안이 난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에 이 소란을 참을 길이 없어서, 신막고의 아내가,

“여보, 보이지 않는 양반. 어디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곧 밥을 지어 줄 것이니, 소요만 좀 부리지 말아요.”

하고, 애걸을 하니, 그 때에야,

“그럼 기다릴 터이니 곧 밥을 지어 주십시오. 기다려도 안 지어 주면, 이번에는 흙을 퍼서 마루에나 방에나 모두 끼얹을 것이요.”

하는 말 소리만이 들리고, 곧 조용하여 지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신막고의 아내가 밥을 속히 지어서 밥 세 그릇에 국 세 그릇, 그리고 나물 세 그릇을 상에 놓아 주니,

“그러면, 잘 먹겠소이다.”

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국 먹는 소리가 나더니 삼시간에 다 먹어 치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귀신의 청을 들어 주지 않으면 당장에 괴이한 짓을 하여 소요를 부리는 것이었다. 신막고 내외가 평상 위에 누워서 잠을 자는 데도 귀신은 그 밑으로 들어가서는 이 소리 저 소리로 쓸데 없이 떠드는 것이었다.

이에서 괴롭게 생각한 신막고는, 그만 이 집을 옮기려고 생각하고, 귀신에게 말하기를,

“여봐라, 여기 너의 집에 있는 지 벌써 몇 달이나 되나, 너의 목소리는 들었으되 지금 너의 모습은 못 보았으니, 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벽에다 그려 보아라.”

하고 청하니, 귀신이 대답을 한다.

“주인 영감이 저의 얼굴을 보시면 반드시 놀라시리다. 그래서 주인 영감을 놀라게 하거나 또는 무서워할까 해서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귀신의 말을 들은, 신막고는,

“상관 있느냐? 한 번 그려라도 봐라.”

하고, 간청을 하였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벽 위에 한 그림이 보이는 것이었다.

신막고 내외는, 가슴을 조이면서 벽에 있는 얼굴의 형상을 보니, 과연 괴이한 꼴이다.

그 그림은, 머리가 돌이고, 눈이 넷이며, 뼈죽하게 내민 뿔이 괴상하게 뻗었고, 입이 쪽 찢어졌으며 코가 큰 것이, 그것이나마 찌그러져 있다. 그 뿐이 아니라, 눈동자가 빨간 것이 마치 피가 내뿜은 것만 같아서 그 무서운 형상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신막고가 얼굴을 가리고서,

“이야, 어서 씻어 버리라. 볼 수 없다.”

하고, 소리치니 벽에 그려져 있던 무시무시한 얼굴이 당장에 없어져서 한 점도 남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후에는 신막고 내외는 항상, 그 얼굴을 머리에 그려 보고는,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몰래, 신선의 술법을 닮는 방사(方士)를 찾아 가서 물었다.

“여보십시오, 내가 사는 집에 귀신이 있어서 온갖 도섭을 부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죽일 방도는 없을까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 주시는 셈 대시고 그 귀신을 없애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니, 그 방사가 말하기를,

“귀신은 먹기를 좋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자꾸 음식을 달라 하거든 몰래 들쥐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여라. 그러면, 반드시 먹고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지시를 하여 주었다.

신막고는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 들쥐를 잡아서 고기를 구어 현판 위에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과연 귀신이 전날과 같이 대문 소리를 빼격하고 내면서 들어오더니,

“아이구 시장해, 아이구 배 고파, 펍, 오늘은 아주 멀리까지 갔다 왔더니, 어찌 배가 고평지 뭘 모르겠어요. 주인 영감님이. 소인에게 먹을 것을 좀 많이 주श्य. 잔뜩 먹을 테이니, 많이 주श्य.”

하고는 시장하다고 법석이다.

이 말을 들은 신막고는 귀신을 반기어서 말하기를,

“어서 오게. 먼 데를 다녀 왔다니 얼마나 시장하겠나? 우연히 맛있는 고기가 생겼기로 얻어 놓았으니, 실컷 먹게나. 고기 한 번 못 주어서 미안하던 터일세.”

하고는, 고기를 내어 주니, 귀신은 멋도 모르고는 덩석, 한 입에 넣어서 씹어 먹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는 별안간에 크게 통곡을 하는 것이다.

“아이쿠쿠. 이 일을 어쩌나? 주인 영감이 나를 속였구나! 이것은 쇠고기가 아니라, 들쥐 고기라 이것을 먹었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아이구—.”

하면서 슬피 울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더니, 일단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다시는 그 귀신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그 집에 괴이한 귀신의 형적이 없고 깨끗하게 되었다. 기필코 그 귀신은 죽은

것이 틀림 없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신막고는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는 노들강 근방에 나가서 살게 되었다.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기이(奇異)한 일도 세상에는 많기도 하다.

(윤태영, 《이조오백년 기담염담》, 지성사, 1909. 229~233쪽.)

20. 남산방분시(南山放糞詩)로 옥사(獄死)한 심사순(沈思順)

중종(中宗) 때의 영의정인 김안로(金安老)와 병조판서인 이항(李沆)과 찬성(贊成) 벼슬의 채무택(蔡無擇)들이 조정을 혼란케 하고 아울러서 충신들을 죽이니 그 때의 일반 백성들이 삼흥이라 하여 욕을 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누가 종로(鍾路) 종각(鐘閣)에다가 글로써 세 사람의 나쁜 행실을 써서 그들의 죄를 배척하였다.

채무택의 택(擇)자는 돌아가신 임금의 위(僞)자인 탁(鐸)으로 쓰이고 이 항의 글자는 항(抗)으로 써 놓았다. 그런데 이 탁(鐸)이나, 항(抗)자가 모두 임금을 생각지 않고 마구 행동을 한다는 글자였다. 즉, 이항이나 채무택이 임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행동을 한다는 빙자를 한 것이었다.

이 종각에 써 있는 글자를 조사하고 이것이 전의 대신인 심정(沈貞)의 아들인 심사순(沈思順)의 필적이라고 결정을 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심사순은 그때에 승지(承旨) 벼슬로 있다가 파직(罷職)을 당하여 집에 들어앉아 있었다.

그를 잡아서 옥에 넣은 다음에 그의 집을 수색하여 필적을 찾으니 그의 책에, 남산분방시(南山放糞詩) 즉, 남산에 똥을 누 시(詩)라는 것이 있었다. 그 글귀에 이르기를,

“일성뇌우흔전지(一聲雷雨欣天地)

향만장안백만가(香滿長安百萬家)”

라고 써 있는 것을 발각하였다. 즉, 이 노래를 쉽게 풀면,

“한 소리의 뇌성벽력이 천지를 높이 흔드니, 그 향기가 장안에 모든 집
에 가득하더라.”

하는 것으로서 서울의 앞에 있는 남산에서 똥을 누어 장안을 더럽힌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조정을 풍자(諷刺)한 것이라고 떠들었다.

이 시를 종종이 보시고는,

“고약한 일이다. 엄한 벌을 줄지어다.”

하고 패심하게 여기어 누차에 걸쳐서 무서운 형벌을 주니, 급기야는 이
무서운 형벌로써 병에 걸려 옥에서 죽고 말았다.

(윤태영, 《이조오백년 기담염담》, 지성사, 1909. 400~401쪽.)

21. 뱀어의 밥 윤원형(尹元衡)

명종 때의 간신인 윤원형(尹元衡)은 세도를 내세우고 권력을 휘둘러서
올바른 선비를 무수히 해치고 또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의 손에 죽
는 자의 수효가 몇 백, 몇 천으로 헤아리게 되고 그에 대한 원성이 자자
하였다.

이러한 것을 안 그의 첩인 난정(蘭貞)이가 자기 남편의 지은 죄를 속죄
하는 뜻과 또 뱀놀이를 겸하여 해마다 일 년에 두 세 번씩 뱀놀이를 차려
서 동당거리며 노는데, 그 장소를 두무개(豆毛浦)로 정하여 뱀놀이를 나
가는 것이었다.

강에다가 배를 띄우고는 남녀 광대를 태우고 음식을 싣고서 강을 오르
내리며 질탕히 놀고, 나중에는 밥 다섯 말씩을 지어서는 강물에 던져서
모든 물고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남편인 윤원형의 죄를 용서 받으
려는 것이었다.

이 놀이는 두무개 근방의 큰 잔치가 되어 난정이가 뱀놀이를 나온다고
하면 온 동네가 벌떡 뒤집히어 법석이다.

난정이가 두무개로 나오는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 마중을

하였고 강가에는 음식점이며 그외의 장사치들이 밀려 와서 마치 장이 서는 것과도 같이 웅성대는 것이었다.

꽃과 같이 봄치장을 하고 그의 여자 친구들과 하인들을 수십 명씩 이끌고 나와서는 배를 십여 척씩 강에 띄워 놓고는 풍악을 잡히고 노래를 하며 종일을 두고 질탕히 노니 이로 인하여 두무개 전체가 떠들석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놀이의 끝이 나면 사람들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가에 큰 가마솥을 걸어 놓고는 밥을 몇 섬씩 지어 온 동네 사람에게 밥과 국을 마음껏 풀어 먹이고 다음에는 물고기와 용궁에 제사를 지낸다는 밥 다섯 말을 지어서 강물에 넣는 것이다.

이 때는 강상이 요량하게 풍악을 잡히고 녀두리를 하며 소란을 부린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강변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강에다 축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가 일 년에 몇 번씩 이루어졌다. 두무개의 온 동네의 놀이요, 자랑거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놀이가 몇 해를 계속했다. 그러는 동안에 바로 을축(乙丑)년의 일이었다. 두무개의 고기잡이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노라니 그물에 큰 뱀어가 잡히었다. 그 크기가 마치 배의 크기만 하다. 고기잡이는 정신을 잃도록 놀랐다.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수십 명이 이끌어 올리었던 것이다. 하도 뜻밖의 일이라, 예사 고기가 아니라고 하여, 임금에게 바치니 조정에서는,

“나라의 과변이라.”

고 떠들석 하는 것이었다.

“그 고기가 윤대신의 미끼를 탐내어 바다로부터 강으로 올라와서 죽으니, 원형(元衡)의 형(衡)자가 바로 종행종어(從行從魚)이니 즉, 단길행 자를 따르고 고기어 자를 따르니 이것은 기필코 원형이 죽을 징조에 틀림없도다.”

하고 비웃으며 윤원형이를 원망하더니, 과연 그 해에 윤원형이가 죽고 말

았다.

(윤태영, 《이조오백년 기담염담》, 지성사, 1909. 401~402쪽.)

22. 악원관(樂院官) 임흥(任興)의 신선(神仙) 놀이

성종(成宗) 때에 처음으로 장악원(掌樂院)을 두고 벼슬을 겸하게 하니, 임흥(任興)이라는 사람은 직장(直長)이라는 벼슬을 겸하여 장악원에 나아갔다.

임흥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워서 가야금, 검은고 또 통수 같은 것을 잘하여 그의 놀라운 재주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별장을 양천(陽川)과 김포(金浦) 사이에 지어 놓고 강(江) 위에 정자(亭子)를 마련하여 달밤이면 배를 타고 위쪽은 한강으로부터 아랫쪽은 조강(祖江)에 이르기 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노는데, 노래 잘하는 기생 몇을 항상 데리고서 임흥이 스스로 검은고와 가야금을 뜯고, 옆에서 기생들이 노래로써 맞추니 근방에서 이러한 깨끗한 놀이를 보는 사람들이,

“옛날의 신선 놀이가 저런 것이었으리라. 임흥은 신선 중의 사람이로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의 깨끗한 놀이를 보고 부러워하였다.

그의 강 놀이는 가끔 있어서 놀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서 그의 별장으로 오고 여기서 배를 타고 신선 같이 놀기를 여러번 하니, 임흥의 신선 놀이라는 소문이 인근에 퍼졌다.

(윤태영, 《이조오백년 기담염담》, 지성사, 1909. 62~63쪽.)

23. 이지번(李之繁)의 비행(飛行)

이지번(李之繁)은 높은 선비로서 명종(明宗) 때에 벼슬을 하여 장예원(掌隸院)의 사평(司評)이 되었으나, 그 때에 윤원형(尹元衡)이가 권세를 마음대로 하여, 옳지 않은 일로서 송사(訟事)를 하여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거늘, 이번에는 벼슬을 버리고서 단양(丹陽) 땅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는 집을 강 위에 짓고서 정신을 수양하고 있으니 그 집에 밝은 빛이 나는 것이었다.

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읍(邑)에서 수많은 선사품을 보내는 것이었으나 그는,

“나는 그런 것은 소용이 없소.”

하면서 사양하며 모두 퇴해 보내는 것이었다.

지번의 집에 소 한 필을 먹이는데, 그 소의 생김새가 이상하게도 빛이 푸르고 두 뿔 사이가 팔구촌(八九寸)이나 되는데, 이번이기는 항상 이 소를 타고는 강가에서 노는 것을 일로 삼았다.

어느날, 눈이 산에 듭북 내려서 원근(遠近)의 산이 은(銀)으로 장식을 한 것같이 깨끗하였다. 이 속에 푸른 소를 타고 산에 올라서 백설을 구경하고 놀더니, 그의 뒤를 쫓아 다니는 어린 소년이 있어, 지번이 흥(興)을 못 이겨서 그 소년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얘야, 네가 이 즐거움을 알겠느냐?”

하고 물으니, 그 소년은 덜덜 떨면서,

“소인은 추워서 즐거운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지번의 아들인 산해(山海)가 이름난 양반들과 친하여, 그의 아버지인 이지번이를 권하여 단양 원이 되었다.

이지번은 단양의 원이 되어서, 높은 산 두 봉우리의 사이에 첩 동아줄을 매어 놓고, 학(鶴)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지번이 앉아서 날으는 신선 노릇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그는 ‘비선(飛仙) 놀음’이라고 일컫는 것이었다. 이렇게 날마다 비행(飛行) 놀이를 하니, 그 곳 백성들이 신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으로 일을 삼다가 원살이의 임기가 끝나서 돌아가니 그 뒷일을 최공(崔公)이 대신하여 맡아서 관(官)의 광을 열어 보니,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고 다만 비선 놀음에 쓰던 칩둥아줄만이 광 속에 가득하게 차 있었던 것이다.

이지번의 비선 놀음은 단양 일판에서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서울의 조정에까지 소문이 나서 모두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지번은 토정 선생의 형이다.

(윤태영, 《이조오백년 기담염담》, 지성사, 1909. 205~206쪽.)

24. 정이소(鄭以誥)

남산팔영(南山八詠)을 읊은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정이오는 고려와 조선왕조시대 문신(文臣)으로 자는 수가(粹可)요, 호는 교은(郊隱) 혹은 우곡(愚谷)으로 본관은 진주이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조선왕조에 들어 와서는 1409년(태종 9) 8월 25일자로 부시장 격인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임명되고 다음 해에 태조실록 수찬(修撰)에 참여하였다.

1411년(태종 11) 11월 19일자로 판한성부사에 임명되어 서울시 행정의 우두머리 일을 맡았다. 이 때에 승문원(承文院)의 제조(提調)도 겸임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예문관의 대제학(大提學)이 되어 과거 시험의 위원장인 지공거(知貢舉)를 겸했다.

이즈음에 몽점시(夢占詩)를 얻어 화제가 되었다.

바람번개 세 번에 어변갑(魚變甲)이오

봄경치 일색인데 마희성(馬希聲)이네

그 누가 한쌍의 적수(敵手)라 하리

이제 곳 그 으뜸이 가려질 것을

시험을 마치고 방이 나붙었는데 ‘어변갑’이 문과에 장원으로 뽑히었고 ‘마희성’은 무과에 장원이었다. 그 후 ‘어변갑’은 직집현전(直集賢殿)을



거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벼슬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교은 정이오는 찬성사(贊成事) 벼슬에 까지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그는 벼슬도 높았지만 문장으로 더욱 유명하였다. 일찌기 군기사(軍器寺)의 화약고기문(火藥庫記文)을 남기었고 서울의 명소인 장의사(藏義寺)·진관사(津寬寺)와 남산팔영(南山八詠)을 읊은 시가 전한다.

《장의사(藏義寺) 시》

시냇물 끓어졌는데 층층으로 어름만 쌓이고
바람소리 요란하니 일만 구멍 올리네
산모습 겨울 들자 더욱 여위고
눈빛은 밤에도 한끝 밝아라
외로운 탑 달빛에 그림자 지고 좋아
성긴 종소리 구름 밖에서 들리네
분향하자 선방(禪房)도 파스한데
단정하게 앉으니 마음 절로 맑아지네

범궁이 계곡에 빛나는데
목탁소리 공중에서 높이 들리네
탑(欄)을 둘러 향연기 푸르고
창에 비친 햇빛도 밝고네
눈 쌓여도 소나무 절개 안 변하고
얼음이 합하니 물은 소리 없네
제호(醞醐) 미음 맛 하도
입안이 절로 맑아지누나

《진관사(津寬寺) 시》



푸르고 푸른 소나무 연못 누대 둘러쌌는데
 땅 궁벽하고 하늘 깊은 곳에 동부(洞府) 열렸네
 시내는 옥이 돌린 양 굽이치고
 산은 구름 솟은 듯 형세 높기도 하네
 중을 도태(淘汰)한 원위(元魏)는 오히려
 웃음만 자아내고
 불도에 혹한 소량(蕭梁)은 슬플 것도 못된다네
 시(是)도 없고 비(非)도 없으면 마음 절로 바른 것이
 누가 인연 깨닫고 누가 부처님 이든고

《남산팔영(南山八詠)》

① 운횡북궐(雲橫北闕)

옥엽(玉葉)은 금궐(金闕)에 맡기고
 붉은 기와 푸른 하늘에 비치네
 땡땡 새벽중 재촉하는데
 북쪽에 서운(瑞雲)이 일어나누나
 아름다운 기운 개인 날 서로 돌렸는데
 높은 기상 바라보니 다시 잊당네
 남산 같은 높은 복을 임금께 드리려니
 아름답고 온화하게 일만 년을 누리소서

② 수창남강(水漲南江)

장마 빗물 들판을 덮었는데
 저 강의 흰 물살 성(城)까지 잊당네
 모래판 휩쓸어 가고
 온갖 냇물 모두 모았네



나루터에서 언덕 문헌 줄 알겠는데
저 하늘가 가는 배 아득하고나
저녁 때 비 개고 둥근달 떠오르니
질펀한 저 강물은 하늘에 닿았네

③ 암저유화(岩底幽花)

봄은 가고 꽃 이미 졌는데
산속 빼곡히 녹음이 우거졌네
물 건너니 그윽한 향기 풍기고
가까운 언덕 바위 틈에 기이한 풀 있구나
늦은 풀포기 은일(隱逸)인양 동정이 가는 것이
부질없는 꽃 흥망성쇠 애석만 하네
여기서도 정(貞)하고 길(吉)한 것이
하늘의 조화 아니고 소나무 있겠는가

④ 영상장송(嶺上長松)

집을 돌려 충충히 뽕뿌리 솟았는데
공중에 버티어 푸른 일산 되었네
비가 개니 구름 와서 희게 걸치고
밤이 고요하니 달이 맑게 흥청이네
벽이 서 있는 지 천 년은 될 것이
바람 따라 십 리에 소리 들리누나
이 모습은 돌아보는 이 없고
떠들썩 명예 따라 경쟁만 하네

⑤ 삼춘답청(三春踏青)

북쪽 바라보면 바로 서울인데



남쪽을 찾으니 여기 동천(洞天)이로세
꽃 따라 맑은 바람 불어오고
풀밭으니 날씨 따사롭구나
이런 모임 가질 이 많지 않으니
고상한 정회로세 신선보다 나올씨고

⑥ 구월登高(九月登高)

술병차고 높은데 오르는 날
하늘도 맑은 구월초이네
단풍숲 먼 골짜기에 한창이고
푸른 소나무 층층 언덕을 둘렀네
남동(藍洞)은 시짓던 곳인데
용산(龍山)에 모자 떨어지던 때이네
예나 이제나 취하는 것을 같은 것이
마음에 맞으면 그 밖에 다른 무엇 구하리

⑦ 척현관등(陟軒觀燈)

사월 팔일 관등놀이 성대한데
태평세월 이 얼마인가
일만 초롱불 대낮같이 밝으니
사방이 고요하고 티끌 하나 없는 것이
붉은 불길 천 길이나 서린듯
별(星) 광채 북두칠성으로 향했네
밤을 세워도 그 구경 끝이 없어
답 우는 새벽 된 줄도 모른다네

⑧ 연계탁영(沿溪濯纓)

도연명은 물에 옮겨 임하였고
 종군(從軍)은 일찌기 벼슬길을 청했네
 냇물 맑으니 발 어이 씻으리
 티끌 떨고 세상 물정 잊을 것이
 천천히 흐르는 시내 이끼 끼어 미끄럽고
 굽이쳐 돌아오니 옥 물결 감도네
 떨어진 붉은 꽃 물에 떠서 동구밖으로 나가니
 봉래(蓬萊) 영주(瀛洲)가 바로 여긴가 하노라
 (서울특별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2. 10.)

25. 남산 아래 청학도인(靑鶴道人)이라 불린 문학정승 이행(李荇)

《한경지략(漢京識略)》 각동(各洞)조에,

“청학동에는 여지승람에 이르기를 옛날에 우의정(右議政) 이행의 서옥(書屋)이 있었는데 벼랑바위에 용재 이선생 서사 유지(容齋李先生書舍遺址)이라 새겨 있다”

하였고,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기지(基址)조에,

“이행 서옥(李荇 書屋)이 남산 기슭 청학동에 있는데 서옥 뒤에 병풍바위와 너럭바위가 있다. 그윽하고 고요하여 사랑할만 하다. 명나라의 사신 당고(唐皐)와 사도(史道)의 시가 있다. 오솔길 가에 소나무, 회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를 심고 공이 관청에서 퇴근하면 지팡이를 짚고 거닐곤 하다가 거기서 여생을 마쳤다”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청학동은 지금의 남산 기슭 필동(筆洞) 골짜기고 용재(容齋) 이행은 한나라의 정승(政丞)이기보다 청학 도인(靑鶴道人)으로 차치하였고 따라서 당시 운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대신(大臣)보다도 청학도인으로서의 용재를 더욱 부러워 하였다. 당고의 시에,

조선 성안 청학동에

누가 찾아 높은 집 지었나

나 사절 따라와서 처음 들으니

청학 선인(仙人)의 글독(書壺)이라네

선인이 혹은 저자 거리에 나온다지만

때로 학을 타고 저 하늘 가에 논다네

그의 입는 것 먹는 것 무엇인가 물으니

자색 구름 옷에 옥간수(玉澗水) 샘물 마신다네

동구문 바로 저기 구름 깊은 곳에 있으니

책상 위 신선의 책권 그 수 얼마나 될까

근래에 종적을 아는 사람이 있어

옥문(玉門)에 데리고 들어가 수양한다네

신선 사는 그 곳 인간 세상 같으랴

청학이 소리 내어 공중에서 울고 있다네

밤 깊어도 저 산에 달 밝아 있고

봄은 가도 바위 밑 꽃은 매양 붉다네

선동(仙洞)을 그리워 하면서 가지는 못하니

새 시(詩)나 지어 내 마음 표시하네

머리를 돌려 황산(黃山) 옥십육봉 바라보니

흰학과 푸른 소나무 초연한 생각 일으키누나

하였고, 사도(史道)시에

푸른 학 어느 해에 동문 열었나

도인이 이곳 찾아 좋은 집 지었네

자주빛 언덕, 붉은 절벽에 샘물 소리 섞이었고

푸른 전나무 소나무에 새호리 끊기지 않네

마음은 성현(聖賢)을 짝지워 세월가는 줄 모르고
 손으로 고금의 책 뒤치며 근원(根源)을 연구하네
 조선에 좋은 정치 많은 줄 내 알지만
 한 번 가서 옥 술병 기울여 볼 길 없네 하였다
 우리 나라의 지정(止亭) 남곤(南袞)은
 일부러 그윽한 곳 찾아 푸른 봉우리 올라가니
 주인이 손을 반기매 손은 돌아갈 줄 모르네
 그대 집 술 떨어지면 내 집에서 가져 오세나
 남산에는 꽃이 피고 북악에서는 진다네
 청학은 벌써 신선의 골격 알아보고
 홍도(紅桃)는 어찌타 쇠 간장 괴롭히노
 풍류 있는 두 늙은이 조용히 노는데
 아이들 시켜 우리 즐거움 방해하지 마오
 하고 읊었다.

이렇듯 청학도 풍류도인이던 이행의 자는 택지(擇之)이고 호는 용재(容齋) 또는 청학도인·어택어수(漁澤漁水)이며 본관은 덕수(德水)로 사간(司諫)의 무(宜茂)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민첩하고 총명하였으며 배우기를 좋아하여 밤을 세워 글을 읽었고 부질없이 놀지 않음이 마치 어른과 같았다.

1495년(연산군 1)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 부정자에 등용되었다. 이어서 교열(校閱)·전적(典籍)을 역임하고 1504년(연산군 10) 봄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응교(應校)로서 폐비(廢妃) 윤시시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충주에 유배되었으며, 그 해 또 박은(朴闇)의 일에 연좌되어 다시 매맞고 귀향처로 돌아갔다. 9월에 다시 응교 시절의 일로 소급해서 잡혀와 혹독한 8월에 또 익명서(匿名書) 까닭으로 해서 옥에 갇혀 고문 당했고, 다음해 1월에 거제도(巨濟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그 즈음에 친구와 죽은 친구를 생각하여 절기(絕句) 10수를 지었는데 그중 이

미 목숨을 잃은 시동인(詩同人) 읍취헌(邑翠軒) 박은(朴聞)을 그리는 시에,

이 사람은 백운향(白雲鄉)에 있어야만 되었거늘
한번 속세에 귀양오니碧海(碧海)가 상전(桑田)되었네
아! 광릉(廣陵)이 이제 이미 끊어졌으니
이승에서는 다시 아양곡(峨洋曲)을 들을 수 없으리 하였다

1506년(중종 1) 중종 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 나와 교리(校理)로 등용되어 이해에 사가 독서(賜暇讀書) 했고 이듬해에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14년(중종 9) 사성(司成)이 되어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고 이듬해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신진 사류(士類)인 박상(朴祥)·김정(金淨) 등이 연산군의 비(妃) 신씨(愼氏)의 복위를 상소하자 이를 반대하였다. 1517년 대사헌(大司憲)에 올랐으나 왕의 신임을 받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사류의 중용(重用)으로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좌천되었다가 이내 사임하였다. 이때 모든 신진 사류들과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으므로 물러나서 면천(沔川)·창택(滄澤)에 가서 살면서 스스로 어수(漁水)라 호를 지었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자 부제학(副題學)에 승진하고 공조 참판(工曹參判)·이조 판서(吏曹判書)를 거쳐 1527년(중종 22) 우의정에 올라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이 즈음에 남산 아래 청학동에 서당을 짓고 명나라 사신 당고와 사동등이 시를 지어 보냈는데 스스로 호를 청학도인이라 하였다.

공의 키가 10척이요 얼굴이 모나고 수염이 많았는데 길을 끼고 좌우에 소나무와 전나무·복숭아·버드나무를 심고 공무(公務)에서 퇴근하면 지팡이를 짚고 한가하게 거닐기를 즐겨 마친 야인(野人)과 같았다. 어느날 날이 저물었는데 녹사(綠事)가 보고할 일이 있어 찾아갔는데 한 늙은이가 나막신을 신고 떨어진 옷을 입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동구문을 나오는 지

라 녹사가 말을 타고 지나다가

“정승 계시오?”

하고 물었다. 이에 공이 천천히 돌아다 보면서

“무슨 보고할 일이 있느냐? 내가 여기 와 있다.”

하는 지라 녹사가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졌다.

1539년(중종 5)에 공(公) 수찬당상(修撰堂上)이 되어 동국여지승람을 마침내 찬진(撰進) 하였다. 이듬해 좌의정에 올라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전횡(專橫)을 논박하다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전직되고 이어 함종(咸從)에 유배되어 귀양살이 중에 57세를 일기로 그곳에서 죽었다. 일찌기 신진 사류들과 틈이 생겼을 때 공은 심언광(沈彦光)과 함께 힘써 김안로를 불러 들이었건만 도리어 그 무리에게 공격을 당하여 귀양처에서 죽은 것이다.

공은 문장에 뛰어나서 당시 읍취헌 박은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었는데 1521년(중종16)에 명나라 사신 당고와 사도의 원접사(遠接使)가 되었을 때 당고가 매양 공의 인격에 탄복하여고 공의 시를 보고서는 시단(詩壇)의 노장(老將)이라 찬양하여 마지 않았다. 같은 일행인 부사(副使)에게,

“삼가하고 경솔하게 시를 내놓지 말라”

하며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공은 일찌기 거제도 배소에서 1502(연산군 8) 5월 5일에 학정(虐政)에 항거하여 33세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강물에 빠져 죽은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을 생각해 칠언 절구(七言絕句)를 읊어,

비방과 칭찬이 많은 사람의 입 시끄러워도

이 사람의 마음 자리 주저하지 않았지

초(楚)나라 강 어느 곳에 굴원(屈原)의 자취 찾으랴

바라노니 통을 얹어매 오색끈을 부치겠네

하였다.

‘찬달(霜月)’ 시에,

보슬비 개이면서 하늘은 더욱 맑고
 밤들어 불던 바람 저녁연기 걷웠네
 종소리에 사무쳐 새벽잠을 깼더니
 새하얀 서리 위에 달빛 더욱 아름답네
 하였고

‘세모에 죽은 박중열 생각하고(歲暮有懷朴仲說)의 칠언율시(七言律詩)에,

새월은 덧 없어 이 해도 다가고
 그리운 이 가고서 아니 오시네
 굳이 말려 만류해도 가는 임 어이하라
 그 님은 어디서 뉘와 이웃하여 사는지
 나의 생애 이렇커니 어이 아니 우수라
 세상이야 다단(多端)해도 봄은 오고 또 가네
 묻노니 저 세상일 어느만큼 아득하여
 한 평생에 몇번이나 이토록 올리려노

하였다. 《성휘명세고(姓彙名世攷)》에 따르면 공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렸는 바, 유작으로 국립박물관에 기마도(騎馬圖)가 전한다.

후에 신원(伸冤)되어 중종 임금 묘정(廟廷)에 배향(配享)되었고 시호는 처음에 문정(文貞)이었다가 문헌(文獻)으로 개시(改諡)되었다. 저서에 《용재집(容齋集)》이 전한다.

26. 마케은(馬蹄銀)의 주인

서울 남산골에 가난한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서우도 가난뱅이로 조반석죽이 곤란한 처지였으나 그래도 공부하기를 쉬지 않고 밤을 새웠다. 밤이 깊으면 추운 기운이 더욱 심해서 살을 에이는 듯했으나 불끼 없는 찬방에서도 오히려 힘을 내어 더 한층 낭랑히 읽었다.

때는 마침 정월 보름날이라, 아침부터 눈이 내리고 저녁이 되면서 부터 하늘이 개면서 보름달이 휘영청하게 떠올라 왔다.

이서우는 손끝을 호호불면서 책 읽기를 쉬지 않았으나 아침에 죽 한 그릇을 얻어 먹고 종일 굶어가면서 공부를 하자니 목소리가 도무지 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고 마른 침을 입술에 바르면서 용기를 내어 글을 읽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들창 너머로 무엇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이숙한 밤이라 이서우는 깜짝 놀라 방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살펴보니 그것은 분명히 먹음직한 약식 한 그릇이 보자기에 싸여서 떨어진 것이다. 이서우는 누가 던진 것인지 알 길이 없어 창 밖을 내다보니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보름잔치에 만든 것인 모양인데 참 고마운 분도 있구나!”

하고, 혼잣말로 고마움을 치하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약식 속에 마제은(馬蹄銀) 한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 이서우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 이서우는 이렇게 무진 고생을 하며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를 하고 이어서 숙종을 모시게 되었다. 그 후, 어느 해 정월 보름날 밤의 일이었다. 숙종은 신하들과 보름날 잔치를 베풀고 놀다가 문득,

“듣거라, 아마 사 년 전의 일인가 보다. 짐이 암행으로 남산 어느 집에 이르니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글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굶었던지 소리가 잘 나지 않아 그 선비의 모습이 보기에 하도 가궁하여 별감을 시켜서 약식을 창 너머로 던지게 했는데 그 선비가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오늘밤도 그 날처럼 달이 밝으니 그 생각이 나는구나.”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서우가 별안간 부복을 하였다.

“그날 밤에 약밥을 받은 것은 바로 소신이었습니다. 밤은 깊은데 밥

을 굶고 냉방에 앉아서 글을 읽노라니 자꾸 정신이 멀어져 가옵는데 어디
서 약밥 한 그릇이 떨어지기로 고맙게 받아 먹고 기운을 차려 글을 계속
하여 읽었던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등과하여 이렇게 전하를
모시게 되었사옵니다. 천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서우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 내렸다. 왕은 매우 기뻐하
며 부복한 서우를 보고 말했다.

“그랬던가, 그러면 그 약식 속에 다른 것은 없었던가?”

“예, 마제는이 한 덩어리 있었사옵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사옵니다.”

왕이 그것을 가져오라 하여 살펴 보니 전날대로 서슬도 닳지 않았다.

“경은 과연 청렴한 인물이로다.”

숙종은 크게 칭찬하고, 은을 다시 내주고 동시에 이서우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다는 것이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9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114~115쪽.)

27. 술청의 전설

옛날에 한양 남산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호는 아니더라도 벼 몇 백
석하는 집에 태어났으니 그의 일생이란 안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우선 열 대 여섯에 결혼을 하였으니 장가들었으면 일단 어른이요, 어른
이면 조식 식사에 반주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밥상 물리기 전에 손이 오든지 하면 그 상에 그냥 술 좀 더 가져 오래서
대접하는 것이 변 될 리 없고, 그러다가 한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다섯
잔 되어 취해 곤드라진대서 나무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간 일어나 속이 쭈뼛하다고 북어나 좀 뜯고 계란이나 풀어서 국
을 끓이래서 해장 한 잔 한대서 탓할 사람도 없고 그것이 그냥 하루 종일
계속된대서 시비할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술에 문혀 지내기를 한 오 년 하니 이제 나이 이십이요, 다시 그렇게 하기를 한 이십 년 하니 그제사 나이 겨우 사십이다.

먹을 거 넉넉하겠다 죽겠다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자리 잡힌 살림이니 세간살이를 돌볼 걱정도 거의 없다.

그저 하구한 날 손들과 어울려 아침부터 밤까지 밤에서 아침까지 술이나 먹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이 환갑이 되니 평생에 한이란 사실 따지고 봐도 사십여 년 술 먹은 게 밖엔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병이 났는데 좀처럼 낫지를 않았다. 하기가 평소에 그만큼 건강했던 게 신기할 정도이거나 하여간 앓는 데 증세가 대단했다.

몇 번씩 가족이 머리맡에 모여 운명하기를 기다리다간 헤어지곤 했는데 하루는 간신히 일어나며 목이 메스껍고 보편다고 야단이었다.

곡기를 톱 끊은 지, 여러 날인데 무엇을 토할 게 있으랴마는 등을 문지르고 두드리고 한 끝에, 흡사 민어 부레 같은 기름한 고기덩이 하나를 고생고생 끝에 토해 놓고는 그냥 다시 널부러졌다.

징그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이다. 거름통에 버리기도 미안한 감이 있어서 말꼬지에 걸어 내버려 두었더니 뻗뻗하게 말라 무순 나무꼬치처럼 되어 버렸다.

그리고 환자는 그 길로 기신기신 일어나 기동을 하나 아주 폐인이 되어 피부나 살이 뻗속까지 들여다 봐도록 말짱게 된 게 눈마저 영채를 잃어 꼭 정신나간 사람 같았다. 기운이 회복되라고 술이라도 좀 권할라 치면 냄새도 맡기 싫다는 것이다.

간신히 마음으로 연명이나 하니 숨이 붙었으니 사는 거지 인생이 가엾기 그지 없었다.

그러자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자가 이인(異人)이라 멀리서 능히 서기(瑞氣)를 보고 명당과 보물을 귀신같이 가려냈다.

하루는 야반에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남산골서 서기가 하늘로 뻗쳐 있



는 게 아닌가.

‘이번 행보에 좋을 보물을 얻게 됐다.’

고, 부랴부랴 통변을 앞세우고 서기를 따라 찾아나섰다.

골목을 돌고 돌아 큼지막한 기와집을 하나 찾아냈는데, 주인을 찾자니 아닌 밤중에 좀 안 됐다.

그러나 저러나,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내어 잡담 제하고 사랑에 들어 앉아 애길 꺼냈다.

‘내 집에 보물이 있으니 보여달라, 그것도 대국 사신이야.’

조상이 쓰던 몇 가지 보물을 꺼내 보여도 모두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더니 사신 자신이 별떡 일어나서 벽에 걸린 그 고기 마른 것을 떼어 드는 것이었다.

그러곤 입이 함박만큼 벌어져 가지고 손가락 둘을 펴서 내보였다.

“뭐? 두 냥에 팔라고? 값은 무슨 값이야? 그까짓 거.”

주인이 손을 저으니까, 사신은 다시 다섯 손가락을 펴보였다.

“다섯 냥을 받으라고? 값은 무슨 값이야? 그까짓 거, 그냥 가져가지”

손짓으로 대답하니 사신이 그걸 내려놓고 양쪽 손을 활짝 펴들어 보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다.

“웅? 이거 모르겠다. 이 자가 값을 자꾸 올리는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안 되지.”

주인도 엉큼하여져서 또 손을 저어서 완강히 거절의 뜻을 표했다.

통변도 어리둥절해서 양쪽 사람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는데 사신이 두 손을 움켜쥐다 펴서 보였다.

그제사 주인은 무언지는 잘 몰라도 고개를 끄덕여 응낙의 뜻을 보였더니 만면에 웃음을 띠우며 뭐라고 살라물라 하는데 팔아 줘서 고맙다는 눈치였다. 그러더니 지필묵을 꺼내서 증서를 쓰는데,

‘금 이십 만 냥 정이라!’

통변의 말이 밝는대로 사관에 오면 전액 현금으로 치루겠노라고 했다.
자, 그러니, 엉뚱한 돈이 생기게는 됐으나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스무 냥 받으라는 지 알고 그래라고 했던 건데.’

“그게 무엇이길래 그런 큰 돈을 주고 사는가?”

그랬더니 대답이 이러했다.

“이것은 술의 정(精)인데 이것 하나 이룩하기에 한 사람의 귀중한 일생을 바친 것이요. 사람의 목숨처럼 귀중한 게 세상에 다시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의 온 정력과 정기가 이것 하나에 영기고 굳은 것이니 자 보시오.”

그리고 옆의 냉수든 대접을 당기어 그걸로 물 속을 두 번 저어서 먹어 보라 했다. 입에 대어보니 술이었다. 그것도 맛이 제법 독특한 술이었다. 다시 한 번 저으니까 독해서 먹을 수가 없다. 그 뒤로 그 사신이 참석하는 연회에는 시회건 들놀이건, 술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금으로 마구리를 싸고 비단주머니에 넣어서 찬 그것을 꺼내어 길어다 놓은 물을 그저 두 번씩 젓기만 하면 술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어느 잔치건 술 모자라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사신이 죽은 뒤 그 보물은 조정에서 거두어 임진왜란 때 이어송이가 차고 나왔었는데 벽제관 전투에서 잃어버렸다 한다.

지금도 장마 때면 물에서 가끔 술냄새가 난다는데, 어느 바위틈에나 흙 속에 묻혔는지 알아 볼만한 일이 아닐는지.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9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59~62쪽.)

28. 광교(廣橋)의 신연

어느 가을 달 밝은 밤이었다.

평복 차림으로 대궐에서 나온 성종은 무감 몇 사람을 멀찌거니 뒤따르게 하고 고요히 잠든 서울 거리를 이곳 저곳 살피고 다녔다.

그 때 무심코 종로 광고 다리 위에서 성종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리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아직 춥지는 않았으나 밤이 깊어 인적이 끊어진 다리 밑에 어떤 흰옷 차림의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수상하게 여긴 성종은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등에 무슨 보통이를 짊어지고 있는 그 사나이는 나이 한 사십 쯤 되어 보이고 옷이 매우 초라한 시골 사람이었다.

왕이 그에게,

“누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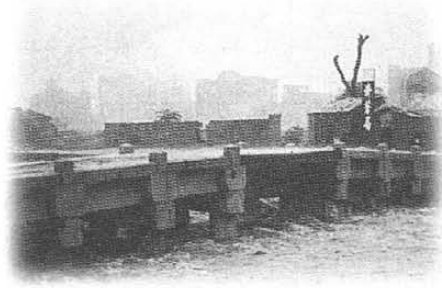
하고, 물으니 그는 몹시 반가운 듯이 바짝 다가오며,

“예, 나는 경상도 홍해 땅에서 온 김회동이올시다. 사십이 넘도록 임금님이 사시는 서울 구경을 못하였기에 오래 버르기만 하다가 간신히 노자를 변통해 가지고 나섰는데 수십 일만에 겨우 당도하여 이제 막 저녁은 사먹었지만 잠 잘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 앉아 밤새기를 기다리는 중이요.”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분명히 시골 사람이었다. 이어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댁은 뉘시기에 이 밤중에 다니시나요? 보아하니 생김새도 얹전해 보이시는데 혹시 임금이 계신 집을 아시거든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어차피 서울에 올라왔으니 어질고 착하신 우리 임금님을 찾아뵙고 가야겠소.”

성종은 그의 너무나 순박하고 어수룩함에 도리어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침이를 뚝 떼고 말하기를,

“나는 동관 사는 이첨지란 사람이요. 임금 계신 곳을 알긴 하오만, 그대 가르쳐 주면 임금님을 뵈옵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오.”

하고 물었다.

시골 사람은 히죽이 웃으며,

“말이 낫으니 말이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우리 고을에서 사람마다 말하기를 임금에 어질고 착하여서 백성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산다고 합니다. 내 기왕 올라왔으니 그렇게 어지신 임금님께 인사나 여쭙자는 거지요. 또 빈손으로 뵈올 수 없어서 우리 고장에서 나는 해삼과 전복을 좀 짚어지고 왔지요. 그걸 임금님께 드려서 한 때 반찬이나 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댁이 임금 계신 곳을 아신다니 좀 가르쳐 주시오.”

하였다. 그 때 무감이 가까이 오자, 왕은 가만히 귓속말을 한 다음,

“당신이 이 사람을 따라가 있으면 내 어떻게든지 임금님을 뵈옵도록 해드리리다.”

하여 무감을 따라가게 하였다. 물론 그 시골 사람은 곡절을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러므로,

“서울 양반은 참 인심도 좋구만!”

하며 무감의 뒤를 따라갔고, 무감은 왕의 분부가 있는 터라 전연 내색을 보이지 않고, 자기 집에서 묵게 하였다. 그 이튿날 왕은 또 미행으로 무감의 집에 행차하였다. 시골 사람은 매우 반가와하면서,

“이침지는 참말 무던한 사람이외다. 처음 보는 시골 사람을 잊지 않고 또 찾아 주시니, 그런데 임금님은 뵈게 될 수 있는지요?”

하고 물었다. 이 무엄한 언사에 무감은 주먹이 부르르 떨렸으나 왕의 분부가 있었던 만큼 참고 있지 않을 수 없었다.

성종은 웃으면서,

“당신의 정성은 무던하오만 벼슬을 못한 사람은 임금을 뵈옵지 못하는 법이오. 그러니 당신이 임금님을 뵈으려거든 먼저 벼슬 한 자리를 원하시구려. 내가 되도록 힘써 볼 터이니 그래야만 임금을 뵈올 수 있소.”

하였다. 시골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벼슬 이야기가 나오자 어리둥절

하여 반신반의로 사양한다는 것이,

“아무 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이 무슨 벼슬을 할 수 있겠소. 그러나 우리 동네 박충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충의란 벼슬 좋습디다만, 당신이 무슨 수로 그런 좋은 벼슬을 시켜 주실 수 있겠소. 아무래도 임금님을 뵈을 수 없다면 그냥 돌아갈밖에, 그런데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연줄이 있으시거던 이거나 임금님께 전해드려 주시오.”

하고, 해삼과 전복 썬 보통이를 내어 놓는다. 왕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억제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선하던지 그 충의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볼 테니 하루만 더 기다려 보오. 그래서 벼슬이 잘 되면 당신 손수 갖다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소.”

하였다. 그 날, 성종은 돌아가서 이조에게 명해서 김희동이란 시골 사람을 충의초사(忠義初仕)로 임명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무감의 집에서 이첨지의 회보를 고대하고 있던 김희동은 이윽고 집 주인인 무감이 갖다 주는 영문 모를 사모와 관복 그리고 나막신을 받았다.

“당신이 충의 벼슬이 되었으니 지금 곧 의관을 정제한 다음 대궐에 들어가서 상감님께 사은하시오.”

하는 무감의 말이었다.

김희동은 너무도 생각 밖의 일이라 미덥지가 않아,

“그래, 이첨지는 어디 갔소?”

하며,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을 물어보았으나 무감은 아무 대꾸도 안하고, 어서 들어가자고 재촉하였다. 이윽고 김희동은 무감에게 안내되어 해삼과 전복짐을 챙겨 지고 대궐로 들어갔다. 그때 성종은 마침 조회를 마치고 난 뒤였다. 아주 쉬우리라고만 생각했던 임금 만나는 일이 부닥치고 보니 무척 어려운 노릇이라고 생각하며 김희동은 전도관이 시키는대로 두 번 절하고 꿇어 엎드렸다. 그러자 위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임금을 보고자 한다니 내가 바로 임금이다. 겁내지 말고 보아라.”

희동이 간신히 머리를 들고 보니 이 어찌된 영문이고? 해와 달을 그린
오색 병풍 앞의 용틀임을 한 붉은 좌상(座床)에 높이 앉아 있는 이는 바로
그 이침지가 아닌가?

그는 부지불각 중에,

“아니, 이침지가 어떻게 여기 있소?”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내시와 사알(司謁)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쉬잇”

하고 위엄을 주었다.

동시에 모든 신하들의 서릿발 같은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제서야 김희동은 이들 밤이나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 받던 이침지
인 그가 바로 왕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도 황공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성종의 전후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여러 신하들은 새삼스러히
성은의 망극함을 칭송했다. 김희동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해삼과 전
복 보따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나갔다. 왕은 웃으면서,

“저 물건은 김희동이 나를 위하여 육로 천리 머나 먼 길을 지고온 것이
니 내가 고맙게 받아 먹지 않을 수 없다. 어서 들여오라.”

하였다. 그리고 김희동에게 상금을 많이 내려 금의환향케 하였다. 김희동
은 천은을 감격하면서 시골에 내려갔다는 것이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9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136~139쪽.)

29. 고승 무학대사

무학대사(1327 - 1405)는 이름은 자초(自招), 호는 무학(無學) 또는
성은 박씨로 증(贈)승정대부 문하시랑(崇政大夫 門下侍郎) 인일(仁一) 의
아들로 경상도 삼기(三岐) 에서 태어났으며 18세 때 소지선사(小止禪師)
에게 삭발(削髮),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혜명국사(慧命國師)에게서 불법

을 배운 뒤 진주(鎭州)의 길상사(吉祥寺), 묘향산(妙香山)의 금강굴(金剛窟)에서 수도한 다음 공민왕 2년(1353)에 원(元)나라 연경에 유학, 지공선사(指空禪師)와 당시 원나라에 가 있던 나옹선사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 때 대사가 나옹화상을 뵈자.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을 수 있으나 서로 마음을 아는 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대와 나는 한 집입니다.”

하였다. 이때 나옹은,

“사람의 도(道)는 마치 코끼리 이빨과 같아서 비릇 감추려 하여도 그를 가릴 수는 없으니.”

하였다.

공민왕 5년(1356)에 귀국한 뒤 강원도 이천에서 토굴을 파고 수도하였다.

이때 이성계(李成桂)는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에 묵었는데 꿈에 한 노인이 쇠지팡이로 태조(太祖)의 머리와 허리와 발 세 곳을 찔러 꿰뚫었다. 또 거울이 깨어지고 꽃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이성계는 몹시 괴이하게 여겨 이천(伊川)에 가서 무학대사를 찾아 해몽(解夢)을 간청하였다. 대사는,

“쇠지팡이로 머리와 허리, 발 세곳을 꿰뚫었으니 임금 왕(王)자이며, 꽃이 떨어지니 열매가 열릴 것이요, 거울이 깨어졌으니 어찌 소리가 없겠느냐?”
고 하고 곧 임금이 될 꿈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1373년에 나옹화상의 법을 이어 받았으며, 우왕(禡王) 2년(1376)에 나옹선사가 회암사(檜巖寺)에 살면서 낙성회(落成會)를 열고 그 수좌(首座)로 초청하였으나 이를 사양하였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왕사(王師)가 되고 대조계종사 선교 도총섭 전불심인 변지무에부종수교홍이보제 도대선사 묘엄존자(大曹溪宗師 禪敎 都總攝 傳佛心印 辯智無碍扶宗樹敎弘利普濟 都大禪師 妙嚴尊者)의 호를 받았다.

이듬해 전도(奠都)를 위해 태조를 따라 계룡산 및 한양을 두루 살피고 한양으로 수도를 정하는데 찬성하였다. 태조 6년(1397)에 왕명으로 그의 수탑

(壽塔)이 회암사 북쪽에 세워지고 태종(太宗) 2년(1402)에 회암사 감주(監主)가 되었으나 이듬해 사직하고 금강산 금장암(金藏岩)에서 입적하였다.

나옹과 무학 두 선사를 봉안하게 된 것은 나옹은 무학의 스승으로서, 또 무학은 조선 개국과 한양천도에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재곤, 《서울의 민간신앙》, 백산출판사, 1996, 107 ~108쪽.)

30. 이성계와 무학대사

이성계가 등극한 후 어느날 무학대사와 한담(閑談)을 하고 있었는데 한담하던 중 이성계는 무학대사보고 대사(大師) 넌 멧돼지처럼 생겼다고 농을 했다. 무학대사는 이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빙긋이 웃기만 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가 뭐라고 자기를 말할까 하고 기다렸는데 무학대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안해서,

“그래 대사는 내가 무엇같이 보이는가.”

하고 물었다. 무학대사는,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고 했다.

이성계는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나는 대사를 멧돼지같이 보인다고 했는데 대사는 어째서 나를 부처님같이 보인다고 하오.”

하니까, 무학대사는,

“멧돼지 눈에는 모든 것이 멧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고 대답했다고 한다.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기도편, 평민사, 1989, 51~52쪽.)

31. 우목낭상의 내력 알아 명칭 날린 성삼문

저 천자문이 있지요, 한자 천자문 끄트머리쯤 가보면 말이 우목낭상이란 말이 있지요. 우목낭상, 우목낭상은 인제 한문으로 써 보시요. 불일 우, 갓머리 밑에다가 이렇게 일만 만, 눈 목자, 주머니 낭자, 상자 상자.

그게 요거 말거리요. 문구가 있는데 우목낭상이란 것은 어째서 우목낭상이라고 하는지 출처를 얘기하는 건데. 그전에 우리 나라에 성삼문이 있지요. 성삼문, 사육신의 한 양반. 그전에는 대국이라 했어요 중국을. 지금 말하면 중국을 대국이라 했지.

우리가 사대사상으로 있었으니까, 그때는 중국을 들어가셨는데 숙소에 가서 방을 정하고 자는데 그 안방에서 어린애가 자기어머니한테 천자문을 읽는데 모른다고 회초리를 맞고 울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한 게 불일 우, 눈 목, 주머니 낭, 상자 상. 거기를 읽는디 거기를 모른다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이런단 말여.

그러니까 하두 어린 것이 맞는 게 안 됐으니까 불려서,

“아가 아가.”

불러. 그러니까 얘기가 눈물을 씻고 나와. 나오니까,

“이리 앉어.”

앉으면서,

“아, 그거 불일 우, 눈 목, 주머니 낭, 상자 상, 그걸 못 읽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종아리를 맞느냐, 내 일러 줄께. 불일 우, 눈 목, 주머니 낭, 상자 상이다.”

그러니까 안에서 저의 어머니가 아기 이름을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서, 그 때는 조선이지요.

“조선서 온 그 선생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어머니가 일러 주는 데로 읽으셔요.”

“그 뜻, 그것을 몰라서 내가 회초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뜻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종아리를 때린 것이니 선생님한테 그 뜻을 일러 달라고 해라.”

자기가 뜻을 모르겠단 말여. 우목낭상 글자만 알지 그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어, 그러면 조선에서 들어오신 그 손님께 물어 보아라.”

아, 가만히 생각하니께 혼났단 말여. 모르는 걸 해 놓구, 모르는 사실을 큰일났단 말여. 그러니까 가서 사죄를 하는 거여.

“과연 미안합니다. 내가 글자만 알았지 우목낭상의 뜻을 뭔지 모르그서 경솔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말한 게, 애들한테 얘기한 게.

“내가 사실은 우목낭상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인저 배우는 거여.

“그 우목낭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 이렇습니다.”

애기가 나오는 거여.

그전에 어떤 사람 하나가 상우를 당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짝우자 상우라고 해요. 짝을 잃었단 말이며, 그래서 재취를 했는데 큰 부인이 작고하고 재취자리를 갔는데, 재취 부인을 데리고 살어. 근데 그 딸은 전처 소생이여. 근데 그 전처소생의 딸이 아주 효성이 지극해, 효녀여. 효녀여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해.

아,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일지언정 어머니는 생모가 아니고 계모인데도 참 효성이 지극해. 그런데 그 계모라는 여자가 그 것을 없앨라고 마음을 먹어, 항상. 아주 일색이여. 얼굴이 이뻐. 그러니까 저게 이쁘거든, 저거 그게 탐이 나서 죽일라고 그래.

죽일라고 하는데 뭘로 모함잡아 죽일 수가 없어. 근데 남편이 그런 뜻

은 대강은 짐작은 했지. 근디 남편은 과거질에, 벼슬질에 있으니, 지금 말하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니까, 그 자세한 건 몰라. 그러니 눈치가 틀려, 항상 보면.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병신이 라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할 피가 없어. 근게,

“저 것이 효성을 지극하니께 배가 아프다”

고 그랬어.

대번 내가 배가 아퍼 죽겠다. 그리고 방에서 데굴데굴 뒹굴어. 배가 아프다구 그러니께,

“약을 지어다 드릴까요?”

“약 지어다 줘도 안 낫는다.”

아무 것도 소용 없다는 거여.

“그러면 뭘 드셔야 어머니 배 아픈 것이 가라 앉겠습니까?”

물으니까,

“아무 약도 소용 없고 약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약을 짓기 어렵구나.”

“그게 뭘니까?”

“네 눈 한 짝을 빼 가지고 달여서 먹으면 내 배가 낫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여.

“눈을 빼면 병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께, 그 효성 지극한 딸이 자기 눈을 꼬쟁이로 하나 빼 가지구서 약 대려 가지구서 갖다 주었던 말여. 주니께, 그걸 먹는 체하지. 먹으려고 한 게 아닌게 먹구서는 금방내,

“아이구야 나셨다야. 니가 효성이 지극해서 내 배가 나셨다.”

눈은 가려야 할 거 아니야? 피가 줄줄 나고, 가리구 있지. 그러자 저녁 때 그 남편이 떡 들어왔는데 딸을 보니께 눈에다 뭉을 싸뺐거든. 그러니께,

“너, 왜 눈이 그러냐?”

그러니께,

“아, 다쳤시유. 다쳐서 그렇니다.”

“잉, 다쳐어 어디 보자. 다친 것인가 어째 다쳐가주 그러?”

이렇게 떼어보니께 눈알이 하나 없거던. 그러니까 이게 필유 꼭절이여. 눈 빼질 리가 없는디, 눈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가재비를 한겨.

그러니께는 마누라두 말을 안하고 딸두 어머니가 빼달라구 해서 이렇게 달여준 것이라구도 얘기를 안해. 그러니께는 가만히 남편이 생각하니께 이상스럽거든. 그러니께는 마누라도 말을 안하고 그 딸두 어머니가 빼달라구 해서 이렇게 달여준 것이라구도 얘기를 안해. 그러니께는 가만히 남편이 생각하니께 이상스럽거든. 그러니께는 손그릇을 가서 뒤졌시유.

그전에는 이 상자라는 것이 조그마한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들 바느질거리 그런 거, 침선질거리를 넣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열어보니께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피가 묻었어. 이상스러워. 그래서 그 주머니를 빼보니께는 자기 딸 뺨 눈이 그 주머니 속에 들어 있어. 그제 그래서 눈이 상자에 붙여졌다.

주머니다 넣어서 상자에 요렇게 됐다 해서 우목낭상이여. 붙일 우자유. 여기다 붙인다는 거여 그제. 어디다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인다 그거여. 그래서 ‘우목낭상’이란 문구가 있었어. 근데 그 것뿐만이 아니라 성삼문이 그것을 안 뒤에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나라에서 성삼문이 대중국에 동지사로 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부장관들 하듯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서는 그 때 태평성대라 그런지 어딘지 몰라도 중국에 각제 후국에서 죽 사람이 수십 명이 왔어. 그런 성삼문 같은 분이 죽 왔어.

그런게는 인물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태사수라고 하나, 시험을 볼라구, 글 주제를 내는 거.

“내가 주제를 하나 낼 테니 이 내력을 얘기해 보라.”

“그 주제인즉 무엇입니까?”

그런게 우목낭상이란 주제가 나왔어.

그러니 판 사람들이여 그걸 아나? 판 사람은 몰라요. 우목낭상을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온 사람은 대개 다 몰라. 그러나 성삼문은 어제 저녁에 그 부인한테 그 내력을 들었기 때문에 고대로 써서 바쳤다. 그 말이여. 바치니까 1등. 조선국서 온 성삼문이 아주 학벌이 높구 참, 유명한 사람이다 해서는 성삼문이 중국에서도 그만한 명성을 날렸다는 얘 겁니다.

허허허! 그게 우묵낭상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32. 청렴한 황정승

황희 정승이, 지금은 국무총리도 황씨고, 국회 거시기도 황씨고 그렇지요. 황정승이 황해도 분이예요, 황해도 분이 선비로서 벼슬을 헐라고 시험을 불라고 파주 장단을 왔어요. 봄새 파주 장단을 오니까, 늙은 할아버지가 논을 가는데 소를 두 마리로 갈어. 지금은 한 마리지만 옛날에는 두 마리로 갈어. 굽정이라고, 쟁기를 굽저이라고. 두 마리를 가지고 논을 갈았어요. 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검은 소고, 하나는 누렁 소란 말여. 게 이리 하고, 하고서 논을 갈다가서 저녁나절 앉아 있다 나왔어요.

“영감, 소가 어떤 소가 좋으오. 검은 소가 좋소, 누렁 소가 좋소?”
하니까,

“두 마리가 똑같이 일을 잘 합니다 그러.”

젊은 청년, 과거보러 가는 청년의 귀에다 대고서 검은 소가 좋고 누렁 소가 덜 좋소 말여. 가만히 귀에다 대고 자기도 가만히,

“어떻게 해서 내 귀에다가, 그 때는 두 마리가 다 좋소 허더니 쫓아와서 내 귀에다 대고 허느냐?”

물으니까,

“하나는 잘 하고, 하나는 잘못한다고 그러면 한 마리가 의어리를 쳐서 논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걸 배워 가지고 서울에 와서 정승을 했는데 신하를 부릴 적에



삼정승 육판서를 부릴 적에,

“김판서.”

“예.”

“자네가 제일 애쓰고 일 많이 해. 자네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일을 하나.”

“이판서.”

그 이튿날 이판서를 부르는 거여.

“자네 아니면 누가 일을 해 나가겠나. 여태까지 애를 썼지만 더 애를 쓰라.”

고, 판서를 각각 불러 가지고 가만히 보니깐 정승이 자가 하나만 위헌단 말여. 그러니까 육판서가 서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애를 쓰는 거여.

근데 그 역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황정승이 아들, 딸이 많아. 아들, 딸이 십 남매가 넘어. 근대 부인이 월급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가을 철에 벼이삭, 콩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이 보금이라고 있지요, 보금이. 밑꾸리 그것 하나를 이고서 어디를 갔느냐면, 창동을 갔어요. 창동이 지금 무슨 동이지. 의정부 못미쳐 거기를 갔더니, 벼이삭 같은 걸 주셨는디, 한 몇 소코리를 주셨어요. 그걸 갖다 찌으면은 뭐 쌀이 한 반 말 이상 나오게 생겼단 말여. 그러서 주워다 놓고서 기분이 좋아서, 자식들은 많고 먹고 살지는 못해, 끼니를 굶을 때가 많으니까 몇 끼를 먹들 못하니까, 그래서 인자 그걸 갖다 놓고서 기분이 좋았든디 잠을 자는데,

“오늘은 뭘 했소?”

황정승이 묻는 거여. 집에서 탄일 했다면 괜찮을 건데, 곧이 곧대로 하느라고 내외간이 벼이삭을 주우러 가서 주웠단 이거여.

“그래요. 수고 많이 했오.”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여, 부인한테. 자는데, 새벽에 무지현 산골이거든. 전나무 천지고, 산골이여. 그 작은 굴 안에 과일 나무들이 있고, 울타리에 맨 나무 천진데, 자는데 부인을 깨우라는 거여.

“왜 그러십니까?”

허니까,

“야단났소, 이거.”

“왜요?”

“저 놈의 까막 까치 새들이 우리집으로 전부 모여들어 가지고 어저께 당신이 그 벼이삭 주서온 거를 농민이 농사 지어서 가져가고 나머지 떨어진 거는 까막 까치 새 짐승이 먹어치우는데, 그걸 당신이 주워 왔다고, 수천 백 마리가 와 가지고 짓고 야단이니 저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여. 가만히 들으니께 ‘ 짹짹’ 하고 ‘ 짹짹’ 하고 야단이란 말여.

들으니까 밝을 적에,

“여보, 큰일 났오. 당신 아침 먹고서 그걸 그 자리에다 도로 뿌려 놓으쇼.”

그랬어, 억울해서 몰래 아들에게 흰죽이라도 한 번 쑤어 먹일려고 벼를 두어 되 남겨서 쪼아서 쌀을 한 되 남겨 놓고, 이고 거기를 가서 뿌려 놓았는데. 갔다 와서 오니까,

“잘 했오. 뭇으치, 뭇으치가 다 따로 있는데, 농민이 농사 지어서 먹고 나면 흘린 거는 날짐승이 먹는 뭇으치가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주어도 먹으면 날짐승은 뭇 먹으오?”

그렇게 남의 돈을 안 먹는 것이예요. 한 푼도 안 먹어요. 그렇게 남의 돈 안 먹고 식구가 배고픈 게, 정승이 식구들 배고픈데 안 먹은데. 그래서 나중에 중상에 물려서 떨어났어요.

한 번은 떨어져나서, 어디 간고 하니 문산에 갔거든. 경기도 문산 알지. 문산 가거든, 반구정이 어딘가 물어서 찾아가요, 반구정. 문산 넘어 임진강 강편 쪽에 반구정이라는 정자가 돌이 있어요. 반구정이라는 정자각이, 문산에 반구정이 있어요. 반구정이 그 양반이 지은 거예요.

황정승이, 영송에 있다가 떨어져나 가지고서 누가 중상 모략하는 거여. 누가 중상 모략해 가지고 떨어져나 가지고서, 임금이 그만 두라고 해서 떨어져나 가지고서 거기를 가 가지고 내가, 황해도가, 이 배를 타 가지고 만일, 이 상을 임진강을 타고 만일 자기 댕기는 나루터에서 거길 쳐다 보면서, 정자각을 짓고 거기다 글을 써서 붙였어요. 정자각에. 이름이

반구정이에요.

33. 김치의 신이한 행적

감사 김치(金緻)의 호는 남봉(南峯)으로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의 아버지이다. 젊어서부터 추수(推數: 닥쳐올 운수를 미리 헤아리어 앞.)에 정통하여 기발하게 맞추는 신이한 일들을 많이 했다. 혼조(昏朝: 광해군을 가리킴)에 벼슬하여 홍문관 교리가 되었으나 늦게야 비로소 그 잘못을 뉘우치고 병을 핑계대고 벼슬을 그만 둔 후 용산(龍山) 위에 주거지를 정하여 두문불출하고서 종적을 감추고 찾아오는 인객도 사절하였다.

어느날 시자(侍者)가 와서 고하였다.

“남산동에 사는 심생(沈生)이 어르신네 뵙기를 청하옵니다.”

김공이 그를 거절하며 말했다.

“존객께서 이 늙은 병폐를 모르시고 왕림하셨소이다. 인사(人事)를 끊어버린 지 이미 오래여서, 지금 맞아들일 수 없음을 대단히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운운하여 그를 돌려보냈다.

김공이 평일에 자신의 사주로 평생을 추수(推數)하였더니, 마땅히 물수(水) 변의 성을 가진 사람의 힘을 입어 큰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괘를 얻었다. 문득 찾아왔던 객을 생각해 보니, ‘그가 물수 변을 가진 성인 즉, 그 사람이 바로 자신에게 힘을 써 줄 사람이 아닌가!’ 급히 시자를 시켜 뒤쫓아 종로에서 데리고 돌아오라고 시켰으니, 그 사람은 바로 심기원(沈器遠)이었다.

심생이 노비를 따라 돌아오자 김공이 바빠 일어나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인사를 폐절한 지 오래입니다. 존객께서 왕림하셨는데도 마침 채신지우(采薪之憂: 자신의 병에 대한 걱정.)가 있는지라 맞이하여 절들리는 예를 실수하고 말았으니, 참 무지로소이다.”

객이 말했다.

“일찍이 얼굴을 뵈 적은 없었으나 어르신께서 추수에 정통하시다는 말을 몰래 듣고 이처럼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감히 찾아와 질정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사 십 세의 궁색한 선비로 명도(命道)가 기구합니다. 금번 이곳에 온 것은 어르신네의 신안(神眼)으로 한 번 질정(質定)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소매 안에서 사주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그러더니 또 말했다.

“제가 올 때에 한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사주도 부탁하는 지라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가지고 왔습니다.”

김공은 일일이 보더니 극구 칭찬하여 말했다.

“부귀가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은 또 한 사주를 내보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부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평생 병 없이 사는 것이며, 또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에 공은 그것을 결눈질로 한번 보더니, 시자에게 자리를 펴고 안상을 설치하라고 명령하더니,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무릎을 가지런히하여 꿇어 앉아서, 그 사주를 서안상(書案上)에 놓고 향을 피우고 말했다.

“이 사주의 귀함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 비상한 명수(命數)를 소유했으니 흠모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생이 인사하고 물러나려고 하자, 김공이 말했다.

“이 늙은이가 병중에 근심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우니 그냥 보내기 어렵습니다. 바라옵건데 존객께서는 잠시 머무르시어 저의 병든 회포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심생으로 하여금 머무르도록 했다.

밤이 깊어 무인지시(無人之時)에 이르자 김공이 심생과 무릎을 가까이 하고 앞에 다가오더니 말했다.

“저는 사실 병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불행히도 이 시대에

두 번이나 벼슬에 나아가 일찍이 조정에 염적(染跡 : 다소 더러워진 흔적, 깨끗하지 못한 행적.)했었습니다. 뒤늦게야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여 세상에 나가지 않고 병을 핑계삼아 침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의 번복(翻覆)이 머지 않았습니니다. 그대가 와서 물었을 때 이미 내가 대략 깨달았으니 서로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심생은 크게 놀라 처음에는 잡아뗐으나 마침내는 그 연고를 고하였다. 김공이 말했다.

“이 일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거사하실 예정입니까?”

심생이 대답했다.

“모 일로 정했습니다.”

김공이 한참 신음하며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 날이 길하기는 길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사는 살파랑(殺破狼; 파랑은 북두의 제 1성인 탐라성과 파군성을 일컫는 듯한. 천문술에 의하면 탐랑성은 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파군성은 살기(殺氣)로 변한다 함.)이 있는 날을 택한 연후에야 좋을 수 있습니다. 모 일은 소사(小事)에는 좋지만 대사에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당장 택일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은 이내 역서를 펼쳐 익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삼월 십육 일이 과연 길일입니다. 이 날은 파랑살을 범하고 있으니 거사할 때를 당하여 비록 혹 고변(告變 : 정권을 뒤엎으려는 행위를 고발함)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은 명백합니다. 필경에는 반드시 무사하고 순조롭게 평정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날에 거사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심생은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공의 이름자를 우리들의 녹명책(錄名冊)에 삼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공이 말했다.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공께서 성공하신 후에 죽게 될 이 목

숨을 구하시어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소망하는 것이
옵니다.”

심생은 꽤히 허락하고 그 곳을 떠났다.

개화(變化: 교화하는 그로 하여금 변경하는 것이 있게 하는 것. 여기에서는 인
조반정 후 행해진 논공상벌을 의미한다.) 하는 날에 이르자 김공은 지은 죄가
많으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심생이 힘을
다해 그를 구해주어 영백(嶺伯:경상도 관찰사.)으로 초배(超拜: 정한 등급을
뛰어서 벼슬을 시킴)해 주었으나 결국 죽었다.

일찍이 김공이 자신의 사주를 중원의 술사에게 물으니 한 구의 시를 써
서 대답해 주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화산의 소탄 나그네 머리에 일지화(一枝花) 꽃آمد다.”

그 당시에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영백(嶺伯)이 되어 순행하다 안
동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학질을 앓게 되었다. 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두루 탐문하니 혹자가 당일 검은 소를 거꾸로 타면 즉시 치료된다고 운운
했다. 그래서 혹자의 말에 따라 소를 타고 마당 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소에서 내려 방에 눕자마자 두통이 매우 심한지라 한 기생에게 안마를 시
키고,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니 일지화라고 대답하였다. 김공은 중원 사람
의 시구가 갑자기 생가나 탄식하며 말했다.

“죽고 사는 것에는 명이 있도다.”

이에 새 자리를 펴라고 명하여 새로 지은 옷으로 갈아 입은 후 의관을
다 갖추고 베계를 반듯이 벤 후 숙연하게 서거했다.

이 날 삼척부사 아무개가 관아에 있었는데 홀연히 김공이 추종(騶從 :
상전을 따라 다니는 하속.)을 성대히 갖추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놀
라 일어나 말했다.

“공께서 어인 일로 타도(他道)를 넘어 하관(下官)에 내방하셨습니까?”
김공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산 사람이 아닐세. 조금 전에 이미 작고했는데 염라왕으로 부임



하는 길에 자네에게 들려본 것일세. 그리고 또 부탁할 것도 있네. 모방(某方)에 부임하면서 새로 지은 장복(章服: 벼슬아치들이 입던 공복. 특히 단령(團領)을 일컬음.)이 없는 것이 한이 되니, 자네가 평일의 정의를 생각해서, 그것을 마련해 줄 수 없겠는가?”

삼척부사는 마음 속으로 그것이 허탄한 것인지 알았지만 김고의 강청(強請) 때문에 상자 속에다 비단 한 필을 꺼내 그에게 주니, 김공은 흔연히 그것을 받더니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삼척부사는 크게 놀라고 의아하여 사람을 보내어 탐지해 보니 과연 그 날에 김공이 안동부 순도소(巡到所)에서 죽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 때문에 김공이 염라대왕이 되었다는 설이 세상에 두루 퍼졌다.

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과 김고의 아들 백곡(柏谷)은 절친한 벗이었다. 구당은 일찍이 북경에 가서 추수(推數)하여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모년 모일에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써 있었다. 그 해 정초를 당해 인마를 보내어 백곡을 맞아오도록 한 뒤, 그에게 한 장의 종이를 주면서 편지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백곡이 말했다.

“어느 곳에 편지를 쓰라는 것인가?”

구당이 말했다.

“자네의 돌아가신 존장(尊丈)께 보내는 자네의 편지를 한 장 얻고 싶네.” 백곡이 창황해 하며 쓰지 않자 구당이 말했다.

“자네는 나를 허탄하다고 여기는가? 허탄하고 허탄하지 않고를 막론하고 다만 나를 위해서 써주게나.”

재삼 간청하니 백곡이 부득이 붓을 들었다. 구당은 쓰고자 하는 편지 내용을 자신이 구술하고 그것을 백곡으로 하여금 받아 쓰도록 했다.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개는 절친한 친구 박 아무개는 명한(命限)이 장차 금년에 그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망(伏望)하옵컨데 특별히 공린(矜憐)함을 내리시어 그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해 주십시오.”

길봉투에는 ‘부주전(父主前)’이라 쓰고, 안봉투에는 ‘아들 아무개 아뢰니다’라고 썼다. 다 쓰고 나자 구당이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백곡과 더불어 분향한 후 그 글을 태웠다. 그리고 나서는 말했다.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네.”

구당은 과연 그 해를 무사히 보내고 수십 년이 지난 후 비로소 죽었다. 일이 허탄하고 망령스러운데 가깝지만, 김공의 정령은 다른 사람과 크게 달랐다.

그 후로 매일 밤마다 추종을 성대하게 거느리고 등축을 나란히 들고 장동(長洞)과 낙동(駱洞)을 왕래하다가 혹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에서 내려 회포를 펴곤 했다. 어느날 밤 한 소년이 새벽에 낙동을 지나다가 노상에서 김공을 만났다. 그는 김공에게 물었다.

“영공께서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김공이 말했다.

“오늘 새벽이 바로 나의 기일(忌日)일세. 음식을 흠향(歆饗)하러 갔다가 제물이 불결하여 흠향치 못한지라 정성이 부족한 것을 슬퍼하며 되돌아가는 길일세.”

말을 마치더니 홀연히 사라졌다.

그 사람은 즉시 김공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은 창동에 있었다. 집 주인이 제사를 피하고 나오자, 소년은 김공과 주고 받았던 말을 전해 주었다. 백곡은 크게 놀라 곧바로 내청(內廳)에 들어가 제물을 두루 살펴보니 불결한 음식이라곤 하나도 없었는데 다만 떡 속에 사람 터럭이 하나 들어 있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 후로 또 어떤 한 사람이 길에서 김공을 만났는데, 김공이 말했다.

“내가 일찍이 남의 강목(綱目: 통감강목.)을 빌려 보았는데 돌려주지 못했소. 제 몇 권 제 몇 장에 금박으로 끼워둔 것이 있으니 일후 돌려줄 때 혹시라고 그것을 살피지 않는다면 금박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이 말을 우리집에 전달해 잘 살펴서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김공의 집으로 가서 그 말을 전했다. 백곡이 강목을 찾아보

니 금박이 과연 거기에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밖에도 신이한 일들이 많았는데 다 기록할 수 없다.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785~791쪽.)

34. 남산호복인거황(南山虎伏人去黃)

성종 때 일이다. 어떤 무변한 사람이 선전관(宣傳官)으로 입시하였는데 상이 보시니 위풍이 늠름한 호남아였다. 이에 가까이 부르시어,

“네 능히 문자를 해하느냐.”

물으시었다. 그 선전관이,

“네 겨우 해석하옵니다.”

라고 알외이매 상께서,

“남산으로 글제를 삼아 한 구 지어보라.”

분부하시었다.

선전관이 한참 동안 애를 쓰더니,

“남산호복인거황(南山虎伏人去黃)”

이라 써서 바치는데 상이 그 뜻을 물으니,

“남산에 범이 숨어 있다가, 사람이 가면 먹으려고 누른다는 뜻이올시다.”

고 하여 누른 빛을 말하는 누루황 자를 내려누른다는 뜻으로 잘못 쓰고도 비위종계 뼈젓하니 설명까지 하니 글은 하여간 통쾌한 기상이라 하여 상이 웃으시며 좌우의 옥당학사들을 돌아보시고,

“그대들은 선비라 이런 글의 맺구 짓기가 쉬울 것이니 누구든지 지어보라.”

분부하시었으나, 누구나 서로 얼굴만 마주 보고 머뭇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얼마 후에 주서(注書) 한 사람이,

“신이 능히 채울까 하옵니다.”

하며 서정(書呈)하는데 보니,

“북악사번토래현(北岳蛇蟠兔來玄)”

이라 지어 있었다.

“복악에 뱀이사리고 있다가 토끼가 오면 먹으려고 감아버린다는 뜻이 올시다”

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감는다는 것을 검다는 감을 현자로 현황(玄黃)의 대(對)로 채운 것이 기특하다 하여 선전관과 주서는 모두 그 후의 성종의 사랑을 받아 귀히 되었다 한다.

(임경일, 《요절일화집》, 야담사, 1941, 38~39쪽.)

35. 독역(讀易)과 치산(治産)

선비인 이 아무개 집은 남산 아래에 있었다. 그는 가난을 편안히 여기며 책읽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그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10년 동안 역(易)을 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소려(채소와 굶은 쌀. 또는 굶은 쌀로 지은 밥)를 대줄 수 있겠소?”

부인은 할 수 있노라고 허락하였다. 이생은 마침내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매우 견고하게 방을 봉쇄하고, 겨우 밥그릇 하나만 들일 수 있는 혈창(穴窓)으로 조석(朝夕)의 밥을 들여보내도록 했다. 그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7년 동안 책을 읽었는데, 창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머리에서 광채를 발하는 어떤 한 종이 창밖에 넘어져 있었다. 이생이 놀라 밖에 나가보니 그것은 곧 그의 아내였다. 이생이 말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지요?”

아내가 말했다.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이미 닳새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을 먹여 살리느라고 한 터럭의 머리칼도 남지 않게 되어, 이제 힘이 쇠뇌 끝(弩末: 노말지세(弩末之勢)의 의미로 견잡을 수 없이 통겨져 나오는 세력을 뜻한다.)에 이르렀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이생은 탄식하더니, 문을 나서 곧바로 나라의 부자 홍동지(洪同知0의

집을 찾아가 홍동지에게 말했다.

“그대와 나는 비록 본래 모르는 사이지만 쓸 곳이 있어 그러니 나에게 삼만 금을 빌려줄 수 있겠소?”

홍동지가 한참을 그옥이 쳐다보더니 허락하며 말했다.

“백여 짐이나 되는 물건일진데 어느 곳에 구처하면 되겠습니까?”

이생이 대답했다.

“오늘 안으로 우리집에 그짐을 보내주시오.”

그리고는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런지 얼마 후 수레와 말로 짐을 실어보내기 시작하여 어두워지기 이전에 모두 보내왔다. 이생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는 돈이 생겼소. 나는 다시 역(易)을 읽어 십 년의 기한을 채우고 싶는데, 당신이 이 돈을 증식하여 나에게 조식을 대줄 수 있겠소?”

아내가 말했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생은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예전처럼 글을 읽었다. 그 아내는 값이 쌀 때 물건을 사들이고, 물건이 귀할 때 그것을 팔았고, 또 산업을 다스려 삼년 사이에 불어난 돈이 수 만금이 되었다. 이생도 삼 년이 지나자 역 읽기를 마치고 책을 덮고 밖으로 나와 돈을 싣고 홍동지 집으로 가 불린 이자까지 첨가하여 돌려주었다. 그러자 홍동지가 말했다.

“내 돈은 삼 만에 불과하였습니다. 삼만 전 이외의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생이 말했다.

“내가 그대의 돈으로 이익을 증식하여 이에 이르렀으니, 이는 또한 그대의 돈인 것이요. 내가 어찌 그것을 가지겠소?”

홍동지가 한사코 사양하며 말했다.

“제가 그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지, 빚으로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찌 이자를 논하겠습니까? 삼만 금 본전만 받을 따름입니다.”

이생은 부득이 그 잉여금을 도로 가지고 돌아왔다.

이생은 아내와 함께 집을 철수하여 관동 지방의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

어갔다. 그곳에서 터를 크게 개척하여 갑제(甲第: 크고 너르게 아주 잘 지은 집)를 새로 짓고 여사(閭舍)를 넓게 두어 백성들을 모아 그 곳에 들어가 사니, 그대로 하나의 큰 촌락을 이루었다. 잡초를 제거하고 황무지를 개척하니 기름진 땅 아닌 곳이 없었다. 해마다 거두는 곡식이 거의 천석에 이르니 의식(衣食)이 풍족하여 평생을 편안히 지냈다.

임진란을 당해 백성들이 어육(魚肉)처럼 난도질 당했을 때에도 이생이 살고 있는 촌락만은 병화(兵火)를 겪지 않았으니, 이는 산속의 무릉도원이었다고 한다.

(《청구야담》(이월영·자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457~459쪽.)

36. 이조 태조의 이상한 이야기

태조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이전에 이상하게 나타난 이야기를 들면 대개 아래와 같다.

태조께서는 용력이 출중하시고 활을 쏘시는 법이 신묘하시었다. 하루는 함흥에서 큰 소 두 마리가 서로 싸워서 여러 사람이 이를 말리고자 하였으나 어찌하지 못하였으나. 태조께서는 두 손으로 한 마리씩을 나누어 붙드시니 소가 능히 싸우지 못하였다.

태조께서는 천자(天姿)가 기위하시고 풍채가 영준(英俊)하시며 몸이 길고 곧으시며 귀가 매우 크시었다. 명나라 사신 왕태(王泰)가 태조의 풍채를 보고 갈오되,

“기이하다 귀이여 고금에 보도 듯도 못하였다.”

하였으며, 상명사(관상하는 자) 혜증이 그 친한 벗에게 일러 갈오되,

“내가 사람의 상을 많이 봤으되 이태조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드니, 그 벗이 또 갈오되,

“비록 상을 잘 탕드래도 위가 총재(塚宰)까지나 이르겠는가.”

하였다. 증이 또 갈오되

“충재 같은 것은 말할 것도 못된다. 내가 상을 본 바에 의지하면 임금의 상이라 그가 반듯이 왕씨를 대신하여 일어 나리라.”

하였다.

태조께서 평시에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읊으시었으니, 그 크고도 넓은 신 도량은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손으로 술포기를 붙들고 푸른 봉우리에 오르니(引手攀蘿上碧峯)
한 채의 암자가 흰 구름 가운데 높이 있도다(一庵高臥百雲中)
안개에 보이는 것으로 모두 내 땅을 삼으면(若將眼界爲吾土)
초월과 강남을 어찌 용납지 못하랴 또 어느때에(超越江南豈不容)
석 자만 한 칼 머리로 사직을 편안히 하고(三尺劍頭安社稷)

이라고 연구(聯句) 한 짝을 지었더니, 여러 문사들은 다 대답하지 못하고 최영장군이 아래와 같이 글을 지어 그 짝을 채웠다.

“한 가닥 채축 끝으로 건곤을 정한다(一條未定乾坤)”

승 무학이 안변 설봉산에 움집을 짓고 살았더니 하루는 태조께서 무학을 찾아보시고 갈오되,

“내가 꿈에 헐어진 집에 들어가서 석가래 세 개를 지고 나왔으니 이 무슨 조짐이냐?”

하시었다. 무학이 하례하야 갈오되,

“몸에 석가래 셋을 진 것은 임금왕 자의 형상이니 곧 왕이 되실 조짐이 올시다.”

하였으며 태조 또 물으시되,

“꿈에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떨어지었으니 이 무슨 조짐이냐?” 하시었다. 무학이 대답하야 갈오되,

“꽃이 날면 마침내 열매가 익을 것이요, 거울이 떨어지면 어찌 소리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태조께서 크게 기뻐하시어 곧 그 땅에 절을 이룩하시고,

“임금왕 자를 풀었다.”

하야 절 이름을 석왕사(釋王寺)로 하시니 곧, 지금, 안변에 있는 석왕사이다.

태조께서 안변에 우거하시던 때 하루는 꿈에 여러 집 닭이 일시에 울었다. 태조께서 꿈을 깨시니 곁에 한 노파가 있었다. 그리하여 노파에게 꿈의 조짐을 묻고자 하시었으니 노파가 말이어 갈오되,

“대장부의 일을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런 천한 계집은 가히 알 바가 아니옵니다. 서으로 설봉산에 가시면 굴 속에 신이한 승(僧)이 있을 터이니 가서 물어 보옵소서.”

하였다. 태조께서 곧 설봉산으로 가사 승 무학을 찾아 보시고 예를 베푸신 뒤에 꿈의 조짐을 물으시었다. 무학이 하례하여 갈오되,

“여러 집 닭이 일시에 운 것은 고귀위(高貴位:높고 귀한 지위의 뜻)의 소리이니 곧 왕위 오르실 조짐이라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옵소서.”

하였다.

태조께서 내두(來頭)의 일을 헤아리어 아시기 위하여 어떤 한 파자점(破字占)하는 자에게 나아 가시었다. 이 때에 태조보다 먼저 온 손이 책을 펴고 쓰인 글자 하나를 보지 않고 손으로 더듬어 짚으니 물을 문(問) 자였다. 점사가 문자를 해석하여 길흉을 말하여 갈오되,

“문에 입을 달았으니(懸口於門) 거지의 형상이라(乞人之相)”

문(問) 자는 문(門)자의 가운데 구(口)자가 있으므로 문에 입을 매여 달은 형상이라 하였다.

그 손이 점사의 말을 듣도 기색이 좋지 않아 돌아 간 뒤에 태조께서 또 책에 쓰인 글자 하나를 보지 아니 하시고 손으로 더듬어 짚으시니 역시 문(問)자였다. 점사가 곧 해석하여 갈오되,

“왼편으로도 임금이오 오른 편으로도 임금이니(左君右君) 임금의 상이라(君王之相)”

(문자를 좌우로 나누고 구 자를 더하면 좌편으로도 군이 되고 우편으로 군이 되므로 임금이 될 형상이라 하는 뜻)이라 하였다.

태조께서 물어 같오사되,

“아까 돌아간 사람에게는 절인지상이라고 하느니 나에게는 군왕지상이라 하니 어찌 하는 말이나?”

하신즉, 점사가 대답하여 같오되,

“아까 사람의 얼굴은 절인의 골격이요, 지금 그대의 얼굴은 임금의 기상인 까닭이다.”

하였다.

어느날 어떤 한 사람이 태조의 집 문 밖에 와서 이상한 글월을 드리면서 지이산 바위 틈에서 얻었다 하므로 태조께서 그 글월을 펴보니,

“나무 아들이 도야지를 타고내려 와서 다시 삼한 지경을 바로 잡는다(木子乘猪下復正三韓境)”

는 글구가 쓰여져 있었다.

그리하여 태조께서 사람을 불러 그 글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맞아 보고자 한즉 벌써 가고 없어졌으며, 또 고려 서운관(관아 이름)에 감추어 둔 비기(秘記)에,

“아홉 번 변하는 진단(조선) 그림에 나무를 세워 아들을 얻는다(九變震壇之圖 建木得子)” 말이 있었고,

“왕씨가 멀하고 이씨가 흥한다.”

하는 말이 있었으나, 고려 말년까지 이를 비밀히 하여 말을 내지 아니 하였다.

태조께서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신 때 어느 날 꿈에 한 신인이 하늘에서 이 글자를 주어 같오되,

“정시중 부흥은 맑으나 이미 늙었고 최도통(催都統) 형(瑩)은 곧으나 좀 우직하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을 자는 공이 아니고 누구이리요.” 하였다.

(김희상, 《조선사화》, 단민출판사, 1946, 95~99쪽.)

37. 포장(捕將)의 명판결

이조 영조(英祖) 대왕 시대 수 십 년간은 주금(酒禁)이 지엄해서 만일 술을 밀조해서 먹다가 들키는 날이면 용서 없이 잡아 죽였다. 왕십리(往十里)에 지동지(池同知)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백만장자로 가산이 부요하였으며 평생에 약주를 좋아해서 하루도 술 안 먹는 날이 없었으나 원체법령이 지엄한 까닭에 밀주(密酒)도 해 먹지 못하고 술을 주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동지의 환갑날을 당하여 다른 음식은 풍비해도 다만 술 한 가지가 없어서 지동지는 종일 마음이 울울불락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 왔던 빈객은 하나씩 둘씩 다 돌아가고 지동지는 내실로 들어와 홀로 저녁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 자부가 술 한 병을 갖다 가만히 상엿에 놓는 것을 보고 지동지는 놀라고 반가워,

“이게 웬 것이야.”

하고 물었다.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 하시는 데다 오늘을 당하매 약주 한 잔 없사오니 더욱 섭섭하실 듯하여 미리 술을 조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용하오니 한잔 잡수십시오.”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동지는 그 뜻을 기뻐하게 여기는 한편,

“이런 좋은 것을 혼자 먹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친구와 같이 나눌 생각으로 자기 집 사랑에 늘 와서 노는 김선달을 청하였다. 김선달이 와서 지동지의 집에 술이 있는 것을 보자 돌연 그에게는,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부자의 돈을 좀 먹어 보자는 엄청난 생각이 생겼다. 그래서,

“자네 술 한 잔 자시게.”

하는 지동지의 말을 듣고 가만히 섰다가 얼굴빛이 뚱해지며,

“나는 술 먹을 수 없네. 금령이 지중한 한 때에 술이 웬 일인가?”

이렇게 정색하여 말하고는 그대로 문으로 나가 버렸다.

지동지는 친구라고 무관이 생각하여 일꾼 그를 청하여 이것을 당하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앉았다가,

“별 빌어 먹을 놈 다보았네.”

하고는 혼자 술을 따라 다 먹어 버렸다.

김선달은 자기가 그런 태도를 보이고 나오면 지동지가 자기를 불러 무슨 말이 있을까 얘기하였다가 다시 부르지도 않고 소식이 없으니 자기 계획은 실패 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지동지 볼 면목도 없고 혹시 구긴한 때에 사정하여 보던 일도 다시는 말 못하게 되었다. 그는 이리 생각 저리 생각하다가 내친 걸음에 한양 가는 격으로 그 길로 포청으로 가서 지동지가 술을 밀조하였다는 것을 고발하였다.

포장은 김선달의 고발을 듣자 즉시 포졸을 명하여 지동지를 잡아다가 초사를 받았다.

“네는 막중금법의 술을 먹는다 하니 과연 사실인가? 바로 아뢰어라.”

포장은 소리를 높여 신문하였다.

“네, 사실입니다. 소인의 천한 나이 예순 한 살이옵는데 어제가 환갑이라고 소인의 자부가 술 한 잔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지동지는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 말은 듣고 포장은 다시 포졸을 명하여 지동지의 자부를 불러 왔다.

“네가 내 시아비에게 술을 주었다하니 그 술은 어디서 난 술이나?”

“소인의 시부가 원래 약주를 좋아하오나 금령이 지중하와 술 한 잔을 드리지 못 하오니 자식된 도리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 오든 차에 어제 시부 환갑을 당하 오매 너무 섭섭하와 조그만치 술을 비저 두었다가 한 잔 술로 축수하였사오니 망상지죄중 하온지라 처분만 바라나이다.”

지동지며 며느리는 엎드려 죄를 청하였다.

“그러면 그 술은 내 시아비 혼자 먹었느냐?”

“술도 많지 못하옵고 또 금령지하에 손님 대접을 할 수 없사와 내실에서 비밀이 시부에게만 드렸사온데 시부는 친구 생각이 나서 이웃집 김선

달을 청하여 같이 한 잔을 나누려 하였사오나 김선달은 무슨 생각이 있어 그랬는지 그 술을 먹지 아니하고 나갔습니다.”

포장은 사실을 심리한 후 가만이 생각해 보더니 즉결처분으로 지동지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너는 금법을 무시하고 술을 먹었으니 당연히 극형을 당할 것으로 되 여러 가지 정경을 참작하여 특별히 형을 경히 하는 것이니 별전으로 돈 천냥을 바쳐라.”

다시 지동지 머느리에게 대하여는,

“너는 시부를 위하여 법령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밀조하였으나 법의 원인으로 말하면 일편 효성에서 나온 일ियो 또 여자는 지려천박(智慮淺薄)하니 마땅히 면죄 할지라. 그리고 효행을 표창함은 나라의 특전인 즉 표창금으로 돈 천냥을 주는 것이다.”

포장은 다시 고발한 김선달을 불렀다.

“너는 밀주를 발견하고 관가에 고하였으니 대단히 가상하다. 그 공로로 금주군관을 시키는 것이니 각별 거행하되 오 일에 한 번씩 술을 잡아들이 되 만약 술을 잡지 못하면 형벌을 당하련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 지동지와 그의 머느리는 몇 번이나 절하여 감사한 뜻을 표하고 나갔고, 김선달도 벼슬한 것만 좋아서 입이 벌어져 나갔다.

그러나 원체 법령이 지중하여 아무리 궁벽한 여항 촌락이라도 술을 먹으면 죽는 법으로 알고 제를 지내거나 잔치를 해도 술이라고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 김선달이 아무리 방계곡경을 한들 술 먹는 사람을 찾아 낼 수가 없다.

포장은 그 후 오 일만에 김선달을 불러,

“네가 금주군관 된 지가 오 일이 되었으니 그 동안에 술을 잡았느냐?” 하고 물었다.

“예, 황송하오나 아직 술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김선달은 머리를 굽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면 네가 직무에 태만하여 상관의 명령을 어기니 불기를 맞아라.”
하고 포장은 김선달을 엮어놓고 태장 열 개를 때려 내보냈다.

그 뒤로 김선달은 역시 술을 잡지 못하고 오 일 안에 한 번 꼭꼭 태장을 한 번씩 맞는 것을 석 달 동안을 맞고, 나중에는 금주군관까지 띄어 바치고 말았다.

(《월간야담》 제6권 2호, 1939, 계유사, 35~37쪽.)

38. 빈군수득전법(貧郡守得錢法)

철종대왕(哲宗大王) 등극 초에 서울 남산 밑에 최의동(崔義東)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소위 명문의 후예로 선대의 조상을 상고하면 그럴듯한 이가 많았으나 그의 조부 때부터 운수가 쇠태하기 시작하여 집안이 가난해지고 게다가 벼슬 하나 얻어 하지 못하여 살어 나가기가 말 아니었다. 그래도 의동은 큰 뜻을 품고 늘 공부를 하며 세의가 있는 당시 이조참판 김모의 집을 매일 출입하다 시피하여 무엇 하나 시켜 주기를 말은 아니하나 은연중 기색으로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암만 세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데 한 군데 볼 데가 없는 그에게다가 자격도 그리 출중한 편이 못되니 김참판은 그의 오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다. 그러나 의동은 십 년을 하루 같이 늘 그를 찾아 다니었는데 그의 지성에 감동하였든지 김참판은 그에게 함경도 지방 어느 적은 고을을 하나를 얻어 주었다.

정승이나 한 것 같이 좋아 날뛰며 의동은 술가하여 그 곳으로 부임한 뒤 새로이 치정을 해나가는데 옛 성현서를 읽었을 때 치민지도(治民之道)는 안 배우고 백성을 괴롭히는 도만 배웠든지 공연히 사람을 괴롭히고 또 처사를 어둡고 흐리게 하여 양민이 죄를 얻고 무죄한자 옥에 갇히게 되니 불과 두어 달 못되어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가 고을에 차게 되었다.

원이 어두운 틈을 타서 각방관속들은 재물을 긁어 모으기에 급급하고 원은 공사는 돌아보지 않고 오래 주린 사람이 탐식을 하듯 연락으로 일을

삼으니 그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은 처음부터 결정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은 빠른 법이라 의동의 이런 소식은 쏜살같이 조정애 달하였고 김참판의 귀에도 몇 번이나 고약한 이야기가 들리었다. 김참판은 자기가 천거해 시킨 사람이라 그 책임이 또한 중함을 깨닫고 곧 이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그를 파직하기로 결정 이 공문은 의동이가 그 곳 원이 된 지 불과 석 달 되는 달 어느날 의동에게 통달되었다. 만사 태평으로 있던 의동에게는 정말 청천의 벽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통고를 받고 비로소 오랜 꿈을 깬 듯 보는 사람이 없으면 통곡이라도 하였을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정신을 차린대도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다. 별수 없이 인제는 세간짐을 꾸러 가지고 다시 남산골 오막사리 옛집을 도루 찾아 들어가야 할 모양인 데 이런 세월이 길 줄만 알고 걷어 모은 돈이라고는 모두 낭비를 하여 버려 가지고 있는 돈은 불과 올라갈 노비가 될까 말까 할 뿐이다. 그래도 올라가서 당분간이라도 궁색함을 면할 수 있게 돼야 할 터인데 날짜는 압박하고 어떻게 돈을 좀 뜯을까 궁리하여 보나 별로 좋은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의동은 상을 잔뜩 찌프리고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중 긴하게 굴던 이방이 그 눈치를 알아 차렸든지,

“무슨 걱정 되시는 일이 있사오니까?”

“응.”

“무슨 일이 온지 신의 힘으로 되올 일이 오면.”

하며 이방은 그는 갈마진 눈으로 힐금힐금 의동을 쳐다 본다.

“응,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쉬 서울로 가게 되었다.”

“네 ? 그러면 내직으로 승차하시게 되었습니까?”

“아니야.”

하며, 그 말에 의동은 버럭 성을 낸다. 이방은 움찔하며 아무 말 없이 도로 가만이 앉았는데 이번에는 의동이가 먼저 입을 열어,

“사실인즉 내가 벼슬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 가려고 하는 것인데 알다

시피 올라갈 노비조차 없는 형편이란 말이야.”

“네, 참 그랬습니다.”

“어데 좋은 도리가 없을까?”

하며 의동은 이방을 의미있는 눈으로 내려다 본다.

“가만히 계시오.”

하고 이방은 한참이나 고개를 숙인 채 무슨 생각을 하더니,

“한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꼭 나올까?”

“네, 되지만 하면 나오지요. 그런데 민이 하시라는대로 어떤 것이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야 나오기만 한다면...”

하며 의동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승낙하였다.

“그런데 대체 어떤 방법이고?”

“네, 이리이리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이방은 기교를 이야기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그 노릇을 어찌 하노.”

하며 의동은 상을 찡그린다.

“그래도 지금 급하게 하려면 역시 이 방법이 묘합니다. 그 외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의동은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더니,

“그럼 그렇게라도 해보지.”

하여 이방과 단단히 약속을 하였다.

이 날 저녁에 의동은 추레한 의복 한 벌을 장만하여 입고 이방과 함께 성내에 있는 제일 큰 술집 이아모의 집을 찾아 갔다.

이 술집은 이 고을에서 제일가는 지금으로 치면 양조장과 같은 집으로 재산도 많이 모아 가지고 있었다.

의동은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이방을 밖에 세우고 가만히 술집 안으로

들어가서 술독에 있는 술을 많이 퍼먹고는 그대로 술독 옆에 쓰러져 쿵쿨 잤다. 원체 술을 많이 퍼먹은 까닭에 그는 정말 정신을 잃고 누워 있게 되었다. 한참 후에 주인이 술독 옆으로 지나가다 들으니,

“쿨 쿵.”

“누가 예서 자!”

하고 그는 술독 옆으로 가 보니 누구인지 알지 못 하는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한 채 쓰러져 정신을 모르고 자고 있는데 보아하니 의복은 추레하고 모양이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도적놈인 것이 분명하다.

“애들아, 이 놈을 보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 안에 있던 일꾼들이 우루루 나와,

“이 놈이 도적놈일시 분명하니 얻어 매여 관가로 데려 가거라.”

술집 주인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매 여러 사람은 불문 곡직하고 달려 들어 군수를 결박을 지어 푸대에 담아 가지고 집 옆의 나무에다 붙잡아 매여 논 후 날이 밝기를 기다려 관가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집 옆에 숨어 서서 이 꼴을 살펴보고 있던 이방은 여러 사람이 나간 틈을 타서 가만히 그 집안으로 들어가 술집 주인의 어머니를 잡아 내다가 결박을 짓고 군수를 넣은 푸대에 담아 나무에다 부뜨리맨 후 군수는 풀러 가지고 그대로 같이 돌아와 버렸다.

이튿날 밝을 녀에 술집 주인은 일꾼들을 시켜 어제 저녁에 들어온 수상한 놈을 바빠 관가로 데려 가라고 호령을 하였다.

일꾼들은 명령대로 어제밤에 결박하여 나누어 매인 사람을 살펴 볼 새도 없이 그대로 여럿이 둘에매여 관청으로 끌고 가서는,

“도적놈을 잡어 왔습니다.”

하고 군수에게 고발을 하였다.

군수는 대청에 좌지를 하고 위엄을 내어 큰 기침을 하며,

“그 놈을 풀어 여기 끌리여라”

하고 호령을 하였다. 사령들은 긴 대답을 하여 가며 술집에서 잡아온 사

람을 뜰 앞에 내놓고 푸대를 벗기니 나온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술집 주인의 어머니였다. 군수는 시치미를 딱 떴고,

“여봐라, 네가 아모개 집에 도적질을 하러 들어 갔더라 말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물었다. 이 말에 그 늙은이는 몸을 부르르 떨며,

“웬 웬 천만의 말씀이 올시다. 소인은 아모개의 어미 되는 사람이 올시다.”

하고 바른 대로 고백을 하였다. 그 말을 듯더니 군수는 좌우를 돌아보며,

“이 어찌 된 일이냐, 제 에미를 도적놈이라고 잡아 왔단 말이나!”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 사명들은,

“과연 이는 아모개의 어미올시다.”

하고 아뢰었다.

“어미라니 그러면 제 어미를 도적이라고 잡아 보내는 놈이 있단 말이냐. 아모개 놈을 즉시 잡아 오너라.”

하고 추상같이 호령을 하였다. 누구 명이라고 거역하랴! 사령들은 빨리 술집으로 달려가 주인을 잡아다가 끌리었다.

“이 천하의 무도한 놈아. 어미를 잡아 도적이라고 관가로 보내다니 이 놈아, 죄를 어찌 하려느냐!”

술집 주인은 어찌된 영문을 몰라 찢찢매며 옆을 돌아보니 거기 꿇어 앉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분명하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네, 그 놈을 꽤 쳐라”

하는 호령이 떨어지자 집장 사령들의 곤장은 사정 없이 그의 볼기 위에 떨어졌다.

“아니 올시다. 분명히…”

술집 주인은 겨우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이 놈 듣기 싫다. 잔말 마라, 불효무쌍한 놈 같으니…”

하고 군수는 말도 못하게 말문을 막았다.

술집 주인은 다시는 입도 못 열고 매만 맞고 나중에는 옥에 갇힌 몸이 되었다. 옥에 들어 앉아 그는 이리 생각 저리 생각 하여 보아도 이 일이 대체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죄는 꿈쩍 없이 입게 되었는데 인제는 어떻게 뇌여 나갈 방침이나 연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옥사정을 보고 사정 말을 하며 이방을 좀 만나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오래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이방은 옥사정의 전하는 말을 듣자 곧 옥으로 가서 그를 만나 보았다. 한참 동안 그들의 사이에는 껄속 말이 교환 되었다.

이튿날 군수에게는 돈 천 냇이 굴러 들어 왔다. 그리고 술집 주인은 무사히 출옥 할 수가 있었다.

최의동은 이렇게 하여 마지막으로 이 고을에서 돈을 뜯어 가지고 서울로 돌아간 것이다.

《월간야담》 제5권 제8호 통권44호, 1938, 월간야담사, 43~47쪽.)

39. 우직(愚直)의 출세

한 삼백 년 이전쯤 되었을 때에 서울 안 선혜청(宣惠廳) 네거리 오늘날 남대문 안 시장에서 짚신 장사 하나가 나타났었다.

이 짚신 장사의 모양은 키가 구척 장승과 같았고 굼직한 뼈대는 울퉁불퉁하고 넓적한 얼굴은 거뭇거뭇하게 생겼는데 진흙이 묻은 고의적삼은 주황빛이 얼룩지었고 고약 같이 때묻은 망건에 먼지가 케케묵은 갓 꼭지가 뒤통수에 있는 것을 보겠는데 묻지 않아도 시골 선비였다.

이 사람의 성명은 오석양이니 경상도 양산(梁山) 사람이다.

키대가 큼으로 기운꼴은 세었고 위인이 숫적은고로 의협(義俠)의 멋은 있으나 융통해야 물정에 흐리었다. 그러므로 보는 사람마다,

“아모개는 참 순실하여!”

하고 칭찬하는 동시에,

“좀 천치야.”

하는 비웃는 것도 듣게 되매 장난군은 흔히 그 숫적은 것을 이용하야 속이고 놀리어 하는 거동을 보려하였다.

그러나 이 오석양은 모도 고지 듣고 그대로 행하려 하였으니 아모리 순박한 옛적 때인들 어찌 들어마질 이치가 있으랴?

그리고 보니 오석양은 자기 혼자 거짓이 없이 그 세상을 지내나 그 세상 사람이야 누가 그런 태딩이를 구조하려고 들었을까?

그래도 오석양의 강근지친이나 여럿이 있고 형세도 유여하였더라면 인자한 족척간에서 그를 보아 주었을 터인데, 그도 팔자가 기박하야 매우 고독히 남겨 있었다.

그러כן 자연히 자립생활 할 수밖에 없고 남의 머슴노릇도 못하고 지내 가려니 할 수 없이 짚신이나 삼어 팔어서 호구하여 갔었다.

이왕 짚신을 삼어 팔 바야 그도 위인이 똑똑하였으면 짚신 모양도 남보기에 암전하게 만들겠지마는 용통한 사람의 솜씨라 머슴꾼의 논두렁 밭고랑에나 신고 다닐 만큼밖에 못 만들었다.

그 곳 사람이야 연구세심(年久歲深)하게 같이 알게 되니 날구장철 누가 심하게 놀리며 해를 끼치랴마는 사람은 누가 보던지 비웃지 않을 자 없을 만큼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때는 서울로서 내려간 짚은이로 실없이 잘 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오석양의 팔려고 해놓은 짚신의 모양을 보고 하도 우스워서,

“이 짚신 한 켤레 값이 얼마요.”

물어오니 오씨는 대답하되,

“하나 살래요? 값이 두 푼이랴요.”

하니깐 그 소년은,

“하 ! 그래요 ? 이렇게 싸다요? 만일에 서울로 갔다가 팔었으면 백 푼은 받ند요.”

하며 송내처럼 실없이 말하였다.

그러나 오석양은 그 말의 눈치도 못 알아 채고 그 말이 그런가? 의심내며 반가운 마음을 떼고 눈을 흘킴흘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래요?”

소리를 느리게 물어 보다가 그 사람의 대답이,

“그렇구 말구요!”

소리를 강하게 하여 불임을 보매 확실무의 한 것으로 여기고,

“에!”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날밤부터는 오석양은 밤을 돌아 짚신을 삼어 일곱 죽-일흔 켄레를 만들어 가지고서 서울로 온 것이다.

그 때는 지금처럼 화려치는 못하나 그래도 서울이란 조선 안 제일 가는 대도회라 시골 두메 구석보다는 온갖 것이 변화하며 돈도 흔하고 모양도 널 줄을 알었으니 누가 그런 짚신을 보려고나 하랴?

그래도 서울 안 제일 가는 장바닥 네거리라 오고 가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물건도 눈에 떴을 까닭으로 혹시 지나 가는 말로,

“여보! 이 짚신 한켄레 얼마요?”

물어보면 그 골알이는,

“한량이라요.”

소리를 서슴치 않고 숙-한다. 이런 말을 들은 여러 사람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속으로,

‘저 자가 미친 놈이군?’ 하거나 혹은, ‘그놈이 얼빠진 자식이다’ 하며 웃기만 하고 아모 말 없이 돌아 가버린다.

원래 물건 값이 이 삼배나 사오배가 틀여야 값이 비싸니 어울러나 보지 워낙 시가에 여러 십배가 들어 나게 틀리므로 모두,

‘그 사람은 성한 친구가 아니라’ 고 도로 가엽시 여기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 오석양이야 값을 묻던 사람의 웃고가는 뜻을 어찌 알 수가 있으랴? 한 번 두 번은 돌오혀,

“그 사람! 왜 남의 물건 값을 묻기만 하고 웃고 가나.”

웃었겠지마는 세네 번이 지내되 여전히 그런 것을 볼 때에 자기 역시 어찌된 까닭인지 알지를 못하여 답답히 지내었다.

그러나 이 오석양은 애초에 자기 시골집에서 남에게 속았지 자기는 확실히 서울 안 시세는 그러한 것이라 하매 다른 사람의 파는 것도 구경할 생각도 없으며 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넌지시 서울안 짚신의 시세가 어떠한가를 물어 볼 생각도 없이 그저 순연히 나갔다.

본래 알고서 잘못하는 것은 결과가 잘 되었더라도 마음은 죄과(罪過)라 안 하기 어려울지라 나중에는 화해(禍害)가 잠복하기 쉬운 것이다. 모르고 잘못하는 것은 결과가 잘되지 못하였더라도 마음은 죄과가 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실패가 변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혹 그랬던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렇게 오석양처럼 숫적 계 그릇 나가는 것을 특별히 취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어느날은 웬 이팔청춘의 계집아이가 미명 적삼에 반물드린 도랑 치마를 입고 벼 행주치마로 싹 앞을 가렸고 손에는 보군이를 들었으니 묻지 않아도 남의 집 종으로, 흥정하려고 나온 것인데 반나절 동안을 일부러 그 오석양의 짚신을 파는 거동을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 조용한 틈을 타서 오석양을 보면서,

“이 짚신을 모두 팔면 값이 얼마예요?”

물으니 오씨는 섣뚱 대답하되,

“일흔 냥이라요.”

하니깐 그 계집아이의 말이,

“나하고 같이 가서서 값을 찾아 가심이 어떠세요.”

물으즉 오씨는,

“아! 그러쥬.”

하고 일곱죽 짚신을 등에다 메고 그 계집 아이 조차 갔었다.

이 여자는 어떠한 계집 아이길래 온 세상이 미친 사람으로 치는 그 오

석양을 위하여 그 많으나 많은 일흔 냥이란 돈을 허비해야 쓸데 없는 되지 못한 짚신을 사려고 하였는가.

이 여자는 당시 일품 재상인 어느 대감댁 종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영리하고 똑똑하여 어깨 넘어 문장으로 양반의 집 온갖 범절을 다 배우며 또는 인물평론에 귀익혀 들어서 혜두의 밝음이 남보다 등수가 뛰어났었다. 이러한 여자기로 나이 이팔이 되어 남녀의 성적 관계도 잘 이해하며 남모르게 울울히 지낼 때 상전 혹은 부모급(부모는 같이 있지 않음으로 존속친을 말함.)이 성취함을 재촉할 때는 억제키 어려운 성덕발작을 억제하여 가면서 이를 반대하되,

“저는 어느 때나 제 눈에 합당한 자를 구하여 같이 살겠어요.”
하였다.

그러더니 이 날에 장거리에서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그 오석양의 짚신을 파는 모양을 보고 한참동안이나 그 위인을 이리저리 생각하여 보았다.

그 사람의 언어 행동을 본 즉 시골사람이나 아직 상한은 아닌 듯 싶었고 기대와 기쁨이 사내답게 생겼으므로 나중에 귀인도 될 듯 싶었다.

그런데 짚신 값을 시가에 수 삼십 배나 틀리게 부르는 것을 어찌 모르랴마는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순실하게 남의 말만 끝이 듣고 그러는 것인 줄은 확실히 의심이 없었다. 그리고 보니 저러한 사람은 잘 교도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만한 바탕이 있는 줄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속으로,

“내가 저러한 이를 잘 지도하여 데리고 가면 장래에 불만한게 있을 터이니 내 저이를 띄여 데리고 가서 같이 살리라.”

작정을 하고 그와 같이 짚신을 다 사겠다고 하고 돈을 가서 차지게 하여 데리고 갔었다. 그 여자는 그 오석양을 데리고 자기 행랑에 잠깐 들어가 앉으라 하고 술과 안주를 잘 차리어 갔다가 주면서,

“온종일 그것을 파려고 애를 쓰셨으니 오죽이 시장하시겠소. 술이나 좀 마시세요.”

한즉 오석양은 본래 술은 잘 먹던 사람이라 술을 보매 회가 동하며 입이 버러지고 그 무슨 까닭으로 내다 주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오석양은,

“어! 술 맛 좋다! 안주도 펍 좋은데!”

하며 달게 먹었으니, 시골 구석에서 탁주에 북어 대가리 안주를 먹던 입이 서울 안 청주에 산포 조각이 얼마나 좋았으랴? 조금 있다가 그 멍텅구리는,

“짚신 값을 얼른 주어야 내가 가겠는데!”

하고 돈을 재촉도 하여 보았다가 그러나 그 여자의 대답은,

“오늘은 다 되지 못하겠으니 내일 찾아가시오. 하루 밤만 여기서 그냥 쉬시지요 아마 주막도 못 정하셨죠?”

하니깐 그 멍텅구리는 예쁜 여자가 술도 주는 바람에 억지로 채근도 못하고 또는 여관으로 나가 자겠다고도 아니하고 그리 그 여자의 하라는 대로 하고 말았다.

그 여자는 즉시 저녁밥상을 들고 나오는데 어육이 진만하여 오석양의 두 눈이 부시게 되었고 또는 그가 거적자리에 떨어진 뒤에 처음으로 맛보는 음식을 기갈이 잔뜩 심한 때에 먹게 되니 그저 넉넉넉히 젓가락과 손가락으로 함부로 좇아 먹어서 만삭한 배와 같이 동당고산이 되었다.

어두운 뒤에는 그 여자는 향내나는 더운물 한 대야를 떠다 주며,

“이 물에 온 몸을 좀 씻으세요”

하니 그때 가서야 뉘 영이라고 아니 들으랴? 그렇게 그 남자를 말짱이 씻긴 뒤에는 언제 준비하였던 옷이던지 알 수 없으나, 새 옷을 꺼내어 입히니 그 역시 안성마춤으로 마졌다. 고전에는 오석양의 땀내와 발고린내에 코를 둘 수가 없었다. 워낙 참는 힘이 강한 여자로 자기 남편 감으로 모셔왔으니까 억지로 참고 다녔더니 급기야 훌쩍 벗기고 보니 과연 험스런 사내대장부답게 생겼으며 볼수록,

“어, 내가 우리 남편감 잘 골랐다.”

하는 감상이 연해 발작되었다. 그리하여 더욱 다정히 무릎을 연이어 앉아서 소근 이야기 하는 말은,

“오늘밤 달도 밝고 날도 산들산들 하니 이런 밤을 어찌 그냥 지내겠소. 우리 같이 잡시다.”

하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흘끔 쳐다보며 생긋 웃는 빛으로 부부의 의를 맺자는 청구였다.

이 멍텅구리가 처음에 짚신 값이 뜰가봐 문둥이의 본색을 잃지 못하여,
“말은 좋으나 어찌 그럴 수야 있어야지?”

반대 겸사로 하였지마는 그도 불쑥달린 남자라 여자가 먼저 말을 아니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를 당하여 성욕의 발작을 면치 못 할 터인데 하물며 이팔가인이 앞에서 그 마음을 돌음이라? 그리하여 그 둘은 하상견지만야(何相見之晩也)라는 말을 노래로 부르게 되어 새로운 사랑이 찰떡 그들에 유자 사랑이 되었다. 오석양은 나이 근 삼 십에 여색은 처음으로 보았으매 변환된 신경은 하늘에 오르듯이 즐거워 하였으나 워낙 멍텅구리라 어째서 자기를 사모하였으며 꾀였느냐?고 물어 본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평생에 바라던 바에 칠분 흡족한 그런 남편과 운우를 치르고 나니 그도 과년한 여자라 멍텅구리 남편이지만은 볼수록 즐거워 하여,

“여보, 당신이 어느 시골에 사시요.”

“난 경상도 양산이란 고을에 살어.”

“그럼 당신이 양반이슈 행족이슈?”

“응? 나두 양반이라우.”

하니 그 여자는 그래도 그가 양반이란 말에 일분 더 흡족하였다.

“그러нде 서울 안 규모가 남의 집 비부이면 상전에게 뵈옵는데 마당에서 문안을 드리는 것이예요. 당신이 나와 내외가 되었으니 나는 이 때 씨종인 즉 식전에 큰 사랑에 가서 대감마님께 뵈야 하지 않겠소? 청직이들이 하정 배를 하라 거던 기어이 마루 위에 올라가서 대감을 뵈고 절을 하시우.”

하며 일러 주니 그 멍텅구리는,

“응, 그래! 내가 그러지!”

하며 그 때부터 계집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이다.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서로 이야기를 깨가 쏟아지게 하느라고 밤이 샌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동이 틀 시에 깜짝 놀래여 일어나서 소세를 재촉하고 의관을 새로 정제한 후에 그 여자는 자기의 남편을 데리고 사랑계로 가서,

“첫네가 어제 밤 경상도 양산에 사는 오석양이란 사람을 남편으로 삼았기로 지금 데리고 들어 왔습니다.”

하니 그 주인대감은,

“응! 내가 남편을 어디서? 어디 보자!”

하며 하도 신기한 생각으로 반갑게 여기는 빛이었다. 이럴 즈음에 오석양은 마루 위로 올라가려하는데 그 집 청직이가 꾸짖되,

“저리 내려 가거라. 어디라고 올라가려 하느냐?”

하며 떠밀어 내 쫓으려 하거늘 오석양은 딱 버티고 서서 요개 부동하고 말하되,

“내가 아무리 이 댁 비부라 하나 나도 시골 양반이니 어찌 하인처럼 하정배를 하라 하오?”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래도 청직이는 호령을 하면서,

“이 놈 내려가라면 내려 갈 것이지 여러 잔말을 하느냐.”

하고 혼자서 힘이 약함으로 하인청으로 선영줄을 흔들어 구종을 불러 내 쫓게 하려 하거늘 그 때에 주인 대감은,

“그 어떠한 작잔고?”

하고 영창문을 좀 열고 내다 보니 그 자의 의표가 현철하고 언사가 뇌라한지라 마음에 그렇게 대접할게 아니라 하여 웃으면서,

“어! 아모개가 골른 것이라 할 만하다.”

하고 그만 청직이더러,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고 방 윗목에서 다른 시골 사람과 같이 절하고 보게 하였다. 이것만 하

여도 그 집 씨종으론 지체가 훨씬 높아져서 모두가,

“저희는 아모개 서방이라.”

고 손짓하며 칭찬도 하고 부러워도 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것만으로 만족히 여기지 않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남편을 발전시킬 궁리를 하였다. 그리하여 그 동안 여러 해포를 두고 대가집, 부귀를 들날리는 데 있었으므로 번죽한 여러 집에 왔다 갔다 하며 돈냥이나 착실이 모았던 것을 풀어쓰기 시작하였다.

이는 용통한 남자로 안목을 넓히게 하려면 돈냥을 쓰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한 까닭이었다. 그러므로 내외가 된 지 며칠이 지나서 하루는 그 여자가 오석양더러,

“당신이 매우 태고 적 백성이니 이래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아 갈 수가 없는 게요. 내 당신에게 돈푼을 드릴 터이니 가지고 나가서 쓸만한데 다 쓰고 오시오.”

하고 돈 한 꾸러미를 꺼내어 주니 석양은,

“어디 그래 보지!”

하고 나갔으나 워낙 영남사람의 구두쇠인 습관을 얼른 벗기 어려워서 저녁 때에 어스렁어스렁 그냥 들어 온다.

“오늘 돈 좀 썼소.”

“어디 쓸 데가 있어야지!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니 술 한 잔 사먹기 싫고 ...”

“그래서 길거리에 거지가 달라지도 안습디까?”

하도 답답히 여기는 그 여자의 태도에,

“글쎄 그건 내라서 미처 생각을 못하였네.”

하고 그 이튿날부터는 오석양이 돈 한 꾸러미씩을 가지고 나가서 거지를 주기 시작하니 그 뒤에는 오석양이 거지의 도편수처럼 전후 좌우에 거지떼가 웅위하고 다녔다. 이 멍텅구리는 자기 여편네가 돈을 가지고 거지를 주라 하였다고 날로 돈꾸러미씩 가지고 나가서 다만 거지떼의 도편수가



되고 말았으니 그 여자의 속이 오죽이 답답하랴? 참다 못하여 하루는,

“여보, 날로 거지만 주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하는 말에 그 멧덩구리는,

“그럼 무엇을 하나?”

하고 만다. 그 여자는 다시,

“여보! 인제는 거지를 주지 말고 활터에 가서 한량과 친하여 술도 받아 주고 떡도 사서 주며 그래 보시오.”

하니 그 때 가서야,

“응, 그러지!”

하고 그 이튿날부터는 거지가 돈 한 푼 달라고 매달리다시피 하여도 그만,

“오늘은 돈 없다!”

바로 남산 활터로 갔었다. 본래 활을 쏘는 것이 운동이 매우 됨으로 아무리 배불리 먹었더라도 얼마 아니 되어 쑥— 내려가 버리므로 주육과 찰떡 같은 것은 있는 대로 다 먹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오석양은 날로 그 활터에 가서 눈치를 보아 어떤 한량이던지 먹을 음식이 부족하야 나빠하는 빛이 있으면, 즉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많이 사서 주니 여러 한량들이 처음에는,

“낮 모른 이가 한 두 번 그러기가 예사이다.”

하는 호반인 사내자식의 풍도로 그저,

“이 친구! 대단히 미안하오!”

하며 수인사로 하고 말았지마는 그도 여러 날을 두고 계속하여 남이 돈을 자꾸 써서 자기네의 시장함을 요기케 하지 얼마나 기뻐하며 고마워 하였으랴? 그 때 가서는 오석양 성명 삼 자가 여러 한량 사이에 진동하였고 오석양도 친구 추축이 너르므로 장가를 든 후로는 가장 즐거움을 느껴 날로 그곳만 가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후에 그 여자는 다시 말하되,

“여보! 인제는 남산골이나 먹적골 근처에 내왕하는 길에 어려운 선비로 조석을 못하는 이가 있나 살펴 보아서 쌀나무도 구제하고 지필묵도 대어

주어 많이 사기여 두시오.”

하야 오석양은 그 후로 오막사리 초가집에 굴뚝에서 조석 때에 연기만 아니 나오는 것을 보면 들어가서 주인과 인사를 청하고 먼저 그 사람의 얼굴빛을 살펴보고 그 다음 그 사람의 생활상태를 물어 보았다. 그 때는 선비의 지조가 아무리 궁곤하여도 남보고 설궁(說穹)하지 아니하며 친구가 주더라도 의가 아니면 받지 아니하는 풍기가 있었는데 낮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묻는 것을 누가 잘 바로 대답을 하였으랴? 그러나 이 오석양은 끈기 있는 직실한 사람으로 처시하에 내무대신의 분부가 있는 데야 날로 성근히 다니며 숙친하여 가면서 조금씩 보부족을 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그 여러 궁한 선비는 처음에는 사양도 하였지만은 그 후에는 그런 이가 다시 아니올까? 염려까지 하게 되매 모두 오석양더러,

“당시에 제일 가는 의기가 있는 친구라.”

하며 칭송이 놀라웠었다. 그 뒤에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여보! 남자로 나서 세상에 이름을 끼치려면 벼슬을 하여야 되고 벼슬을 하려면 무식하고는 아니 되나니 내일부터 어느 책을 사 가지고 아무데 그 선비에게 가서 글을 배워 보시오.”

하니 오석양은 평생에 글이란 것은 천자 밖에 배워보지도 못하였으나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역시 굴뚝 같아서,

“어—그러지.”

하고 즐거워 하였다. 그 이튿날은 통감을 사 가지고 전일에 가까이 다니던 집 선비—쌀 나무로 도와주었던 그 궁한 선비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 하였으니 오즉 반가워하며 힘써 가르쳐 주었으랴? 그러나 워낙 노둔한 두뇌에 낫살이 먹었으므로 힘을 매우 드려도 그리 잘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가까스로 통감과 삼략 등의 서적을 대강 배워서 역사의 사실과 병서의 요지는 알았다. 이렇게 글을 배우게 하느라니깐 돈만 많이 허비되고 실상은 언제나 과거를 할 지 까마득하므로 그만 중지를 시켰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다시 자기 남편더러,

“인제는 공부를 그만 하시고 날로 활터에 가서 활이나 쏘아 보시요.”
하니 오석양도 공부를 하여 본즉 좋기는 좋으나 힘이 많이 들어서 재미가
없었고 그러지 않아도 활터에 다닐 적마다 활이 쏘고도 싶으나 감히 대들
지 못하였다가 이 때에 이르러서 자기 부인의 명령으로 권고가 들어오매
매우 기뻐하여,

“어, 그래 나도 벌써부터 활이 쏘고 싶은 것을 이 때껏 못하여 보았지!”
하며 저절로 머리 위에 손이 올라가서 긁적댄다. 그 때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동정을 보고 하도 못나 뵈나 다만 제 말을 잘 들으므로 그를 다행
이 여겨 웃고 아무 말을 아니하였다.

그 이튿날부터는 오석양은 활터에 몸이 나타나니 여러 한량들은 반가워
하며,

“자네 요세는 어디로 다니며 놀고서 우리 떡도 아니 사서주나. 배고파
못 견디겠네!”

하며 의례히 공물하는 차집으로 취급한다.

“어, 그러지 내가 오래 못 와서 미안하예.”

하고 오석양은 오래간만이라 하여 인절미를 수두룩하게 사주고 또 데리고
술집으로 가서 술을 얼근히 마셨다. 그런 뒤에 오석양은 취중을 빙자하여,

“여보게, 오늘은 나도 활을 쏘아보세.”

하니 모두,

“아! 그것 좋아 어서 이것으로 쏘게.”

하며 비키여 준다. 원래 오석양은 독심은 많고 체격도 현칠하여 활쏘는
자세가 딱 들어맞으며 또는 일상 남의 활쏘는 것을 익숙히 보았으므로 얼
마 아니되어 능히 과녁에 딱딱 드러 마치며 그 활쏘는 법도 남보다 뛰여
났었다. 이렇게 된 뒤에는 그 여자는 매우 기뻐하여,

“당신이 인간이 잘 쏘시거던 장중에 들어가 과거를 보시요.”

하니 오석양은,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이 혹 같이 가자구 그러는 걸 내가 아니 간뎀소.”

하고는 과거 때를 당하여 여러 한량과 같이 장중에 들어가 활쏘기를 시험 하여 무과에 대번 뽑혔지! 그리고 나니 여러 친구의 찬탄하며 흠선하는 바람에 오석양은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고, 그 여자의 마음도 어찌 기분이 좋아 당장에 마당으로 뛰어 들어가 자기 상전에게 아뢰고 싶었겠 지마는 욕심이 크므로 그 때의 남에게 알림을 불필요하게 여겼다.

과거부터는 나라에 벼슬을 사는 긴요한 몫이므로 온 세상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라 도저히 남을 속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여자의 교묘한 꾀로,

“여보! 당신이 과거에 뽑혔으니 어린 경사를 남의 집 행랑에서 신연을 맞을 수가 어디 있소?”

하며 자기 남편을 쳐다 보니 오석양의 생각도 그럴 듯 싶어서,

“그도 그럴 듯하여 어찌하면 좋을까?”

“그럴 것 없이 당신이 남더러 내가 서울서 일정한 처소가 없이 다니는 처지라 하고 어느 친한 친구의 집으로 신연과 차방을 치르게 하시오. 부 비는 내가 다 대드리리다.”

하는 그 여자의 말에 오석양은,

“어! 그게 좋아.”

하고 즉시 다른 데로 주소를 삼고 감짝같이 치렀다. 그리고 흥배를 장속에 깊이 감추어 두니 그 집 상하 소솔만 까맣게 몰랐다. 그 주인대감에게도 그번 무과에 참방된 여러 성명이 적힌 문발이 나왔겠지마는 문과도 아니고 무과쯤이야 재상들이 그리 주의하여 보며 설혹 오석양이란 성명이 들었기로 그 자가 자기 비 부부인지 어찌 알 수가 있으랴? 그 뒤에 그 여자는 즉시 하는 말이,

“여보! 그간 내가 모아두었던 돈량은 거의 다 썼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 겠소. 당신이 장사를 하여 보겠소?”

“돈만 많으면 잘하지! 돈이 있거든 다 내놔! 내 장사를 할께!”

하며 오석양은 과거한 김에 기운 있게 호언장담을 하였다.

“그럼 어디 그래 보시오.”

그 여자는 이같이 말하고 장 속에 두었던 돈을 다 꺼내어 그 남편을 주면서,

“여보! 올해 밤 대추가 흥년이 들어 장에서 값이 오르니 이 돈을 가지고 무역하였다가 값이 오르거든 파시고 혹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약간 구제를 하시되 본전은 까먹지 마시오.”

하므로 오석양은 꿈무늬에 돈전대를 차고 보은 등지로 내려 갔었다. 조선 전설에,

“보은 색시가 대초가 흥년들면 운다.”

하는 말이 있으니 이는 보은 대초가 명산이므로 그런 것이다. 이 오석양은 그 때에 보은에 가서 대추만 값을 곱을 주고 무역하였더니 그곳 대초가 절종이 되어 나중에 값이 삼 배나 더 올라가므로 이를 많이 남겼다. 그 때에 충청도가 흥년이 들어서 농촌사람들이 얼굴에 부항나거늘 본래 돈 잘 쓰던 오석양의 솜씨로 더구나 내무대신의 말도 있었으니깐 일부러 각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헤쳐 구제하니 모두,

“당시에 산 부처님이 내리셨다.”

고 떠들었다. 여러 달만에 오석양은 본전만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그간 지내던 상황을 보고하면서 충청도 사람의 부항난 것을 못내 가엽서 말을 한다. 그 여자는 매우 기뻐하면서,

“당신이 적선을 많이 하셨으니 대단히 좋소. 그러나 다만 계속하여 장사를 해야 되겠소.”

하였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다시 말하되,

“들으니 올해는 솜이 다른 데는 흥년이 들고 오죽 황해도만 풍년이 들었다 하오니 어디 거기로 가서 솜을 샀다가 팔아 보시오.”

하여 오석양은 다시 황해도로 가서 솜을 전과 같이 다 무역하였다가 값이 몇 배나 올라간 뒤에 내다가 팔아서 이를 많이 남겼다. 이 때에 오석양은 이를 많이 남겨 돈이 앞에 푸근히 있으니깐 원래의 인색한 규모는 벌써

파탈하였고 희터운 한량의 풍토가 있어서 그냥 가지고 오려고 하였으나 되지 못하였다.

“이번에 올 적에 우리 마누라가 아무 말을 아니하였으니 그냥 다 가지고 가겠다.”

생각을 먹었으나 모두 돈 있는 사람에게 앞에서 굽실대며 비행기를 태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한 푼 두 푼 쓰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일부러 빈궁한 사람을 찾으니 돈량과 양식을 구제하여 주었다. 그러고 나니 모두 그 은혜를 감사히 여겨 오석양 삼 자만 들으면 누구나 다,

“그 이는 당대의 의인이라.”

지목하며 알게 되매 경기, 충청, 황해 삼 도의 사람의 이야기가 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몇 달을 돌아다니니 그럭저럭 남은 것은 다 쓰게 되매 즉시 서울로 돌아와서 자기 마누라를 보고 보고를 하되 의외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물건도 잘 샀었고 또는 잘 팔어 이를 여러 배를 남겼다는 말을 먼저하고 그곳도 농촌생활이 말 못 되어 차마 볼 수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곁하여 모두 자기의 성명만 듣고 벌서 누구인지 알아 채고 구제를 청하더라고 하고 하는 수 없이 돈 양식 구제하였더니 여간 아니 칭송을 하더라 하였다. 이는 자기 부인이 이가 많이 남거든 다 쓰라는 말이 없었으므로 전과 같이 잘하였다는 것을 시퍼렇게 말한 것이다. 그 여자는 이 말을 듣더니,

“남에게 적선을 많이 하셨으니 매우 좋소. 그런데 돈이 얼마나 남았소?” 하고 물어보매 과연 본전이 겨우 남을락 말락하였다. 그 때는 겨울이라 그 여자는 즉시 돈을 털어 본전을 보태여 주면서,

“여보, 이것을 가지고 전에 가서 헌 옷을 죄다 사세오.”

“그건 사서 무엇하려?”

“하, 들으니 북도 사람은 남녀를 물론하고 입을 옷이 변변치 않다 하니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곳으로 가서 팔면 되지 않겠소?”

하니 이는 그 때만 하여도 함경도 사람이 인문이 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가가 희소하여 잘 벌지를 못하여 필육도 적으므로 의복을 지어 입지를

못한 사람이 다대수인 까닭이었다.

오석양은 이 말을 듣고야 그럴듯 여겨,

“그러겠소.”

하고 두 말도 다시 아니하고 녀마전으로 가려한다.

“여보! 가서 사되 너무 험 것은 사지 말고 남자의 솜바지 저구리에 솜두루막이와 여자의 솜저구리 바지에 치마 고장이 등속만 사시오.”

그 여자는 그래도 못 믿어서 이와 같이 부탁을 하니,

“응, 그러지!”

오석양은 대답하고 나가서 그와 같이 사 가지고 들어왔는데 말께 두서너바리나 되었다.

“여보! 이번에 가서는 돈을 객적게 쓰지 말고 모두 북포나 산삼이나 피물만 사 가지고 오시오.”

그 여자는 단단히 부탁을 하여 떠나 보내었다. 오석양은 말께 그것을 싣고 함경도로 떠나 갈 적에,

“제기 아무리 계집들이 있고서 옷들도 지어 입을 줄 모를까?”

하며 의아한 생각도 없지 않지마는 내무대신의 명령이라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봉송하려 하였다. 급기야 강원도를 지나서 함경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춥기는 지독한데 남녀가 모두 으르르 떨고 있는 빛이며 그 중 여자들이 더 심하였다. 오석양은 이 경상을 보매 깜짝 놀래면서,

“참, 우리 마누라가 여중이인(女中利人)이다. 어찌 이렇게 알았나?”

탄복하며 장끼리에서 내놓고 팔려고 할 적에 언제 값을 다루지도 않고 모두 와서,

“나도 한 벌 주우.”

하는 빛이었다.

대초나 솜을 팔 적과 같이 팔았으면 이가 적어도 사오 배가 넘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오석양은 본래 인자한 마음을 길러 오던 처지에 이러한 것을 보니 아니 보았으면 그만이었지만은 보고 서야 어찌 값을 서로

교게 할 생각이 있으랴? 그러므로 오석양은 자기가 서울서 떠나 그 여러 사람의 으르르 떨고 있음을 보매,

“여보! 이것 갖다가 입으시우.”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솜옷을 사려고 왔거나 옆에서 매매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이렇게 입으라고 함을 들으매 값을 치를 돈이야 없지마는 당장에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데 그런 것을 입고 싶은 생각도 검할 수 없이 동하여,

“입었으면 좋지마는 돈이 어디 있어야지요?”

하면 오석양은 섣뚱 대답하되,

“돈은 이 다음 내시고 우선 입으시오.”

하고 팔면 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도 아니 받고 섣뚱 내주니 누구나 이러한 착한 사람에게,

“애구, 고마우시라.”

아니 하였으며 또는 그 값을 언제 갖다가 주었으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하나씩 주기 시작하니 모두,

“저런 착하신 양반이 어디 계시나.”

하며 칭송하는 동시에 혹은,

“아! 제게도 저것 하나만 적선 하옵소서.”

하며 달라기도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아무리 옷이지마는 몇 군데 가서 풀어서 나눠주니 그만 다 없어지고 다만 여인의 솜바지와 치마 한 벌씩만 남았다. 이에는 오석양이 벌떡 생각이 드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수중에 돈도 얼마 없는데 장사 하려는 물건은 다 없애놓고 다시 어찌 할 도리가 막연하여 혼자 탄식을 하되,

“내가 아무리 처자의 돈이 지마는 허다한 돈량을 허비하여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 하나! 그러지 않아도 내가 떠나 올 적에 우리 마누라가 재삼 부탁하기를 돈을 객적게 쓰지 말고 북포나 산삼이나 필물을 사서 가지고 오라 하였는데 인제 무엇으로 사

가 지고 가나!”

하며 정신이 어둡하여 발 길이 함부로 내디더가며 고통으로 지내는데 심할 적에는 흑시에,

“예기 세 살에 죽으나 여든에 죽으나 일반이니 어느 나무 끝에 목이나 매어 죽을까 보다!”

하며 허리띠 끈도 끌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죽는 것도 명이라 그렇게 자처하기가 쉬우랴? 그러므로 다시 마음이 변환되어 고민으로 정신을 놓고 다니다가 날이 깊은 산중에서 저물게 됨을 깨닫지 못하였다. 길이 잘 못들어 깨닫는 오석양은 돌아오려니 어두어 뵈지를 앓으므로 하는 수 없이 이리저리 둘러 보아 어디 등불이 반짝 거리는 데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 집은 늙은 망구 하나만 있다가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며,

“문 열어 주!”

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웬 손님이 이러한 깊은 산중으로 들어 오셨나요.”

“네, 나는 서울 사람으로 장사하려고 이곳으로 왔다가 글썽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되었소.”

“아이구 딱해라. 얼른 이리로 들어오세요.”

하고 실내로 인도 하였다. 그 집은 함경도 가운데에도 그 중 산속에서 움치럼 초가집을 지어 놓고 모자 단 두 식구가 사는 데라, 물론 방은 하나인데 그 망구는 손님을 안방 옷묵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 망구는 나이 오십이 넘어 뵈고 입은 옷은 아무 것도 없이 다만 고장이 하나만 걸쳤는데 다 떨어져서 살이 삐죽삐죽 나온 까닭으로 모두 억지고 가리느라고 애를 쓴다. 오석양은 그 경상을 보고는 가여운 생각이 불연듯 일어나면서,

“여보 할머니, 내가 이런 옷을 무역하고 장사하러 나선 사람인데 다만 이 치마와 바지 한 벌만 남았기로 이것만 드리오니 우선 이것을 갈아 입으시오. 이 동절에 노인이 저렇게 옷이 앓을 가리지 못하니 되었소?”

하며 선풍 툇툇 내주었다. 그 망구는 아무리 어려서부터 습관이지마는 추

운 줄을 모르며 의외에 손님이 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꾸 앞만 여뻤더니
생전에 처음으로 입어볼 만한 바지와 치마를 손님에게 얹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여,

“이렇게 좋은 것을 이 사람에게까지 주십니까?”

하고 백배치사를 한다.

“별말씀을 다하시오. 얼른 입어보시오.”

하니 그 망구는 정지간으로 나가서 바꾸어 입고 입이 함박 만큼 벌어져서
저녁 한 상을 특별히 차리어 갖다가 대접을 한다. 오석양은 시장한 김에 배
불리 먹는데 다만 나물 맛이 씹새름한 것이 예사 나물이 아닌지 짐작하고,

“여보 할머니! 이 나물이 어디서 났소?”

물어보니 그 망구는 나물이 좋아서 더 찾아보다 여기고,

“좀 더 갖다가 드리리까?”

“네!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캐셨죠?”

“네! 이 앞에 도라지 밭이 있는데 날로 캐다가 이렇게 먹지요.”

그 망구의 말이 이리하니 오석양은 그 도라지란 말을 들으면 확실히 산
삼발인가보다 여기고,

“그럼 날 것으로 남은 것도 있어요?”

하며 다시 그 실물을 구경하자고 청구하였다. 낮 같으면 곧 나가서 보겠
지마는 밤이라 그럴 수가 없어 그 캐다 놓은 것을 보려고 한 것이다.

“여기 있어요.”

하고 광주리에 담은 것을 수두룩 쏟아 놓는데 큰 것은 팔뚝만하고 적은
것도 손가락 만한 것이 모두 산삼이었다. 그 때에 오석양은 깜짝 놀래며,

“에이구! 이러한 보물이 이곳에 이렇게 많은가? 인제는 됐다! 내일 내
가 얼마만큼 캐여 가지고 가겠다.”

하고 속으로 껍이나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아니 되어서 밖에서
광광 소리가 나며 얼굴이 붉으스름한 장한 하나이 들어오니깐 그 망구는,

“애구, 우리 아들 오니? 어서 저 손님께 뵈여라.”

일러니 그 장한은 덩허 놓고 와서 절하고 인사한다.

“애! 저 손님께서 네 어미가 입을 옷이 앞을 못 가린다고 하고서 장사하
시려고 가지고 오신 이 바지와 치마를 날 주셨단다.”

“아! 그러셨어요?”

“애, 인제는 내가 밖에 나가도 춥지가 않고 남이 보아도 부끄럽지 않으
니 저러신 은인이 어데 계시겠니?”

하니 그 아들은 다시금 손님에게 치사를 올렸다. 그 망구는 오석양을 보
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막 낳을 적에 겨드랑이에 조그만한 날개가 뚫쳐서 왕왕 벽
위에도 날어 올라가서 붙는 까닭으로서 저의 부친이 인두로 지져서 다시
날지를 못하게 하였더니 나중에 날개가 또 생기며 자라면 용맹이 장사이
기로 읍내에 있으면 무슨 일이나 저지를까? 염려하야 저에 부친이 이곳으
로 이사하여 사냥으로 살아 가게 되었습니다.”

하니 오석양은 또 한 번 깜짝 놀래면서,

“겨드랑이에 날개가 뚫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정말 그럴까? 여겼더니
참 희귀한 일이 올시다.”

하며 되돌려 찬탄 하였다.

그 이튿날 날이 밝으매 오석양은 소세를 마치고 나서,

“도라지 밭이 어디 있어요?”

물어 보아 그곳으로 가니 그 때까지 삼지오엽으로 훌륭한 산삼이 분명
히 쓰에 쪽 덩허 있었다. 오석양은 하늘께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함을 올
리고 나중에 그 망구더러,

“나도 이것 좀 캐어 가지고 서울로 가서 먹겠소.”

하니 그 망구는,

“아! 손님이 마음대로 하시지요.”

하거늘 오석양은,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만 더 새고 내일 떠나겠소.”

하고 온종일 캐었다. 오석양은 힘꼴이나 있는 이로 하루 종일을 캐매 아무리 해가 짧다 하나 두어 바리나 되었다. 모두 추려서 한 데다 꺾꺾 묶어 놓았으나 말, 소가 없어서 실어 내릴 수가 없음은 어찌 하나? 하고,

“이 아이더러 지라지요.”

하니 오석양은 그래도 불안히 여기니깐,

“염려마세요 내가 저다 원산까지 갖다 드리지요.”

하고 지는데 오석양으로도 못하는 것을 번쩍 들고 지게에 올려 놓고 빈 몸으로 다니는 것처럼 그것을 지고 그같이 갔었다. 그 때 원산에 이르러 서야 말을 세내어 집으로 돌아왔다. 오석양은 자기 마누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곤경에 빠져서 자칫하였으면 다시 만나보지도 못하였겠다고 그 말을 먼저 하니 그 여자는 놀래며,

“아! 그래서요? 그 물건은 다 갖다가 무엇을 하시구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왜 도적을 맞으셨는가요?”

하니 오석양의 말이,

“처음에 값을 올리며 팔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람이 으르르 떨고 있음을 보니깐 차마 못 보겠기로 한 개씩 그냥 주기 시작하였더니 얼마 아니되어 다 없어지고 여자의 바지와 치마 하나만 남았댔소.”

하며 말을 하니깐 그 여자는 하는 말이,

“ 좋기는 매우 좋은 일이오마는 나중에 어찌 하려고 그러셨소?”

하니 오석양이 나중에 길을 잘못들어 산협으로 들어가 늪은 망구를 만나 그도 고장이가 앞을 못가리기에 바지 치마 마저 주었더니 의외에 그 집 근처에 산삼밭이 있어서 이렇게 캐어 가지고 왔다는 말을 자세히 다 하니 그 여자는 무릎을 치다싶이 칭찬을 하면서,

“이것이 다 당신이 적선을 많이 하신 까닭을 하늘이 지시 하신게요. 내 일이 우리 대감마님 생신이라 여러분 재상이 모이실 터이니 인삼을 몇 개씩 나눠 드려서 발신하게 합시다.”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중 굵은 산삼 열 개를 골라 싸 가지고 대감께 바치면서,
“네의 지아비가 장사하다가 이것을 얻어 왔기로 몇 뿌리 받칩니다.”

한다. 그 주인대감은 기뻐하면서,

“어데 이리 불러 들여라.”

하여 급기야 보매 또 한번 깜짝 놀라다 싶이 기뻐할 일이 있었다. 이는 일
문에 영광이 되느라고 자기집 비부로 훌륭한 무과 출신임을 비로소 안 까
답이다.

“네가 갓 병거지에 남천립을 입었으니 어쩐 까닭인가?”

“몇 년 전에 소인이 무과를 하였사오나 장사하기 위하여 이 때 행세를
아니 하였습니다.”

“허- 그렇단 말인가 훌륭한 출신이군.”

하고 칭찬이 놀라왔다. 그러나 손님이 꾸역꾸역 들어와 모여서 모두 그
산삼을 보고 침을 생키어,

“여보 대감! 이게 웬 게요? 나 한 뿌리만 주게.”

“이러한 귀물을 어떻게 노나 주나!”

하며 달라거니 못 주겠다거니 야단이었다.

그럴 즈음에 오석양이 나와 말하되,

“그러실 것이 아니라 소인에게 마침 남은 것이 있사오니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각각 세 뿌리씩 갖다가 바치니 여러 재상들은 모두 깜짝 놀래면서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노나 주나! 하여,

“어떠한 친구가 이다지 여러 사람에게 노나 주나?”

모두 몸을 움실하고 주인대감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우리집 비불세 그런데 시골 반죽으로 출신까지 되었네.”

하니 모두 입을 딱 벌리면서,

“허! 대감집에 이러한 무변(武辯)을 두고 이 때 초사를 못 시켰다니 말이 됐나?”

하며 떠들고서 오석양을 보고,

“자네 우리집에 다니게.”

하며 칭송이 놀라왔다. 주인대감도 그 말에 찬성을 하면서,

“나도 몰랐네, 몇 년 전에 무과에 뽑혔다는 것을 오늘이야 처음 알았네.”

“아! 그랬어. 우리들이 힘써서 망(望)에 들게 하세.”

하니 모두,

“그러세.”

하며 그 날은 만당의 기분이 즐거워하였다. 그리하여 무과출신으로 잔주
를, 초관, 무용위, 선전관, 훈련주부, 참상선전관, 내승, 변지를 치를라면
적어도 이십 년 동안은 근고를 닦아야 되는 것을 오석양은 여러 재상의
도움으로 이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위에 만호 첨사와 우후, 영장, 방어사
를 거치어 수사까지 지내었다. 양산 고을 짚신 장사—더구나 판무식으로
수사까지 이르는 가위 하늘에 올라가 별을 따기와 같은 것인데 그 여자
를 만나서 그와 같이 되었다. 이는 오석양이 우직하고 착한 까닭으로 된
것이니 산삼의 발복이 아니라 우직의 발복이라 할 수 있겠다.

하여간 오석양은 그 남은 산삼은 팔아서 부자가 되어 내외 해로하고 수
부귀다남을 다 누리었다 하니 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월간야담》, 제3권 1호(통권15호), 계유사, 1935, 65~83쪽.)

40. 12분 청송을 낳은 손공수

우리 중구의 최고 어른 나무는 올해 나이 830살이다. 고려 때부터 조
선, 대한민국을 지켜 본 이 회화나무는 구 배재고등학교 교정에 있는데 키
22m, 둘레 8.5m, 수관직경이 20m이다. 서있는 자리는 원래 구렁이었으
나 주변이 학교에서 다시 주차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표로부터 약 3m 높
이에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교정에 수령 500
년을 자랑하는 높이 15m, 둘레 2.1m, 수관직경이 7m인 향나무가 있다.

이 향나무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등청정이 말을 매기 위해 박은 커

다란 대못이 지상에서 10m높이에 지금도 박혀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일제의 만행을 새삼 떠올리게 하며 가슴저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정승을 12분이나 배출해 명성이 자자한 나무는 회현동 1가 14-3번지의 손공수(孫公樹)이다. 직계 12정승을 배출한 이 은행나무는 후손들에게서 손공수라 불리우고 받들어 지고 있다.

처음 이곳에 터를 잡고 이 은행나무를 심은 사람은 동래 정씨 17대손 난종씨면 지성으로 돌본 사람은 잔종씨 아들이면 중종 때의 영의정 광필씨다.

동래 정씨 보첩에 의하면 처음 터를 잡은 난종씨 꿈에 이 나무에다 신인이 서대(犀帶) 12개를 걸었다고 한다. 서대란 물소 뿔로 만든 각띠(角帶)로 정승만이 찰 수 있는 띠이다. 은행나무가 서있는 그 집에서 12명의 정승이 난다는 예언인 것이다.

《한경지략(漢京識略)》에도 이 회동댁의 은행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헌이 쓰여졌던 순조 연간까지는 두 사람이 모자란 10명이었다고 한다. 그 후 고종 때 한 분, 순종 때 한 분이 정승 반열에 올라 예언은 적중되었다.

영의정 광필, 그의 직손이 선조 때 우의정 지연(芝衍), 좌의정 유길(惟吉), 인조 때 좌의정 창연(昌衍), 인조·효종·현종 3대에 걸쳐 여섯 번 정승에 오른 태화(太和), 효종 때 좌의정 치화(致和), 현종 때 우의정 재승(裁承), 효종 때 좌의정 지화(知和), 영조 때 좌의정 석오(錫五), 정조 때 우의정 홍순(弘淳), 정조 때 영의정 존겸(存謙), 고종 때 영의정 원용(元容), 순종 때 우의정 범조(範朝) 정승만 12명은 예언은 희한하게 꼭 들어맞고 있다. 그리고 정유길의 외손자이며 북촌장동(北村壯洞) 김씨 인백의 뿌리인 우의정 김상용, 좌의정 김상현도 바로 이 회동댁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집이었지만 현종 때 태화 형제가 살았을 때는 바깥 사랑이 겨우 한 칸밖에 안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는 정승이 된 뒤에도 좁은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더욱이 그 회동댁 안방은 인조 때 강화에서 순절한 김상용과 척화(斥和)로 잡혀 갔던 김상현이 태어난 태실(胎室)이라 하여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 때문에 집을 키우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

나 구한말에는 수천 평에 3백칸이라는 굉장한 집으로 커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회현동이란 동명은 동래정씨 집에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회동댁에서 회현(會賢), 회동(會洞)으로 부르다가 지금의 동명인 회현동(會賢洞)이 되었다.

이 역사와 유서깊은 회동댁 손공수는 심어진 날인 3월 3일에 생일상을 받았으나 올해는 후손들이 생일상을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까지 동래정씨 33대손인 정춘모(71세)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살았으나 지금은 상업은행 본점 건물이 한창 신축 중이다.

정춘모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집에 살 때는 그 은행나무에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증조 할머니가 그 구렁이에게 흰죽을 쑤어주며 지성으로 받들었는데 구렁이가 먹다 남은 흰죽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할머니께서 드셨다고 한다.

다음은 고종 때의 영의정 정원용이 읊은 시조다.

어제 나린 비에는 살구 꽃이 피더니
오늘 나린 비에는 복사 꽃이 피었네
날마다 새 꽃이 피어나
차홍빛이 돌 축대를 둘렀네
황금 국화는 예 품종 그대로인데
옥매화 새로 심어 환하게 눈을 끈다
사시사철 꽃으로 이어지니
친구야 날마다 꽃보러 오게나

지금은 꽃은 시들어 간 곳이 없고 흙먼지 철근소리, 인부들의 고함소리만이 가득한 그 곳에 영화롭던 사람들은 간 곳이 없다. 외로운 손공수(孫公樹)가 그 영화를 무언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중구문화원, 《중구문화》 제2호, 1998, 47~49쪽.)

41. 암운(暗雲)의 송경(松京)

이태조 등극 후에 고려 유신(遺臣) 칠십 이 인은 태조께 귀화하기를 꺼리어서 만수산 아래로 파하여서 거기 숨어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정부에서 부르면 그들은 채찍을 들고 나와서,

“우리들은 장사아치나 되겠다.”

고 하면서 서로 다투어 피한다. 할 일 없이 그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태조가 고려의 유민들을 부르려서 경덕궁에 친림해서 과거를 볼 새 칠십 이 인은 관을 벗어 던지고 패랭이를 쓰고 초석을 지고 경덕궁 앞 재를 넘어서 모두 피하여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태조 진노하여 그들의 오막사리를 불놓았다.

명태조 홍무 이십 오 년 임신 칠월 열 엿새 날.

그간 오백 년간을 누려오던 왕씨의 사직이 꺾여서 넘어가고 어제까지는 수문하시중(水門下侍中)으로 있던 무장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서 이 삼천리 강토를 호령하게 되었다.

오래 버터던 야망을 여기서 성공한 신왕의 득의는 여간이 아니었다. 돌아보건대 청년시대에 안변 설봉산 토굴에 숨어 있는 중 무학에게서,

“그대는 장차 왕이 되리라.”

는 예언을 들은 이래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던 야망을 여기서 비로서 성공을 한 것이었다.

공민왕 때에는 그 때의 재상 신돈이의 위력에 눌리어서 어디 감히 엿볼 기회조차 없었지만 신돈 죽고 그 뒤로 공민왕도 승하하고 어린 임군 우왕(禑王)이 등극한 이래로 차차 차차 구체적으로 꾸며 오는 놀라운 연극이 오늘날 성공을 한 것이었다.

어젯날까지도 같은 왕의 아래서 함께 신하로 지내 오던 동료들이 오늘부터는 자기의 앞에 허리를 굽히고 신사(臣仕)를 하는 모양도 공명심의 한편 모퉁이를 두드려주는 통쾌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삼천리 강토 —

국조 단군에서 비롯하여 삼천 팔백 년간을 동방의 예의의 나라로서 이름 있는 오랜 강토 — 선조(先朝) 태조 왕건이 모두 통일하여 한 덩어리로 만들은 이 커다란 땅이 오늘부터는 자기의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는 무엇에 비길 수 없이 기뻐다.

“이미 내 손 안으로 들어온 이상은 좋은 국가를 만들어서 첫째로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둘째로는 내가 단지 사직을 탐내어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알리어 둘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신왕은 이 새로 얻은 사직을 튼튼히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신왕은 한 가지의 점을 깊이 생각지 않았다. 그새 천여 년간을 이 나라의 국교(國敎)로 되어온 유교가 가르친 바,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란 사상이 깊이 깊이 백성의 마음에 새겨져서 있는 점을 이 신왕은 잊었다.

그새 고려 왕조를 섬길 때부터 이 신왕과 밀계(密計)를 같이 하던 재상(정도전, 조준, 남은, 심덕부, 배극렴, 정탁, 그박)들은 물론 이 새 국가를 찬성하였지만 고려조의 다른 신하들은 신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전조 명유 가운데 아직 남은 이색이며 길재(李穡, 吉再) 원천석(元天錫) 외의 은재장들을 불러 보았지만 이 부름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먼저번 불러 본 사람에게 버금가는 사람들을 불러 보았지만 그래도 역시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조 공민왕 때부터 등과를 해서 그 벼슬이 삼중대광 시중에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학문으로서 고려 온 백성이 흠앙 하든 바 명유 이색(名儒李穡)은 신왕과 본시부터 교유도 깊었다.

그래서 신왕은 등극하면서 곧 이 유명한 학자를 불렀다. 이 학자를 자기 네 편에 끼기만 하면 이 학자를 흠앙하는 많은 선비와 백성이 국가에 귀화하겠으므로, 그러나 이 유명한 선비가 신왕에게 취한 태도는 어떠하였나.

신왕의 부름에 응하여 이색은 입궐은 하였다. 그러나 신왕에게 대하여 가벼이 읍할 뿐 절하지 않았다. 불쾌한 일을 참고 신왕은 탑(榻)에서 내려

서 정중히 이색을 맞았다.

그러나 좀 뒤 시각 때에 왕이 다시 탑에 오르매 이색이 벌떡 일어나며,
“이 노부(老夫)는 앉을 자리가 없소이다.”

하며 딱 버티고 섰다.

너무도 무엄한 일이었다. 그러나 왕은 또 참았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이 새로운 나라를 도와 달라고 간청을 하매 이색은,

“망국의 늙은 선비가 참람되이 무엇을 지껄이리까 늙은 몸이 고향에 돌
아가 해골 묻을 자리나 준비하게 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그 어전을 물러나 나가 버렸다.

그 일로 인해 그 뒤 사 년간을 산수간에 방황하다가 사 년 뒤 오월 어떤
날 여주 압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망국의 유한을 품은 채 한 많
은 일생을 마치었다. 정몽주, 이색과 함께 삼은(三隱)으로 이름 있는 길재
는 또 어떠하였는가.

길재는 고려조 창왕(昌王) 시대에 문하주서(門下注書)로 있었다. 그러
다가 지금의 신왕, 그 때의 이시종이, 창왕을 신돈의 종자라는 누명을 씌
워서 왕위에서 들쳐 내고 공양을 세울 때에 분연히 관직을 모두 내어 던
지고 고향 전주(善州)로 내려가서 그의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신왕의 다섯째 아드님이 방원대군과 동문수학을 한 사이였다. 그
러나 길재도 나오지 않았다. 부르는 때마다 매번 글월로써 사양하는 뜻을
나타낼 뿐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로부터 썩 뒤에 방원은 관부에 명해서
억지로 길재를 서울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박사를 제수하였으나 길재는
여전히 입궐하지도 않고 그냥 사퇴해 버리고,

“계집에게는 두 지아비가 없고 신자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 하옵니다. 포
의(布衣) 본시 한미한 선비로서 전조에 벼슬하여 문하주서에까지 이르렀
는데 불행히 임금을 잃은 바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포의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 늙은 어미나 봉양하며 여생을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뜻의 글월을 올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숨어버렸다.

조운(祚胤)은 이 신왕의 총신 조준(趙俊)의 아우였다. 그러나 형과 뜻을 달리한 조준은 신왕을 섬기려 하지 않았다. 일찍이 아직 고려 왕조시대에 윤은 형 준의 마음에 반란의 뜻이 있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형을 말린 일이 있다.

“우리 집안은 이 나라의 귀한 동량이 아니오니까. 이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우리부터가 이러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시중과 떨어지기를 간원하였다.

형 준은 아우와 뜻을 달리하고 이시중과 결탁하여 새 나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이 새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었으나 낡은 나라에 그날 충성된 동생의 안위가 근심되어 개국공신의 이름 가운데 동생의 이름까지 적어 넣었다. 이 덕에 조운은 개국 초에 호조전서(戶曹典書)를 제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에 없는 벼슬을 받은 윤은 즉시로 이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써오던 자기의 이름 윤(胤)을 견이라 고치고 자(字)를 종견(從犬)이라 하고 두류산(頭流山) 속에 들어가 숨어버렸다.

“나라를 잃고 죽지 못한 것은 개나 다름 없다.”

“주인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개와 같다.”

이러한 뜻 아래서 스스로 개라 부름이었다.

두류산에서 다시 청계산(淸溪山)으로—산에서 산으로 방황을 하며 봉우리에 올라가서는 서울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고 하므로 남들은 그 봉우리를 망경봉(望京峰)이라 일컬었다.

그 썩 뒤에 왕은 이 충성에 감복하여 몸소 그를 만나보았는데 조운—변하여 지금은 조견—은 역시 절하지 않고 불경한 말을 함부로 하였다. 왕은 모두 관대히 보았다. 그리고 산에 돌집(石室)을 지어 주어서 거기 있으라 하였으나 조견은 그것도 싫다 하여 양주 송산으로 또 피하여 버렸다. 구조의 학자로 원천석(元天錫)도 불러 보았지만 원천석은 역시 움직

이지 않았다. 그 후년 태종은 몸소 치악산 속에 원천석을 찾은 일이 있었지만 원천석은 몸을 피하여 만나기까지 않았다.

이 원천석이 후일 죽을 때에 자기의 자손에게 유언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즉 천석 생존시에 저술한 야사(野史)를 넣어둔 궤짝을 이후 대대로 후손에 성인(聖人)이 나지 못할진대 열어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대를 지나서 증손 시대에 드디어 그 궤짝을 열어보니 거기서 고려 말년의 역사가 그대로 적혀 있었으니 말하자면 이씨 조선에서 만들어낸 고려사와는 대상부동한 것으로서 그것을 발견한 후손들은 망지소조하여 이런 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멸족을 당하겠다고 즉시로 불살라 버렸다.

김자수(金自粹)는 신왕과 본시부터 친교가 있던 사람으로서 신왕 등극하여 몇 번을 불렀지만 응치 않고 마지막에 태종이 형조판서에 명하여 부를 때에 김자수는 당일로 가묘(家廟)에 하직하고 추령으로 몸을 피하여,

“오늘날이 있을 줄이야 뉘 알았느냐.”

고 통곡하고 독약을 먹고 자진하였다.

김진양(金震陽), 서진(徐軫), 이승인(李崇仁), 이집(李集), 이고(李皐), 윤충보(尹忠輔), 그밖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불러 보았으나 모두 한결같이 이 신왕을 피하여 몸을 숨겨버렸다.

뿐만 아니었다. 도대체 백성들부터가 이 신 국가 건설에 대하여 냉담하기가 짝이 없었다. 새 국가의 재상들이 위의 당당히 행차를 늘리고 길을 가면 백성들은 모두 모퉁이로 들어가 숨지만 이것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눈허리 시어서 피하는 것이었다.

재상들의 행차는커녕, 왕의 거동에 대하여도 백성들은 문을 굳게 닫고 나와 보지를 않았다.

공민왕으로부터 우왕, 창왕, 공양왕의 네 대의 고려 임금을 섬긴 경험에 있는 신왕으로서 이 일도 매우 마음에 걸렸다. 고려조 시대에는 왕의 거동이라도 있으면 가가호호의 남녀노소가 모두 길에 나와서 환호성을 내며 절하여 거동을 보지 않았던가. 더욱이 소년 왕 우(禔)는 흔히 홀로히

말을 타고 나다니 일까지 있었는데 이 소년 왕의 영특한 자태가 궁문 밖에 나타나면 백성들은 모두 왕을 에워싸고 기쁨에 넘치는 축수를 들이지 않았던가. 이리하여 그 때는 왕과 백성은 그야말로 부자의 사이와 같은 친애를 서로 주고 받지 않았던가.

거기 반하여 지금의 상태는 너무도 쓸쓸하였다. 자기 및 자기 신하들은 모두 새 국가를 건설하였다고 기쁘다고 덤비지만 함께 기뻐하여 주어야 할 백성들은 왜 이다지도 무관심한가. 무관심을 넘어서 찬 눈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이 새 나라는 온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네 수 개인의 나라인 듯한 감이 있었다.

“당신 네는 당신 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백성들이 새 나라에 대한 태도는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

이것은 웬 까닭일까? 돌아보자면 당년보다도 더 오백 년을 소급(溯及)하여 고려 왕국 건설 초. 위걸 왕건(王建)이 일어나서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하고 뒤이어 신라까지 합병할 때.

천 년의 기나긴 신라 사직을 신흥 고려 태조 왕건이 곱다랗게 물려받을 때 신라의 백성들은 아무말 없이 이 새 임군을 섬기지 않았던가. 신라의 왕까지도 이 새 임금의 인격에 탄복하여 스스로 나라를 바치고 자기의 가족까지 거느리고 고려 서울로 와서 여생을 보내지 않았던가.

일 천 년의 긴 사직이 남의 손으로 넘어갈 때에도 사소한 거침도 없었거늘 지금 겨우 오 백 년의 사직이 넘어가는데 왜 이다지도 말썽이 많은가.

더구나 왕건이 신라를 합칠 때는 수차 군사의 힘까지 빌었거늘 자기가 고려를 삼킨 것은 한 개의 병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낡은 신하와 백성들은 왜 이다지도 냉담한가.

한 개의 국가라 하는 것은 임군과 백성이 합하여 비로소 성립되는 것. 지금 이 새 나라는 임군은 있으나 백성이 없다.

여기서 이 새 임금은 비로소 덕화(德化)라는 점을 느꼈다.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의 위력에 당치 못하여 반대성은 못 올리나 위력으로는

머리는 숙으리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숙으리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비로소 느꼈다. 그리고 덕화의 방면을 베풀기 위하여서는 자기는 그 그릇이 아님까지도 알았다. 이리하여 급거히 무학대사를 부르기로 하였다.

이전 안변 설봉산 토굴에서 만나 본 일이 있는 무학대사는 오늘날 신왕 자신에게 결합된 듯한 덕화의 방면을 넉넉히 보충할 수 있음직 하였다.

풍문에 들리는 바에 의지하건대 무학대사는 지금 관서 어떤 산에 숨어 있다는 말이 전한다. 왕은 경기, 황해, 평안의 삼방백에게 급령하여 무학대사의 있는 곳을 알아서 모셔오게 하라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냥 근심되는 것은 무학대사가 와 줄런지 어쩐지 하는 점이었다. 부르는 사람마다 모두 피하기만 하니깐 무학대사도 안 올 것 같이만 생각되었다. 등극한 지 얼마를 지나지 않은 그 어떤 날 왕은 편전에서 충신 몇 사람과 같이 앉아서 이 새로 이룩한 나라를 조리할 방략을 의논하다가 문득 탄식하였다.

“내가 왜 이다지도 덕이 없담.”

“?”

충신들은 의아하여 눈을 들었다.

“내 덕이 공양군(恭讓君)보다도 부족할까? 공양군은 섬겼지만 이성계는 못 섬기겠다.”

충신들은 묵묵하였다. 대답할 바를 모른 것이다. 그들도 다 같이 맛보는 쓰디 쓴 일. 그들 끼리끼리는 소위 새 나라를 이룩했다고 좋다고 텀비지만 함께 즐겨하여 주는 사람이 없는 싱거운 집정이었다.

한참을 묵묵히 있는 뒤에 이번 개국공신 중의 가장 지혜 많은 정도전(鄭道傳)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상감마마, 과거를 한 번 보여 보면 어떠 하올런지.”

“?”

“과거를 한 번 보아서 구신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취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따라 다른 구신들도 올린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

상하여 섣뽕 혼자서 앞장서기는 힘들지만 앞장서는 사람만 있으면 뒤따르는 사람도 있을까 하옵니다.”

지혜 주머니라 불리우는 정도전의 의견이니 만치 일리 있는 말이었다.

“올까?”

“글썸을시다. 일변 과거령을 내고 뒤로는 과거에 취시도록 등을 밀면 안 나올 수 없겠습지요.”

“등을 어떻게 밀겠소?”

“새 정부의 첫 번 과거이니만치 전조에 벼슬했던 사람도 다시 취시를 하지 않으면 전조 벼슬은 깎아 없애 버린다고 하고 또 일변으로는 사람을 놓아서 전조의 태학사며 무변들이 이번 과거에 취시치 않으면 아마 후환이 있으리라는 소문을 민간에 퍼쳐 놓으면 겁 많은 선비 깨나 혹은 욕심 있는 무변가는 올린 지도 알리이까. 그리고 단 몇 명이라도 벼슬을 주어 놓으면 체면상 앞장서지 못했던 전조 구신들도 혹은 어슬렁 어슬렁 기어 나올런 지도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서 정도전은 빙긋이 웃었다. 그럴듯한 말이었다. 잠시 뒤에 왕도 빙긋이 웃었다.

“어디 해 보아야 손해 될 일은 없으니 해보도록 절차를 차리어 보시오.”

이리하여 그 이튿날에는 이 정부 첫 번의 과거령이 내려졌다. 거기에는 정도전의 의견대로,

一, 문과와 무과를 본다.

一, 전조에 벼슬하였던 사람이라도 이번 다시 취시하지 않으면 전조의 벼슬은 인정하지 않는다.

一, 새 조정에 대하여 혹은 꺼릴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취시한 사람에게 한해서는 이전의 죄를 말하지 않는다.

一, 이번 과거는 이 조정의 첫 번 일이니 만치 전조 구신들에게도 특별히 취시하기를 허락한 바이나 이 다음 번 과거부터는 전조에 벼슬하였던 사람들은 조정에서는 다시 받지 않는다.

이러한 (위협미를 꽤 많이 띤) 과거령이 났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사람을 놓아서 전조에 등시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과거에 취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새 나라에 열복치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엄벌이 있을 듯하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첫날은 문과. 이튿날은 무과. 이렇게 배정되었다.

그 첫날 문과 고시일에 왕은 충신들을 거느리고 과거장인 경덕궁(敬德宮)에 거동하였다. 돌아보아야 모두 초조한 얼굴이었다. 몇 명이나 오르는가?

그새 내밀히 조사한 바에 의지해도 얼마가 올 것 같지 않았다. 시골서도 그다지 온 것 같지 않았다. 이 군신이 모두 잘 아는 바이거니와 이전은 과거 때가 가까워 오기만 하면 서울 장안의 선비며 무부들은 막론하고 온 고령 방방곡곡에서 밀려 온 무리들로서 서울은 물 끓듯 하지 않았던가. 어디를 가도 그 소리, 어디를 가도 그 공론, 거리, 골목, 교외, 장안 할 것 없이 과거 때문에 물 끓듯 하고 서울을 처음 구경하는 시골 과거객들의 두룩거리는 모양이 골목이고 거리고 안 보이는 곳이 없지 않았던가. 그랬는데 이번은 너무도 쓸쓸하였다.

시골서는 몇 사람 온 듯 하였다. 그러나 왔겠자 몇 사람이나 될까.

“상감마마. 취시 할 시골문무부들 때문에 장안은 매우 소란한 모양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하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거짓인 줄은 군신이 다 잘 아는 바다.

초조히 그래도 기다리는 과거 시각.

이전 같으면 시각에 늦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과거장에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 있고 왕은 느긋이 거동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왕이 거동한 뒤에도 과거장에는 겨우 시골 사람 몇 명이 두룩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날 과거는 시작을 늦추어서 한 각이나 더 기다려 본 뒤에야 시작하였다. 그러나 텅 빈 과거장에는 시골 선비 몇 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날 과거 시작쯤 하여 왕이 임어난 경덕궁 정전에서 건너다 보이는 언덕마루에는 괴상한 행색의 인물이 뒤를 이어서 서쪽으로 넘어 갔다. 도포를 입고 패랭이를 쓰고 등에는 명석을 진 수상한 무리들 한 눈 빨도 이 경덕궁 쪽으로 던지지 않고 머리를 꼭 가슴에 뭍은 채 더벅더벅 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뒤로는 또 한 사람이 달리고 또 그 뒤로도 달리고 이리하여 적지 않은 수효의 사람이 이 마루를 지나 갔다.

초조함과 불쾌함을 참고 오늘의 과거의 총계자로서 정전에 좌정한 왕은 이 수상한 행색의 사람들을 거저 넘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신을 불러서 그 행색의 인물들의 정체를 알아 오라 하였다.

구조의 태학생—왕씨 조정의 유신들이었다. 오늘의 이 강제적 과거를 모면할 겹 또한 장차 이 액을 피하기 위해서 선조 대대로 살던 정든 서울을 등지고 떠나는 망국 유민들이었다.

“무얼!”

격노와 감격.

이 수상한 인물들의 정체를 알 때에 왕은 형용키 어려운 감정 때문에 눈에는 눈물이 콧 쏟아졌다.

아아. 이렇듯이 내가 인망이 없드냐.

“상감마마. 진정합시오! 정몽주의 문하에서 오래 주정(朱程)의 학을 배운 선비들이라 매서운 놈들이옵니다. 그렇지만 설마 무부들이야 안 오리니까. 명일이 있지 않소이까. 명일은 전조 무신들이 죄 취시하러 올 듯 하옵니다.”

왕의 불평한 기색을 보고 남은(南園)이 곁에서 이렇게 여쭙 때에 왕은 도리어 불쾌한 눈을 남은의 위에 부었다.

“은 고려의 민심이 다 이시중께로 돌아왔습니다. 인전 일어서십시다. 낡은 왕씨의 사직을 꺾어 버리고 큰 기업을 새로 세우십시다. 만날 이렇듯 졸라서 자기로 하여금 드디어 일어서서 오늘날 이 자리를 잡게 한 인물들이 누구였드냐. 지금 이 앞에 늘어앉은 이 인물들이 모두 입을 같이

하여 고려의 민심이 죄 자기에게로 돌아 왔다고 충동치 안했느냐.”

그들의 그 말에 온전히 속은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려의 민심이 이렇듯 아직도 구왕조에 연연하리라고는 뜻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 때의 동료 오늘의 신하들의 말을 다 믿지는 않은 바였지만 절반만치는 믿었다. 믿었기에 자기도 일어선 것이다. 만약 이렇듯 고려의 민심이 왕씨를 떠나지 않은 줄 알았다면 애당초 일어서지도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이 꼴은 무엇이나.

자기의 눈앞에 늘어앉은 이 소위 공신들은 모두 오로지 자기네 각각의 공명을 위하여 거짓말로 속였던 것인가.

백성이 없는 국가.

왕은 연이어 쓴 입맛을 다시었다.

그 날 서울을 망명한 왕씨조 태학생은 합계가 칠십 이 인이었다.

서울 교외에서 차마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서울을 선뜻 떠나지 못하여 돌아서서 구경(舊京)을 슬퍼하던, 앞의 태학생은 거기서 우는 동안에 뒤따르는 다른 망명객을 만났다. 이리하여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한 것이 일흔 두 사람이 모였다.

모두 다 아는 얼굴. 이 전조에 있어서 형이여 아우여하며 한 임금을 한 마음으로 섬기던 동지들이었다. 지금 나라를 잃고 임금을 잃고 지위를 잃고 신분까지도 잃은 그들은 단지 인제는 이 서울에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 아래 지향 없는 망명의 길을 떠난 것이었다.

목적지도 없고 방책도 없는 망명의 길이었다.

문하시중 이성계를 섬긴다? 그런 망측한 생각은 하여본 일도 없었다. 왕씨 이미 없으니 왕씨 아닌 임군이 어디 있으랴.

지금 이 나라의 이름은 그냥 ‘고려’라 하지만 그들은 이 새 나라를 고려라 보지 않았다. 이 고려가 아닌 ‘새고려’에 신사(臣仕)란 웬말이나.

이리하여 여기서 모인 일흔 두 명은 오백 년 고도의 최후를 통곡한 뒤에 황혼의 해를 가슴으로 안고 만수산 아래까지 이르러서 거기 이 망국유신

끼리의 한 마을을 만들고 문을 굳게 닫고 일체 세상과의 교섭을 끊었다.

이리하여 전조 문관은 한 사람도 취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튿날, 무과 과거를 보는 날이었다. 심사가 불편하여 왕은 이 날은 도대체 경덕궁에 거동하기가 싫었다. 연하여 왕의 눈에 떠오르는 것은 어제 경덕궁 맞은편 언덕마루를 타고 넘고 타고 넘던 전조 태학생들의 모양이었다. 오늘 다시 고시를 한다고 해야 여전히 시골서 올라온 무부 몇 개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그따위 고시는 중지하고 싶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 선 뒤의 첫번 과거를 흐지부지 해버리는 것은 이 정부의 위신을 더욱 떨어뜨리게 지나지 못 할 것이므로 할 일 없이 경덕궁으로 거동은 하였다.

“무부는 문사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아마 전조 무신들도 꽤 오리라고 믿습니다.”

왕의 불평한 안색을 보고 이렇게 위로하는 충신들부터가 도대체 자기네 말을 스스로도 믿지 않았는지라. 왕이 믿을 까닭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행여나 하는 요행심은 그래도 가지고 갔었는데 이 요행심도 또한 헛것이였다. 어제와 꼭 반대의 방향으로 역시 경덕궁 건너 언덕을 갈(麓)숙덕이를 쓴 무부의 무리가 하나 또 하나 서에서 동으로 넘어 갔다.

무부, 작은 절을 구애하지 않던 호활하던 이 무리.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침한 얼굴이란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그들이어늘 오늘은 역시 어제의 문사에 지지 않을 정도의 힘 없는 걸음걸이로 한 사람 또 한 사람 언덕을 넘는다.

그 날 온종일 왕도 입을 벌려 본 일이 없었다. 신하들도 입을 벌려 본 일이 없었다. 서로 얼굴을 보는 일조차 없이 음침하고 불쾌한 얼굴로 그 잔일을 보냈다.

저녁 환궁할 때야 왕은 비로소 한 마디 입 밖에 내었다.

“내 덕이 그다지도 없든가.”

이 자탄에 대하여 무슨 좋은 복계를 하는 재상도 없이 군신은 수창궁으

로 들어 왔다.

이리하여 이번 과거에서는 옛 조정에서 목적 했던 바 전조 유신들은 (문무반을 막론하고) 한 사람도 얻지 못하고 시골선비 몇과 시골 무관 몇을 겨우 얻은 뿐이었다. 이런 일 등으로 왕은 자기에게 부족한 ‘덕화’의 힘을 구하기 위하여 하루 바빠 무학대사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날 서울을 벗어날 무신들을 하나씩 동교에 모여서 거기서 사십 팔인의 한부락이 보봉산(寶鳳山) 중에 생겨났다.

세상에서 일컫는 바, 서두문동(西杜門洞)은 이 문신들의 칠십 이 인이 숨었던 곳이고, 동두문동(東杜門洞)은 무신 사십 팔 인이 숨었던 곳이다.

실패, 입맛 쓴 실패였다. 이번 고시에 뽑힌 새 벼슬아치들의 하례를 불쾌한 마음으로 받은 뒤의 며칠간은 왕은 내전에서 나오지 않았다. 연하여 눈가에 떠오르는 망명 유신들의 모양은 이 왕의 오늘의 자리를 비웃는 듯이 떠나지를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직도 그래도 바라는 것은 무학대사 수색이었다.

경기 황해 평안의 삼도 방백에게 명하여 두었으니 지금도 한창 무학의 있는 곳을 찾는 중이겠지만 어서 찾아 내어 지금 이 인덕(人德)이 없는 자로서 부터 중망을 모아서 새 국가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일 후 내전에서 비로소 평전으로 나온 왕은 정도전을 불러서 이 국호를 고칠 일을 의논하였다.

이 국호는 이미 갈기로 내정은 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편의상 나라의 이름을 그냥 고려로 하여 두었다. 그것은,

첫째로는 국호까지 가면 민심이 이 새 왕조에 심복하지 않을 근심이 있었음이고,

둘째로는 민심보다도 전조의 문무 유신들로 하여금 이 나라는 마치 공민왕에서 우왕으로 창왕에서 공양군으로 변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임금만이 변하였지 나라 자체는 아직 고려국이라는 것을 알려져 심복하게 하려 함이었고,



셋째로는 지금 상국으로 섬기는 명나라에 대한 ‘카무프라취상’ 국호까지 변경하였다가는 이 새 왕조를 명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을 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려를 칭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무리 국호를 그냥 고려라 하여도 전조의 신민은 이 이씨의 이룩한 고려를 왕씨 고려의 연장(延長)으로는 결코 보지 않았다. 전조의 신민이 새 나라를 고려라 보지 않는 이상에는 구태여 남이 붙인 이름을 그냥 습용해서 불쾌한 연상을 그냥 계속시킬 필요가 없었다.

명나라 문제도 인제는 카무프라취뿐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다. 전조 유신들의 일부분은 이 이씨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더럽다 하여 뒤를 이어서 중원 땅으로 망명을 한다. 그리고 이씨의 새 나라를 싫다하고 중원으로 달아나는 그들인지라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 조선왕조의 변혁이 가장 나쁜 혁식 아래 명나라 조정의 귀로 들어 갈 것이다.

이렇진대 이제는 고려라 하는 낡은 국호를 그냥 습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군신이 협의한 결과 국호를 ‘조선’이라 고치기로 하였다. 그런 뒤에 이 새 국호의 윤희를 급히 받을 겹 또는 명나라의 의향도 좀더 똑똑히 알아볼 겹 더욱이 알아보아서 변명(왕씨 고려를 뒤집어 엮은 데 대한)도 할 겹해서 명나라 서울로 사신을 또 보냈다.

그리고 일변으로는 강압정책을 쓰기로 하였다.

이전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를 합칠 때의 예로 미루어 심복 시킬 희망으로 그냥 두었었지만 무장 출신의 성미 팔팔한 이 왕으로서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동두문동에 숨은 전조 무신 사십 팔 인이며 서두문동에 숨은 문신 칠십 이 인을 불러 내려고도 여러 번 왕사가 달려 갔지만 그 양 두문동은 문을 굳게 닫고 왕사를 만나지도 않았다.

그러는 한편 서울 백성들에게도 새 정부를 환영하라고 강제하였다. 뒤따라 내리는 탄압. 그러나 전조 백성들은 아무리 하여도 이 신 왕을 기쁘게 맞지 못하였다.

새 나라를 이룩한 뒤에 그 새 나라를 조리 하기는 매우 바빠다.

이 번잡한 용무를(고금에 드문 지혜 덩이인) 정도전이 없었다면 도저히 당하여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온 몸이 지혜로 뭉쳐진 듯한 정도전에게서는 연하여 피가 났다.

집 제도를 고쳤다. 여지껏 집 제도라는 것은 큰방은 아랫 쪽에 등지고 앉으며 동향하게 되고, 건넌방은 남향하게 되는 것으로서 방 자체는 큰방은 남향이요, 건넌방은 동향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상식적 제도로써 만약 특별한 정책상 필요만 없으면 인류가 가질 가장 당연한 건축제도였다. 그것을 정도전은 고치게 하였다.

즉 남향하여 마루가 있고, 마루에 붙어서 서쪽에는 큰,방이(동향으로) 마루를 향하여 달리고, 동쪽에는 건넌방이 역시(서향으로) 마루를 향하게 달리도록 그리고 큰방의 남쪽으로는 부엌이 달리도록 이런 새 건축제도를 세웠다.(지금 경성 근방의 보통 집 제도가 그것이다.) 만약 이 집 아랫 쪽에 앉으면 자연히 북향하여 진다 이런 제도의 집에 앉으려면 막무가내로 북면하게 되는 것으로서 지금의 새 왕에게 북면하지 않으려는 고려 백성들에게 집 제도로써 막무가내로 북면하게(형식상으로나마) 한 것이었다.

가옥의 높고 얇기로도 엄연히 귀인의 집과 민가를 구별하게 하여 억지로라도 평민의 지위를 낮추어 놓았다. 그리고 관권을 높이고 정숙하게 하여서 전조말년의 해이 되었던 제도를 엄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열복하지는 않으나) 무서워서라도 복종케 하여 놓았다.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석삼조의 격으로서 한편으로는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숭상함으로써 상국 명나라에 아첨하여서 바빠 상국의 동정과 윤희를 사려함이요, 한편으로는 고려유민들 가운데 유림(儒林)의 동정을 좀 사려함이요, 또 한 가지로서는 전조 유래의 종교를 꺾어 버리어서 전조 옛것은 냄새까지라도 모두 없이하려 함이었다.

조선에 허다한 금씨(金氏)라는 성의 금이라는 음은 ‘쇠’를 뜻함으로서 ‘쇠’는 나무(오얏. 李氏)를 꺾는 자라 하여 ‘금씨’ 성을 못 쓰고 ‘김’이라고

고치게 하였다.

관서 사람은 성미가 강직하고 팔팔해서 꺼릴 바 많다 하여 정부 요로에는 일체로 평안도 사람은 쓰지 않기로 하였다. 아직껏 어떻게든 회유하여 보려고 노력하던 전조 유신들에게 대한 탄압도 차차 격화하였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온갖 잔문을 꾸며 내어서 미신(迷信)적으로 이번 이 시종이 나라를 얻은 것이 옛날부터 하늘에 작정되었던 일이라는 듯이 말을 퍼쳤다. 그러는 때에 애써 찾은 무학대사가 입경을 한 것이었다.

무학은 황해도 곡산 고달산(谷山高達山)에 숨어 있던 것을 경기 황해 평안의 삼도 감사가 함께 찾아가서 왕명으로 서울로 데려온 것이었다. 왕은 이 옛날 벗을 보고 환희 하였다.

이 왕이 이전 한낱 소년 무장으로 있을 때에 벌써 오늘날이 있을 것을 알아낸 무학은 왕에게는 진실로 감회 깊은 옛 벗이었다. 그 날밤 조용한 때에,

“대사. 전조 유민들을 심복하게 하려면?”

무학에게 대하여 왕이 이렇게 물을 때에 무학은 잠시 무표정한 얼굴로 왕을 마주 보다가,

“짧은 세월에 심복하게 하기는 불가능할까 보옵니다.”

하였다. 왕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이즈음 늘 이런 생각이 왕의 마음에 있던 차라 더욱이 뜨끔하였다.

“전하, 전하는 아까도 고려 태조의 기업을 말씀하시는 듯 하오나 고려 태조의 기업과 전하의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신라 왕조와 고려 왕조는 왕조부터가 다르고, 고려 태조와 전하는 사람됨이 다르고, 백성도 또한 신라와 고려를 비길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와 고려 태조를 비기웁건대 고려 태조는 용맹보다 덕이 더 큰 이웁고, 전하는 덕보다는 기략이 더 큰 분이옵니다. 또 백성으로 볼지라도 신라 말년에는 정치가 해이되고 군웅이 활거하여 있던 시대로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성주(聖主)의 출현을 기다리던 대신에 고려 말년은 정치가 얼마간 해이하게 되기는 하였다 하옵지만 공민대왕 시대에 편조존사(遍照尊師)의 덕화

에 마음껏 먹감은 백성들이라 그냥 왕씨 사직을 사모하는 백성들일 뿐더러 그 소위 정치의 해이라 하는 것도 말하자면 무엄한 말씀이오나 전하께서 고려 사직을 꺾기 위해서 부러 흐려 놓은 것이니 만치 백성들은 도리어 전하를 껴리웁고, 고려 사직의 만만세를 축수하던 처지가 아니옵니까. 말씀하자면 신라 금부대왕은 당신 힘으로 들기 힘들은 사직을 고려 태조께 바치신 것이 옳고, 고려 최후 삼대의 왕께서는 안 놓으시려는 사직을 전하께서 돌려 얹으신 것이 고려말과 신라 말은 비교할 것이 아니옵니다.”

무엄하고도 대담한 말이었다.

그러나 왕은 묵묵히 들었다. 마디 마디가 가슴에 찔리었다. 후회도 연하여 났다. 자기만 최영과 힘을 아울러서 이 고려 사직을 붙들기에 정력을 하였다면 지금쯤은 이 나라는 꽤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를 이루었을 걸. 정도전 남은 혹은 다섯째 아드님 방원등의 어리땡땡거리는 바람에 공연한 야욕을 내지나 앓았던가 하는 생각조차 꽤 강렬히 일어났다.

그러나 인제는 뒷걸음도 치지 못할 자리였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에는 이 국가로 하여금 훌륭한 국가로 만들고 이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된 국민이 되게 하도록 이미 이룩한 일을 인제부터라도 정도(正導)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이룩한 이상에는 인제부터라도 좋은 국가를 만들어서 후백제의 시조(始祖)와 같이 천재 후까지 웃음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성계는 자기 야욕 때문에 자기의 임금을 배반하였다는 악명은 결코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좋은 국가를! 좋은 국가를!”

왕은 한참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대사, 지난 일은 지난 일. 이제부터라도 이 백성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대사를 맞으러 온 것이 외다. 대사는 모든 것을 탓하지 말고 이 백성을 도탄의 경에서 구해 내는 데 힘을 써주시요.”

무학은 즉시로 응하였다.

“전하는 천도를 합시오. 무엇보다도 천도가 긴급한 일이옵니다. 어제

까지도 왕씨를 섬기든 이 백성을 오늘부터 이씨를 섬기라고 해 봤자 곧 시행이 되지 않을 것이 오며 시행이 안 되오면, 전하께서는 그 역세신 성격이 거슬리시겠고 거슬리시면 강압을 가해서라도 시행되기를 강제하실 것이며, 강압이 가해지면 백성의 마음은 더욱 빛나갈 것이며, 이 오 백년의 도읍지를 버리시고 천도를 합시오. 그리고 신부의 백성에게 덕으로 임하셔서 이십 전인 전하의 덕화가 온 국내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최량지책일까 하옵니다.”

왕은 무학의 말을 들어서 천도하기로 내정하였다. 그리고 새 도읍지가 될 만한 곳을 신하들을 보내 물색하였다. 그러면서 흔히 혼자서 속으로 뇌여 보는 것은 그 당시 민간에 유포되어 있는 한 개의 이야기였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

때는 공민왕시절. 어떤 평민계급의 형제가 길을 가다가 아우가 길에서 황금 두 조각을 얻어서 하나는 형을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가졌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양천강(陽川江) 강변까지 이르러서 아우는 자기의 금을 강에 내어 던졌다. 형은 이것을 괴이하게 생각하여 무슨 까닭으로 내어 버리느냐고 물으매 아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평생 형님을 애모하는 마음이 심했는데 오늘 형님께 금을 드리고 생각하니 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황금이란 그러고 보니 더러운 것이라 내버렸습니다.”

이 말에 형도 자기의 가슴을 치며 네 말이 옳다 하고 자기의 금도 강에 내어 던졌다.

이런 이야기.

아아. 이것은 전혀 그 때 재상 신돈의 위대한 감화력의 소산이었다. 신돈 집정 겨우 육칠 년간. 그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덕화는 얼마나 일반민중에게까지 감화되었던가?

그 후 우왕 십사 년 창왕 일 년, 공양군 사 년이라는 짧지 않은 난정의 기간을 지나고도 아직도 고려의 왕조를 그렇듯 애타히 사모하는 것은 그

때의 덕화가 너무도 컸던 연고일 것이다.

무학의 덕화력이 신돈에게 미칠지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무학도 득도한 고승(高僧)이니 범인과는 다를 것이다. 이 무학의 손을 빌어서 덕화의 방면을 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왕은 무학을 사부로서 서울에 머물게 하고 지금 자기에게 결핍된 도덕적 방면의 수양 쌓기를 게으르지 않았다.

어서 천도를 하려고 후보지를 물색하나 적당한 자리가 좀체 나타나지 않았다.

왕은 차차 이 수창궁이라는 대궐이 마음에 켜기기 시작하였다.

우왕 시대에 창건한 이 대궐은 지금의 새왕, 이전 고려조의 우왕, 창왕 공양군의 네 임금의 모신 그 대궐이었다.

이전에는 허리를 굽히고 서서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던 그 용상에 주인 노릇하기도 좀 마음이 이상하였거니와 더구나 전 삼대의 왕이 침전으로 쓰던 침전에 들기가 매우 거북하였다.

이 용상 이 침전의 이전 주인은 삼대가 다 자기 손에 참혹한 최후를 본 것이다. 그 위에 더더구나 전 왕조 시대의 궁녀 중에 자태 아리따운자 두셋을 그냥 두어서 때때로 침석에까지 모시게 하기는 하지만 양심상 매우 거리가 컸다.

때때로 내시의 부역을 받고 궁 뜰이라든(이전에는 허리를 굽히고야 다니든) 거닐 때는 문득 저편 숲에서 말 탄 소년 왕이 뛰쳐나오지 않는가 하는 겁까지 생길 때도 있었다. 이리하여 오래 두고 버르던 왕위에 오르기는 하였지만 이 왕위는 기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근심되는 것이었다.

그 해 시월 열 하룻날, 왕의 탄신이었다. 처음 맞는 탄신이니 만치 대궐에서의 축하연은 굉장하였다. 그러나 이 왕으로서의 처음 맞는 탄신에도 이 날을 축하하며 경하하는 사람은 왕 및 그의 신하들 뿐이었다. 개경 십만 장안은 쓸쓸하였다. 경하의 기분이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고, 보통 날보다도 오히려 쓸쓸한 편이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대궐 안의



잔치도 곁으로는 흥성스러운 편이었으나 안으로는 암담한 일면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그러한 때에 이 잔치에서도 한 개의 기괴한 일이 생겼다.

그 잔치에는 설매(雪梅)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가무도 능하고 얼굴도 뛰어났거니와, 음하기로도 남에게 빠지지 않을 만한 기생이었다. 그 기생에게 향하여 어떤 재상이 술 킴에 농담 삼아,

“너는 아침에는 동가(東家)에서 먹고 저녁에는 서가(西家)에서 묵는다니 나하고는 한 번 어떠냐?”

고 던졌다.

거기 대하여 설매는 곧 대답하였다.

“동가식하고 서가숙하는 천비오니 어제는 왕씨를 섬기고 오늘은 이씨를 섬기시는 대감과도 그다지 짝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순간에 확 퍼지는 참담한 기분.

그 가운데서는 권병에 못 이기어 오늘 이 잔치에 나왔던 몇몇 전조 유생들의 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다. 왕도 이 광경을 보았다. 그러나 못 본체하였다. 못 본체는 하였지만 가슴은 쓰리었다. 한 개 천비까지도 그냥 고려의 사직을 잊지 못하는 것이었다.

“천도를 해야겠다. 여기서는 설혹 참말로 덕화를 펼지라도 그 덕화를 받아 줄 백성이 없을 모양이다.”

아아. 내가 이룩한 사직도 이와 같이 튼튼해 지고저. 이리하여 왕은 이 개경 인구나 전조의 구신들은 장구한 세월과 술한 공력이 아니면 결코 귀화시키지 못할 것을 더욱 더 절실히 느끼고 왕화를 효과 있게 퍼기 위해서는 어서 바빠 천도를 하여야겠다는 점을 더욱 통절히 깨달았다.

잔치가 끝난 뒤에 왕은 조용히 정도전을 불러서 어서 천도할 땅을 고르라고 다시금 채근하였다.

계룡산 한양부 이 두 고장을 후보지로 정하고 계룡산을 좀더 무겁게 보아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는 중이었다. 하루라도 바빠 이 고려 서울 개경을 벗어나고 싶었다. 더구나 왕씨 일족의 몇 몇 사람은 이 새 국가를 도

로 들어 앉으려고 꿈틀꿈틀 음모를 하는 기색조차 보였다. 이 서울에 그냥 있다가는 심적 불쾌도 불쾌려니와 언제 무슨 일이 폭발될런지도 알 수가 없었다. 지금 가슴에 배포한 온갖 원대한 계획을 마음놓고 베풀만한 땅을 어서 골라내자. 이리하여 왕의 마음은 꽤 초조하여졌다.

(김동인, 《월간야담》, 제2권 제4호, 계유사, 1940, 2~20쪽.)

42. 월라가연(月下佳緣)

지금으로부터 이백 사십 년 전 숙종병자(肅宗丙子)년 유월염천(六月炎天)이다. 불별이 내리쬘여서 길 걷는 사람들에 얼굴과 등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흐르며 어찌할 줄 모르는 어느날 남산 부엉바위골에는 북촌 선비 몇 사람의 탁족회(濯足會)가 열렸다. 울밀한 송림 속에 물 소리와 새소리는 별세계의 양미만곡(涼味萬斛)인데 부엉바위 뒤편에는 소주병 안주함이 흩어져 있고 한편에는 바둑판 장기판을 대하여 떠들고 짓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시조나 풍월을 읊조리기도 하며 무서운 더위를 잊어버리는 것을 무한한 취미로 여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늙은 소나무를 의지하고 우뚝히 서서 무엇을 골몰히 생각하노라고 여러 사람의 짓거리는 것을 못 듣고 땅만 굽어보고 있는데,

“여보게 자네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고 쫓아와서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본 옆에 사람이 내다르면서,

“아따, 그 사람이 아씨 생각이 나서 그러나봐.”

이렇게 조롱을 한다. 또 한 사람이 내다러서,

“여보게, 그렇게 객화가 심하다면 내가 어여쁜 첩 하나를 중매할까?”

하니까 그제야 머리를 들어서 여러 사람을 둘러다 보면서,

“아니야, 어째 글 한 귀가 생각이 나는데 고저(高低)가 틀려서 글자를 고르느라고 그러네.”

하면서 어정어정 걸어서 저편 소나무로 가더니 역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경상도 안동 사는 권서방인데 상당한 가정에서 엄부형시하로 공부를 하여 일찍이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마치고 과문(科文)을 배워서 시부표(詩賦表)의 막힐 것이 없을 만치 포부가 있으나 성격이 우질부질하야 갑갑증이 났던지 과거령이 내릴 때까지 자기 고향에 있어서 참지를 못하고 서울로 올라 온 지가 수삼 삭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소년 때에 유경(留京)을 오래 하여 서울서 사는 친구라든지 인아족당(姻婭族黨)의 과갈(荏葛)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교유한 까닭에 권서방도 역시 서울을 올라와서 그렇게 생소치는 아니한 터이라 마침 그날 탁족회에 참례하기 위하여 옥동(玉洞)에 있는 그 사관을 나서서 황토마루를 지나 다방골 어느 골목을 들어서니까 저편 길로 난 들창이 열렸는데 꽃 같은 여자가 누구를 찾는 것 같더니 권서방의 눈과 마주치면서 고개를 움실한다. 이것을 본 권서방은 깜짝 놀랐다.

“아, 저런 일색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참으로 어여쁘다. 폐화수월(閉花羞月)이라 할까, 침어락안(沈魚落雁)이라 할까, 붓으로 그린 사람이 아니면 옥으로 깎은 얼굴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대관절 이 집이 누구의 집이며 저 여자는 필경 주인의 딸일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혼자 말을 하면서 집 형편을 두루 살피려고 이리 저리 둘러 보노라니까 마침 마주치는 골목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나므로 권서방은 얼핏 걸음을 돌려서 작은 광통교(廣通橋) 마루턱을 쳐다보면서 필동 병문을 지나 서투른 길을 가까스로 찾아가니 먼저 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들을 먹다가 권서방을 보고 반기면서,

“여보게, 자네 마침 잘 왔네. 어찌해서 그렇게 늦었나. 어서 옷좀 벗어 놓고 술 한 잔 먹게. 후래삼배(後來三盃)라네.”

이렇게 한 마디씩 인사겸 술을 권한다. 권서방은 연이어 부채질을 하면서,
“조반을 먹고 곧 떠났지마는 원체 멀기도 하려니와 일기가 더우니까 걸음도 잘 걸려지지 아니하데 그려.”

하면서 옷가슴을 헤치며 부채질을 한다.

얼마 후에 술상을 물리고 다 각각 흠어져서 제각기 취미대로 바둑두는 사람 장기두는 사람 탁족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몰려 앉았는데 권서방은 혼자 빙빙 돌아다니면서 풍경을 관상하다가 아까 오다가 다방골서 본 여자가 생각이 나서 마음 속으로 그려도 보고 또는 그 여자가 누구를 찾아가도 생각해 보노라고 열빠진 사람 같아 보였다.

그 날 탁족회는 원만히 마치었다. 해가 기울 때쯤 되어서 모두 다들 오는데 권서방은 생각하기를,

“내가 뒤떨어져서 아까 그 집을 찾아 가지고 자세히 살펴 보리라.”

하고 구리개 네거리에 와서 여러 사람과 작별을 하고 권서방은 천천히 걸어서 다방골을 들어서니 때는 이미 초경인데 흐릿한 달빛이 비치며 과히 어둡지 않은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서 오락가락 하면서 혼자 생각이다.

“내가 이 집을 이렇게 찾아서 무엇을 하나? 천귀잠잠 만귀잠잠 다들 잠이 들었을 터인데.”

이렇게 하면서 발길을 그 집 들창 밑에 와서 멈추었는데 대문은 닫혀 있고, 들창은 높이가 길 반은 넉넉하니 창구멍을 뚫고 들여다 보기에라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담 모퉁이를 돌아서 막다른 골목 너른 마당을 들여다보니 과연 조그마한 일각문이 있다. 이문은 이 집 뒷문이었다.

“웁다. 저 문이 아마 이 집 뒷문이 틀리지 않구나.”

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글 읽은 놈이 밤중에 남의 집 뒷문을 찾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닌데, 더구나 규중에 잠겨 있는 양가 여자를 생각하니 이런 실 없는 일이 어디 있으며 또 생각한들 수중로월(水中撈月)이지 중간에 매과 하나 없이 뒷문만 찾으면 무엇하나.”

이렇게 자문자답으로 마음을 경계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매력에 끌려서 그 일각문 앞을 당도하였다. 급기 당도하고 보니 역시 아무 동정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근처를 한 번 휘돌아보는데, 머리 위에서 무슨 기척이 나면서 바로 등 뒤에 무엇이 떨어진다. 이 때 권서방은 극도로 놀랐다.

그리고 차디 찬 땀이 흘렀다. 그래서 처마 밑으로 바싹 들어서서 그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조그마한 와륵 조각이다.

“아하, 난 도적놈이 기와장을 내리친 줄 알았더니 와륵 조각이 무슨 이것이 묘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와륵 조각을 집었다. 그 와륵 조각에는 의외로 종이 조각이 매어있다.

“이에 이것이 무엇이나?”

하고 맨 것을 풀어서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과연 뜻밖에 일이다. 그 종이 조각에는,

“밤중이 되거든 이 문 밖에 와서 기다리라.”

이렇게 씌어 있다. 이것을 본 권서방은 기뻐다.

“여기에 까닭은 붙었다. 그저 돌아가기가 무미하더니 일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서,

“삼경에 여기서 기다린다.”

라고 써서 그 일각문 안으로 팔매를 쳐서 넘겼다. 그리하고 그 맞은 편 집 담 모퉁이에 가서 몸을 감추고 있으니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아니할 만하다.

“자, 이제는 무슨 일이 있든지 있을 텐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라누?”

하는 호기심이 더 한층 깊어져서 참을 수 없을 만치 조금증이 나서 두 눈을 쏘아보고 있노라니까 어느덧 이경이나 되었을 때에 저편 큰길로부터 발자취 소리가 들리더니 그 골목을 들어 설 때는 조심스러운 듯이 사뿐 사뿐 걷는 걸음으로 일각 문 앞까지 당도하여 무엇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편 저편을 바늘 찾듯이 땅바닥을 살살이 찾는 모양이더니 아무 것도 없으니까 뒷짐을 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허허탄탄을 하는 모양이다. 이것을 본 권서방은 혼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만은 그렇다. 저 놈이 무슨 약속을 하고 아까 편지를 찾는 모양이다마

는 벌써 내 손에 들어와 있다. 너는 지붕이나 쳐다보아라 그러나 사람이나 제물이나 제물 같으면 너를 주지만 사람 같으면 네게 사양할 내가 아니다.” 하고 내다보고 서 있노라니까 그 자는 뒤통수를 치고 돌아서서 간다. 이것을 본 권서방은 일초 이초가 조급하여 삼경이 어찌 그리 늦은 것을 원망하였다. 인제는 저 문안에서 무슨 기척이 있는 듯하다 생각을 하고, 일각문 널조각을 뚫어질 듯이 쏘아 보노라니까 과연 문빗장 빠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린다. 이 때 마침 검은 구름장이 지나가고 맑은 달빛이 그 일각문을 비추어 준다. 그럴 때에 문 안쪽이 소리 없이 열리면서 여자 한 사람이 앞을 서고 뒤에는 중늬은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이고 따라오더니 기다리는 사람을 찾는 모양이다. 권서방은 자세히 보았다.

“웁다. 아까 그 여자가 틀림 없다. 이제는 내가 나가서 몸을 나타 내리라.” 하고 천천히 걸어서 몇 걸음 나가니까 저 앞에 선 여자는 반갑게 앞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권서방의 얼굴과 마주 칠 때는,

“으악!”

소리를 가볍게 치면서 뒤로 물러서서 뒤에 있는 늙은 여자의 앞으로 다가선다.

이 여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이 밤중에 이 뒷문으로 나와서 누구를 찾는가? 그 집주인은 현동지(玄同知)라는 사람으로 인물로도 신언서판(身言書判)이 남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가세가 요부하야 남에게 그리운 것이 없으나 다만 아들이 없고 늦게야 딸 하나를 나서 장중보옥 같이 여기는데, 이름은 서옥(瑞玉)이다. 서옥이가 세 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니 현동지는 늙게 홀아비로 지낼 수도 없고 더구나 큰 살림에 중궤지임(中饋之任)이 있는 고로 서옥의 뒷일을 염려하지 아니하지는 않지만은 할 수 없이 양가 처녀 이씨에게 후취를 하였다. 그래서 항상 그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저 서옥이를 그 대의 소생과 같이 기르면 늙은 나의 마음도 기쁘려니

와 그대의 만복이 적지 아니 하리다.”

한즉 이씨는 겉으로는 그럴 듯이 들리나 속으로는 서옥이를 미워하더니
현동지의 수명이 그만이든지 서옥이가 열 여섯 살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났다.

외로운 서옥이는 다만 그 유모 한 사람 외에는 다른 가까운 사람이 없
었다. 그러나 그 계모씨는 자기의 외사촌의 아들인 판수에게로 서옥이를
시집보내려고 한다. 이것을 안 서옥이는 그 유모와 같이 의논하기를,

“여보! 엄마.”

“왜 그러우.”

“저….”

하고 주저하니까,

“응, 무엇?”

이렇게 물었으나 서옥은 그리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때 유모는 말 재촉을 굳이 하니까 서옥이는 그 때야,

“저- 김용배(金用培)집이 어디요?”

“그 말이 그렇게 아니나와서 그러우, 그러구 그 사람의 집은 왜 묻소?”

“글세 말이오.”

“글쎄라니 그 집은 알아서 무엇하우?”

“그 집이 가깝소….”

“한 장안에서 무엇이 그리 멀겠소 체골이라우.”

유모는 이렇게 말을 하여 가르쳐 주었다.

“여보! 아마 내가 그 집에 가서 숨어 있어서 서서히 좋은 도리를 하겠으
니 내일 엄마가 가서 눈치를 좀 보아 가지고 오.”

하고 말 하니까 유모는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더니,

“글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나 만일 냄새가 나면 용배까지 못 살릴 것
아니오?”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겠소. 이 집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없으면 여복

이나 좋아하겠소.”

“그는 그렇지오마는 이리 저리 찾아다니다가 탈로 나면 작은아씨 모양도 창피하고…”

“창피는 뒷일이오 당장 급한 일을 면해 놔야 하지 않소?”

“그렇지요 내일 가서 말해 보면 모르긴 모르지만 싫다고는 아니 하리다. 그러나 그 사람이 황송해서 어렵다고나 아니 할는지?”

“황송이 다 무엇이오 내가 자청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야 그렇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겠소.”

이렇게 의논을 정하고 그 날밤을 자는 등 마는 등 하였다.

김용배는 어떠한 사람인가 현동지가 살았을 때에 그 집 살림을 맡아보던 사람인데 나이는 젊었을 망정 위인이 똑똑하여 현동지가 많이 사랑하더니 급기 주인이 죽은 후에는 이씨가 가기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매사를 맡기지 아니 함으로 근자에는 자연 드문드문 와서 근맥만 보고 있던 처지였다.

밝은 날 유모는 자기 집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하고 바로 체골로 가서 김용배를 찾아보고 전후 이야기를 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용배,

“영감이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시비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깐 자기 맘대로 신랑을 택하였으니 그것이 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씀이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한다.

“여보, 김서방은 그 혼인을 깨칠 수 없오?”

“내가 어떻게 깨칩니까, 그러나 그 작은아씨도 다 알겠지요.”

“그럼요, 알구 말구…”

“그러면 그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얼 물을 것 무엇 있어서 우리 맘이 곧 작은아씨 맘이지.”

“그렇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아까운 색시 하나를 버렸지요.”

이렇게 문답하는 말을 옆에 앉아 듣든 용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쳐다보고,

“이애, 그게 무슨 소리냐 나두좀 알잖구나.”



하니 용배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어머니에게 들려 주었다.
그 어머니는 멀거니 듣고 앉았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도 보았지만 그 아까운 색시를 판수를 주다니 될
법이나 할 짓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용배는 허희탄식을 할 뿐이다. 이 때 유모는 사면을 휘휘 돌아보더니,

“여보 김서방, 이 좌석에 다른 사람은 없고, 집안 식구끼리 모였으니 말
이지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오.”

“네, 무슨 일이오.”

용배는 이렇게 반갑게 묻는다. 유모는 다시,

“내가 그 작은아씨를 꺾어서 내 올 테니 집에다가 숨겨 두고 이왕의 영
감과 정답게 지내던 양반을 찾아서 그런 말을 하고 병신이나 아닌 데로
출가를 하게 할나요?”

하고 용배와 용배 어머니와 용배 아내를 번갈아 쳐다본다. 용배는 우뚝히
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데, 용배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다가 한성부 맛을 보게.”

하니까 유모가 곧 끝을 따라서,

“작은아씨 하나만 없어진다면 자기 외사촌의 아들이야. 장가를 들던지 못
들던지 여복이나 좋아할 텐데 한성부가 다 무엇이 그리 무섭단 말씀이오.”
이렇게 낮이야 신이야 하고 하는 말을 용배는 유리하게 듣더니,

“그러면 찾지 아니 할까요?”

하고 유모에게 묻는다. 유모는,

“찾는 게 다 무엇이야. 계집애가 나이가 차니까 서방 생각이 나서 야반
도주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피 쳐드려서 흥을 짹짹 볼 뿐 아니라 도
로 들어 올까봐 되려 걱정을 할 텐데.”

이 말을 들은 용배는 한참이나 무슨 생각을 해보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 보지요. 그러나 그 색시가 빠져 나올라고 할까요?”

그 성미가 여간이 아닌데.”

용배는 도리어 이렇게 의심을 한다. 유모는 원래 서옥에게 대해서는 손톱 만치라도 이롭게는 할지언정 해로운 일은 아니하는 터이다. 유모는 안심하고,

“글쎄, 그도 그럴 듯 하나 내가 가서 말해 볼 터이니 내일 아침나절 서편 들창개로 오면 내가 내다보고 있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와서 서옥에게 전후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유모보다도 서옥이가 갑갑해서 그 이튿날 서편 들창을 자주 내다보다가 권서방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낮 때가 되어서 용배와 유모가 만나서 그 날 밤에 뒷문 앞에서 기와장에 편지 맨 것을 보아 주선하게 하였든 것이다.

이 때 권서방은 그 편지를 먼저 얻어 가지고 회답을 하여 삼경에나 오게 하였더니 과연 용배는 편지를 찾으려고 왔다가 기와장은 그만두고 사금파리 하나 없으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나보다 하고 그저 돌아간 후에 서옥이와 유모가 나오다가 권서방을 보고 그렇게 놀란 것이다. 이것을 본 권서방은 서옥의 앞을 지나가서 뒷문을 막고 서서,

“어떤 사람을 맞추었는 지는 모르거니와 이왕 나온 다음에야 하필 그 사람만 맛있오, 나도 이만하면 이목구비가 번듯하고 나이 젊고, 글 잘하고 글씨 잘 쓰고, 지체 좋고 형세가 벼 백이나 하니 남만 못하지 않소.”

하면서 우적우적 서옥의 앞으로 달려드나 서옥이는 땅속으로 들어갈 만치 급했다. 이 거동을 보는 유모도 역시 어찌지도 못할 지경이다. 소리를 칠 수도 없고, 도로 들어가자 하나 원수의 권서방이 문을 막고 서서 이기죽대고 섰으니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할 일 없이 권서방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은 웬 양반이기에 이렇게 성가시럽게 구려.”

하니 권서방은 역시 빈정대는 어조로,

“나를 따라가면 자연 알 것이니 염려 말고 갑시다 응? 어떻게 할 테요.”

하고 다그치니까 유모가 참다 못하여,

“글쎄, 웬 양반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성가 시럽게 하오. 어서 갈 길이

나 가시오.”

하니 빈죽 좋은 권서방은,

“밤중에 이리 오라고 해 놓고 와서 기다린 사람더러 어서 가라니 웬 말이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오라고 했소?”

“그러면 누구더러 오라고 했소. 편지가 여기 있소.”

이렇게 대답하는 양이 호락호락이 물러 갈 것 같지 아니하다. 유모는 할 일 없이 서옥을 향하여,

“이 노릇을 어찌하오. 여기서 떠들고 있을 수도 없고, 도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 할 수 없소. 저 사람을 따라가서 사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 서옥이의 생각에도 그럴 듯하여 입안의 소리로,

“그렇게 합시다.”

하니 옆에서 서 있던 권서방은 귀밝게 이 말을 듣고,

“사정은 나중 보아서 들을 만 하면 들을 터이니 어서 갑시다.”

하고서 재촉을 한다. 유모와 서옥이는 할 일 없이 권서방을 따라서 옥동까지 왔다.

그래서 권서방은 방에 널려 놓은 것을 이리저리 치워 놓으면서 어서 들어 오라고 재촉을 하는 거동이 흡사 쥐 물어다 놓은 고양이와 같이 어르는 꼴을 보는 서옥이와 유모가 보기에 느긋느긋하겠지만 어쩐지 그렇지 아니하다.

사내답게 큼직한 키라든지 너글너글한 얼굴바탕이며 없는 정이 있는 듯이 들여보는 눈초리와 너풀 너풀 거러서 말하는 입모습과 가끔 가끔 꺾 꺾 웃는 웃음소리가 무엇이던지 두 여자의 눈에 거슬리지 아니하여 구면과 같이 생소한 기분이 없어진다. 좌석을 정돈한 권서방은 다시 유모를 대하여 정중한 기색으로,

“젊으신이더러 물어서는 부끄러워 말을 잘 아니 할 것이니 당신이 대신 말을 하오. 대관절 누구의 집 여자이며, 당신은 저 여자와 어떻게 되는 사람인데 어떠한 사정으로 이렇게 나왔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을 하오.”

한다. 유모는 그 말이 귀에 반가운 듯이,

“서방님이 그렇게 물으시니 내가 다 말하리다. 저 아씨는 현동지맥 작은아씨로 밤에 나오느라고 귀밑머리를 풀어서 쪽을 졌을 망정 실상은 출가하지 아니한 색시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고 전후 사정을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정을 아니 할 수 없을 만하다. 권서방은 듣기를 다 하고,

“그렇겠오. 나는 어떤 한 여자가 음란(淫亂)한 생각으로 못된 사나이와 약속하여 가지고 야반도주(夜半逃走)를 하는가 하였더니 급기 사정을 듣고 보니 나로서도 그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소.”

하면서 주인을 깨워서 다른 방 하나를 치워 달라고 하더니,

“자—, 나는 저 방에 가서 잘 터이니 오죽들 곤하겠소, 어서들 주무시오.” 하고 가버린다. 유모와 서옥에게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글느글하던 권서방이 이렇게 점잖게 처치할 줄은 의외 일이다.

그리하여 서옥이와 유모 두 사람은 그 밤을 새우지 아니하지 못하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말이 오고가고 하는데 서옥의 말눈치를 알아차린 유모는,

“별수 없소 천정연분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어찌 권서방의 눈에 띄었을 리가 있소 아주 혼인을 정하는데 내가 중매장이가 되리다.”

“.....”

“그렇지 않소. 어디 가서 저만한 신랑을 구하며 설사 얼굴을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점잖한 양반이 또 있겠소.”

“.....”

“불계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엄마 마음대로 하우.”

서옥이는 이렇게 못 이기는 듯이 약속을 정하였다.

여름밤은 어느덧 밝았다. 권서방은 일찍이 일어나서 주인에게 두 식구의 밥을 더하라고 이르고 수세를 한 후에 유모를 불렀다.



“일어들 나셨소.”

하니 유모는 얼핏 문을 열고 나오면서,

“벌써 일어났습니다. 방을 빼앗기시구서 괴로우셨지요?”

“아니 관계치 않소.”

“인제 이리로 들어오시오.”

하고 유모는 남의 방을 빼앗은 인사 겸 중매할 일이 바빴다.

“천만에 말이오, 나는 아직 저 바깥방을 쓸 터이니 그저 그 방에들 계시우.”
이것은 권서방의 아주 점잖한 말뿐이 아니라 정대한 행동이다. 서옥이와 유모는 더 한층 존경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그리하여 아침밥을 먹은 후에 유모는 바깥에 권서방이 임시 쓰는 방으로 나왔다.

“아침 자셨소?”

하고 권서방은 물었다.

“네, 먹었어요.”

하면서 문 앞에 섰으니까 권서방이 웃으면서,

“이리로 들어오.”

하야 서로 각각 처지 이야기를 한참이나 한 후에 잠깐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더니 유모가 먼저 말을 꺼낸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도 많으오.”

“네? 무슨 이상한 일이오.”

“어저께 일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째서요?”

“김용배하고 약속한 일이 어찌 서방님이 오셔서 그 편지를 보셨단 말씀이오.”

“글쎄, 그는 그러우.”

“그뿐만 아니라 평생에 문 밖을 아니 내다보던 작은아씨가 어찌 서편 들창을 내다보다가 서방님 눈에 띄었드란 말이오.”

“글쎄 그도 이상해 그 까닭에 내가 밤에 또 같지. 그런 실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소.”

이 이야기는 이쯤 가더니 조금 중단이 되었다가 유모가 또 이어서,
“서방님 그것이 천정이 아니오.”

“.....”

천정이란 말에 권서방은 이상이 생각하고 대답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고 유모는 재차 말한다. 권서방은 눈치를 알아차리고도,

“천정이라니 연분이란 말이오?”

“글세 말이오.”

이제는 아주 노골화하였다.

“내가 처음에 장난할 적에는 실 없는 생각이 없지 않더니 급기 사정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한 일을 후회하였더니 지금 마누라님의 말을 들으니
아직까지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는 줄로 아는 말이오.”

하고 권서방은 거절하는 것같이 말을 하니 유모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오, 그렇게 하니라 이왕 일이 이렇게 되고, 또 어디 가서 서방님
같은 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말이오.”

이렇게 숨김이 없이 말을 한다. 권서방은 겸연쩍고 또는 불안도 하여,

“나는 아내가 있는데...”

하나 유모는 서슴지 아니하고,

“그럼 이 때까지 장가 안 드신 줄로야 알았을라구요.”

한다. 권서방은 원래 젊은 마음에 아주 거절할 생각은 없어서,

“그러면 당자보고 의논해 보았소.”

“그렇구 말구요.”

“그러면 집 있어야 하고 세간도 장만해야 할 텐데 대관절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하겠으니까 내가 집에 기별해서 돈을 올려 오려면 달포나 걸릴 것
이니 그 때까지 기다리게 하오.”

“그것은 들어가서 의논하시오.”

하고 유모는 들어갔다. 이 때 권서방은 혼자 생각한다.

“이것도 우연한 일은 아닌데 내가 과거를 보려고 올라와서 장중은 구경도 못하고 첩장가부터 들어? 부모가 들으시면 걱정을 들을 텐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른 다음에 사내 대장부가 거절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오 아니 하자 하니 집에서 돈을 가져오면 무엇에 쓸 말을 여주어야 하겠으니 이것이 걱정이 아닌가.”

하면서 또 다시 어저께 남산서 첩 얻어 주마던 친구의 말도 생각이 났다.

이 때 유모는 들어가서 서옥이에게 전후 수작을 다 이야기하니 서옥이는 매우 다행이 여기는 의사로,

“그러면 살림 배치를 해야 하지 않소.”

“그런게 아니라 서방님도 그 걱정을 하시면서 한 달 동안을 기다리라 함디다.”

하니 서옥이는 한참이나 생각해 보더니,

“엄마, 저것을 몇 가지 내다 팔면 어떻소.”

하고 눈치로 윗목에 놓인 부담상자를 쳐다본다. 유모는 혀를 뱉어 내두르며,

“그것은 영감마님이 아주 아껴 두신 것인데 어떻게 파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집 세간사리도 다 내버리고 나왔는데 그까짓 것이 아깝소.”

이렇게 서옥이는 편잔처럼 대답을 하니,

“여보 작은아씨, 그것은 혼인날 차야 하지 않소.”

하니 그 부담상자 속에는 가진 패물이 많이 들어 있다. 산호패물 밀하패물 금삼작이며 말굽이 들어 있었다.

그 이튿날 권서방은 삼청동으로 어저께 첩 얻어 주마던 친구를 찾아갔다. 주인은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피차의 수 인사를 한 후, 이 이야기 지 이야기하다가 권서방은 다시 말끝을 돌리어,

“여보게, 나는 그 사이 우스운 일이 있지 아니한가.”

하고 말을 하자 주인은 반가운 듯이,

“응, 무슨 일?”

하고 물었다. 그리하여 권서방은 그 날 낮에 다방골을 지나다가 서옥이를 본 일로 구리개 네거리에서 분로를 하고 그 집을 찾아가던 일로 그 이튿날 혼인언론이 되어서 허락한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일장을 이야기하니 주인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웃으면서,

“내 어쩐지 그 날 자네 행동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상푸득 그런 일이 있었네 그려. 그러면 택일도 해야 하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려니와 우선 집배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자면 돈이 있어야 할 터인데 자네가 객지에서 돈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도리어 남의 걱정애 분주하다 권서방은 웃으면서,

“그러기에 내가 집에 기별하여 돈을 올려오자면 한 달은 될 것이니, 그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여보게 그게 될 말인가. 어느 시절에 돈이 올라올는 지도 모르거니와 내가 알 듯이 자네 어르신네 성품에 자네더러 과거도 보기 전에 첩장가부터 들라고 돈을 올려 보내시겠나, 아니 될 말일세. 그 뒤는 내가 대지 대어. 염려 말게.”

하고 더 꺄꺄 웃는다. 이것은 울량으로 하는 아희를 때리는 셈이다. 권서방은 몇 마디 사양하는 체 하다가,

“자네가 그렇게 후의를 쓰는데 내가 종시 사양할 수야 있나.”

이렇게 부실한 어음(魚音) 다지듯이 하고 돌아와서 택일을 한 결과 칠월 칠석날이 좋다 하여 그 날 성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근처에다가 조그마한 기와집 한 채를 사고 세간을 배치한 후 혼인날을 기다리는데, 그 말이 삼청동 친구의 입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그 날 탁족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만두고 그 외에도 남북촌의 친구들이 입을 모아 생례를 받아 먹는다 하여 혼례식이 떡 벌어지고 이로부터 양정이 상합하여 화락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덧 신추가 돌아오고 과일(科日)이 당도함에 권서방은 과구(科具)를

차려 가지고 장중에 들어가서 과거를 보았지만 불행이 낭패를 하였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옛말과 같이 권서방이 이번 과거는 실패를 하였지만 명년 과거에는 계화(桂花)를 꺾으리라 작정을 하였더니 그 동안에 중병이 났다. 이 때 안동 권서방의 집에서는 과령이 발포되니까 은근히 그 아들의 장원급제(壯元及第)한 소식을 기다리더니 그만한 날수가 지나가도 아무런 편지 한 장이 없고 내려오지도 아니하는지라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 근처에서 과거 보려고 서울 왔던 사람들도 찾아가고 또 다시 서울 친구들에게 알아보았다.

이것은 과연 생각 밖이다. 서울서 첩장가를 들어 가지고 낙이망반(樂而忘返)한다는 소문이 푹푹푹 들어오더니 과연 그 사실이 진정인 것을 알고는 그대로 둘 리가 만무하다. 그리하여 진실한 사람 두 명을 올려 보내는데 권서방에게 엄한 편지를 하고 또는 몇 몇 친구에게 부탁하여 아무쪼록 내려보내라고 하니 권서방은 아니 내려갈 수는 없이 되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서 바로 여쭙고 곧 교마(轎馬)를 올려 보내서 데려 갈 것이니 염려 말고 기다리라.”

이것은 권서방의 애끓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은 현씨는,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이요. 부모가 엄하지 아니 하시더라도 아들에게 첩 얻으라고 하실 리가 만무한데 그렇게 엄하신 아버지께서 데려오라 허락하지 아니 하실 것이요.”

하고 두 눈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 얻기 전에는 물론 못 얻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에야 어쩔 수 없이 데려오라고 하실 것이다.”

권서방은 이렇게 말을 하니 현씨는 종시도 끝이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바랄 수 없고 다음 과거에나 올라오시면 다행으로 알겠나이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명년 봄에는 과령이 날 것이니 그리하면 반년 동안 밖에는 아니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두 사람의 가슴은 터질 듯하다. 이것을 본 유모는 위

로도 할겸 자기소견을 진술한다.

“염려들 마시오. 서방님이 내려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엄하신 부형일지라도 기왕 이렇게 되고 또는 아씨가 무슨 노류장화(路柳牆花)로 서방님의 재산을 탐내서 요사하게 호린 배가 아니니 들으신 어른도 참작하실 줄 압니다. 염려 마시고 서방님이 말씀만 잘 여쭙시오. 그러면 내 말이 틀리지 아니하리다.”

하고 역시 한숨을 내 쉰다. 권서방도 역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촌탁(忖度)하더라도 그럴 듯 한지라.

“글쎄 내 생각에도 그럴 듯 하오.”

하니 현씨는 어쩐지 아무말도 곧이 아니 들어지고 다만 권서방이 다시 올라와서 만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하여 애뜻한 작별을 한 권서방은 집으로 내려오니 그 아버지는 아들이 과거에 실패한 것이 마음에 부족한 중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겨를도 없이 첩치가 하였다는데 분이 상투끝까지 올라와서 당장에 매질이라도 하고 싶지마는 장성한 아들을 때릴 수는 없는 일이라 잘 내려 왔느냐는 말도 없이,

“과거하기 전에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하고 한 번 말한 후에는 아무리 사죄를 하여도 아니 듣고 사랑문을 닫은 채로 들어 누웠으니 누가 감히 움직일 도리가 없다.

이러한 꾸중을 맞난 권서방은 서울 사정을 말하기는 고사하고 그 아버지의 얼굴도 대할 수가 없어서 다만 걱정이 풀리기에 애를 써서 그 어머니에게 졸라 보았으나, 그 어머니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동네라든지 인근 읍 존장(尊長)들에게 청을 하여 아무쪼록 용서를 받고자 하나 도저히 풀리지를 아니할 뿐 아니라 점점 더 강경하여서 아무리 하여도 과거를 못하고는 부자가 대면을 못할 지경이다.

이것은 자기의 분 풀이도 하려니와 그 아들이 아무쪼록 방탕하던 생각을 끊고 다시 공부하여 기어코 과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권서방도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마는 상말에 하늘에 올라가야 별을 판다는 것과 같이 아버지와 대면을 하여야 자기가 서울 와서도 그렇게 방탕하지 아니하였고 또 서옥의 일로 말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서 기적적(奇蹟的)으로 만난 것을 말하겠는데 그다지 크게 하기는 뜻밖이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되더니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지나 해가 바뀌어도 무가내하(無可奈何)이었다.

이 때 현씨는 다만 유모 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권서방의 소식만 기다린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것이 일 년이 지나고 보니 남편의 얼굴은 그만두고 편지 한 장이 없는데 그동안에 삼청동서 가끔 쌀 섬 나무바리나 보내어서 견디었는데, 점점 오래 갈수록 그것도 끊어져서 가지고 왔던 패물들을 팔아서 쓰기를 얼마 동안하여 겨우 연명을 하면서 소식을 기다렸다.

또 다시 일 년을 지내고 보니 인제는 그것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 현씨와 유모 두 사람은 의논이 시작되어,

“인제는 할 수 없으니 꾸중을 듣더라도 안동으로 내려갑시다. 아씨 생각엔 어떠하우?”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서방님이 걱정을 들으실 터이니 어떻게 하오.” 하고 현씨는 유모의 말을 대답하였다. 유모는 다시,

“걱정들으시는 것은 잠깐이지 아무리 아드님을 보시더라도 도로 올라가라고 등이야 밀어 내치겠소.”

“아무려면 대수요. 나을 때 굿 친 애가 설 때도 굿 친다고 집에서 사랑 못 받는 년이 시집에 가면 사랑받겠소.”

현씨는 이렇게 서러운 사정에 말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래도 내려가는 것이 상책인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여간한 세간 가지와 나머지 패물 몇 가지를 팔아 가지고 옥동 집을 떠나 유모와 같이 남쪽을 향하고 걷기 시작을 하였다. 동작강을 건너 남태령을 넘어서는 말이 부르터서 더 갈 수가 없었다. 과천읍 근처의



외파로 있는 주막을 찾아서 수일 동안 수일 후에 또 다시 걸어서 이틀만에 수원 대항교를 당도하였다.

여기까지 온 두 사람의 발은 부르트다 못하여 터지고 터진 것이 헤어져서 여육이 되었다. 촌보를 옮길 수가 없으니 앞길이 망연한 중 유모는 등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처럼 오슬오슬 춥다고 한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조용한 주막을 골라가서 하루를 쉬면서 치료를 하나 늙은이의 병이라 그러한지 깨끗이 낫지를 아니하더니 이틀째는 점점 더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꿈작을 못한다. 주막 주인에게 물어서 그 근처 약국에 가서 약첩이나 지어다가 먹였지만 병은 점점 더하여 간다. 현씨의 가슴은 탄다. 몇 푼 아니 가지고 온 여비는 자꾸 자꾸 줄어들지언정 보태질 리는 만무하다. 그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단지 두 사람이든이 늙은 유모 하나 뿐이었다. 인제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끔 가끔 정신이 돌 때에는 현씨를 쳐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내밀어서 현씨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아씨, 이 노릇을 어떻게 하우.”

하던 유모는 그 소리조차 못하더니, 영영 이 세상을 떠나 버린다.

이 경우를 당한 현씨는 가슴을 두드렸다. 대굴대굴 뒹굴었다. 아무리 엄마를 부르나 대답이 있을 것이냐. 만일 그 유모의 혼이 있으면 같이 붙들고 뒹굴었을 것이다.

이 경상을 본 주인은 많이 위로를 하였지만 그런 말로는 현씨의 쓰라린 가슴을 풀지 못하였다. 그러나 죽은 시체를 방에서 썩일 수는 없는 일이라 나머지 돈을 가지고 베 필이나 사서 염습을 하여 그 동리 북망산(北邙山)에 장사하였다.

인제는 한 푼의 돈도 아니 남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품값이라든지 먹이 값이 오히려 외상으로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을 청산할 도리는 망연하다.

이 때까지 호의를 가지고 현씨의 수중을 잘 들어주던 주인은 점점 다른 생각이 나서 궁도에 빠진 현씨를 기화가거(奇貨可居)로 여기니 그의 어여

뿐 얼굴이라든지 땀고 끓은 듯한 성질이라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시골서는 보던 바 처음이다. 만일 그 동리의 새로 상처한 허부자에게로 소개하였으면 목돈도 많이 나오려니와 자기 영업 밀친도 풍부히 융통할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좋은 말로 위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장만하여 가지고 기가 막혀 먹지 못하는 현씨에게 권하기도 하면서 그전보다 일칭 더 정숙하게 하여 그 마음을 돌려 볼까 하나 찬물의 돌과 같은 굳은 현씨의 마음은 일호의 움직여짐을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한편으로는 허부자에게 기맥을 통하고 한편으로는 현씨의 마음을 사려고 무한한 힘을 드리고 별별 수단을 쓸수록 현씨의 뜻은 점점 굳어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어 갈수록 주인의 비용은 많아지고, 현씨의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이것을 당한 현씨는 진퇴양란의 지경이니,

“나머지 돈을 후일에 셈해 드리리다.”

하고 혼자서 일어서려고 하나 젊으나 젊은 여자로서 다만 척신이 나서기도 어렵고 또한 나선다 할지라도 단 십 리를 못 걸어서 발이 또 부르틀 터이니 이것을 어찌하랴 하여 근심에 싸인 현씨는 생명이 날 지경이다.

이 눈치를 본 주인은 호의로 달래어서 아니 될 것을 이미 알았는지라 인제는 핏박을 하여 보리라 하고 처음에는 순한 말로 셈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니 몇 번이나 지난 후는 눈살을 찌푸리고 웅크린다.

이럴 때마다 현씨의 몸은 부르텠다. 그 눈치를 채 주인은 도수를 자주자주 재우치더니 얼마 후에는 좋지 못한 소리로 험박을 한다. 이것을 당한 현씨는 인제는 후일로 미루고 벌떡 일어서랴 해도 놓아 보낼 리가 만무할 듯하다.

다시는 길이 없다. 죽음으로 셈을 청산하는 수밖에 없다. 어느 날은 주인이 들어오더니,

“당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셈을 청장 하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남의 것을 무쪽같이 떼어 먹고 말라오!”

이렇게 노골로 쏘아본다. 이 말을 들은 현씨는,

“인제는 욕이 돌아왔다. 이 때에 죽지 아니하면 죽으라 해도 죽을 틈이 없을 것이요. 잘못 서둘렀다가는 죽지도 못하고 욕만 당할 것이다.”

하야 가져다 주는 저녁밥을 그전과 같이 먹은 후에 권서방이 띄어준 허리띠를 꺼내 가지고 사람들의 자는 때를 기다린다.

그 날은 어떤 일인지 그 주막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옆에 막힌 벽이 흔들릴 만치 조용하지 못하더니 밤중이 실히 될 때에나 온 집안이 잠든 모양이다. 이 때를 타서 들보에다가 준비하여 놓았던 허리띠로 목을 매어 달고 이 세상의 만 가지를 다 하직하려고 결심하였다.

이 일이 있을 며칠 전에 안동부사의 전령(傳令)이 도는데 과령이 반포가 되었다.

“올타, 인제는 되었다.”

하고,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겨우 허락을 하여 며칠 후에 과거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근의 몇몇 친구와 함께 천천히 걸어서 서울을 향하고 올라 오는데 여러 날 만에 역 수원의 대황교를 당도하여 주막에 들렀을 때에는 권서방은 주막집의 형편을 돌아보았다. 그러한즉 큰 주막의 이 방 저 방 할 것 없이 과군들이 가득히 차 있는데 뒤로 붙은 방 하나가 문이 첩첩이 닫혀 있는데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본 권서방은 호기심이 또 생겨서 눈동자를 부지런히 굴려서 그 서문 앞으로 보내는데 얼마 후 저녁밥이 되었을 때는 밥상 하나가 그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그 방에는 어느 내행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런즉 그 방과 자기가 정한 방과는 문은 휘—돌아서 멀리 났지만 실상 벽을 하나가 격하였을 뿐이다.

이로부터는 눈동자를 거두고 꿇구녕을 그 방으로 대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방 속에서는 아무런 동정이 들리지 아니한다. 벌써 밤이 깊어질 때는 여러 사람은 잠이든 모양인데 권서방은 내일 모래면 남대문을 들어서서 옥동으로 가서 현씨를 반갑게 만나리라는 생각에 싸여서 잠이

좀처럼 들지 아니한다.

어느덧 벽을 격한 조용하던 그 방에서는 무슨 기척이 들린다. 권서방은 새로이 정신이 나면서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리한즉 그 방에서는 좋지 못한 소리가 들린다. 그럴수록 정신을 가다듬어서 듣는다. 밤은 조용하다. 그 방에서는 처음에,

“각 각.”

하는 소리가 들리드니 그 소리가 점점 적어지면서 가끔가끔 무슨 소리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필경 어느 여자가 목을 매는 소리다.”

하는 권서방은 벌떡 일어나서 주인도 부를 여각 없이 안방으로 달려가서 문을 잡아 당겼다. 그러나 그 문은 안으로 걸리어 있다.

“틀림 없다. 문을 안으로 걸고 목을 매었구나.”

하는 권서방은 발길로 찼다. 문은 ‘와스스’ 부서지면서 밤중 소리가 컸다. 권서방은 불문곡직하고 방으로 들어서서 사면을 살펴 보았다. 때는 지는 달이 문에 비추어 준다. 과연 젊은 여자가 목을 매었다.

위기일발(危機一髮)이다. 이것을 발견한 권서방은 달려 들어서 맨 것을 풀었다. 아까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주인은 놀라 일어나서 관술에 불을 당기여 가지고 소리나는 방향을 찾아 올 때에 권서방은 소리쳐서,

“주인! 주인!”

하고 주인을 불렀다. 그리하여 주인과 같이 불을 켜고 볼 때에는 놀라지 마라 권서방이 자나 깨나 있지 못하던 현씨이다.

이것을 본 권서방은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우선 목숨을 살려 내느라 분주하였다. 얼마 후에 현씨는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차려서 나를 좀 쳐다 봐.”

하는 권서방의 목소리는 현씨의 귀에 익었다. 그리하여 그리웠던 내외는 객지에서 다시 만나서 주인의 셈을 다하여 주고 옥동으로 다시 올라와서 조리를 한 후 권서방은 대과(大科)는 못할 망정 소과(小科)에 참방(參榜)

하야 금의(錦衣)로 집에 돌아 갈 때에는 현씨가 탄 가마가 그 뒤를 따라 갔다. 권서방의 아버지 같이 엄한 부형으로도 그 아들이 영귀(榮歸)하는 때에 현씨의 이야기를 듣고야 어찌 기특치 아니하리오. 그리하여 권진사는 현씨와 해로하고 다자다녀(多子多女) 하였다 한다.

(《월간야담》, 제3권 통권22호 제9호, 계유사, 1936, 43~60쪽.)

3) 효자 · 열녀전설

1. 수구문 감천(甘泉)과 개성 주천교(酒泉橋)

이조(李朝) 말엽에 개성 서소문(西小門) 안에 한 효자가 있었는데, 병든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셨으나, 돈이 없었으므로 그는 하는 수 없이 샘물이라도 떠다 드리려고 아침 저녁으로 길으는 샘으로 갔더니 그 샘물이 갑자기 술이 되어 있으므로 이 효자는 기뻐하며 곧 그 술을 떠다가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갖다 드렸더니, 그 뒤부터는 차차 원기를 회복하여 병환이 나아졌다고 한다.

뒷 날 이로 인하여 이 샘을 ‘주천(酒泉)’이라 부르고, 또 그 샘가에 놓은 다리를 ‘주천교(酒泉橋)’라 하였다고 하는데, 주천과 주천 다리는 지금 없어졌지만 주천교 비석만은 그 자리인 개성부(開城府) 사회관(社會館) 동쪽에 서 있다.

이조 때 서울 수구문(水口門) 안 성 아래 ‘감천(甘泉)’이라는 샘이 있었으니, 그 샘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전설이 있다. 그 다른 점은 효자 이(李)씨가 매일 같이 병환에 누워 계시는 자기 아버지에게 떠다 드리던 샘물이 하루는 갑자기 사탕물 같이 달았다고 하며, 이리 하여 그 샘을 ‘감천’이라 하였다고 한다. (1934년 5월, 을지로 6가, 김세수.)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25~26쪽.)

2. 민담 · 기담

1. 병신 눈짓에 잘못 따라 나선 춘외춘

장춘관 요리집에서 여러 신사들이 기생과 풍악을 갖추고 연회를 질탕히 하는데 그 중 한 신사가 노주사가 눈을 끔찍끔찍하고 밖으로 나가거늘, 그 곁에 앉은 기생 춘외춘이 그 눈치를 채고 얼른 따라 나갔더니 그 사람이,

“나는 뒤를 보러 나왔거니와 너는 똥을 먹으러 나왔느냐?”

춘외춘은,

“나으리께서 나를 보고 눈짓을 하시며 나오라 시기에 따라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했다.

그 사람이 픽 웃으면서 또 눈을 끔찍끔찍하고 뒤간으로 들어갔다. 기생이 그제서야 그 사람의 눈짓하는 것이 배내 병신인 줄 알았더라.

(최창선, 《이야기 주머니》, 신문관, 1914, 162쪽.)

2. 같기도 같지—모두가 일반

정동 살던 심참판이 평시에 말끝마다 같은 것 소리를 잘하더니 제삿날을 당하여 하인을 시켜 제수를 흥정하려 보낼새 말을 분명히 하느라고

“이애, 이 돈을 가지고 전복 같은 것 대 여섯 개하고, 문어 같은 것도 두어 오리 사고, 또 건시 같은 것과 산자 같은 것과 북어 같은 것도 사오너라. 별로 더 잘 차릴 수 있니?”

하인이 본래 고지식한 놈이라 사면(四面) 돌아다니며 흥정하는데 전복 같은 것을 찾다가 회동치 부뽕쌈지를 사고, 건시 같은 것을 찾다가 당나귀 밀치를 사고, 산자 같은 것을 찾다가 향오전에 가서 실패를 사고, 그 다음에 북어 같은 것을 찾아도 없거늘 할일 없이 갖모 한 개를 사며,

“이것이 북어와 비슷하지.”

(최창선, 《이야기주머니》, 신문관, 1914, 45~46쪽.)

3. 백정 신분을 극복시킨 지혜

이게 다, 옛날인 거시기. 옛날에 한 사람이, 큰 동네에 사는데, 자자일촌이 저기 일가가 많이 살어. 큰 동네에. 근디 어떻게 가난하던지 쟁리 위에, 동네 제일 위에 산 밑에 움막처럼 쳐 놓고 거기 산다 그 말여. 그런데, 저 그 내외 사는데 아들이 크단헌 아들이 있는데. 먹어리 총각이라고 했어. 그런 총각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장가도 못 가고, 날마다 허는 것이 무엇을 하냐면, 아들은 나무 장사 나무 하다가 그 놈 팔아서 먹고 살고, 또 저그 아버지는 짚신을 삼아. 짚신을 삼아서 장정이 호구지책을 한다 그 말여.

그런디 그해 겨울에, 어찌게 눈이 많이 왔든지. 아이, 나무를 하다 팔어야는디, 나무도 못허지. 눈이 많이 왔은게 나무를 헐 수 있어. 나무도 못하지. 아, 근게 나무도, 저그 집이 떨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 말여. 그러니께, 그 마을에 제일 친헌 사람이 있어. 자기허고 친헌 친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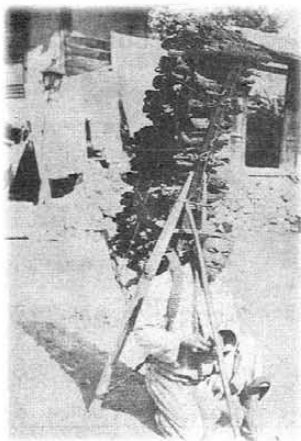
“자네, 자네 아들을 여우세.”

그랬단 말여. 그러니까,

“아, 이 사람아, 거 뭘 소린가? 내가 이 지경이 되야 갖고 나무도 없고 야식도 없는데, 근디 내가 어떻게 아들을 여울 것인가?”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좋은 데도 잘 여울 수가 있어. 천이 천 말허고, 만이 만 말해도 내 말만 들소 말여. 꼭 들소 말여.”

그러고 거그서 한 사오십 리 밖에, 그 소 잡은 사람보고 백정이라고 그려. 옛날에, 그것은 상놈이여. 양반이 아니라. 근디 그 사람이 한 사오십 리 밖에 사는데 눈이 수백 두락이여. 그 사람 눈이 그 앞에도 수백두락이 있어. 그러는디 그 친구가 거그를 가서, 백정놈허고 둘이 잘 친혀. 양반일지라도 거그를 가닌께,



“하이고, 어쩐 일이시냐?”

고.

반갑네 그 백정놈이 맞아 들인다 그 말여.
그, 거그 당흔헌 처녀가 있어. 처자가 근
디 거그를 가서,

“자네, 양반 혼인 하나 허소. 자네 딸 양
반의 집을 여워.”

그러니까,

“아이고, 샌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를 못
히겠습니까.”

그런단 말여. 사람도 변변혀. 돈이 없어 그렇지. 그리고 거그를 가가지고,
“인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히야 되네 말여.”

옛날에는 선을 본 법이 없은게, 말만 듣고 허지. 그러니까 거그 가서 뭐
이라고 허는 고니는,

“나무 한 구르마, 쌀 한 구르마 실어서 그리 보내어.”

근게, 거그를 가서, 아 찾으니까 제일 동네 위에 움막을 치고 사는 사람이
란 말여 그런디 거그가서,

“아무디, 아무개가 이 마을 산답니다, 아무개다 근디, 요리 쌀 한구르
마, 나무 한 구르마를 갖다주라고 히서 엇다 띠어 놓고 갑랍니다.”

헌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올 턱이 없다.”

고 팔팔 똥다 그말여. 그러니까 실코 온 사람들이 기어이,

“여그따, 한 번 띠라고 했는디 띠야지 별 도리가 있냐?”

고.

“여그가 분명히니까, 동네 이장을 보고 물어봐도 다 그 집이라고 허고.”
그리서, 거그다 나무 한 구르마, 쌀 한 구르마를 띠어다 놓았던 말여 띠고
인자 버렸지.

아, 저그 집이다 쌓아 놓고 있으니, 눈은 계속 오지, 하 이것 배는 고파 죽겠지, 추서방이 추워서 살 수가 없지. 이게 근게 나무는 헐 수 없이 때야, 그 쌀을 어쩔 수 없이 퍼다 밥을 히 먹어야 살 수 있는게. 죽게 생겼은게 그런단 말여. 근게 멘날, 메칠 지낸 뒤에 그 친구가 왔어.

와서,

“아, 잘 있는가?”

“어이, 잘 있네. 근디 이 사람아, 아, 그 자네가 그랬다고 허니까 정말 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 아, 여그다 쌀과 나무를 여그다 실어다 놓았어.”

“아 자네 것이여.”

그 사람이 와서 근단 말여.

“음, 그러냐.”

고.

“물어볼 것 없이, 자네가 집을 하나 사야겠네. 혼인을 허면 요리 헐수가 없어. 이 동네 제일 좋은 집을 하나 사소. 내가 돈을 줄 터니 이 동네 제일 좋은 집이 가서 말을 허소.”

그 집이 큰 부잣집이 살림이 가고 그러니까, 그 집을 팔라고 그리야 살 사람이 없어. 원 크니까, 아 그리서, 그 집을 사라고 헌단 말여. 그 일가집이여 가서 말을 허니까, 아저씨랄지 조카랄지,

“아저씨가 산다면, 내가 암만은 꼭 받아야 헌디, 암만만 받고도 팔겠소.” 말여.

“그러, 그럼 그렇게 허.”

허고서 돈을, 그 사람이 내주어서 기약금을 딱 걸었던 말여. 암만해 걸고 나서 인자,

“잘 되었네.”

허고서 거그를 가서 그 친구가 거그를 또 가야지. 백정놈 집이를 가야 허. 가서,

“암만해 계약을 했으니, 그 돈을 주소.”

아, 그런게 돈을 착 준단 말여. 아, 그리서 돈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인자,

집 값을 다추렸어.

인자 그러고 나서, 그 집을 좋게 단장을 하고, 그리서 그리 이사를 갔다 그말여. 움막에 산 사람이 아, 그리 가야 쌀도 어따가 들여놓을 디가 있고, 나무도 어따 덜어 놓을 디가 있지. 어디, 요렇게 움막을 쳐 놓고 옷과 갓과 전부 싹, 히서, 저그 아버지 야도 새 놈 싹 히고, 갓 망건 다 히고, 또 저그 아들도 옷 다 히고, 갓 망건도 다히고, 저그 어메도 다 히고, 그리 가 자고 인자 가지고 왔다 그 말여. 가지고 와서 입히 가지고 그날, 장가를 갔어. 장가를 갔는디 뭐. 사람이야, 뭐 그렇게 몬생이가 아녀, 사람도 괜 찼여. 장가를 떠 갔는디 참 저그 일가 들이 잔치를 히고, 쑥덕쑥덕히서 말 여. 글 안이나 어정게 되야서, 저런 사람이 어찌 이런 디로 장가를 왔으 니, 어 청느니, 하고 저그까지 야단이라 그 말여.

그런디, 인자, 장가를 가먼은 하룻저녁을 쉬어 그 처가집이서. 쉬어 가 지고 사흘 안에 떠난다 그 말여. 하루 쉬어 가지고 선부가 사흘 안에 가야 헐 것여, 내일은. 오늘 저녁 자면. 그 날 저녁의 내일 저, 저그, 시가로 갈 날이란 말여.

그 날 저녁의 처자가, 저그 아버지를 불러. 저그 친정 아버지를 방으로 오라고 불러다 놓고,

“나를 어꼴라고 그런 디로 여웠오? 암것도 없다는디? 그러시면 어떻게 헐 것이요?”

“내가 다 잘 허주마.”

“그런 것 다 소용 없소. 그 짝의 눈 몇 백두락 있다는 거 문서를 다 주쇼 말여.”

그 때는 문서만 가지가면 그만여. 이전이고 지할이고 필요 없어.

“아. 문서를 주쇼.”

“아, 소용 없어. 내가 뭐 거그 가서 뭇 천대를 받고 살어요. 문서를 작 작 주쇼.”

문서를 다 받았다 말여. 이백두락. 이백두락 문서를 다 받고 어쩐 수가 있

냐면. 하인을 시켜서, 백정놀이라도 하인이 있어, 저그 밑에.

“돼지 세 마리 큰 놈을 잡아 말여. 세 마리를 큰 놈 잡아서, 한 마리는 삶고, 두 마리는 생체 가지고 갈란게 그렇게 히라.”

그래서 한 마리는 삶고, 두 마리는 생으로 가지고 가지 날로 인자, 가지고 가서, 그 날 그 한 마리 삶은 놈을 동네 잔치 허게 썰어 자쳐놓아야 사람이 안와. 사람이 통 오털 안혀. 상놈히고 혼인 했다고 저그 일가가 하나도 안와. ‘하 이런 놈의 꼴이 있는가?’

그 이튿날은 문서를 보니까, 옛날에 논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이 동네 하나 저그 저 동네 하나 그렇게 사음이라는 게 있어. 논을 보는 사람이 그리 사음을 문서를 보니까, ‘아무 동네 누구, 아무 동네 누구, 싸거’가 쓰여있단 말여, 그 사람을 싸 부르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다 왔어. 또 그 날 돼야지 한 마리 삶으라고 그러. 삶아서 그 사음들히고 전부 술을 권커니 자커니 잘 먹어. 먹은디,

그 논을 누가 허냐 허면 맨 저그 일가들이 혀. 이 논전답을 싸천동을 헐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싸 이동을 헐라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 사람들한테 그랬다 말여.음. 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은, 맨 저그 일간디, 일가들이 논을 못 허게 된다말여.

그 논 아니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저그 일가들이 싸 와서. 그 새로운 각시한테,

“아짐씨,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또, 뭇이 되었으면, 또, 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답북 절을 혀. 인자,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야단이란 말여. 그날은 인자 그 놈들이 와갖고, 그 지랄을 하고 법석을 이루니까,

“그 돼야지 한 마리 갖고 될 것이요. 큰 놈의 동넨께.”

그러니 머냐치 굉장하고 히서 술을 잔뜩 맥여 가지고, 있는디 각씨가 승낙을 허라고 혀도 승낙을 안혀.

“나 쌍놈의 집이서 와서, 내맘대로 한다.”

고 근게. 헛다 이 놈들이 막 늘 빌어갔한단 말여. 근디 와서, 헐 수가 있어. 나중에 못이긴 디끼. 다 도로 그 일가들에게 저그 일을 허게 되고, 그리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히서 잘 살었드래여.

4. 오입과 강탈의 재판

예제, 한 사람이 여자네 집이 살지 않겠어. 그런데 이 놈의 여자가 오입을 어찌 좋아 하던지. 오입을 날고 긴다 이 말여. 그리서 피하지 말라고 두드려 패도 안 듣고, 항상 오입을 하는 거여. 웅 그리서 이진 하는 버르장이 막을 수도 없고. 이 놈의 생각에 분하거든 근게,

“이년아. 너 그놈하고 좋았지. 그렇지.”

“너. 강탈을 했다고 고소를 헐테니깐 너 강탈을 만났다고 해다오.”

뭐 돈 좀 울글라고 하는지 아니까.

“그럼 그럭하지요.”

그래서 고소를 헛단 말여.

그서 지서에서 오라고 허지 않겠어. 그래 다 불렀어. 다 불러서.

하나는 강탈이라고 하고, 하나는 강탈이 아니라고 해. 남자는 강탈이 아니라고 허지 않겠어. 여자는 영감이 시켰은게 강탈이라고 하겠지. 하라고 하니께. 그러니 고등계 형사가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하나는 강탈허고 현 것이라.

그리고 보니께 어떻게 그 할 수가 없드라 그 말여. 그리서 형사가, 여자더러 물어보기를,

“너 그 놈 부랄이 몇 쪽이더냐?”

“아, 부랄 두 쪽이지 몇 쪽이에요?”

“아니요. 두 쪽이에요.”

“아, 그 놈 부랄 시 쪽이더냐?”

“어떻게 알아! 만저 봤어?”



“만져 봤지요.”

“부랄까지 만져 봤으면 강탈이 아니지 않느냐?”

아, 그래여, 인자, 거기 하여튼 재판소에서, 부랄까지 만져 봤더니 히고 하나까, 하고 현 결로 취급했던 말여 인자, 그 고등계 형사가 써가지고, 어쨌든지 강탈이 아니고, 하고 싶어 했으니까 이유 없다고 히서 쪽지를 써서 주었던 말여.

여자를, 여자가 인자 돈이라도 좀 얻으라고 써주었는 가비다 히 가지고 집에 왔겠지. 그니까 영감이,

“뭐라고 혀.”

하나까,

“모르겠오.”

“여그 적어 줍니다.”

하고선, 영감을 주었던 말여. 영감인들 뭘 볼 줄 아는가. 그래서, 그러는 디, 저그 조카되는 사람이 그 동네 이장을 봤어요. 이장을 봤는디 모르니까, 뭐라고 했는지 모르니까,

“자네, 이것 좀 보게. 뭐라고 했는지 그게 고소하더니만 이걸 적어 주더니만, 뭐라고 했는지 보게.”

허니깐,

이건 뭐, 강탈도, 강탈이라고 했는가, 강탈이 아니라, 부랄까장 만져 보았다고 해놓았는데 뭐 조카가 보니까 우스운 이야기거든.

“아이, 성님 가지고 가시오. 그 뭐 그까짓거 가지고 다녀요.”

“아, 뭐라고 했나? 뭐라고 했는가?”

애, 돈이나 좀 주까치고 했던 것인데 아무 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댔다 그 말여.

이래 가지고선 나와 가지고서 그리 했드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식 없는 애기지만은 늙은 짓거리가 너무 미안해.



5. 감 내기와 귀 붙이기

예전에 한 사람이 또 딸 형제를 두었는데 아들은 없고 허니깐, 큰 사오를 데릴사오를 했어요. 데릴사오를 했는데 예, 바로 다음 동상이 있고 허니까, 참거시기헌데.

인자 다음 동상을 시집을 보냈는데 인제 한 동네서 살게 되었어. 근데 아 그저 작은딸을 시집을 보낼 텐데, 혼인 날짜를 받아 놓았는데 인제 그 형부지, 형부가,

“아이 시집을 갈라면 감을 내야는디.”

“감을 내다니.”

“감 안내 가지고 가면 첫날 저녁에 혼나. 큰일 나.”

“아이. 그러면 나 시집가서 잘 삼게 해주야지. 그러면 나 감을 내돌라.”
고,

“아, 이 놈을 감을 냈단 말여. 시집을 가 사는데, 가 살다 신랑더러,

“아이고, 나는 형부가, 참 시집오게 되니께. 감을 내 가지고 가야한다고
그리서, 감을 내줘서. 내 시집을 와서 참 잘 산다.”

고 그러니께,

아, 가만히 이 놈의 것을 생각헌게로, 저는 신랑인데 신랑보다도, 형부 되는 사람이 먼저 거시기 했으니 분하잖어. 아, 그래 한동네 사니께 그저 어디 저 먼데 사는데 서울을 갔다온다고 가는데, 메칠 있어야 오게 되겠는데 꼭 가야허졌고 안 갈 수는 없고, 아 가서,

“동서 집이 있나?”

“예,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애를 맹글다가 귀를 못 붙였어. 귀를 하나 못 붙였으니 아, 귀 하나 없는 걸 나면 병신되지 않나. 그러니께니 내가 귀를 하나 못다 붙였으니 귀를 붙여 주게.”

이렇게 히고 갔다고 기설라므네. 처형더러 인제 그 얘기를 허니께.



“아이고, 병신 자식을 나면 어떻게 허느냐?”

고,

“아유, 그람, 오늘 저녁에 귀를 붙여 달라.”

고. 자기가 거서 자고 왔단 말여. 아, 이 놈이 서을 갔다오니께,

“아, 그래 애를 만들면 귀 하나를 못다 붙이고 서라매 가느냐.”

고,

새악시가 그러니께로,

“뭐. 그게 무신 소리여”

그니께로,

“아, 저 아래, 아제가 와설라매, 귀를 하난 못 붙였다고 붙여달라고 헛다면서 야고.”

거께는,

“뭐?”

“병신 자식을 나면 어떻게 허느냐고 붙여달라고 히서 귀를 마저 붙였다.”

고 그러거든.

아, 그 소리를 들은게 분해 죽겼거든. 아, 이 놈이 쫓아 내려갔어.

“아, 아무게 집에 있냐?”

“예, 갔다 오셨오.”

“아, 이 놈아, 뭐, 귀를 하나 못다 붙여 이 놈아 귀를 못다 붙여 이 놈아.”

그러니,

“아, 감을 내여. 예. 시집가면 감을 내어.”

이러고 싸우드래여. 그런 일이 있다고.

6. 쥐 슈래

옛날 한국에는 쥐가 없었습니다. 쥐가 없었는데, 어느 대감이 무남독녀 외딸을 두었는디 딸을 잘 두었어요.

그 딸 잘 두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는 매일 청혼이 들어와요. 그 인제 뭘 잘하면 준다. 뭘 잘하면 준다 하니까니로, 자꾸 모여오거든요.

거 한 사람이 연구를 해 가지고 설라머니, 내가 그 집 딸을 데려와야겠다는 맘을 먹고선 참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방을 떡 붙여놔는디 찾아가니까,

“거, 내가 대답을 미처 못하도록만 이야기를 허면은 내가 딸을 주겠다.”
그래거든,

“그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옛날에 한국에 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어디서 나오나 허면 중국서 나왔습니다. 중국서 바다 건너오니까 뭘 참 머잖으니까 어서 쥐가 나왔는데, 예 어떻게 나왔느냐 허면은 쥐가 이 한국에 먹을 게 많고 허니 께니로 우리 한국으로 가자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 참 수 십 마리가 모여서 회의를 히 가지고서 조선을 건너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께 혼자 건너오면 떠내려가고 되겠습니까. 헌데 제일 큰 쥐가 앞장을 서 가지고 장수가 되 가지고서, 그 놈의 꼬지를 물고, 뒷사람 뒷놈을 뒷꼬지를 물고 자꾸 이번에 꼬지를 물었습니다.

“그렇겠지”

얼마를 이야기 허더니,

“인제 건너옵니다.”

“그래, 그래서.”

“아, 물을 저어 들어갑니다.”

“장수가 인제 물을 들어갑니다.”

헌께,

“거 물에 들어가면 탐방탐방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인자 건너옵니다.”



“그래.”

“어쨌던지 탐방, 탐방, 탐방...”

아이, 미처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계속해 건너오는데,

“어떻게 되었나? 아직 멀었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시초입니다.”

“아 바다를 건너오자니 여간 멀니까? 뒤에서 풍지를 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겠지”

“그저, 아직 멀었습니다.”

탐방, 탐방, 탐방.

아, 이놈이 점점 더 제주발리혀, 아, 이놈이 대답을 할라니 숨이 차서 할 수가 있어야지.

“아, 예 관두어라. 우리 딸 줄 터니까 관두어라.”

그라고서 그 집 딸을 데려 가드래여.

그래서 한국에 쥐가 생겼다는 거.

7. 여덟 살 먹은 놈의 의견

옛날에 아랫집은 상사람이 살고 웃집은 양반이 살어. 근데 그 상사람의 아들이 여덟 살이여. 상사람의 집 감나무가 한 가지가 반은 양반의 집으로 가고, 양반에 집으로 반이 가지가 뻗었어. 아, 그래 가을에 감을 따는데 양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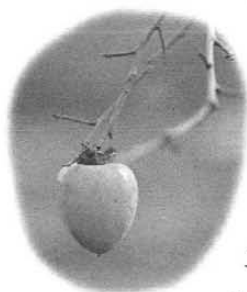
“아무개, 아무개.”

불러.

“우리 집으로 뻗어 온 가질랑은 감 따지 마라.”

“저의 감나무데요.”

“지상권이 있지 않느냐? 느이 집 감나무지만 우리 집이루 와서 열었으



니까 그건 우리가 따야할 것 아니냐?”

아, 거기가 감이 좋구 그런 걸 다 했겠지. 그래
분해서 밥을 못 먹고 끙끙 앓고 있는데 여덟 살
먹은 놈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런 얘기를 하니께,

“걱정마세요. 내 샌님한테—양반은 샌님이거던. 늙은
이는. 젊은이는 서방님이구, 양반은 샌님한테 가서 따도록 하구 올 테니.”

“애 이 놈아! 너 같은 놈이 가서…”

“걱정마세요.”

그래 이 놈이 그 이튿날 그 양반 사랑예를 갔어. 가서 옛날의 저 문은
종이 아녀? 어린애 주먹이 하나가 들어와.

“어? 이거 누구 주먹이냐?”

“샌님 제 주먹이에요.”

“아, 이 놈아! 왜 문을 뚫고 주먹을 이렇게 들이 밀어.”

“아, 달래 그러는게 아니예요. 이 주먹이 샌님 주먹이에요, 제 주먹이예
요? 그걸 알라고 그래요.”

“이 놈아 네 주먹이지 어떻게 내 주먹이여?”

“아, 샌님의 방에 들어가 있으니깐 샌님 주먹이죠, 어떻게 제 주먹이예요?”

“아, 이 놈아, 주먹이 네 몸에 달렸으니깐 네 주먹 아니냐?”

“샌님, 주먹은 샌님 방에가 있었는데 샌님 주먹이 아니지요?”

“그래, 아니지!”

“제 몸에 붙어 있으니깐 제 주먹이지유?”

“그렇지!”

“그럼 저 감나무는 저의 감나무인데 어째 샌님 집으로 왔다구 감을 못
따게 합니까?”

“에이! 요 놈아, 가 감 따가거라.”

아, 어린애한테 졌으니 어떡해. 샌님이 암만해도 억울해 죽겠어. 그래 한날 그 아래 상사람을 그 애 아버지를 올려오라고 했지. 올려왔어.

“아, 샌님 웬일이십니까?”

“이번에 위에서 옛날 임금을 위라고 그래, 겨울인데 명석팔구(딸기)를 서말을 구해 바치라고 했어. 그러니 자네밖에 구할 사람이 없어. 그걸 구해주면 내가 쌀 열 가마를 주구, 못 구해주면 자네가 열 가마를 내놓고 그래야 돼.”

아! 동지선달에 명석팔구가 어디 있느냐 말여.

아, 이 상사람이 또 앓고 있지.

“아 아버지 뭇 땀에 그러세요?”

“애, 뒤 샌님이 요새 명구팔구 서 말을 구하라니 명석팔구가 어딴니? 그거 안구해 오면 쌀 열 가마를 달래서. 구할 수 없으니 쌀 열 가마를 샌님 줘야할 것 아니냐?”

“아이! 아버지. 그깟짓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지가 가서 그걸 해결할 테니…”

먼저 감 해결을 했으니께 맘이 좀 놓이거던.

“그럼 그래라.”

그래 인제 그렇게 했는데 이 놈이 그 질로(길로)샌님 집으로 마당에서 우당탕둥탕 들어가며,

“샌님! 샌님! 샌님!”

부르구 야단이어. 아 그래, 샌님이 장지문을 열구,

“이 놈아! 웬 야단이어?”

“샌님 이거 큰일났습니다.”

“왜 그래, 이놈아?”

“아 샌님이 명석팔구 구하라고 그랬죠?”

“그랬지.”

시골에 딸기 나는 딸기밭이 따로 있어요. 산에 어디나 그게 있어요.

“그 아무데 골짜기 딸기밭 있죠? 즈그 애비가 그 딸기가 아주 빨전데
그거 따다가 독사한테 물려서 시방 죽게 돼 있어요. 툭툭 부어서.”

“아, 이 놈아! 동지 선달에 독사가 어딴어?”

“그럼 동지 선달에 딸기가 어딴습니까?”

“졌지? 그 쌀 스무 가마가 됐소.”

아, 샌님이 스무 가마를 내야 하잖어. 아, 그 다음에는 또 이 영감이 할 수
가 없으니까 또 음모를 꾸미는 거여. 그래 인저 또 상사람을 불러 가지구.

“이번에 우에서 수탉 알을 옛날에 한 꾸러미가 열 개씩이여 몇 꾸러미
보내라구 그랬는데 구할 사람이 자네 밖에는 없어. 그러니 좀 구해 주게.”

아, 또 왔지. 그러면 두 번 주면 쌀 서른 가마를 다 주어야 혀! 아, 또 와
서 앓고 있지.

“아버지 걱정마세요.”

이 놈이 천연스레 샌님 방에를 들어갔어.

“샌님!”

“왜?”

“여기루 시방 말하면 저 염주대(명수대) 있잖아. 저 염주대 같은 그런 산
꼭대기에 조선의 수탉이라는 거기와서 알을 낳는데, 세 꾸러미는 그만 두
고 삼십 꾸러미도 낳는대요. 거기 있대요.”

“그래서?”

“그래, 즈이 애비가 알 꼬내러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낙
태를 했습니다.”

“낙태를 했어?”

“낙태를 했습니다.”

“응, 떨어져서 애를 떨어버렸다.”

그 말이여.

“예이, 요 놈아! 낙태라는 건 여자가 하지, 남자가 무슨 낙태란 말이나?”

“아, 샌님 그러세요? 낙태는 여자가 하는 거요?”

“그렇지!”

“남자는 못하는 거요?”

“그렇지!”

“그럼 수탉이 알을 어떻게 낳니까?”

아, 이 놈한테 쌀 서른 가마를 뺏겼네. 그래 그 당시 샌님, 옛날에 상사 람은 글을 안 가르쳤어. 양반이. 글을 안가르쳐.

“저 쌀 서른 가마를 주실 게 아니라 저를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 이 샌님이 쌀 서른 가마를 안주구, 고 놈의 의견이 좋아. 평소에 상 사람의 자식이라두 고 놈의 아주 의견이 좋구 그래서 구엽계 보던 차야.

“그래, 이 놈아 너 글을 가르쳐 주마.”

그래 글을 가르쳤는데, 그 놈이 상사람이라두 그이한테 글 배워 가지구 과 저봐서 벼슬까지 했대 허허허! 그렇게 어린애도 의견이 좋더라. 손주가 거.

“아유, 할아버진 왜 그러십니까?”

그 사실 얘기를 했어.

“자부가 이만저만 해. 그러니까 니가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하니까 내가 고민이 안 생기냐?”

“할아버지. 근심 마세요. 제가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라.”

그 행차를 전부 해 와서 그날 인제 결혼식을 해 가서 딱 보니께, 신방을 꾸며 놔는데 그 놈의 옆에 놓이 있거던. 놓이 있어, 핏대를 옛날에는 자물 쇠 이렇게 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예유. 팍 채워 놔거던. 아, 그들한테 는 기가 그까짓 거야 뭐.

그래 이 놈이 신방을 이걸 뭐, 윗도리라도 벗길 때, 안벗기고 두루두루 자꾸만 살피만 보거던. 신랑한테,

“아, 이거 뭐 잘 때가 됐는데, 이거 뭐.”

“아니야 잘 때가 안됐어. 내가 이거 미안한게 있어.”

“미안한게 뭐냐?”



“내 마음 속에 아주 기분이 달라. 그러니께 집안 가족들을 이리 불러오 너라.”

전부 불러왔어.

“왜 이 아닌 밤중에 자지도 않고 이렇게 하느냐?”

아, 그 즈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 그럭할 거란 말여, 그래서,

“저 놈의 께짝 안을 열구 싶은데.”

“아, 그건 뭐 체운 걸 열어 봐야 그거 뭐 있느냐? 열어 봐야 소용 없는 건데.”

아니라구, 열어 보라구. 아, 그 다음에 모두 부지깽이를. 집안들이 메가지고 있는데, 열라는데 안 열 수는 없거든. 그건 실레유. 열어 보라구. 그라든 당당히 얹어 가지구 이렇게 놈의 싯대. 중놈이 톱 나선단 말이유. 그래서 잡았어.

“이제 이게 될 일이나? 응?”

그라든 잡아 치고 설라므네 그 신랑이 그만 거기 설라므네 집이루 와가지구 설라므네 그 사람하고 아주 친형제로, 즈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다 알거든. 그만한 걸 다 알고 그러니께. 그 재산을 하나도 누가 더 가질 것도 없이 똑같이 노봐서 집도 똑같이 지어서 그렇게 잘 살더래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유.

8. 산 소로 제사 지낸 방학중

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상북도 영덕군에 방학중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분이 10월에 자기 조상 지사(제사)하러 가는데 소를 한 마리 몰고 간대요. 소를 몰고 가는데, 소, 산소 앞에 모도 이래 차려 놓고 소를 한 마리 끌고 가가주구 그 밑에다가 묵기나 제기나 소가 있으면 대놓고,

“할아버지 물고기를 자시든지 육회를 자시든지 구워 자시든지 식성대로 자십시오.”

이 소 한 마리 가지고 자기네 조상묘에 한 마리 끌고 땡기며 여거적 여거 땡기든 그래, 참 소 한 마리 가지고 제사를 여러 위를 소를 몰고 대니며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진짚니다. 그 양반이 김삿갓 정도 됐을 거예요.

9. 하루를 못 채워서 천하문장이 못된 사람

이조 때 애긴데, 인조 때 사람인데, 아들을 늦게 하나 낳았어. 근데 하루는 중이 오더니만,

“늦게 낳았는데, 아들도 참 잘 생겼는데.”

애기를 쳐다보더니만,

“애기는 잘 생겼는데 단명하겠다.”

그런 말이야. 그래, 붙잡고설랑은,

“그럼 어떻게야 명을 잇겠느냐?”

“그래 어디구 갔다가 십 년을 갖다 맡기구서 십 년을 가서 찾아보지도 말고, 또 가지도 말구 오지두 말구, 꼭 십 년을 채워야 애가 명이 질구 그렇습니다 그러.”

그래 자기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아직 혼전이야. 그래 저 산골에 가설랑 있는데 갖다 맡기구서 십 년을 하여간 애를 십 년 동안을 좀 가르쳤다고 말야.

“십 년 동안은 내가 찾아오지도 않을 거며 애도 보내지도 말라. 공부를 가르쳐 달라.”

“그럼 내가 그렇다면 친구의 자식이니까 가르쳐 주마.”

십 년 동안을 인저 작정을 하구서 있는데, 내일이면 십 년인데 보구 싶어 죽겠지. 그 안에도 십 년 동안에 굉장히 보구 싶겠지. 그런데 내일이면 십 년이니까 에이, 오늘 좀 찾어가 봐야겠다. 간 거여. 가서 이제 고개 밑에 가서, 그 집은 고개 밑인데 고개 가서 후유하고 인제 터워설랑 쉬는 판

인데. 서서 있으니게 어떤 충각이 참 생기기도 잘 생겼는데 나무를 한 짐 해 짊어지구서 오더니만 쉬어설랑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저 놈이 어디로 들어가냐? 인제 앉아서 보니까 아, 그 자기 친구, 글 가르쳐 달라는 친구네 집으로 들어가.

“야, 저 사람이 아들도 없는데, 어째 저런 아들이 있나? 저렇게 큰 아들이 있나? 조 놈이 혹시 내 아들을 데려다가 나무를 해 때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가구,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 하고설랑은 이제 그 집을 찾아 갔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고설랑은 인저 그 주인이,

“들어오너라. 인사 여쭙어라.”

아, 인사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여. 그 때 나무해 가지고 오든 놈이여. 화가 났지.

“나는 네가 친구로 알고서 애를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를 시켰으니 이제 친구난 말이여. 아죽 거기서 화가 나 가지고 설랑은 있는데,

“그래 너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십 년 동안에 천자 동문선집 떼고설랑 통감 네 권 그것밖에 안 배웠다는 거여. 그래 이러구설랑 니가 친구난 말여. 화가 나서는 데리고 간다는 거여.

“아, 가지마라 글썄.”

아니라구, 화가 나니까 거기다 둘 수는 없는 거거든.

“아무리 화가 나두 데리고 갈 때 데리고 가더라도 점심이나 해 먹구 데리고 가거라.”

그래, 점심을 해 먹구설랑은,

“내일 하루 더 뵈다가 데리고 가라니깐.”

화가 나니깐 둘 수가 없거던.

그래 인저 데리구 가야겠다고, 그래 이벽장에다가, 벽 있는데 벽장문을 열더니만 벽장에 책이 가득 차 있어. 근데 개가 그전에 그걸 보자구 그래도

벽장문을 안 열어 주는 거여, 선생이 안 열어 주구설랑은 너는 꼭 가르치는 대로만 배워라 그런 것이, 십 년 동안 배운 것이 통감 네 권을 배우는 거여.

“인제 마지막이니께 너의 아버지가 데리고 간다니께 이거나 구경해라.”

그리고 문을, 벽장문을 여는데 책이 가득 찼어. 그 벽장으로. 그러면 서 전이니 사서삼경 다 내놓으면서, 거 안 배웠어도 줄줄 외는 거여. 시전 서전 안 배웠어도 다.

가만히 생각하니께 즈그 아버지가,

“야, 이거 배우지도 않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이어. 그러니까 십 년 동안에 이것이 머리에 다 들어가게 가르친 게 거든.

그제서는 야. 무릎을 꿇고 친구한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저 놈이 안 배운 걸 이렇게 알 적에는 10년 동안에 이 머리 속에 이걸 다 쳐넣게끔 가르쳤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다시 가르쳐주게.”

“아니여, 인제 틀렸어. 이거를 내일만 채웠으면은 천하문장이 되어. 천하문장이 될 텐데 내일 하루 못 넘기고 오늘 자네가 와서 천하문장은 못 되고 우리 조선문장은 되어. 조선에서 제일 가는 문장이 돼. 인제 도로는 안되어. 내일 채울 것도 없어.”

애가 다 알아봤으니 더 얘기해 줄 게 가르칠 게 없다는 거여. 그러서 데려 왔는데, 중국 가서는 대국 사람한테는 저요. 천하문장은 못 되구 조선 문장밖에 못 되니께. 내일만 지나면 중국에 어디 가서도 다 이기는데, 중국 가서는 천하문장 하구서 글을 지으려는 맛먹는데 그 사람한테는 장친다 그런 말이어.

그래서 조선 땅에 조선문장밖에 못 됐다 그 말이어. 그 하루를 못 채워서.

14. 수수께기 풀어 결혼한 도령

옛날에 이진사집 도령이 글방을 땡기는데 김지산집 문 앞으로 지나게 돼요. 그래 김진사 집 앞에 샘이 있어. 우물!

한 날은 거기를 지나가니까 색시가 별안간 우물 뜨러 나왔다가 그 오얏 나무가쟁이를, 거기 나무가 있는데 오얏나무여, 오얏 열리는! 오얏나무 가쟁이를 셋을 꺾어서 핑집에 내던져. 그러더니 손을 세 번을 얹었다 제 껴다 해 그래, 고 다음에 면경을 열었다 닫았다 해. 그럭하고 쓱 들어가버려. 아, 이놈이 심상치 않는 병인데, 자꾸 물었어, 물으니까,

“저, 김진사댁 앞으로 글을 읽으러 다니는데 한날 글방에를 가니까, 김진사집 색시 따님이 우물에 있다가 와서 오얏나무 가지 셋을 꺾어내 버리고, 면경을 열었다 닫았고, 손을 세 번 들었다 얹었다 제 껴다 했다. 그래, 그걸 못 풀어 그런다.”

“애 이 놈아! 일어나 밥 먹어라. 그걸 못 푼단 말이나?”

“그래 뭐여?”

“‘절이 가지 삼지’ 하니 오얏나무를 셋을 꺾으니 ‘필이 가집 삼녀라’ 반드시 이씨집 셋째 딸이. ‘거옥수이삼번’ 하나 손을 세 번 들었으니 시방 방년이 열 다섯이다. ‘개면경을 부합하니 희망간이옥’ 이라 면경을 열었다 닫았어. 열 적에는 환하니께 보름날이구, 닫으면 깜깜하니께 그믐날이라. 이씨집 셋째 딸. 나이는 열 다섯 살, 기약은 ‘개면경이 부합’ 하니 면경을 열었다 다시 닫으니 ‘희망간이옥’ 이라, 그믐 ‘희’ 자. 보름 ‘망’ 자여. 그 날로 만나자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보름달을 지나고 그믐날이 됐어. 그믐날에 찾아가 보니까 대문예다가 그 날 제사지내러 모두 가고 식구가 없어. 그날! 그 명을 혼드니까 색시가 잡아다녀. 타고 들어가서 그 색시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렇게 부부가 되더라고. 이것두 이거 풀어는 거니까 얘기지, 문장들도 못 풀어요. 절이 가지 삼지하니 오얏나무 가지를 셋을 꺾었으니 반드시 이씨

집 셋째 딸이다. 거옥수가 삼범하니 손을 세 번 들었으니 금 방년 이십오이다. 시방 나이가 열 다섯 살이다. 개면경이 부합하니 면경을 열었다 닫으니 열었을 적에는 환하니까 보름 망 자 보름날이요, 닫았을 적에는 캄하니까 그믐 희 자 그믐날이다.

11. 천냥짜리 배를 사서 결혼한 사람

옛날에 공부도 잘하고, 옛날도 아니여, 그런 여자가 있는데 아, 이 여자를 몇 놈들이 한 세 놈들이 탐을 내. 그래 그 여자한테 가서 세 놈들이 강탈을 할려고 그러니께,

“강탈을 안하고 갈 방법이 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내 돈 천냥씩을 줄 테이 너희가 가서 내 눈에 드는 천 냥짜리 물건을 사오너라.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놈 그 사람하고 살겠다.”

“그러냐.”

한 놈이 나오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있어. 그래 오토바이를 샀어. 고 다 음 놈은 망원경이 있어. 그래 망원경을 샀어. 제일 막내놈은 배 한 덩어리가 났는 데 이배를 천 냥이라는거여. 천 냥 주고 샀지. 사가지고 세 놈이 집합을 해 모였지. 모였는데, 그럼 가자. 색시한테를 갔어. 가서 참, 망원경을 대고 보니까 죽었어. 그 여자가.

그래 오토바이 탄 사람이, 그 배 가진 사람이,

“이걸 갖다 먹이면 살 테니 가 먹여 살려라.”

그렇게 하고 오토바이 탄 놈이 배를 먹었어. 그래 이 사람이 와서 배를 먹여서 살렸단 말여.

그래 이 세 놈들이 다 같은 은인인데 어떤 사람하고 살아야 하느냐 말여. 그래 이 놈들이 들구 싸운단 말여. 그래 그 여자가 일어나선,

“당신 천 냥 주고 뭐 샀소?”

“나, 오토바이 샀소.”

“당신 천 냥 주고 뭐 샀소?”

“나, 망원경 샀소.”

“당신은 뭐 샀소?”

배 먹었으니까 아무 것도 없잖어.

“나 배 샀는데 당신이 먹었소.”

그래 그 여자가,

“당신네는 천 냥씩을 얻었고, 이 사람은 아무 것도 없어, 그래 내 이 사람한테 시집가겠다.”

요것도 묘한 얘기여, 잘 꾸며논 얘기여.

12. 미룩이에게 복을 준 여우털

사람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부자 될 새끼가 있고, 그 새끼가 부자로 사는 새끼가 있고, 가난하게 사는 새끼가 있고 그 러는 것이여.

그전에 옛날에는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어떻게 멍청한가, 이름이 미룩이라고 지어 놓았어. 그런게 하도 멍청한게 머슴애가 한 이 삼십이 넘도록, 저그 어매가 목부자집, 장자네 집이 가서 밭 메주고, 배만 짜면 배만 메고 히서 밥만 얻어다 주면, 그 밥만 먹고 앉았어. 나무 한 주먹도 안허고,

“그런게 너는 이십오 세가 넘었다. 나무라도 쪼개 히서 쟁여 놓아라.”
그런게,

“지게가 있고 사내키(새끼줄)가 있어야 나무를 허지.”
근게.

“내가 장자네 집에서 얻어다 주마.”

그래서 나렛님 집에서 지게하고 사내키허고 다 갖다 주었어.

“인자 가서 나무를 쪼개 히서 갖다 놓아라.”

그 놈을 지고 나가서 저 뒷동산에 가셨는데 큰 묘만 하나 있는데, 지계를 거다 받쳐 놓고서 못동 우그가 날람하니 서서 우두거니 나무 혈 줄도 모르고 섰은게. 저그서 여시 한 마리가 풀쩍풀쩍 뛰어오더니 아, 그 묘 속으로 쪽 들어가버려. 그리서 보닌게 묘가 이만히게 구멍이, 이먼히게 뚫어져 있어, 아파 이놈의 개가 이리 들어간다고.

그게 개라고, 내가 갖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나허거 갖다 삶아 먹어야 허겠다. 그 멍청헌 것이 사내키로 어떻게 올가미로 혈 줄을 알아갖고 손으로 딱 감어 갖고, 손을 딱 잡고 대놓고는 작대기를 갖고 텅텅, 사방을 막 때려. 그런데 강묘퐁이 막 올린게 여시가 나오다가 올갱이로 각 걸렸네. 올갱이한게 걸렸으니 막 살려달라고 막 빌어.

“미룩아! 미룩아! 나 좀 살려도라.”

여시가, 나를 잡아 먹는 것이 아년게, 나는 잡아 먹는 괴기가 아년게

“나 좀 살려도라, 살려도라.”

허닌게, 안 살려줘. 미룩이가 안 살려 준다고. 잡어서 우리 어머니하고 삶아 먹는다고만 혀.

“을 어매가, 우리는 괴기도 못 먹고 살은 게 삶아 먹는다고 삶아 먹어야 한다고.”

“나는 잡아 먹지 않고 너 평생 먹고 살 것을 줄것인게 나를 살려도라.”

그런게로, 가만히 생각헌게 평생 먹을 것을 준다고 허닌게 괜참졌어.

그런게로 너를 살려줄 것인게 평생 먹을 것을 도라.

여우가 보지털을 하나 쑥 빼서 종이다 싸고, 하나 쪽 빼서 종이다 싸고, 하나 쑥 빼서 종이다 싸고, 따로따로 시개(세개)를 싸서 주었어, 종이다 줌서,

“이 놈 갖고 가서 나렛님 집이 가면 나렛님 딸 어서 자는지 아냐?”
그런게,

“안다.”

고 그러.

“내가 초당에서 잔다고 알어. 판나 저그 어머니한테 밥 먹으러 가니 게

알지”

“그러면은 요강 가상으다 딱 딱 붙여 놓았다가 인자 그 딸이 소리가 나면, 조선의원을 다 대면 니가 살린다고 히서 하룻 저녁을 자면 하나를 띠어서 싸서 괴짬(호주머니)에다 넣고, 또 이틀 저녁 자면은 또 하나 띠어서 싸서 괴짬에다 넣으면 된다.”

고 다 시켰어. 근게, 그것을 싸서 준게 그것을 괴짬에다 넣고는 여시를 끌러서 놓어주어 버렸어. 놓아줘 버리고, 저그 어머니한테 밥 얻어 먹으러 갔어. 장자네 집으로 갔어 간게로, 그 초당에서 장자님 딸이 사는데 그 마루 밑에서 요강 딱 씻어서 마루 밑이다 넣어 놓았드래여.

터럭 빼서 딱 딱 딱 시개(세개)붙여 놓고는, 도로 괴짬에다 넣으라고 히서 도로 그 놈을 집어 넣었어. 집어 넣고는 온게로 인자. 그날 저녁에 갔네. 요강 갖다 놓고 잔게는 그 터럭이 다 왕겨버렸은게. 아, 이 놈의 발 띠는 대로 소리가 나네. 한 발 띠면은 포르릉, 포르릉, 포르릉, 땅, 딱, 쿵, 근게 어찌겠어. 근게 조선놈의 의원을 붙어대여. 천지놈의 의원을 다 불러대도 안 낫은게로. 저시기 미룩이가 그릿어. 저그 어머니보고 그릿어.

“나보고 낫게 해 달라고 하면 대번에 낫을 던디.”

그려. 근게,

“야, 이 놈의 자식아. 나렸님한테 맞아 죽을라고 그런 소리 허냐.”

그런 소리 못허게 했어. 하도 못허게 히서 안했는디, 하도 의원을 대도 안 낫은게.

“아이구, 우리 미룩이가 이려고 히서 그리서 내가 나렸님한테 맞아 죽는다고 말도 못 꺼내게 헛어.”

근게, 미룩이 ‘이리 데리고 오라’

고 했어. 그런게 데려다 주었어.

“너 미룩이가 어찌케 히서 낫올래?”

근게로,

“나하고 사흘 저녁만 자주면 싹 나서요.”

그리고, 그러냐고 목욕을 싹 시키고, 옷을 싹 갈아 입고는 하루 저녁을 갔어.
초당에 들어가서 미룩이가 갔어. 여시 허라는 대로, 하나만 똑 띠어서,
띠었는데 인자 포르릉, 포르릉, 땅닥콩 그러는디, ‘포르릉’ 소리가 없어
지고, 포르릉 땅닥콩 소리만 나.

‘아이고, 낫올란가 비다’ 하고는,

또 하루저녁 갔어. 근게 하나가 또 띠어서 넣었지. 아, 그런게로 땅닥
콩, 땅닥콩, 땅닥콩 인자 밟는 대로 그 소리만 나, 핫다, 낫올란가보다
고 인자 잔게 딱 낫어 버렸어. 낫어 버리고 암시랑 안혀.

인자 소문나면 못 쓰게 생긴게 그 미룩이허고, 어머니하고 귀양을 보낼
라고 했어. 근게 귀양을 보낼라고 현게, 아, 귀양을 갈라고 현게, 귀양되
면 꼼짝 없이 죽게 생겼어. 근게 저그 어머니가 있다가 알려주지 말라고
도 내가 갖다 놔서 인자,

“우리 저그 가면 죽는다고, 인자 그 놈 먹고 떨어지면, 인자 죽는다고
인자 오도 못허고 죽는다고, 인자 그 놈 먹고 떨어지면 인자 죽는다.”

고 그런게, 인자 저그 어매보고,

“걱정허지 말라고 어 엄마, 걱정허지 말라.”

고 그 놈 갖다 도로 다 붙여 놓아버렸어. 도로 갖다 붙여놓은게, 도로, ‘포
르릉 포르릉 땅닥콩.’ 밟는 대로 소리가 나니 어찌. 아, 인제 어떻게 힐
래야 힐 수가 없은 게 나렛님이 사오(사위)를 삼어 버렸어. 사오를 삼어 갖
고는 나렛님 사온게, 높은 사람이지.

근게도. 아, 근게 저그 어매도 저그 가서 편히 먹고 살고, 아들도 편히
먹고 살고, 손톱도 까딱 안허고 편히 먹고 살어. 근게 복이 다 따로 있단
게. 그렇게 멍청히도.

그 멍청이도 그리 갖고 살어.

13. 소강철 영감도 저 죽을 날은 모르더라

그 영감이 천지를 다 아는 영감이여. 근디 그 동네가 소금장사가 있는 디, 아들 하나 데리고 살면서 아들을 소금장사를 시키는디, 아들이 소금장사를 가서 안와. 해가 가도 안와. 저물어도 근게로 왔어, 인자. 소강절 영감보고 물어볼라고.

그 나간 아버지가 왔어. 나간 저그 어매가, 소강절 영감이 아랫채가 있는게. 그 소강절 영감한테 물어보러 왔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금 팔러 갔는디, 어찌 안오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러 가닌게 이 이 늙은 영감이 그 늙은이하고 서모가 있든가. 그전의,

“당신네 아들 벌써 호랭이 물려갔소.”

그러네,

호랭이 물려 갔은게 찾도 말라고 그러. 그 소리를 들은게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디 얼마나 놀랬겠소. 그 영감이 천지를 다 아는 지도 아는디 그런게 다 죽어 갖고 나가. 메뉴리가 부엌에서 칼을 씻다 보닌게 다 죽어 갖고 나가.

근게 칼 씻다가 놓아 두고는 늙은이 쫓아 나갔어. 메뉴리가 쫓아나가 가서는,

“당신은 어찌 우리 할아버지한테 왔다가 어찌 그렇게 다 죽어 갖고 나가시오?”

“아이고, 소강절 영감이 천지를 다 아는 영감인디. 아들이 소금장사 하러 가서 안 온 게라오. 그리서 쪼께 와서 물어본게, 벌써 호식 물려 갔다고 그러네요.”

그런게로,

“그러냐고, 걱정 말고 나 시키는 대로 하시오.”

메뉴리가 그랬어.

그리서 아직 호랭이 물려 가기는 가졌는디 그 집 메뉴리여.

“물려가기는 갔는디 아직 물려가기는 안했오. 나 시키는 대로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머리 외욕(목욕)을 싹 하고 옷을 싹 갈아 입고 물을 말강물을 한 동오(동이)히 갖고 지붕 말랭이 올라가서 방문 바로 용마람이 다 올라 놓고, 이렇게 용마람에 올라 놓고는, 술있을 한 주먹 뜯어 갖고 와서는 그 놈을 동서남북으로 다 뿌리면서, 우리 아들 살려 둘라고 그 소리만 험서 뿌리고, 나면 물 저 꼭대기만치 내리가면은 인자 집이 아들이 올 것ियो.”

그럼서 아이고, 소강절 영감이나 아는디, 저 메뉴리가 어찌 저렇게 알으까 허고는 메뉴리 허라는 대로 가서 했어요. 메뉴리 허라는 대로 가서 험게로, 물을 떠 갖고 올라가서 참, 술을, 술가지를 잎사귀를 한 주먹 뜯어 갖고 가 물을 사방으로 뿌리면서 다 밤새도록 뿌린게로, 문살이 번허게 뜸서 아들이 들어와,

“어머니, 거그서 뭇 하시오?”

“아이고, 여그서 나 볼 일 쪼께 본다.”

험게 물이 꼭대기만치 내리 갔더라오. 그리서는 내려와서는,

“아이고, 니가 어찌서 인자사(이제야)오냐? 네가 하도 안 와서 그런다.”

허고서는,

“앗다, 어찌서 생기서 못 오게 생기서 못 왔네요.”

그리서 살았는디 아, 소강절 영감이 저 놈의 호식이 가서 죽게 생겼는디 살아왔어.

그 생각험게 메눌(며느리) 년이 일러 주었어. 근게 아들을 불러서 오라고. 근게 아들이 간게로,

“각시를, 니 지갑을 가서 작두로 니가 모가지를 애틀라.”

험게, 영을 못 내린게 씨리야여. 영을 못 내린게 영락 없이. 그리서 작두를 득득 갈은 게, 그 각시가 생각할 적의 죽이게 생겼어. 글로. 그런게 막 도망가 봄인다. 요 땀디 막 도망가. 도망간게 쫓아와 막 붙잡으로, 막 물고 잡으러 오닌게 못자리를 그전에 시골에서는 못자릴 허. 못자리를 허고, 밥 내다 먹고 막 그랬는데, 바작을 허는디, 쥼히게 생겼는디, 아, 이 놈의 각시가 물을 한 그릇 달랑 떠갖고, 바작을 얹어놓더니, 바작 우그다

물을 올려놓고는 바작 속으로 축 들어 가버려. 축 들어간게로 저그서 본 때는 신랑이 없어 본게 물어, 둠병이여. 바작 얹어놓은 것은 안 보이고, 둠병이가 있어서 빠져 죽었어. 빠져 죽은게 저그 아버지헌티로 도로 갔어. 아버지 저 둠병이 하나 있는디 둠병이로 강, 빠져죽어 버렸다고.

“야! 이놈의 자식아 그게 둠병이 아니고 바작인게로 가서 발로 차 버리라.”
고 했어.

발로 가서 푹 차 봐라 헌게로 저그 아버지가 허자는 대로 또 와야지.

와서 둠 찬 게 바작이 벌떡 나자빠진게 그 속에서 사람이 나와. 물이 어 크러져 버린게, ‘아 이저 큰일났어.’ 그리서는 저그서 그리저리하다 막 도망 간게로 저그서 염소 아홉 마리를 데꼬 뜯기러 나와, 사람 하나가 그런게 또 잡을라고.

신랑이, 막 물은 게, 맴생이(염소) 헤치고 그 사이로 들어가더니 이 놈의 각시가 없어져 버렸어. 아, 집으로 또 왔어. 찾을 애라 찾던 못하고 헌게 집으로 도로 왔어. 또 와 갖고,

“맴생이 속으로 산 넘어 아무개가 맴생이를 뜯기러 나오는데, 맴생이 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

고 그런게로, 이런 칼을 내줘.

“이 칼을 갖고 가서 전부 맴생이를 배를 쳐라. 배를 치면 나온다.”

근게. 그 칼을 갖고와. 쫓아와. 근게 각시가 벌써 생각할 때 맴생이만 다 죽게 생겼어. 그런게 나와서는. 딱 붙잡고는, 여그서 안 죽을란게 집이 가서 죽자고 인자 신랑을 데리꼬 왔어.

“나 허라는 대로만 할라냐?”

고 신랑더러 물어 본게로,

“그럴란다”

고 했어.

“집이 가서 내가 죽을란게 여그서 죽지 말고 가자.”

고 각시를 데리꼬 와 갖고는 장봐기를 싹 다 해서 오라고 했어.



내가 죽을란게 방으서 근게 널로 사오고 전부 장보기를 히 왔어. 널 히 널라고. 근게 널을 사다 방으다 히왔는디 무언가를 글씨를 써 왔는디, 모서리에다 딱 붙여 놓았건만 아무도지. 근게로 소강절 영감 죽으라는 글씨를 널에다 붙여 놓았어. 아 소강절영감이 별떡 떨어져서 죽어버렸네. 천지를 다 아는 놈의 영감이 그리서,

“소강절영감이 저 죽을 날도 모르더라.”

그리서 이런 것 다 없이라 그리서 없어진 것이라. 그런 게로 그 널이 다가 그 장보기 히온 놈으다가, 다 시아바니 다 치상했어. 치상을 헌게 다 소문이 나버렸어.

인자 메누리가 이려고 저려고 히서 메누리가 죽었다 소문이 나 버린게로 인자, 지서서 델로 왔어. 지서서 막 델로 온게로. 델로 와 갖고는 잡아갔어. 그 여자를 잡아간게로,

“날 잡아가는 것은 안 절통헌디, 이 만백성이 다 절통허다.”

고 근게,

“어찌서 그러냐?”

고 순경들이 물어 본게로,

“아무 날, 아무 시에는 인지 물난리가 나서 다 죽고, 또 그 물난리가 난 뒤에는, 또 아무 날 아무 시에는 불난리가 나서 사람이 다 죽고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고 했어. 그리고 갖다 가두었어.

그 날짜만 지달르고 참말로 그러는가 볼라고 그랬드니 꼭 그 날짜에 강 꼭 물난리가 나는데 물이 강 밀고와. 한쪽에서 물이 밀고 오는디 다 죽게 생겼어. 그리서 그 이를 얼른 내려왔어. 물이 사르르 없어져버려. 아, 그 리도 못허구나 또 가뒀어.

인자 불난리가 난다고 그 때까지 기다려 본다고 또 가뒀어버렸어. 근게 그 날짜에 또 강 불난리가 나서, 막 한 쪽으서부터 썰어와. 그런게 얼른 그를 내놔버렸어. 근게 그 칼을 갖고 열 십자를 친 게, 불이 딱 꺼져버려,

그리서 소강절 영감으로 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생겨났다고, 그리서 내놓으라고 히서 나와서 잘 살었지 뭐.

근게 그 소강절영감보다 더 용혀. 근게 소강절영감이 저 죽을지 모르더라. 그래서 이서 녀의 사물 떠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옛날에는 모두 사물 떨어져 살었거든. 그랬는디 소강절 영감처럼 천지를 아는 이도 죽을 날 모르고 죽는디, 저런 것 사물 떨어져 뒀허냐 그리서 사물이 없어졌다오. 옛날에는 모두 사물 떨어져 살았지.

“아버님, 조금도 그런 내색내지 마세요. 아 우린 낳으면 자식 아입니까? 시방 처음으로 난건데 뭘 그걸, 아버님 그걸 근심을 하십니까? 아예 그런 근심 마세요.”

원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놈이 없거든. 아, 그래 이제 며칠 있다, “야, 나 인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님 가시기는 뭘 가셔요. 아버님 혼잔데 아버님 있으면 뭐 우리가 조식 대접할 게 없습니까? 가시지 말구서 우리집에 아주 묵어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장사지내 드릴테니 염려마세요.”

“아니야, 내가 집에 갔다 오마.”

그래 그냥 집에 왔단 말야. 그리구 딸을 불렀어. 전부 서이를 불러서, “내가 온 거는 다름이 아니야. 너들 모두 물건을 주지 않았니, 줬지?” “예!”

“그 물건 가져오너라. 내가 도장을 모두 찍어줘야 이거 느이 앞으로 여매도 증명을 남키게 됐어. 냉큼 모두 가져오너라.”

전부 셋이 다 가져왔단 말야.

보파리에 싹 집어 넣었어. 싹 가지고서는 그저 간다 온다 소리 없이 내뻘지. 그 아들네 집에 왔어유. 그 물건을 전해줬단 말야.

“너 이거면 평생을 일 안하구 먹구 살아.”

그러니께. 아 깜짝 놀래거던.

“아버님, 이렇게 해선 안됩니다.”

“안될 게 없다. 내 말이면 고만이야!”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저의 누나를 불렀어. 불러 가지고설라므네 그 물건을 삼분타를 또 했어. 사분타를 했어요. 그 아들이 저의 아버지인 안 된다는 거야. 전부 뺏어 가지고설르므네.

“아버님 이렇게 해선 안됩니다.”

14. 씨종보다 못한 세 딸

옛날에 관장 하나가 딸을 삼 형제 두었어. 이제 고을 임금도 댕기고 그리는 사람이어. 아, 그래 이저 말년이 되었으니게 딸 셋을 부르고, 불러서 그 땅문서, 옛날에는 문서면 고만이니께, 땅문서를 세 딸에다 똑같이 나눠줬어. 나눠 주구.

“애, 이제 나 오래잖아 죽것으니 이저 가지고 내 한 딸네 집에만 있을 게 아니나 딸 셋이니 한 딸네 집이 가서 녀 달씩 그러면 삼 사 십이 일년 이거든. 그렇게 있도록 헐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니 이 년들이 좋다지.

그래. 인저 대대로 내려오는 씨종이 있어. 옛날 종은 상전 죽을 적에 상주노릇을 했대요. 우리는 못 봤지만, 그래 인저, 종이니까 좀 나머지 찌꺼기를 좀 줬겠지.

첫 딸 집이 가서 석 달을 살으니까 벌써 눈치가 달려. 둘째 딸 집이 가니가 조끔 달려. 좀 더 나아. 셋째 딸 집이 가니까 아, 석 달이 지냈는데도 괜찮어. 예, 이게 내 자식인가보다. 그래 늙은이가 잠도 안 오고헌데 부엌으로 요런 창문이 하나 있어. 한 날은 밥푸는 소리가 나는데 밥상이 영 안와. 그래 창문틈으로 요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밥을 떠서 소두방을 제쳐놓고 청수 냉수 한 그릇을 떠 놓고 빌어.

“우리 아버지가 그만하면 장수하셨으니 속히 돌아가도록 해 달라.”
고 빌어. 그래 상을 들구서,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하고 들어와,

“이 년! 아버지 그만큼 살았으면 장수했으니 돌아가시도록 해줘? 이 년!”
그냥 밥상을 박차고 그 질로 나왔어. 나왔으니 늙은이가 갈 데가 있어. 그
때 종의 집이를 갔어. 종은 상전의 돈 그냥 저를 그렇게 줬으니까 고맙기가
짝이 없단 말여. 딸년들은 저의 아버지가 준거니께. 나 돌아가면 줄 거니
하지만 이 늙은 거저 얻은 재산이란 말이어. 시종여일여. 첫날 들어간 날이
나 똑같어. 그래 얼마를 지냈던지 지내다가 한 날은 선달 그믐께나 됐는데,
“애!”

저 이제 종이니까 서방님들이지.

“땅이 노나 줄 게 남았는데 이저 마지막 다 노나 줄 테니 그 문서를 가
질 것 가져와야 그걸 보고 할 테니 문서를 다 가져 오라.”

고, 아, 그래 가서 이저 그 딸들보고 그런게,

“응, 아버지 땅이 그저 남았어?”

아, 이 년들이 문서를 몽땅 몽쳐 가지고 갔지. 갔는데 탁 집어 가지고
무르팍에다 놓고, 만팔보고,

“너, 이 년! 네 집에가 한 달 있으니까 달려. 네 집에 가 두 달 있으니까
달려, 막내딸 너는 석 달이 넘어가는 데도 괜찮어서 이거, 내 자식이다 했
더니 밥 떠놓고 빌어, 죽게 해 달라고, 너희가 무슨 내 자식이나? 이것이
내 자식이다.”

그저 오직 안다면 말을 소지를 해서 태워 가지구 구경을 들고 이렇게
돌아 댕겨. 그래도 조금 내색이 없고 그렇게 잘해.

“이게 내 자식이어. 너희는 가거라.”

아, 이 년들 꿈쩍 못하지. 옛날 문서 뺏겼으나 고만이지. 시방 등기가
있지만.

“애, 인저 구경이나 댕기자.”

그래 인저, 종이 나귀를 몰고 이에 구경을 다니드래!



참 고 문 헌

- 권희철, 《우리의 민화(1)》, 한국자유교육협회, 1973.
- 김동욱 · 황패강, 《한국고소설입문》, 개문사, 1985.
- 김선평, 《한국구비문학대계》(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김선평, 《한국구비문학대계》(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김선평, 《조선족구비문학총서》(3), 민속원, 1991.
- 김선평 외, 《민속문학이란 무엇인가》, 집문당, 1993.
- 김선평 외, 《속담이야기》, 국학자료원 1993.
- 김선평 외, 《구전문학개설》, 국학자료원, 1997.
- 김희상, 《조선사화》, 단민출판사, 1946.
- 박연암, 《열하일기(하)》(리상호 역), 국립출판사, 1957.
- 박영준, 《한국의 전설》,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 윤태영, 《이조오백년 기담염담》, 지성사, 1959.
- 이가원, 《골계잡록》, 민중서관, 1977.
- 이월영 · 자귀선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 이응백, 김원정, 김선평,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4.
- 이재곤, 《서울의 민간신앙》, 백산출판사, 1996.
- 이재곤, 《서울의 전래동명》, 백산출판사, 1994.
- 이재곤, 《서울 남산의 역사와 문화》, 중구문화원, 1998.
- 스티스 톰슨 (윤승준 · 최광식 공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 임경일, 《요절일화집》, 야담사, 1904.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경기도편), 평민사, 1989.
- 조희웅, 《설화학요강》, 새문사, 1987.
- 최상수, 《조선지명전설집》, 연학사, 1947.
- 최창선, 《이야기 주머니》, 신문관, 1914.
- 허봉, 《해동야언》(이민수 역), 대양서적, 1972.



- 서울특별시, 《동명연혁고》Ⅱ (중구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2.
- 서울특별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 서울특별시, 《향토서울》 제1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7.
- 월간야담사, 《월간야담》, 통권 15호, 1935.
- 월간야담사, 《월간야담》, 통권 20호, 1937.
- 월간야담사, 《월간야담》, 통권 38호, 1938.
- 월간야담사, 《월간야담》, 통권 40호, 1939.
- 월간야담사, 《월간야담》, 통권 43호, 1939.
- 월간야담사, 《월간야담》, 통권 45호, 1939.
- 중구문화원, 《중구문화》, 창간호, 1997.
- 중구문화원, 《중구문화》, 제 3호, 1999.
- 중구문화원, 《중구문화》, 제 4호, 2000.
- 중구문화원, 《중구문화》, 제 5호, 2001.
- 중구문화원, 《중구사회》(박경룡), 1997.
- 중앙대 한국민속학연구소, 《중앙민속학》, 제7집, 1995.





구전설화

소공동

1. 귀신을 중요시하는 사연 46
2. 점쟁이 자손 중에 점쟁이가 나오는 이유 48
3. 곳을 잘해야 하는 이유 49
4. 달님 별님 이야기 50
5. 구렁이 신랑 53
6. 사냥꾼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기장수 54
7. 서울 아차산 용마봉(龍馬峰) 55

회현동

1. 동삼(動參) 이야기 58
2. 도깨비불 58
3. 관대봉과 치마바위/도선국사 이야기 59
4. 정감록 '밥박골이 뜨면 개화된다' 59
5. 효자와 호랑이 59
6. 실수한 저승사자 60
7. 뱀 부적으로 뱀을 퇴치하다 60
8. 북바위 이야기 61
9. 저승 갔다 온 이야기 62
10. 새댁방귀가 무슨 죄람 65
11. 도깨비집을 발견해 부자된 김길식과 이창식 66



명동

1. 정직한 선비 70

필동

1. 형제간의 우애 74
 2. 말조심 74
 3. 놀아난 김진사 며느리를 참수한 박문수 75
 4. 무제 78
 5. 서할범은 개도 안 좇어 간다 80
 6. 의좋은 형제 80
 7. 무학대사 이야기① 81
 8. 무학대사 이야기② 82

중립동

1. 접동새가 밤에 슬피 우는 사연 84
 2. 착한 도깨비 86
 3. 호랑이 잡은 개 87
 4. 칠든 게으름뱅이 87
 5. 과거에 낙방할 뻔 한 시골선비 89
 6. 은혜 갚은 까치 90
 7. 세상에서 가장 짝 구두쇠 꿈쟁이 부부 91
 8. 만리동의 지명 유래① 92
 9. 초학 낫는 방법 92
 10. 삼신할머니의 뜻 93
 11. 효부 이야기 93
 12. 욕심 부리다가 비석이 된 소금장수 95
 13. 만리동의 지명 유래② 97

14. 호환을 면하게 해준 꼬마둥이	97
15. 구렁이 마누라를 얻은 천석꾼 아들	101
16. 밤길을 걸을 때 담배를 피우는 이유	106
17. 새알 귀신 쫓는 법	107
18. 호적 적 자의 뜻은 '21일 대밭으로 오너라'	107
19. 동상례의 날승 자 풀이	108
20. 전라도 구림의 지명 유래	108
21. 중국의 인도깨비 이야기	109
22. 명당 자리 이야기	109
23. 수수대가 빨간 이유	110
24. 사람이 죽으면 보인다는 여자, 남자 도깨비불	112
25. 도깨비의 실체	114

을지로 3·4·5 가동

1. 구미호에 홀린 아이	117
2. 사이 좋은 삼 형제	118
3. 나쁜 할머니	119

광희동

1. 바보총각 장가들기	122
2. 묘자리 잡기	123
3. 현명한 막내딸	124
4. 하루 밤에 만리장성 쌓은 이야기 유래	126
5. 거시기 좋아하다 죽게 된 과부덕	127
6. 현명한 부잣집 아들	129
7. 현명한 남편	130



장충동

1. 은혜 깊은 호랑이 134
2. 안동 제비연 미륵이 된 김부자 134
3. 김정승, 이정승 135
4. 도깨비 한테 얻은 돈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137
5. 일제 시대 파평 윤씨 여흥강 전설 139

신당동

〈신당 1동〉

1. 귀신 이야기 141
2. 돼지보다 약한 놈이 호랑이더라 144
3. 개는 오래 먹이지 말아라 144
4. 말승냥이의 보복 145
5. 여우 이야기 145
6. 교만한 조진사 145
7. 현풍 광씨 이야기 148

〈신당 2동〉

1. 도깨비 본 이야기 151
2. 늑대 꼬리 이야기 151

〈신당 3동〉

1. 양반과 상놈의 차이 151
2. 용감한 아들 154
3. 용문사의 은행나무 156
4. 유성룡 삼촌 유아치의 지략 157

〈신당 6동〉



1. 산삼 이야기	161
2. 잉어 이야기	162
3. 도깨비 이야기	162
4. 아무나 못가는 신씨 고린장터	163
5. 귀신들린 여자	164
6. 어머니 눈을 뜨게 한 효부	164
7. 사람으로 변신하지 못한 구미호	165
8. 호랑이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	165

황학동

1. 현명한 아들	167
2. 명당 잡아준 이야기	168
3. 봉이 김선달 이야기	169
4. 아버님 밑구녕으로 잡수세요	170
5.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	170
6. 제 피에 넘어간 빛나간 원님	170
7. 한 번 엮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173
8. 서울 이름 풀이 가사	175

문헌설화

1) 지명전설

1. 한양(漢陽) 도읍	179
2. 남산이 될뻔한 인왕산(仁旺山)	180
3. 이성계의 꿈	180
4. 관우묘(關羽墓)를 모셨다	182
5. 아차고개에서 죽은 홍계관(洪繼寬)	183

6. 다옥동(茶屋洞)의 팔뚝집에 얹힌 사연	185
7. 수구문(水口門)의 검객(劍客)	192
8. 왕십리(往十里)와 무학도사(無學道士)	200
9. 서울과 왕십리	203
10. 회현동의 은행나무①	204
11. 회현동의 은행나무②	208
12. 국사당의 유래	208
13. 선바위의 유래	210
14. 고운단골(美洞)/통역관 홍순언의 미담이 깃든 을지로 1가①	211
15. 보은단골의 유래②	214
16. 부영바위전설 - 암지네와 사랑을 나눈 한은석	217
17. 약식(藥食) - 중림동 약현에서 만든 찰쌀밥	222
18. 바뀐 신랑 - 수표교 담교놀이 때 술에 취한 이안눌	223
19. 무학대사가 지은 궁궐	226
20. 무악재 유래	227
21. 버티고개 유래	228
22. 남소문(南小門)과 버티고개 유래담	228
23. 영미교(永尾橋)의 유래	229
24. 약주(藥酒)의 유래	230

2) 이인 · 고승 전설

1. 양녕대군(讓寧大君)	231
2. 양녕대군의 호색	232
3. 양녕과 세조의 농담	234
4. “저 남산에 가서 돌 깨는 정(釘) 남은 것 없네” / 참요	236
5. 일시일호(一匙一呼) 싱거운 계장을	237
6. 창명제곤(創名濟困) / 병역면제(兵役免除)의 길	237



7. 숙종대왕, 야순을 다닌 이야기	239
8. 과거 급제운	240
9. 백사의 해학	242
10. 이양소(李陽昭)의 충절	244
11. 권진사가 본 무릉도원의 목멱어(木覓魚)	246
12. 평양 기생의 식감	251
13. 이일제의 용력(勇力)	255
14. 김가(金家)와 채가(蔡家)의 결친(結親)	256
15. 정수동 설화(鄭壽銅 說話)	274
16. 정수동의 공짜 오입	275
17. 광곽 선생과 이순풍	277
18. 허생전	280
19. 고가(古家)의 귀신(鬼神)	293
20. 남산방분시(南山放糞詩)로 옥사(獄死)한 심사순(沈思順)	297
21. 뱀어의 밥 윤원형(尹元衡)	298
22. 악원관(樂院官) 임흥(任興)의 신선(神仙) 놀이	300
23. 이지번(李之繁)의 비행(飛行)	300
24. 정이오(鄭以吾)	302
25. 남산 아래 청학도인(靑鶴道人)이라 불린 문학정승 이행(李荇)	307
26. 마제은(馬蹄銀)의 주인	312
27. 술정의 전설	314
28. 광교(廣橋)의 인연	317
29. 고승 무학대사	321
30. 이성계와 무학대사	323
31. 우목낭상의 내력 알아 명성 날린 성삼문	324
32. 청렴한 황정승	328
33. 김치의 신이한 행적	331

34. 남산호복인거황(南山虎伏人去黃)	337
35. 독역(讀易)과 치산(治産)	338
36. 이조 태조의 이상한 이야기	340
37. 포장(捕將)의 명판결	344
38. 빈군수득전법(貧郡守得錢法)	347
39. 우직(愚直)의 출세	352
40. 12분 정승을 낳은 손공수	374
41. 암운(暗雲)의 송경(松京)	377
42. 월하가연(月下佳緣)	397

3) 효자 · 열녀전설

1. 수구문 감천(甘泉)과 개성 주천교(酒泉橋)	419
----------------------------------	-----

민담 · 기담

1. 병신 눈짓에 잘못 따라 나선 춘외춘	420
2. 같기도 같지—모두가 일반	420
3. 백정 신분을 극복시킨 지혜	421
4. 오입과 강탈의 재판	426
5. 감 내기와 귀 붙이기	428
6. 쥐 유래	429
7. 여덟 살 먹은 놈의 의견	431
8. 산 소로 제사 지낸 방학중	436
9. 하루를 못 채워서 천하문장이 못된 사람	437
10. 수수께끼 풀어 결혼한 도령	440
11. 천 냥짜리 배를 사서 결혼한 사람	441

12. 미룩이에게 복을 준 여우털	442
13. 소강절 영감도 저 죽을 날은 모르더라	445
14. 씨종보다 못한 세 딸	451



김선평(金善豊)

◇ 학력

공주사범대학 국문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박사)

◇ 경력

현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현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소장
현 국제아세아민속학회 명예회장
현 감사원 화경문화 자문위원
전 한국민속학회 회장
전 한국민요학회 회장
전 우리문화회 회장

◇ 저서

《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남해안별신굿》, 《시조가집 시여 연구》, 《한국구비문학대계》(강릉시편), 《한국구비문학대계》(양양군편)(공), 《한국구비문학대계》(속초시편)(공), 《한국구비문학대계》(영월군편), 《한국민속학의 이해》(공), 《속담 이야기》(공), 《전설 속에 피어난 꽃 이야기》(공), 《민속문화이란 무엇인가》(공), 《강릉단오제 연구》(공), 《한국육담의 세계관》(공), 《생산민속》(공), 《열두 띠 이야기》(공), 《강의실 밖에서 배우는 민속학》(공), 《민속놀이와 민중의식》(공), 《조선족의 민속문학》(공), 《민속론》(공), 《한국의 민속사상》(공), 《몽골민속》(공),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공), 《우리민속현장답사기》(공), 《아시아인의 축제와 삶》(공), 《우리 민속문학의 이해》(공), 《한국민간문학개설》(공) 외 논문 다수.

중구의 구전설화

중구향토사 관계 자료 제 6집

발행처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 김 영 남

집 필 : 김 선 풍

발행일 : 2001년 12월 30일

제 작 : 상 원 사

© 중구문화원. 2001

비매품

100-220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 B/D 1층

전화 : (02) 775-3001 전 송 : (02) 775-3068

E-mail : cc100@junggu.seoul.kr

이 책은 국비와 중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서울의 중심, 문화의 중심

中區文化院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전화 : (02) 775-3001

(02) 2260-1820

FAX : (02) 775-3068

홈페이지 : www.jungguco.or.kr